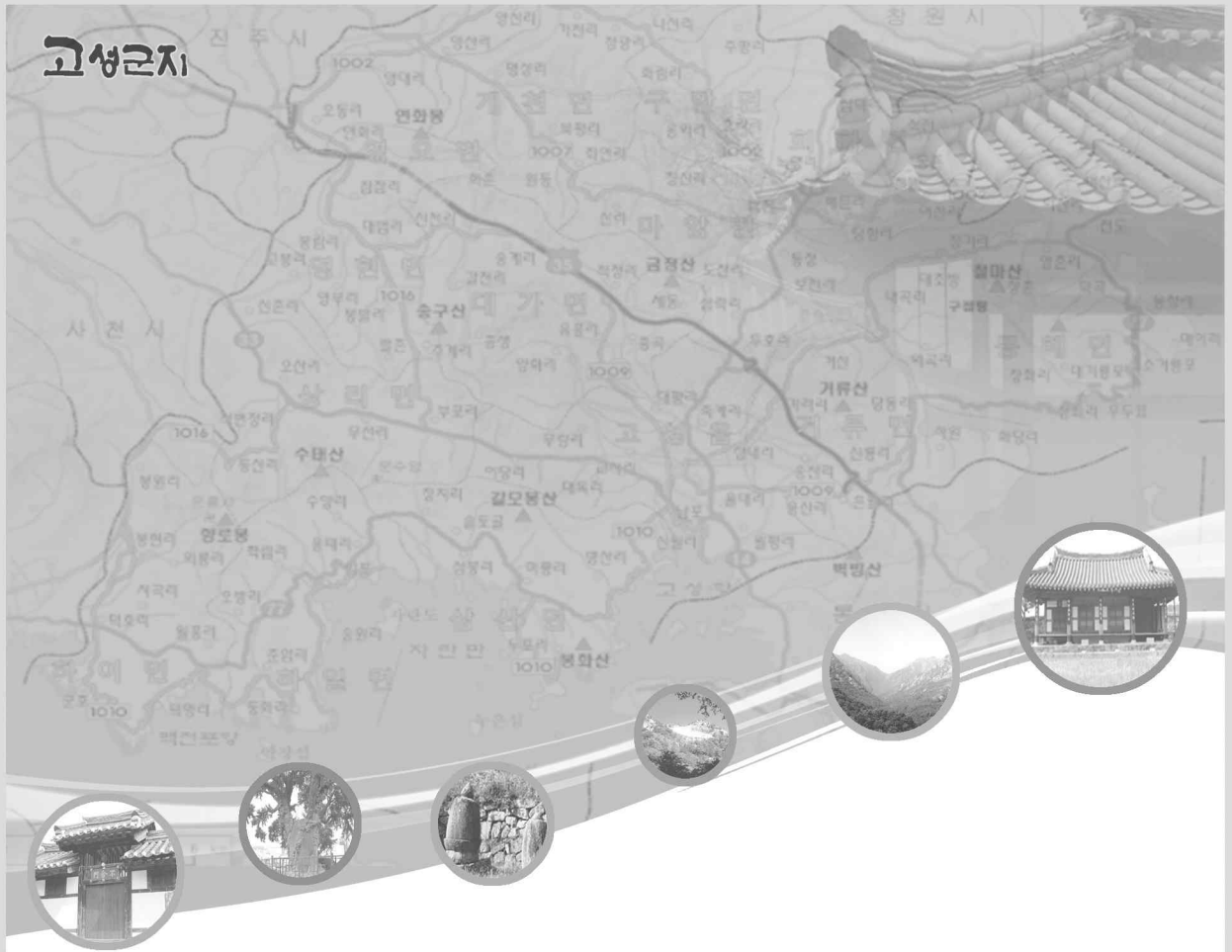


# 고성군지



## 제 15편 고성의 마을사





## 제 15편 마을사

### 제 1장 고성 의 마을 과 지명 유래

#### I 개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전개된 촌락 문화가 무너지고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이는 비단 고성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된 현실이기도 하다. 전통 촌락의 해체는 종족마을 공동체의 쇠퇴와 소멸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의 규범 속에서 다른 형식으로 변화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전통과 현대의 교차라고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의 특징은 마을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의해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요소 들이란 마을의 지명유래, 입지조건, 마을의 형성과 변화과정, 거주 성씨, 민속, 유·무형 의 자산 등이다. 이런 요소들은 역사적 기록이나, 유물, 구전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한 요소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 우선되는 것은 지명유래이다. 이는 땅의 일부에 대해 언어학적 기호인 문자를 이용하여 표현한 지리학적 언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장소를 다른 곳과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지리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에 무엇보다 마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양한 환경을 단순화시켜 지리적 인식의 고정된 핵을 형성하기 위해 명명된 지명은 소통의 도구로서 생명력을 갖기도 하며 동시에 장소는 지명이 명명됨으로써 존재가 인정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지명은 공동의 기억과 상징을 통해 인간에게 각인되며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언어로 존재하기 위해, 지명 형태에는 지역 집단의 문화 형태가 반영되는 것이다. 지명 속에는 생성 당시 명명 대상이 된 장소의 지리적 환경 특성과 함께 명명 집단의 자연관과 언어 형태가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지명은 자연환경과 문화가 접합된 복합체로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객관적이라는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기록, 유물, 지도 등과 같은 역사적인 자료만을 중시하여 구전되는 지명설화나 전설, 민담 등이 홀대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마을의 형성과 변화과정이다. 이는 마을의 혈연과 지연의 문제와도 관련을 지닌다. 마을공동체는 일정한 연대 속에서 모두살이를

이루는데, 동성마을이 혈연에 입각한 연대를 한다면, 각성마을은 지연에 입각한 연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마을사에서 마을의 성씨를 기술해야 할 당위가 있다. 성씨별 구성에 따라 혈연원리와 지연원리가 상대적 관계 속에서 공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사회조직으로서 농촌마을, 종족마을, 그리고 지역사회가 도시화, 사회변화, 현대화라는 시간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기재생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마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세 번째 요소는 마을 형성의 입지 조건이다. 이는 지리적인 면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최초에 마을이 형성될 때 어떠한 조건과 과정, 환경 등을 고려하였는지 다시 말해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의 자연조건과 인문조건에 따라 마을의 성격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지세나 지질, 지형, 경관 등과 같은 자연조건은 물론 사회·경제·행정과 같은 인문조건에 따라 마을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을의 특징을 이해하는 네 번째는 요소는 마을이 지닌 유·무형의 문화유산이다. 여기에는 마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형의 자산은 물론 설화, 민속과 같은 무형의 자산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산들은 마을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다. 다시 말해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역사적인 유물들을 통해 전대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설화나 민속을 통해서 그 마을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성의 마을과 지명유래를 기술함에 있어서 현재 사용되는 지명은 물론 잊혀진 지명역시 찾아 수록하였다. 마을의 유래는 과거의 지명과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지도와 지리지 등 역사적 사료는 물론이고 지명유래를 담고 있는 구전 설화나 지명 어원, 연혁 등의 내용도 적극 수용하여 기록하였다. 행정지명은 읍·면·동의 고성군관내 전 지명을 수록하였으며 행정구역별 수록 항목 수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맞춤법이나 문법, 어법 등에 어긋난 문장들은 윤문작업을 거쳤음도 아울러 밝힌다. 고성외 마을과 지명유래편의 자료들은 『고성향토지명사』<sup>1)</sup>, 『한국지명유래집』<sup>2)</sup>, 『한글지명총람』<sup>3)</sup>, 『일제 때 빼앗긴 우리지명 모음집』<sup>4)</sup>, 『소가야의 뿌리』<sup>5)</sup>, 『고성군지』<sup>6)</sup> 등에서 원용하였다.

1) 고성문화원, 『고성향토지명사』, 1997

2)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2011

3) 한글학회, 『한글지명 총람』(경남편 I), 1979

4) 경상남도, 『일제 때 빼앗긴 우리지명 모음집』, 1995

5) 고성군, 『소가야의 뿌리』, 1983

6) 고성군, 『고성군지』, 1995

## II 고성의 마을과 지명유래

### 제 1절 고성읍(固城邑 Goseong-eup)

군의 남동부에 있는 읍이다. 동쪽은 거류면, 서쪽은 삼산면과 상리면, 북쪽은 대가면 그리고 남쪽으로 통영시 광도면과 접한다. 읍의 서부지역은 대곡산에서 철마산, 무량산으로 이어지는 산지가 분포하고 남쪽으로는 고성만에 면한다.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고성천, 암전천과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용산천이 읍 가운데에서 합류하여 북동쪽 당항만으로 이어진다. 이들 하천 주변에 구획정리가 이루어진 농경지가 넓게 분포한다.

『호구총수』에서 동리를 살펴볼 때, 동읍면(東邑面)과 서읍면(西邑面)·가동면(可洞面)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신구대조』에 따르면 1914년 서읍면과 동읍면을 합쳐 철성면(鐵城面)으로 개편하였는데, 철성은 고성의 다른 이름이다. 1918년 군소재지이므로 이를 따서 고성면으로 개칭하였고, 1938년 읍으로 승격하였다.

현재 17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성내리(城內里)·서외리(西外里)·동외리(東外里)·수남리(水南里)는 예전 고성 읍성과의 위치 관계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읍성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석성이며 둘레가 285보이다.” 라고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석축이며 둘레는 3,524척이고, 높이는 15척이다. 성안에 우물 넷과 못 하나가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를 살펴보면, 읍성 내에 아사(衙舍), 객사(客舍)가 표시 되어있다. 『여지도서』에는 “읍성남문누각은 안청루(晏靑樓), 동문 누각은 진동루(鎭東樓)이며, 향교와 사직단이 관아 서쪽 5리에 있다.” 고 하였다.

한편 여러 지리지와 고지도에는 읍성 북쪽의 무기산(舞妓山)과 무기정(舞妓亭) 그리고 남쪽의 죽도(竹島)와 낙열정(樂悅亭)을 빠트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무기산은 예전에 고주자사(固州刺史)가 기생을 데리고 여기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다는 것에서, 죽도는 대나무가 많은 섬이라 하여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죽도에 있던 낙열정은 『여지도서』에 이미 정자는 허물어졌다고 수록하였으며, 이후 죽도도 간척되어 현재는 해안에 작은 돌산으로 남아 있다.

#### 1. 성내리(城內里)

성내리란 성(城)안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유래하였다. 성에는 세 개의 출입문이 있어, 그 위치에 따라 동문, 서문, 남문이라 불렀는데 여기서 비롯된 마을 이름이 각각 동내

(東內), 서내(西內), 남내(南內) 마을이다. 성내리는 조선시대까지 고성군 동읍면(東邑面)의 지역이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동내동, 남내동, 남외동 일부와 서읍면(西邑面)의 서내동(西內洞)을 합병하여 성내리라 하고 철성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철성면이 고성면으로 바뀌고 고성면이 고성읍으로 승격되었지만 성내리란 마을이름은 변하지 않았다.

산업화 이전에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70년 이후부터 지역적 특성에 맞춰 상업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므로 이곳의 토착민이 어떤 성씨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세 이후 이곳에 터를 잡은 사람들은 은진송씨, 김해김씨, 김해허씨 등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은 고성평야의 남서쪽에 위치하여 고성읍 서외, 수남, 동외리에 둘러싸여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김해허씨, 진양정씨, 남평문씨, 보성선씨, 은진송씨, 문화류씨, 진양강씨, 창원황씨, 성주도씨 등인데 현재는 완전 도시화된 관계로 이 외에도 다양한 성씨가 주민을 형성하고 있다. 사적으로는 고성성지와 어시정(漁市井), 은성정(隱城井), 안청루(晏淸樓) 등이 남아 있다.

### 1) 마을

- ◎ 남내(南內) : 성내리 남쪽에 있는 마을
- ◎ 동내(東內) : 성내리 동쪽에 있는 마을
- ◎ 서내(西內) : 성내리 서쪽에 있는 마을

### 2) 골짜기

- ◎ 옥골 : 성내리 서내부락으로 감옥이 있었다하여 옥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함

## 2. 서외리(西外里)

본래 고성군 서읍면의 지역으로 고성 읍성(邑城) 서문(西門) 밖이므로 서문밖 또는 서문의 줄여서 서외라 하였다. 1914년 송수동을 병합하여 서외리라 해서 철성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68년에 공설시장이 마을의 동편으로 이전되면서 주민수의 증가로 1972년 서외 1마을과 서외 2마을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외1리는 아주 오래전에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주민의 거주시기는 1850년경부터이다. 이때부터 고성이씨를 시작으로 밀양박씨, 달성배씨, 김해김씨 순으로 입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은 중앙부분이 평지이긴 하지만 융기한 형태로 고성읍 수남리와 교사리, 기월리 쪽으로 지형이 낮아지며 기월리와 맞닿은 곳에 들판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밀양박씨, 전주최씨, 진양정씨, 함안이씨 등이다. 사적으로는 송수정(松樹井)이 있다.

서외2리는 서외1마을과 분동되기 전에는 전주최씨, 능성구씨, 창원황씨, 성주배씨 등 성씨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고성읍 성내리와 맞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송학리(松鶴里)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외1마을과 동외리 동외 마을과도 인접해 있다.

#### 1) 마을

- ◎ 삼평리 : 옷땀
- ◎ 서문밖 : 서외리
- ◎ 섬밖(상평리, 옷땀) : 서문밖 위쪽에 있는 마을
- ◎ 송계동(아래땀, 송수) : 서문밖 아래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당산 : 송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신당이 있었음

#### 3) 들

- ◎ 갯논 : 송수 남쪽에 있는 개펄을 개간해서 만듦
- ◎ 부름들(불암평) : 갯논 남쪽에 있는 들
- ◎ 학달도랑 : 송수 북쪽에 있는 들

#### 4) 등성

- ◎ 당묘등(당모릿등) : 서외리에 있는 등성으로 성황당이 있었음

#### 5) 보

- ◎ 불암평보 : 불암평에 물을 대는 보
- ◎ 학달도랑보 : 학달도랑에 물을 대는 보

### 3. 수남리

수남리는 수외(水外), 남외, 구암, 남포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수외마을은 수문밖에 있었던 마을로 수문밖 혹은 숨밖으로도 불렀는데 한자화 되면서 수외라 하였다. 처음 문화유씨와 김해김씨가 입촌하여 살았다고 하나 고증하기는 어렵다. 마을은 고성평야가 고성만에 닿는 해안 근방이어서 고성읍 성내리, 서외리, 동외리 지역보다 지대가 많이 낮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진양정씨, 진양강씨, 전주이씨 등 다양하다. 사적으로는 웅성(壟城)이 남아 있다.

남외마을은 고성읍성의 남문(南門)밖 즉 남문의 바깥에 위치한 데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바다와 인접해 있어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거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구한말까지는 50호 남짓의 가구가 거주했다고 구전되며, 1904년 남포마을에 제방(일명 철둑)이 축조되면서 주민수가 증가하였다. 현재는 준 도시 형태의 마을로 다양한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은 고성읍 중심지역인 성내리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지대이다.

구암마을은 오래 전부터 읍(邑)앞에 있는 갯마을이라 하여 읍전포(邑前浦) 또는 읍전개라 불렀다. 일제강점기 때 간척사업을 위해 이웃한 남포마을에 제방을 쌓으면서 고성읍 교사리까지 미치던 바닷물이 빠지고 이 일대의 지형이 변하게 되었는데 마을 지형이 거북이 처럼 생겼다 하여 한자어 거북구(龜), 바위암(岩)자를 빌어 동명으로 삼았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약 200여 년 전에 장흥고씨가 마을에 정착하면서 부터로 구전되고 있다. 지금은 장흥고씨 외에 의령남씨, 진양강씨, 김해김씨, 경주이씨, 안동김씨, 경주최씨 등 여러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사적으로는 읍전정(邑前井)이 있다. 구암마을에서는 매년 설달 그믐날에 동제를 지내기도 한다.

남포마을은 행정구역상 수남동 구암부락에 속했다가 강점기에 수남리4구였는데 그 후 분동되면서 남쪽 바닷가의 마을이므로 이렇게 불렀다. 제방공사의 토사운반시설인 철로와 제방이 견고하다는 뜻에서 철뚝으로 흔히들 부르고 있다.

마을은 1904년 간척지 제방공사를 하면서 형성되었다. 가장 먼저 입촌한 성씨는 김해김씨, 의령남씨 등이며, 이후 곡부공씨, 김녕김씨, 제주고씨 등 제씨가 입촌하였고 현재는 위 성씨 외에 다양한 성씨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은 남산의 산자락이 해안에 이르면서 야트막한 절벽 아래에 형성되어 있다.

### 1) 마을

- ◎ 구암(龜岩)(읍전포, 읍전개) : 숨밖 남쪽에 있는 마을
- ◎ 남문밖, 남밖, 남외 : 수남리에서 가장 큰 마을
- ◎ 남포(南浦, 철뚝마을) : 남밖 남쪽에 있는 마을



◎ 대섬(죽도) : 남밖 남쪽에 있는 마을

◎ 수문밖(숨밖, 수외) : 남밖 동남쪽에 있는 마을

2) 산

◎ 남산(南山) : 남밖에 있는 산

3) 들과 논

◎ 염밭(염전) : 남밖 서쪽에 있는 논

4) 바위

◎ 구녕바구 : 구암 남쪽 바닷가에 있는 바위로 구멍이 나 있음

5) 내

◎ 불암천(佛岩川) : 수남리에 있는 내

6) 골

◎ 너드랑(노당골) : 총대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사두곡(巳頭谷) : 숨밖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임금자락골 : 구암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총대 : 구암 남쪽에 있는 골짜기

7) 고개

◎ 노루목 : 남포 서쪽에 있는 고개로 지형이 노루목처럼 생겼다고 함

◎ 말넘(말령곡) : 숨밖 동남쪽에 있는 고개

8) 소

◎ 동우소 : 불암뜰가에 있는 소 모양이 동우(동이)처럼 생겼음

9) 우물

◎ 사두곡(巳頭谷)새미(찬새미) : 사두골에 있는 샘

10) 기타

- ◎ 불암뜰 : 불암천에 있는 뜰
- ◎ 움전터 : 솜밖 서쪽에 있는 성터
- ◎ 재미뺨덕 : 사두골 동쪽에 있는 번덕
- ◎ 웅성(甕城) : 수남리 수외부락에 흔적이 남아 있는 성터

#### 4. 동외리(東外里)

동외리는 고성군 동읍면의 지역으로 고성읍성 동문 밖이므로 동문밖 또는 동문외, 줄여서 동외라 하였는데 1914년 정동을 병합하여 동외리라 하여 철성면에 편입되었다. 1974년 남산마을이 남산 1동과 2동으로 분동되면서 동외리는 동외마을, 남산 1마을, 남산 2마을, 정동마을로 나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외마을은 마을에 남아있는 당산의 패총으로 미루어 이 지역이 선사시대 주거지의 일부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중엽의 지도에서도 확인된다. 마을은 당산을 동남쪽에 두고 고성읍 성내리, 송학리, 울대리, 동외리 정동마을에 경계가 맞닿는 평지에 형성되었다. 사적으로는 동외리 패총이 있으며 당산과 당산새미, 병막(病幕), 철성정(鐵城亭), 명원재(明原齋) 등이 있다.

남산1마을은 남산의 산자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으로 이전에는 남산2마을과 병칭(並稱)하여 남산부락이라 불렀다. 1974년에 남산 2마을과 분동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마을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직후인 1600년경에 김해김씨가 제일 먼저 이 마을에 터를 잡았고, 1800년에는 경주최씨, 1810년에 고성박씨, 1815년에 전주최씨, 1843년에 밀양박씨가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마을은 고소산의 지맥인 남산의 북쪽 아래에서 성내리 쪽으로 뻗어 있다. 사적으로는 남산공원과 옥천사 말사인 보광사(普光寺)가 있다. 보광사 좌측전방에는 충혼탑과 봉안각, 6.25반공유적비 등이 세워져 있다. 구한말 객사였던 공회당(公會堂)이 있었다.

남산2마을은 약 300여 년 전 나주정씨가 입촌하여 터를 잡으면서부터 형성되었다. 김해김씨와 전주최씨가 차례로 입촌하였으며 나주정씨의 9대손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마을은 남산공원이 있는 남산의 북쪽 산자락을 따라 수남리에 이르기까지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나주정씨, 김해김씨, 전주최씨 등 다양한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남산새미(南山井)와 당산나무가 있으며 이곳에서 당산제를 지낸다.

정동마을은 마을 뒷산인 고소산(高蘇山) 정상(頂上)이 가마솥 모양(形)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동으로 불렸다. 마을은 고소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고소산 동쪽 마을

은 솔골이며, 서쪽으로는 도덕골과 장좌골이 있다. 도덕골은 통영으로 가는 길목의 고개를 예전에는 말티(馬峙)라 불렀는데, 그 안쪽마을이다. 도덕이라는 지명은 옛날 도덕사라는 절이 있어서 그 절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약 600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은 천황산의 용맥(龍脈)이 남으로 이어져 남산을 이루고 그 원맥은 벽발산을 이루고 있다. 마을 앞은 안산, 뒤는 고소산, 동은 구실등, 남은 당산으로 싸여 회룡고조격(回龍高祖格)에 해당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고성박씨, 김씨, 한씨, 최씨, 양씨 등 다양하다. 마을 뒷산인 고소산 남쪽 산록에서 매년 음력 정월초이튿날에 당산제를 지내며, 제단 옆에는 수령이 오래된 포구나무 1그루가 있다. 70년대까지 마을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던 우물이 있으며, 독립지사 놀암 황태익(黃泰益)의 무덤도 있다.

#### 1) 마을

- ◎ 남산밑 : 장좌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남산 밑이 됨
- ◎ 동문밖(동문외, 동외) : 동외리
- ◎ 말티 : 장좌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솔골(정동) : 도덕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솔처럼 생겼다고 함
- ◎ 장좌골 : 말티 동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고소대(고소산) : 장좌골 서북쪽에 있는 산
- ◎ 남산(南山) : 동외리에 있는 산
- ◎ 망재(망티) : 솔골 동쪽에 있는 산

#### 3) 들

- ◎ 넘밤짓들 : 장좌골 앞에 있는 들
- ◎ 도덕골 : 정동 남쪽에 있는 마을

#### 4) 고개

- ◎ 마르티 : 말티에서 도덕골로 넘어 가는 고개

#### 5) 우물

- ◎ 남산새미 : 남산 밑에 있는 샘

## 5. 송학리(松鶴里)

송학리는 본래 고성군 서읍면 지역인데 1914년 무학동 약재방과 동읍면의 송도를 병합하고 송도와 무학의 이름을 따서 송학리라 하여 철성면에 편입되었다. 1969년에는 다시 송학과 무학으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무학마을은 학(鶴)이 춤추는 지세라고 한다. 들(野) 가운데에 있었던 송도에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이곳에 학이 무리지어 날아와 군무를 추곤 하였다는 것이다. 마을이 생긴 연대는 조선말엽까지만 하더라도 솔솔 주위에 가옥이 띄엄띄엄 있었다고 하며 어느 성씨가 맨 처음 이곳에 들어와 살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마을은 북쪽의 똥메산(송학리고분군) 아래 동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전주최씨, 함안이씨 등이 주류를 이루고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기타 여러 성씨도 거주하고 있다. 사적으로는 송학리고분군, 송학리제2고분군이 있으며 무기정 기생 월이의 전설도 전하고 있다.

### 1) 마을

- ◎ 무구정(무학, 무기정) : 무학 무기들이 있던 주막골
- ◎ 송도(松島) : 송학리에 있는 마을
- ◎ 송학(松鶴) : 송학리에서 가장 큰 마을
- ◎ 아룻땀 : 송학 아래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당산 : 북쪽에 있는 산
- ◎ 똥메산(고부, 무기산) : 송학리에 있는 공동묘지

### 3) 들, 논

- ◎ 가오라배미 : 마당배미 북쪽에 있는 논으로 가오리처럼 생긴데서 유래 함
- ◎ 마굿들 : 송도 동쪽에 있는 들
- ◎ 마당배미 : 외배미 위쪽에 있는 논
- ◎ 배내깃들(배랭이들) : 송도 북쪽에 있는 들
- ◎ 솟구깃들 : 송도 북쪽에 있는 들
- ◎ 외배미 : 마굿들 위쪽에 있는 논

## 4) 고개

◎ 송도곡 : 송도에 있는 고개

## 5) 우물

◎ 웃근새미 : 큰새미 위쪽에 있는 샘

◎ 큰새미 : 송도 북쪽에 있는 샘

## 6) 기타

◎ 도른자모당이 : 송도 서쪽에 있는 모퉁이

◎ 배랭이보(배내깃보) : 배랭이들에 물을 대는 보

◎ 송학교(학다리) : 송도 서남쪽에 있는 다리

◎ 이진교(二津橋) : 무학 동북쪽에 있는 다리

◎ 정부멧등 : 송도 북쪽에 있는 등성이

## 6. 기월리(基月里)

기월리는 본래 고성군 서읍면의 지역으로 계화동(桂花洞)이라 부르다가 1914년 신기동과 신월리를 병합하여 기월리라 해서 철성면에 편입되었고, 1979년 기월마을과 신기마을로 나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월마을은 예전에 대가면 유흥리에서 이곳 기월마을까지 십리길이나 송림이 있었다고 하며 그 송림의 끝이라 하여 터기(基)자를 따고, 고성읍 서외리와 기월리의 경계변에 월립지라는 못이 있었다 하여 달월(月)자(字)를 따 기월리(基月里)라 하였다. 마을에는 고성김씨와 문화류씨가 많이 살고 있다. 자연취락지역은 봉림, 중곡, 소진골, 사작골, 잣골, 양진골 등이 있다.

신기마을은 본래 고성군 서읍면 지역으로, 1914년 신기동과 기월리를 병합하여 기월리라 불렀는데, 1979년 다시 기월마을과 분동되어 신기마을이라 명명되었다. 마을은 평지지대로 서북쪽으로는 지방도가 지나고 서쪽으로 우회도로를 따라 고성과 사천간의 국도가 지나며 마을 정면에 송학리고분군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강씨, 김해김씨, 경주김씨, 밀양박씨 외 다수의 성씨가 살아가고 있다.

## 1) 마을

◎ 계동(桂洞) : 잣골, 계화동(桂花洞)이라고도 함. 중곡 남동쪽에 있는 마을

- ◎ 대마도 : 봉림 북동쪽에 있는 마을
- ◎ 봉림(鳳林) : 봉림골이라고도 함. 새태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
- ◎ 사작골 : 옷양산골 동쪽에 있는 마을. 서재가 있었다고 함
- ◎ 새리 : 신월리를 일컬음. 새태 남동쪽에 있는 마을
- ◎ 새태 : 잣골 남동쪽에 있는 마을
- ◎ 새터 : 신기부락을 일컬음
- ◎ 소지이골 : 소징이골. 중곡 남쪽에 있는 마을
- ◎ 신기땀 : 신기마을을 일컬음. 중곡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양산곡(楊山谷) : 양산골을 일컬음. 대마도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왜촌 : 잣골 동쪽에 있는 마을로 왜정 때 일본인들이 살았다고 함
- ◎ 옷양산골 : 양산골 서쪽에 있는 마을
- ◎ 중곡 : 봉림 동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앞똥매 : 잣골 앞에 있는 산
- ◎ 여제산 : 사작골 동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덧들 : 잣골 뒤쪽에 있는 들
- ◎ 머예뻬 : 덧들에 있는 논 지형이 멩에처럼 생긴데서 유래 함
- ◎ 바우배미 : 새릿들에 있는 논
- ◎ 봉림들 : 봉림 앞에 있는 들
- ◎ 새릿들 : 새리에 있는 들
- ◎ 수통배미 : 새릿들에 있는 논. 붓물을 끌어대는 통이 있었다고 함
- ◎ 앞들 : 중곡 앞에 있는 들

## 4) 골

- ◎ 큰당 골 : 봉림 서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중곡 : 양산골에서 중곡으로 넘어가는 고개

## 6) 기타

- ◎ 박석다리 : 사작골 앞에 있는 다리
- ◎ 봉림못 : 봉림 앞에 잇는 못
- ◎ 중국뻘덕 : 중국 위쪽에 잇는 버덩
- ◎ 지와터 : 사작골 북쪽에 잇는 터로 덕성 이씨가 부자로 살면서 기와를 구웠다고 함
- ◎ 큰당골재 : 큰당골에 잇는 고개

## 7. 대독리(大篤里)

대독리는 고려 때 상서면과 상남면으로 분면 되어 상서면에 속하였다. 1942년 윗독실과 중실은 독곡마을이 되고 아래독실과 불암과 만념이 대안마을로 분동되었다. 1971년에는 윗독실과 아래독실과 불암이 독곡마을이 되고, 만념이 대안마을로 단독마을이 되었다. 1983년 삼산면에서 고성읍에 편입되었으며 대독리의 명칭은 대안(大安)의 대(大)자와 독곡(篤谷)의 독(篤)자를 합하여 대독리(大篤里)라 하였다.

대안마을은 글자 그대로 크게 편안함을 가진다는 뜻이다. 원래 독곡에 속했다가 1942년 윗독실은 독곡(篤谷)으로 아래독실과 불암땀과 만념땀이 합하여 대안(大安)마을이 되었다. 마을에 최초로 거주하게 된 시기는 1931년경 일제가 고성만의 일부를 막는 간척 공사에 인부로 일하게 된 시기부터이며 진위이씨, 전주전씨, 김해김씨, 반남박씨, 고성이씨, 진양정씨, 진양강씨, 달성서씨, 수원박씨, 밀양손씨, 영산신씨 등의 성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

마을 서쪽은 만념산으로 독곡마을과 경계하고, 동쪽은 구암마을과 남산을 바라보면서 대독천으로 경계하고, 남쪽으로는 고성만에 이른다. 1970년에 대독천 제방 보수공사로 많은 면적의 간척답인 사유지가 물에 잠기어 갈대밭으로 변하였다.

독실마을은 독실 또는 독의 방이라 불렀는데 선비들의 주경야독과 농업에 전념하는 돈독(敦篤)한 삶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효자 김충각의 효행에서 비롯하였다고도 한다. 마을에는 대독리 토성, 독경재(篤敬齋), 전주전씨종약소, 영화재(永華齋), 일암재(日巖齋), 사모재(思慕齋) 등의 사적이 있다.

## 1) 마을

- ◎ 대안(大安) : 대독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독곡(篤谷) : 독실(篤實)이라고도 함. 대안 서북쪽에 잇는 마을
- ◎ 만념(萬念) : 불암 동남쪽에 잇는 마을

- ◎ 불암(佛岩) : 만념 서북쪽에 있는 띨
- ◎ 중띨 : 대안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중촌이라고 부름

2) 산

- ◎ 두리봉 : 독실 남쪽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둥그렇다는데서 유래
- ◎ 만념산 : 만념 북쪽에 있는 산으로 망림산(望林山)이라고도 함
- ◎ 불암산(佛岩山): 불암 뒤에 있는 산
- ◎ 탕견산 : 독실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탕견 모양 임
- ◎ 태봉산 : 독실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왕의 태(胎)를 묻었다고 함

3) 들, 논

- ◎ 묵은들 : 독실 동쪽에 있는 들
- ◎ 새들 : 독실 북쪽에 있는 마구들
- ◎ 숲안들 : 독실 동북쪽 성지골에 있는 들
- ◎ 큰들 : 독실 북쪽에 있는 들

4) 골

- ◎ 배암골 : 만념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바드릿골 : 해미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해미당골 : 만념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해미 할머니를 모시는 집이 있었다고 함

5) 고개

- ◎ 장실고개 : 독실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장사가 살았다고 전함

6) 기타

- ◎ 대독천(大篤川) : 중띨 서쪽에 있는 내
- ◎ 안산모퉁이 : 대독리에서 이당리의 당골로 가는 모퉁이
- ◎ 용왕의 침실 : 독곡마을에 있다. 큰 냇물이 흐르는 불암천에 있는 웅덩이
- ◎ 성지(聖池) : 옛날 왕족이 목욕하였다고 하며 현재는 소류지로 이용하며 독실 남쪽에 있음
- ◎ 배암등, 배암골 : 독실 남쪽의 판곡리로 넘는 산등성이



## 8. 이당리(梨堂里)

이당리는 본래 고성군 상서면 지역인데 1914년에 이동, 우곡동, 당동을 병합하여 이동과 당동의 이름을 따서 이당리라 하여 삼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83년에 고성읍에 편입되었다. 면전(棉田)과 이곡(梨谷)의 행정마을이 있다.

면전마을은 예로부터 면화 재배로 유명했는데 이런 연유로 면밭골이라 하였으며, 1914년에 면밭을 한자화하여 면전(棉田)이라 하였다. 마을의 형성시기는 구전되기로는 보성선씨가 1690년에 입촌하였으며, 뒤이어 당골에는 진양강씨, 면밭골에는 밀양박씨, 황불암에는 달성배씨, 장수황씨가 입촌하였다고 한다.

마을은 고성읍 쪽에서 상리면으로 이어지는 산자락 아래에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은 무량산을 비롯한 높고 낮은 산들이 동서로 이어지고 남쪽은 대독천을 따라 발달한 들판이 펼쳐져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강씨, 밀양박씨, 보성선씨, 달성배씨, 순흥안씨, 함안이씨, 김해김씨 등이다. 사적으로는 오선달송덕비와 의성재(儀誠齋)가 있으며 면밭골에는 밀양박씨 입향조를 모시는 재실이 있다.

이곡마을은 배나무가 많은 골짜기라 하여 뱃골이라 불렀는데 이 배나무 이(梨)자와 골짜기라는 뜻의 곡(谷)자가 합쳐진 이름이다. 마을은 1800년경에 연안차씨와 피주염씨가 입촌하면서부터 터를 잡았다고 한다. 마을 뒤로 천황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감티고개를 경계로 상리면 부포리와 접해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함안이씨, 경주최씨, 연안차씨, 전주최씨, 김해김씨, 달성배씨, 김해허씨, 밀양박씨, 전주이씨, 진양강씨, 경주이씨 등이며, 마을에는 추모재(追慕齋)가 있다.

### 1) 마을

- ◎ 굴모동 : 면밭골 남쪽에 있는 마을
- ◎ 길가땀(노변촌) : 당동 북쪽에 있는 마을
- ◎ 당곡(堂谷, 당골, 당동) : 길가 땀 남쪽에 있는 마을
- ◎ 배골 : 이당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이동이라고도 함. 소류지 안의 땀
- ◎ 부처골(불곡) : 대밭골 동쪽에 있는 마을
- ◎ 새땀(신촌) : 황불암 북쪽에 있는 마을
- ◎ 우곡(愚谷, 우실) : 중땀 서쪽에 있는 마을
- ◎ 죽전동(竹田洞, 대밭골) :
- ◎ 중땀(중촌) : 부처골 남쪽에 있는 마을

2) 산

- ◎ 너비만당이(두루봉, 두릉봉) : 이당리에 있는 산
- ◎ 당우산(堂隅山) : 당동 서북쪽에 있는 산
- ◎ 배나무음달 : 배골 음달 쪽에 있는 산
- ◎ 소금산 : 소금쟁이라고도 하는데 삼산면 병산마을로 넘어가는 높은 산등성을 일컫는다. 옛날에 이곳을 넘어 어촌의 사람들이 소금을 팔러 왔다고 함
- ◎ 짚마산 : 이당리에 있는 산으로 짚매(길마) 형국이라 함

3) 들, 논

- ◎ 못밭 : 배골 북쪽에 있는 들 위에 있는 못
- ◎ 우실앞 : 우실 앞에 있는 들

4) 바위

- ◎ 배락바구1 : 큰 부목골에 있는 바위
- ◎ 배락바구2 : 전옥골에 있는 바위
- ◎ 청바구 : 전복골에 있는 바위

5) 골

- ◎ 고리정이 : 이당리에 있는 골짜기로 고리를 만드는 점이 있었다고 함
- ◎ 도독골 : 새땀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모곡(暮谷, 모르실골) : 길가땀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박창골 : 부목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방천골 : 당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부목골 : 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부춧골(부체골) : 부처골에 있는 골짜기로 돌부처가 있음
- ◎ 월망골 : 새땀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는 달맞이를 했다고 함
- ◎ 작은 부목골 : 부목골의 작은 골짜기
- ◎ 장승박골 : 새땀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장승이 있었다고 함
- ◎ 저네밭골 : 점창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밭이 있었다고 함
- ◎ 전목골 : 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쇠점이 있었다고 함
- ◎ 철산개 : 배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철이 났다고 함

◎ 큰부목골 : 부목골의 큰 골짜기

6) 고개

◎ 감티(甘峙, 감티재) : 우곡 서북쪽에 있는 고개

◎ 새곡 : 이당리에서 고성읍으로 넘어가는 고개

7) 기타

◎ 당곡저수지 : 당골 남쪽에 있는 저수지

## 9. 무량리(武良里)

무량리는 본래 고성군 서읍면의 지역으로, 무량산 밑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무량이라 하였는데 1914년 무량리로 하여 철성면에 편입되었다. 무량마을 단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무량(안무량)과 외무량(바깥무량)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300여 년 전부터로 청송심씨가 입촌하면서 부터이다. 뒤이어 김해 김씨가 입촌하여 집성촌을 이루었으며 후에 나주정씨, 고성박씨, 함안이씨 등이 입촌하면서 지금은 10여 성씨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청송심씨, 김해김씨, 경주최씨, 함안이씨, 밀양박씨, 고성박씨, 창원황씨, 함안조씨, 진양하씨, 나주정씨 등이다. 사적으로 함안이공정려(咸安李公旌閔)가 있다.

1) 마을

◎ 내무량(內武良, 안무량) : 바깥무량 동남쪽에 있는 마을

◎ 대밭골(대밭땀, 죽전곡) : 바깥무량 동남쪽에 있는 마을

◎ 바깥무량(외무량) : 무량 바깥쪽에 있는 마을

◎ 용동 : 안무량 북쪽에 있는 마을

2) 들, 논

◎ 새들 : 외무량 동쪽에 있는 새로 된 들

◎ 중림들 : 새들 서북쪽에 있는 들

3) 골

◎ 고리정이 : 이당리에 있는 골짜기로 고리를 만드는 점이 있었다고 함

- ◎ 너린골 : 송골 서쪽에 있는 넓은 골짜기
- ◎ 서젯골 : 무량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재가 있었다 함
- ◎ 송골 : 무량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솔좁다고 함
- ◎ 은안골 : 안무량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작은골 : 안무량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 큰골 : 안무량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큰안골 : 안무량 동쪽에 있는 골짜기

#### 4) 고개

- ◎ 감티(甘峙, 감티재) : 우곡 서북쪽에 있는 고개
- ◎ 대석곡 : 서젯골 서남쪽에서 교사리 사동으로 가는 고개

#### 5) 기타

- ◎ 굴등 : 외무량 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굴이 있었다고 함
- ◎ 도른지 : 도른지 모퉁이에 있는 다리
- ◎ 무량못(안무량못, 연지무량못, 무량제) : 안무량 동쪽에 있는 못
- ◎ 새들다리 : 새들에 있는 다리
- ◎ 한내보 : 한내들에 물을 대는 보. 큰 내를 막아서 이름

### 10. 덕선리(德仙里)

덕선리는 본래 고성군 서읍면(西邑面) 지역인데 1914년에 양덕리 선동과 가동면의 유동 일부를 병합하여 양덕(陽德)과 선동(仙洞)의 이름을 따서 덕선리(德仙里)라 하여 철성면에 편입되었다. 1921년에는 1구와 2구로 나뉘었다가 1945년 광복 후 1구는 양덕, 2구는 선동으로 환원되었다.

양덕마을은 원래 그느리라 하였다. 그늘(陰)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그늘리(陰於) 혹은 그느리라 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전이 있다. 조선시대 숙종이 밝은 달밤에 야행을 하였는데 이 마을에 이르러 달빛이 비치지 아니함을 탄복하여 그느리라 불렀다는 것이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임란이 끝난 17세기 초부터로 함안이씨가 들어와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한다. 마을은 천황산의 한줄기가 남쪽으로 흘러와 이곳에서 끝나는데 마을로 흘러 내린 산(서원산 혹은 와우산)을 등지고 동서로 길게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사적으로는 건

양재(建陽齋), 천산당(天山堂)이 있다.

선동마을의 지명은 그들이 좋아 신선이 쉬어 갈 만하다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문헌상으로 진양하씨, 김녕김씨가 250여 년 전부터 입촌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녕김씨의 26대조 산소가 마을 앞산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700여년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진양하씨, 함안이씨, 김녕김씨, 경주김씨, 전주최씨 등 여러 성씨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의 지세는 뒷산이 황소설(說)이라 전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하씨, 함안이씨, 김녕김씨, 경주김씨, 전주최씨, 해주오씨 등이다.

### 1) 마을

- ◎ 그느리(음어) : 덕선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묵냉기 : 선동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새땀 : 선동 서쪽에 있는 마을
- ◎ 선동(仙洞) : 새땀 동쪽에 있는 마을
- ◎ 아랫땀 : 그느리 동쪽에 있는 마을
- ◎ 양덕리(陽德里) : 묵넘기 동쪽에 있는 마을로 양지쪽이라 함

### 2) 산

- ◎ 구미산(龜尾山, 기미산) : 중고개 밑에 있는 산
- ◎ 똥매산 : 선동 앞에 있는 산
- ◎ 영도산(永島山, 영심산) : 그느리 남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감나무징이 : 무은 텃들에 있는 논으로 예전에 감나무가 있었다고 함
- ◎ 새도랑 : 큰도랑 서쪽에 있는 들
- ◎ 새들 : 선동 서쪽에 새로 된 들
- ◎ 새미배미 : 선동 동쪽에 있는 논으로 샘이 있었음
- ◎ 영도평(영심들) : 영심산 밑에 있는 들
- ◎ 옹골도랑 : 선동 북쪽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무은텃들에 있는 논으로 장구처럼 생겼음
- ◎ 중심들 : 선동 남쪽에 있는 들
- ◎ 큰도랑 : 새들 북쪽에 있는 들

◎ 흙등 : 새들에 있는 논으로 물을 대기 위하여 흙등을 놓았다고 함

#### 4) 바위

◎ 범바우(호암) : 범밭모퉁이에 있는 바위로 범처럼 생겼음

◎ 여수바우 : 여수밭 모퉁이에 있는 바위로 밑에 여시굴이 있었다고 함

#### 5) 골

◎ 고리정이 : 이당리에 있는 골짜기로 고리를 만드는 점이 있었다고 함

◎ 당산골 : 그느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당산제를 지냄

◎ 서짓골 : 선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재가 있었다고 함

◎ 작은 서짓골 : 서짓골의 작은 골짜기

◎ 조례곡(造禮谷, 조례골) : 덕선리에 있는 골짜기로 조리의 형국임

◎ 큰서짓골 : 서짓골의 큰 골짜기

#### 6) 고개

◎ 감티(甘峙, 감티재) : 우곡 서북쪽에 있는 고개

◎ 중고개 : 덕선리에서 기월리의 중곡으로 넘어가는 고개

#### 7) 우물

◎ 참새미 : 새들 밑에 있는 샘

#### 8) 기타

◎ 덕선지(덕선못) : 아랫땀 서쪽에 있는 못

◎ 덕선천(德仙川) : 덕선지 서남쪽에 있는 내

◎ 텃결밭 : 선동 뒤쪽에 있는 밭

### 11. 대평리(大坪里)

대평리는 본래 고성군 서읍면(西邑面) 지역으로 큰 들이 있으므로 한들 또는 대평이라 하였다. 1914년 장동, 울촌을 병합하여 대평리로 하여 철성면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광복직후에 대평마을과 평촌마을로 나뉘었다.

대평마을은 예전에는 양동(陽洞) 또는 건천(乾川)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양동을 앞담, 건천을 뒷담, 태봉산 밑을 붓골이라 하였다. 마을은 1680년경에 문화유씨가 맨 먼저 터를 잡아 개척하였고, 그 후 합천이씨, 양천허씨, 진양정씨 등이, 1800년대 말기와 1900년대에는 전주이씨, 의령남씨, 칠원제씨 등 여러 성이 입촌하여 현재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은 북쪽으로 태봉산이 우산리와 경계하여 마을 뒤를 막아주고 서쪽으로는 대가저수지가 마을 앞 고성평야의 젓줄로 버티고 있다. 대가저수지에서 흘러나온 물은 마을 앞의 대평천과 함께 마을을 감싸고 앞뒤로 흘러 밤내(栗川)와 합류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문화유씨, 합천이씨, 전주이씨, 경주이씨, 의령남씨 등 20여 성씨에 달한다.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와 마을 위 200m 지점에 있는 돌무덤에 매년 음력 선달 그믐날 자정에 당산제를 지낸다.

율촌마을은 넓은 들판 가운데에 밤내라는 개천을 끼고 있는 지형적인 조건으로 보아 무척 오래전부터 사람의 왕래가 있었으리라 믿어지나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910년경부터 김해김씨, 칠원제씨, 경주이씨, 밀양손씨 등이 입촌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마을은 고성평야의 서쪽 들판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창원황씨, 경주이씨, 김해허씨, 경주최씨, 진양정씨, 밀양박씨, 칠원제씨 등이다.

### 1) 마을

- ◎ 건천들(장동) : 대평 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는 들이었음
- ◎ 붓골 : 대평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웃밤내 : 밤내 위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태봉산 : 붓골 뒤쪽에 있는 산으로 왕자의 태를 묻었다고 함

### 3) 들, 논

- ◎ 너들 : 율촌 동쪽에 있는 들
- ◎ 두릉배미 : 조산에있는 논
- ◎ 덧들 : 대평 뒤쪽에 있는 들
- ◎ 매줄 ; 율촌 북쪽에 있는 들
- ◎ 모래등 : 대평 북쪽에 있는 들

- ◎ 무근텅이(무은텅들) : 대평 서북쪽과 덕선리에 걸쳐 있는 들로 문씨가 살았다 함
- ◎ 바우배미 : 모래등에 있는 논으로 바위가 있었음
- ◎ 생이배미 : 매줄에 있는 논
- ◎ 조산(造山) : 율촌 동쪽에 있는 들로 조산이 있었다고 함

4) 골

- ◎ 문개들맷골 : 붓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문씨의 묘가 있었다고 함
- ◎ 차이밭골 : 붓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5) 고개

- ◎ 감티(甘峙, 감티재) : 우곡 서북쪽에 있는 고개

6) 기타

- ◎ 고성교(固城橋, 울천교, 밤내다리) : 울천 동남쪽에 있는 다리
- ◎ 대평천 : 대평 동남쪽에 있는 내
- ◎ 밤내 : 율촌 앞에 있는 내로 냇둑에 밤나무가 많았다고 함
- ◎ 장구이 등빙이 : 모래등 밑에 있는 둑병으로 힘센 장사가 봤다고 함

## 12. 우산리(牛山里)

우산리는 본래 고성군 서읍면 지역이었다. 1914년 내우산, 외우산, 특골을 병합하여 우산리라 하고, 칠성면에 편입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마을로 내우산, 외우산, 상촌 마을이 있다.

우산리는 누운 소의 형국인 소슬산의 이름을 따서 소슬마을로도 불렸으며, 내우산은 암소슬 또는 안우산이라고도 하였다. 암소슬은 내우산을 암소, 외우산을 숫소라 부르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내우산의 마을 형성 시기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현풍곽씨, 함안이씨, 남평문씨 등이 입촌하면서부터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지금은 함안이씨, 김해김씨, 남평문씨, 고성박씨, 칠원제씨, 진양정씨, 전주최씨, 김해허씨, 함안조씨, 단양우씨 등 여러 성씨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내우산 마을은 소슬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마을 앞으로는 들판이 펼쳐지고 이 들로 고성과 창원간 국도를 경계로 고성평야에 잇닿아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함안이



씨, 현풍곽씨, 남평문씨, 전주최씨, 김해허씨, 김해김씨, 진양정씨, 고성박씨, 밀양박씨, 전주이씨, 함안조씨 등 여러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사적으로는 내우산사찰지(內牛山寺刹址)가 있다.

외우산마을은 골의 바깥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우산, 솟소슬이라 부르기도 하며, 큰우산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마을의 형성은 이 마을에서 석기시대의 유물인 돌도끼, 돌칼, 기와, 옹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의 거주가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함안이씨와 성산이씨의 조상은 약 500여 년 전 이 마을에 입촌하였다고 하며, 현재는 김해김씨, 전주최씨, 김해허씨, 남평문씨, 고성박씨 등 10여 성씨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상촌마을은 틈실 또는 특골(特谷)의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는 노루가 운다는 뜻의 장명(獐鳴) 또는 장매라 하였다. 마을은 약 100년 전 성산이씨, 전주최씨 등이 입촌하면서 형성되었다. 마을의 지세는 소의 왼쪽다리에 해당되며 동쪽으로는 이밭골이, 북쪽으로는 불썬골, 삼밭골, 땃골 등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함안이씨, 성산이씨, 진양강씨 등 여러 성씨가 살고 있다.

## 1) 마을

- ◎ 독곡(틈실, 특곡) : 외우산 북쪽에 있는 마을
- ◎ 땃골 : 상촌 남쪽에 있는 마을
- ◎ 상촌(上村) : 틈실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새땃골1 : 틈실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새땃골2 : 내우산 동남쪽 입구에 있는 마을
- ◎ 우산(소슬) : 서읍면의 지역으로 산이 소가 누운 것처럼 생겼으므로 소슬 또는 우산이라 함
- ◎ 숙소슬(외우산, 큰우산) : 외우산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암소슬(내우산, 안우산) : 외우산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장매이(장명) : 상촌 북쪽에 있는 마을
- ◎ 틈실(특곡, 독곡) : 외우산 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내우산(內牛山, 암소슬, 암소슬) : 외우산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소슬산 : 우산리에 있는 산. 와우(臥牛) 형국으로 생겼음

◎ 연지산(蓮地山) : 사월산(군산천) 서남쪽에 있는 산

3) 들, 논

◎ 고랑들 : 외우산 북쪽에 있는 들

◎ 기릿들 : 내우산 앞에 있는 들

◎ 모답들 : 와우산 남쪽 못 앞에 있는 들

4) 골

◎ 끈지들 : 내우산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도둑골 : 내우산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도둑이 숨어 살았다고 함

◎ 부엉이골 : 도둑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부엉이가 있다고 함

◎ 부치골 : 내우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부처가 있었다고 함

◎ 불썬골 : 외우산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을 켜놓고 정성을 드리던 곳이 있다고 함

◎ 우산골 : 내우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우산 못이 있음

◎ 위령골(월령골) : 부엉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절골 : 내우산 뒤에 있는 골짜기

5) 기타

◎ 농바구 : 내우산 북쪽에 있는 바위로 농처럼 생겼음

◎ 디맷등 ; 외우산 뒤쪽에 있는 등성이

◎ 디맷등뻘득 : 디맷등에 있는 버덩

◎ 줄바구 : 내우산 동북쪽에 있는 바위

◎ 참새미 : 내우산 서북쪽에 있는 샘물로 물이 차다고 함

◎ 삼(蓼)바위 : 우산리 상촌에 있는 바위

### 13. 죽계리(竹溪里)

죽계리는 본래 고성군 동읍면의 지역인데 1914년에 죽동(竹洞)과 장계(長溪)를 병합하여 죽계리라 하여 철성면에 편입되었다. 장계마을이 다시 장계와 평계로 분동되어 현재의 죽계리는 죽동, 장계, 평계의 3개 행정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죽동마을은 옛날에 죽동 동쪽에 위치한 대밭등이라는 등성이에 큰 대밭이 있었다고 하

며 이 대밭 주위에 형성된 마을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동명을 삼았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로, 마을은 대가면에서 흘러드는 고성천 주변으로 형성되었다. 진양강씨, 김해김씨, 의령남씨, 인동장씨, 경주정씨 등이 1880년경부터 입촌하기 시작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은 고성읍에서 동북쪽에 위치한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고성천이 흐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밀양박씨, 진양강씨, 연안김씨, 순흥안씨, 진양정씨, 창녕조씨 등이다.

장계마을은 강점기에는 영희(永喜)부락, 해방 후에는 죽계(竹溪)2구라 하였다. 지명은 긴(長) 시내(溪)를 끼고 있다 하여 유래되었다.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약 100여 년 전부터 김해김씨, 김녕김씨, 수원백씨 등이 터를 잡아 마을을 이루었다. 마을이 형성되던 초기부터 경작지 주위에 가옥을 지어 들판에 주택이 산재해 있다.

평계마을은 속시라고 하는데 속시개에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본래 장계마을의 일부였으나 한일합방 후 분동되었으며, 마을 앞은 넓은 들판이고 속시개로 흘러드는 고성천이 마을과 들판사이를 가로지르는 지형으로 인하여 평계라 하였다. 마을은 약 150여 년 전에 김녕김씨가 입촌하였으며, 뒤이어 성산이씨, 함안이씨, 진양강씨, 창원황씨, 양천허씨 등이 입촌하여 마을을 이루었다. 남쪽으로는 고성평야의 넓은 들판이 펼쳐지고 동쪽으로는 바다를 메워 옥토가 된 간척지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마암면 두호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녕김씨, 성산이씨, 함안이씨, 영천이씨, 진양강씨 등 10여 성씨이다.

### 1) 마을

- ◎ 속시(평계) : 죽동 북쪽에 있는 마을
- ◎ 장계(長溪) : 죽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죽동(竹洞) : 죽계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2) 산

- ◎ 등장미기 : 속시 남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솟구짓들 : 죽동 동남쪽에 있는 들
- ◎ 위랫들 : 죽동 남쪽에 있는 들
- ◎ 장때들 : 진날끝 남쪽에 있는 들
- ◎ 진날끝 : 속시 동남쪽에 있는 들

◎ 텃배미 : 죽동 동북쪽에 있는 논

4) 골

◎ 애골 : 쪽시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기와를 구웠다고 함

◎ 채방골 : 쪽시 북쪽에 있는 골짜기

5) 기타

◎ 대밭등 : 죽동 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대밭이 있었음

#### 14. 울대리(栗垈里)

울대리는 본래 고성군 동읍면 지역으로 지형이 밤처럼 생겼다하여 밤디, 밤대 또는 울대라 하였다. 1914년에 울대리라하여 철성면에 편입되었다. 마을은 약 500여 년 전 윤씨와 황씨만이 거주하는 두 성씨의 집성촌이라 하여 윤희촌이라 일컬었다. 그 후 마을 주변에 밤나무가 많아서 밤대라 칭하였으며 한자로 울대가 되었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과평윤씨가 입촌한 15세기 후반부터이다. 이후에 고성박씨, 전주이씨, 창녕조씨, 김해김씨 등이 입촌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 뒷산(고소산)에서 고성평야로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지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은 고성읍 동외리 정동마을, 동쪽은 거류면 용산리, 남쪽은 고성읍 월평리 매수마을, 서쪽은 신월리 신부마을과 접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고성박씨, 전주이씨, 밀양박씨, 진양정씨 등이다.

1) 마을

◎ 울대(밤대, 밤디) : 동부면 지역으로 지형이 밤처럼 생겨서 밤디, 밤대 또는 울대라고 함

◎ 잣굴 : 울대 서쪽에 있는 마을

2) 산

◎ 덧매 : 울대 서쪽에 있는 산

3) 들, 논

◎ 깃중들 : 울대 남쪽에 있는 들

◎ 넘밤대 : 울대 뒤에 있는 들

◎ 매구지 : 울대 서쪽에 있는 들

- ◎ 물리태 : 울대 서쪽에 있는 들
- ◎ 바아배미 : 울대 서북쪽에 있는 들로 방아처럼 생겼음
- ◎ 새섬척뿌리 : 울대 동쪽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넘밤대에 있는 논으로 장구처럼 생겼음
- ◎ 짐때배미 : 척뿌리 동쪽에 있는 논
- ◎ 칫때외뜰배미 : 칫뿌리 동쪽에 있는 논

#### 4) 기타

- ◎ 구시뎀병 : 울대 동쪽에 있는 뎀병으로 구시(구유)처럼 생겼음

### 15. 월평리(月坪里)

월평리는 본래 고성군 동읍면의 지역인데 1914년에 매수동, 거운지 일부를 병합하여 월평리라 하여 철성면에 편입되었다가 1974년 매수, 홍류, 거운 등 3개의 행정 마을로 나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매수마을은 이곳에 예전부터 매화나무가 많아 이렇게 불렸다. 마을은 약 350여 년 전 김해김씨가 입촌하여 마을을 개척하였으며 이후 전주이씨, 인동장씨가 입촌하여 마을을 이루었다. 마을은 동남쪽에 자리 잡은 벽방산 줄기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밀양박씨, 전주이씨, 진양강씨, 경주이씨, 순흥안씨 등이며 사적으로는 춘성재(春成齋)가 있다.

홍류마을은 청송심씨 문중의 호적에 의하면 1821년에는 고성현 동읍내면 매수동이라 되어 있고, 1904년에는 고성군 외동면 매수동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는 홍류라는 지명이 없었다. 이후 행정리 조정 시에 홍수가 잦았던 마을 앞 하천의 물빛을 빌어 붙여진 동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은 동쪽으로 벽방산 자락에 에워싸여 있으며 북쪽으로는 독뢰가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청송심씨, 김해김씨, 연안김씨, 연일정씨, 인동장씨, 밀양박씨, 진양강씨, 연안차씨, 영천이씨, 창원황씨 등 10여 성씨가 살고 있다. 사적으로는 절터가 있다.

거운마을은 1974년에 홍류 마을에서 분동되었다. 옛날 이 마을에 거운지(巨雲池)라는 못이 있었다고 하며, 거운이라는 동명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오래지 않다. 가장 먼저 이곳에 입촌한 유씨와 김해김씨 등이 어업과 염전을 일구며 살았다. 현재는 위 성씨 외에 진양강씨, 밀양박씨, 영천이씨 등 10여 성씨가 마을을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마을은 서쪽으로는 해안선을 따라 바다가 펼쳐지고 동쪽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강씨, 김해김씨, 거창유씨 등 10여 성씨가 살고 있으며 사적으로는 낙불암(落不庵)이 있다.

1) 마을

- ◎ 거운지(巨云地) : 월평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옛날에 거운지라는 못이 있었다고 함
- ◎ 구실땀 : 매수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까치골(간칭골) : 월평리에 있는 마을
- ◎ 독번평(獨蕃坪, 단번덕, 독뻬덕) : 개운지 동남쪽에 있는 외딴 마을
- ◎ 매수동(梅樹洞) : 월평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매수안땀 : 매수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비석걸 : 매수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빗갈 : 매수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손골(송곡, 송골) : 거운지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청석걸(청석거리) : 월평리에 있는 마을
- ◎ 홍류동(紅流洞) : 매수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

2) 들, 논

- ◎ 거운지 : 거운지 앞에 있는 들
- ◎ 굴앞다 : 학리 맏동거리 동쪽에 있는 들
- ◎ 숲밖 : 매수 앞에 있는 들
- ◎ 쭉곡들 : 쭉곡재 밑에 있는 들
- ◎ 감구실 : 매수 서북쪽에 있는 들
- ◎ 큰구실 : 매수 서북쪽에 있는 들

3) 골

- ◎ 독정골 : 매수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독점이 있었다고 함
- ◎ 서짓골 : 매수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서재가 있었다고 함
- ◎ 홍류골 : 홍류동에 있는 골짜기

4) 고개

- ◎ 달랫고개 : 구실땀 동쪽에 있는 고개

- ◎ 썩곡재 : 월평리에 있는 고개
- ◎ 자지고개(자짓곡, 자짓고개) : 월평리에 있는 고개로 현재 철성공원임. 옛날에 남매가 이 고개를 넘다가 비를 만났는데 그 아우가 비에 젖은 누이의 육체를 보고 정욕을 일으켜서 누이에게 덤벼들려고 하다가 자신의 부당한 행동을 뉘우치고 자신의 자지를 잘라 자살하였다고 함

#### 5) 기타

- ◎ 구실땀새미 : 구실땀에 있는 샘
- ◎ 낙불암(落佛岩) : 손골에 있는 미륵
- ◎ 농바우 : 월평리에 있는 바위로 농처럼 생겼음
- ◎ 모우자샘 : 개운지 뒤에 있는 샘
- ◎ 부채섬 : 거운지 서남쪽에 있는 섬으로 옛날 부처가 있었다고 함
- ◎ 아릿개: 월평리 아래쪽에 있는 개
- ◎ 월평천 : 매수안땀 동북쪽에 있는 내
- ◎ 진등 : 매수 동북쪽에 있는 긴 등성이
- ◎ 학리땀등거리 : 매수 동남쪽에 있는 밭
- ◎ 홍류천 : 홍류동 서북쪽에 있는 내

### 16. 신월리(新月里)

신월리는 본래 고성군 동읍면 지역으로 1914년에 신부동, 구선창, 거운지 일부를 병합하여 신월리라 하여 철성면에 편입되었다. 신부와 곡용의 자연부락이 있다.

신부마을은 1610년경 김해김씨 문중의 희철(希鐵)이 역적으로 모함을 받아 샘골로 피신하였는데 이후 인구가 늘고 생활영역이 넓어지면서 현재의 장소로 터전을 옮기게 되었는데 동명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마을은 약 380여 년 전 김해김씨가 입촌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김해김씨 집성촌이라 할 만큼 거주민의 절반을 차지한다. 마을은 고성평야가 고성만(灣) 해안 근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김해김씨, 진양정씨, 진양강씨 등이 거주하고 있다. 사적으로는 구선창이 있다.

곡용마을은 뒷산이 용이 굽어 있는 형상이라 하여 이렇게 부른다. 마을 앞으로는 고성만이 펼쳐져 있으며 마을 앞에는 새섬(鳥島)이 있다. 주거지는 들땀, 점땀, 곡두름개, 구선창 등으로 산재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장흥고씨, 의령남씨, 진양강씨, 김해김씨, 경주이씨, 안동김씨, 경주최씨 등 다양한 성씨가 살고 있다.

1) 마을

- ◎ 곡룡(曲龍)마을 : 신부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구선창(舊船倉) : 옷땀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못골 : 신월리에 있는 마을로 못이 있었음
- ◎ 용기점 : 신월리에 있는 마을로 용기점이 있었음
- ◎ 옷땀 : 구선창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푼두름개 : 곡룡 동북쪽에 있는 마을

2) 산

- ◎ 곡산(曲山) : 옷땀 남쪽에 있는 산
- ◎ 공동산(공산) : 새밧등 서북쪽에 있는 산
- ◎ 공생이(똥매) : 신부동 서쪽에 있는 산
- ◎ 안산 : 신부동 동쪽에 있는 산
- ◎ 칩골 ; 곡룡 북쪽에 있는 산
- ◎ 통바지기 : 암참개 남쪽에 있는 산

3) 들, 논

- ◎ 깨뚜리 : 용기점 앞에 있는 들

4) 골

- ◎ 구렁실 : 신부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등잔골 : 신부동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등잔처럼 생겼다고 함
- ◎ 만아골(만약골) : 칩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새밧골 : 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여수밭골 : 신부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여우굴이 있다고 함
- ◎ 큰골 : 통바지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패아골(피아골, 피하골) : 신부동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5) 고개

- ◎ 통바지기 : 통바지기 밑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거운지개 : 꾀두름개 남쪽에 있는 개
- ◎ 만아등 : 만아골에 있는 등성이
- ◎ 부채섬(선도) : 새섬 동남쪽에 있는 섬
- ◎ 불막등 : 용기점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새밋골샘 : 새밋골에 있는 샘
- ◎ 새밋등(우미등) : 옷땀 북쪽에 있는 등성이로 지형이 쇠꼬리처럼 생겼다고 함
- ◎ 용바구 : 신부동 동남쪽에 있는 바위
- ◎ 임금바구 : 신부 동북쪽에 있는 바위

## 제 2절 개천면(介川面 Gaecheon-myeon)

군의 북쪽에 있는 면이다. 북쪽은 진주시 일반성면과 이반성면, 동쪽으로 구만면 그리고 남쪽으로 마암면과 접한다. 서쪽은 연화산 도립공원의 일부인 연화봉(478m), 연화산(524m), 시루봉(541m) 등 산지가 영오면·영현면·대가면과의 경계가 된다. 서쪽 산지 이외에도 북동쪽에 미암산(358m)·소곡산(481m)·필두봉(418m), 남쪽에는 남산(425m)·덕산(278m) 등 많은 산지가 분포하며, 이들 산지 사이로 소하천들이 흘러 좁은 곡저 평야를 형성한다.

원래는 진주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1906년(광무 10) 진주군에서 고성군으로 편입되었다. 『여지도서』(진주)에는 “개천(介川)은 관아에서 50리 이다.” 라고 수록하였고, 『호구총수』에는 진주의 남면(南面) 개천리(介川里)로 기록되어 있다. 『신구대조』에는 개천면과 영이곡면(永耳谷面)의 성곡(省谷) 일부 그리고 창원군 진전면(鎭田面)의 나동(羅洞)·선동(仙洞)을 합쳐 행정구역 개편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1973년 마암면 좌연리(佐蓮里)를 편입하였고, 1983년 나선리 선동은 구만면 화림리로 편입되어 현재 9개 법정리를 관할한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명진부곡(溟珍部曲)은 영선현(현재 영현면) 동쪽 15리에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여지도서』(진주)에도 “고려말 거제현명진포사람들이 왜구를 피해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 임시로 지냈으며, 조선에 들어와서 다시 거제로 돌아갔지만 그 지명은 남아 있다.” 라고 하였다. 명진부곡의 정확한 위치가 고증된 것은 아니지만 위의 기록으로 볼 때 개천면 일대로 추정할 수 있다.

## 1. 청광리(淸光里)

청광리는 본래 진주군 개천면의 지역인데 1906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청동

(靑洞)과 청남(靑南)을 병합하여 청광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청동과 청남의 2개 마을이 있다.

청동마을은 육이재라는 마을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데, 옛날 가난한 선비 6형제가 의종게 살았다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지금의 청동은 1984년에 청광리를 분동하면서 생겼다. 마을의 형성된 연대는 대략 임진왜란 전후인 16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때부터 현재 거주하는 전주최씨와 재령이씨 등 여러 성씨가 입촌하여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은 북쪽은 보잠산(寶岑山)을 경계로 진주시 반성면과 접하고, 남쪽 산록지에는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함안이씨, 전주최씨, 재령이씨, 경주손씨, 파평윤씨, 밀양박씨, 경주이씨, 김해김씨 등 여러 성씨가 살고 있다.

청남마을은 뒷산이 소뿔(牛角)처럼 생겼다고 하여 소뿔담이라고 하였으며, 1984년 청광리를 분동되면서 청남으로 하였다. 취락으로 소뿔담, 마당몰이(中村), 웃담(上村), 청광골이 있다. 마을의 형성은 임진왜란 전후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김씨, 박씨, 전씨, 임씨, 황씨, 최씨 등 여러 성씨가 살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은 뒷산이 남향으로 뻗어 내려 산록지대에 농경지를 형성하고 있다. 남쪽에 위치한 필두봉을 경계로 동쪽은 구만면과, 장구재를 경계로 봉치리와 접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경주김씨, 경주박씨, 광산김씨, 경산전씨, 창원황씨, 김해김씨, 나주임씨, 전주최씨, 김해허씨 등 여러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 내에는 상촌에 경주김씨 문중의 소헌재가 있으며, 소뿔담에 경주박씨 문중의 정호재가 있고, 중촌에 창원황씨 문중의 재실이 각각 있다.

## 1) 마을

- ◎ 마당몰 : 소뿔담 남쪽에 있는 마을
- ◎ 새담 : 소뿔담 서쪽에 있는 마을
- ◎ 소뿔담(우각촌) : 미암산 선아쪽에 있는 마을
- ◎ 육이재 : 청동동 북쪽에 있는 마을
- ◎ 청남동 : 소뿔담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청동동 : 청광리 동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미암산(美岩山) : 나선리의 미암산
- ◎ 소당산 : 소뿔담 서쪽에 있는 산

- ◎ 아리뱅이(아리봉) : 청광리에 있는 산
- ◎ 안지배이 : 배나무골 북쪽에 있는 산
- ◎ 필두산 : 청광리에 있는 산

## 3) 들, 논

- ◎ 굽들 : 야시미 남쪽에 있는 들
- ◎ 야시미 : 청광리에 있는 들
- ◎ 일넷들 : 소뿔땀 북쪽에 있는 들

## 4) 골

- ◎ 무시땀골 : 청광리에 있는 골짜기
- ◎ 배나무골 : 육이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배애골 : 청남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서젯골 : 청동동 동쪽 골짜기로 옛날 서재가 있었음
- ◎ 수박골 : 육이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이븐골 : 소뿔땀 북쪽 골짜기
- ◎ 절골 : 청동동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음

## 5) 고개

- ◎ 담티재(장재, 장티, 장근재, 담티) : 소뿔땀 동쪽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굽들보 : 굽들에 있는 보
- ◎ 마당바구 : 청동동 북쪽에 있는 바위
- ◎ 무시땀골바구 : 무시땀골에 있는 바위
- ◎ 아리뱅이바구 : 아리뱅이에 있는 바위
- ◎ 절골뺨덕 : 절골에 있는 버덕
- ◎ 청광교(淸光橋) : 소뿔땀 서쪽에 있는 다리로 1937년에 가설함
- ◎ 청광새미(청광정) : 청동동 북쪽에 있는 샘
- ◎ 최정지새미 : 청동동 동쪽에 있는 샘으로 최씨가 심은 정자나무 옆에 있음

## 2. 나선리(羅仙里)

나선리는 본래 창원군 진전면 지역인데 1914년에 나동리(羅洞里)와 선동리(仙洞里)를 병합하여 나선리로 하여 고성군 개천면에 편입되었다. 1983년에 구만면 화림리로 편입되고 지금은 나선리 나동마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동마을은 원래 이곳에 조선시대 숙종 때 비라사라는 절이 있었으므로 사찰명을 따서 나선리(羅仙里)로 하였다. 밀성박씨 선조가 1501년 갑자사화 때 참판으로 재직하다가 이곳으로 피신하여 정착한 후부터 후손들이 지금의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은 만수산을 경계로 북쪽은 진주시 이반성면과 동쪽은 창원시 진전면과 접하고 있다. 마을 거주민의 성씨는 밀성박씨, 전주이씨, 장수황씨, 청송심씨, 진양하씨 등 여러 성씨가 살고 있다.

마을 앞에 동청(洞廳)이 있었으나 광복 후에 철거 되었으며 동청 옆에 있는 정자나무가 수령 약 700년을 추정하는 노거수가 있다. 숙종 때의 비라사가 있었던 절터가 있으며, 구전에 의하면 가마솥과 불상이 출토되어 타치로 유출되었다고 한다.

### 1) 마을

- ◎ 나동(羅洞, 비라동) : 나선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사동(寺洞, 수동, 절골) : 나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절이 있었다고 함
- ◎ 선동(仙洞) : 나선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미암산(美岩山) : 나선리와 청광리에 걸쳐 있는 산
- ◎ 만수산 : 마을 북쪽에 있는 기암괴석이 많은 명산으로 옛날 천지가 개벽할 때 산이 물에 잠기고 산 정상만 남아 일만 명의 생명을 구하였다하여 만수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함

### 3) 들, 논

- ◎ 굽들(벌밭들) ; 나선지 위에 있는 들
- ◎ 매나깃들 : 합수골에 있는 들
- ◎ 백조배미 : 나동 서쪽에 있는 논
- ◎ 버던들 : 나동 동쪽에 있는 들
- ◎ 버랭잇들 : 나동 동남쪽에 있는 들
- ◎ 북창배미 : 장구배미 위에 있는 논

- ◎ 새미들 : 수동에 있는 들
- ◎ 새미배미 : 북창배미 위에 있는 논
- ◎ 선짓들 : 나동 남쪽에 있는 들
- ◎ 선창 : 선동 서쪽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주정짓들에 있는 논
- ◎ 주정짓들 : 나동 서쪽에 있는 들
- ◎ 진배미 : 이릿고랑에 있는 긴 논

#### 4) 골

- ◎ 각바구 : 녹디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녹디밭골 : 생담정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담정골 : 이릿고랑 북쪽의 골짜기
- ◎ 당산미기(당산매기) : 수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돈디밋골 : 돈미밋재에 있는 골짜기
- ◎ 디무고랑 : 중땀 뒤에 있는 골짜기
- ◎ 배나무골 : 각바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분짓골 : 선동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사내실: 선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새치성골 : 채성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생담정골 : 새치성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어븐골 : 나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이릿고랑 : 어븐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채성골 : 담정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치성골 : 치성골재에 있는 골짜기
- ◎ 한골 : 나선리에 있는 큰 골짜기
- ◎ 합수골 : 나선리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감나무골재 : 수동에서 진전면 봉암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감나무가 있었음
- ◎ 남성재(나성티) : 선동서남쪽에 있는 고개
- ◎ 돈다밋재 : 나선리에 있는 고개

◎ 바람재 : 새땀에서 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바람이 썸

◎ 치성골재 : 나동에서 이반성면 길성리로 넘어가는 고개

### 6) 기타

◎ 각바구 : 각바구 골짜기에 있는 바위

◎ 개우지바구 : 나동 북쪽 뒤에 있는 바위로 개우지(호랑이)가 살았다 함

◎ 나선지(羅仙池) : 나선리에 있는 못으로 1947년에 준공하였음

◎ 농바구 : 녹디밭골 위에 있는 바위

◎ 맹막바구 : 나동 동쪽에 있는 바위로 명매기집이 있었다고 함

◎ 면화정(免禍亭) : 나선리에 있는 정자. 벼락이 칠 때 박씨 문중이 정자로 피해 화를 면했다 함

◎ 무지바구 : 나선리에 있는 무지개 모양의 바위

◎ 박씨효자문터(朴氏孝子門터) : 나동에 있는 정문 터

◎ 배락바구 : 나동남쪽에 있는 바위

◎ 버랭뺨덕 : 버랭잇들에 있는 버덩

◎ 산정(山亭) : 나동 서북쪽에 있는 정자

◎ 상여듬병 : 나동마을 냇가에 있으며 옛날 상여가 나가다가 상여꾼과 같이 넘어져 꼬 짝을 하지 않자 용왕님께 빌고 곳을 하였더니 상여가 일어났다고 함

◎ 수산재 : 나동 동쪽에 있는 재실

◎ 안산새미 : 수동에 있는 샘

◎ 중의정자 : 마을 내에 있는 정자나무로 옛날에 비라사 절을 짓던 승려가 심었다고 함

◎ 한글뺨덕 : 한글에 있는 버덩

◎ 홍문집 : 선동어귀에 있는 문

## 3. 가천리(佳川里)

가천리는 본래 진주군 개천면 지역으로 개내 또는 개천이라 하였는데 1906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에 거동(巨東)과 거서(巨西)를 병합하여 개천면의 가천리라 하였다. 행정리로 가천(佳川)과 차치(車峙)의 2개 마을이 있다.

가천마을은 1984년 가천리를 분동하면서 가천으로 하였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대략 임란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은 북쪽은 진주시 일반성면과 경계를 하고 있고 마을 뒤

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마을 거주민의 성씨는 경주김씨, 경산김씨, 전주최씨, 해주오씨, 밀양박씨, 연안차씨, 진양정씨, 진양강씨, 전주이씨 등 여러 성씨 등이다. 마을에는 수령이 약 550년 된 정자나무가 있는데 큰 등치는 임진왜란 때 수군통제부에서 빼어갔다고 전한다.

차치마을은 옛날 마을 앞들이 구릉지대로 오리 때가 많이 쉬어간다고 하여 오리밭들이라 하였으며 동명도 오리밭이라 하였다. 약 150여 년 전의 대홍수 시에 하천변에 있던 마을이 물바다로 변하여 현재의 장소로 이주하여 동명을 차치마을이라 하였다. 달리는 높은 재 밑에 왔다하여 수리재로도 부른다. 현재 거주민은 김씨, 이씨, 최씨, 강씨 등이다. 마을은 가천리의 서북쪽 영오면 양산리 경계지점의 취령산(일명 보람산) 기슭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북쪽은 진주시 일반성면과 경계를 하고 있으며 마을 앞은 선유산을 안산으로 하고 있다. 면내에서 가장 작은 마을로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함안이씨, 전주최씨, 진양강씨 등 성씨가 살고 있다.

#### 1) 마을

- ◎ 중평(中平) : 가천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차치(차치) : 가천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선유산(仙遊山) : 차치마을 건너편 안산을 선유산이라 하며 이 산은 보담산(寶膽山) 정기를 타고 신선(神仙)이 놀았다고 함
- ◎ 소당산(효당산) : 개남 남쪽에 있는 산으로 동네 제사를 지냄
- ◎ 소두뱅이 : 불당재 북쪽에 있는 산
- ◎ 수리봉(취령산, 보람산) : 가천리 남쪽에 있는 산
- ◎ 수암산(큰산) : 수바웃골에 있는 산
- ◎ 안지배이 : 생기미 동쪽에 있는 산
- ◎ 원통재 : 원통꼬랑 위에 있는 산
- ◎ 월아산(다름산, 다롱이갓) : 가천리에 있는 산
- ◎ 주동몰랑: 안짱등 밑에 있는 산
- ◎ 중매안산 : 생기미 동남쪽에 있는 산
- ◎ 학산(鶴山) : 차치마을 서쪽에 있는 학 모양으로 생긴 산으로 학의 등에 진양강씨 선조의 묘소가 있었는데 인재가 많이 나고 재산이 많아 후손들이 세도를 너무 심하게

부리게 되자, 옛날 어느 노승이 저 묘소는 황송아지 설이니 웅장한 석물을 세우면 부귀와 인제가 속출한다고 하기에 이를 실행한 강씨 후손은 학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운 격이 되어 자손들이 망했다고 함

### 3) 들, 논

- ◎ 걷는들 : 개내 남쪽에 있는 들
- ◎ 동넛골 : 개내 동쪽에 있는 들
- ◎ 드목고개 : 개내 앞에 있는 들
- ◎ 발챙이 : 개내 동남쪽 끝에 있는 들
- ◎ 붓고랑 : 개내 동쪽에 있는 들
- ◎ 섬뜸 : 개내 길가에 있는 들
- ◎ 소댕이 : 개내 앞에 있는 들
- ◎ 수밭골: 수바웃골에 있는 들
- ◎ 원통골 : 원통꼬랑에 있는 들
- ◎ 중바대 : 개내 동쪽 복판에 있는 들
- ◎ 진퍼 : 점퍼에 있는 들
- ◎ 큰새미 : 개내 서쪽에 있는 논

### 4) 골

- ◎ 감남골: 원통꼬랑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갓고랑 : 감남골 북쪽의 골짜기
- ◎ 건두꾸미(금두꾸미) : 가천리에 있는 골짜기
- ◎ 굴안고랑 : 벌목고랑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꼭두바구 : 짐퍼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대바울또랑 : 외목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가 있었음
- ◎ 덧고랑 : 개내 뒤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매꿀꼬랑 : 관음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벌목고랑 : 마당멀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무(풀무)를 놓았다고 함
- ◎ 산막재 : 개내 북쪽에 있는 산이 막은 골짜기
- ◎ 솔뚝넙 : 용꼬랑 서쪽 골짜기
- ◎ 수바웃골(수암, 수암곡) : 가천리에 있는 골짜기



- ◎ 솟골골 : 산막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외목 : 굴안고랑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용꼬랑 : 소당산 남쪽에 있는 용모양의 골짜기
- ◎ 원통꼬랑 : 개내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작은갓고랑 : 갓고랑에 있는 작은 골짜기
- ◎ 점터 : 오실목 밑에 있는 골짜기로 웅기점이 있었다 함
- ◎ 짐퍼 : 개내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처녀땀굼텅이 : 개내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처녀 무덤이 있었음

#### 5) 고개

- ◎ 가남배기재 : 가천리에서 명성리로 가는 고개
- ◎ 오실목(원수목): 개내 남쪽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가천저수지(가천저수지) : 가천리에 있는 저수지로 1955년 준공
- ◎ 관음사터 : 불당재 서쪽에 있는 관음사터
- ◎ 피밭등(꽃밭등) : 수암산 중간에 있는 등성이
- ◎ 논새미 : 개내 북편에 있는 샘
- ◎ 농바구 : 덧고랑에 있는 바위
- ◎ 덧산바구 : 덧갓에 있는 바위
- ◎ 마구할머니집 : 생기미 밑에 있는 바위
- ◎ 산등새미 ; 개내 북쪽에 있는 샘
- ◎ 생이바구 : 선유산 남쪽에 있는 바위
- ◎ 선달바우 : 솟골골에 있는 바위
- ◎ 선바우 : 개내 서쪽에 있는 바위
- ◎ 안선재터(安仙齋터) : 안지배이에 있는 재실터
- ◎ 안짱등 : 용지른굼텅 서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창이너드렁 : 생기미에 있는 너덜
- ◎ 취령산민보유지(鷲嶺山民寶遺址) : 치령산에 있는 유지로 석축이 10리가량 둘러 있음
- ◎ 홍사리갓등(장터) : 생기미 서쪽에 있는 등성으로 홍씨 무덤이 있으며 예전에는 장이 섰다고 함

#### 4. 봉치리(鳳峙里)

봉치리(鳳峙里)는 단일 법정리로 형성된 마을로 본래 진주군 개천면 지역으로 새티(鳥峙)라 하였는데 1906년에 고성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개천면의 봉치리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대체로 개천면내의 인근 마을이 임란 전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 마을 역시 그쯤으로 보고 있다.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약 150m나 되는 고지대의 분지에 형성되어 있다. 동으로 새티(鳥峙)재를 넘어 구만면과 경계를 하고 남으로는 고사리재를 넘어 좌이마을과 접하고, 북으로 개내곡(太川谷)을 넘어 청광리와 접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김해허씨, 진양정씨, 남평문씨, 보성선씨, 은진송씨, 문화류씨, 진양강씨, 창원황씨, 성주도씨 등 다양하다. 마을에는 충효각(忠孝閣)과 죽은정(竹隱亭), 소강정(小岡亭), 청계당(聽溪堂), 봉산재(鳳山齋), 봉강재(鳳岡齋) 등이 있다.

##### 1) 마을

- ◎ 건넬밭 : 봉티 남쪽에 있는 마을
- ◎ 새티(鳥峙里) : 봉치리의 예전 지명. 천지개벽 시에 봉치골에 물이 범람하여 새 한 마리가 앓을 정도만 남고 모두 물에 잠겨 새티라 불렀다 함
- ◎ 옷밭 : 봉티 동쪽에 있는 마을
- ◎ 큰밭 : 봉티 가운데 있는 큰 마을

##### 2) 산

- ◎ 개넛곡면당 : 봉티리에 있는 산
- ◎ 깃대면당(旗棒頂) : 마을 서북쪽에 있는 높은 산으로 옛날 산 면당에 깃대를 세워 사방으로 서로 연락을 하였다고 함
- ◎ 대로골면당 : 봉티리에 있는 산
- ◎ 새순방면당 : 새골과 대로골면당 사이에 있는 산

##### 3) 들, 논

- ◎ 장구배미 : 봉티 앞에 있는 논
- ◎ 진배미 : 장구잣골에 있는 논

##### 4) 골

- ◎ 갓고랑 : 봉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대리곡(大理谷, 대리골) : 건네땀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대정곡(大井谷, 대정골) : 새미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봉금정(鳳琴亭) : 건네땀 동쪽 골짜기
- ◎ 산제골(山祭谷) : 윗마을 뚝메등에 있는 골짜기로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음
- ◎ 산짓골 : 봉금정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새미골 : 우리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샘이 있었음
- ◎ 앞스리기 : 봉티 남서쪽 산기슭에 있는 골짜기
- ◎ 우리골 : 봉티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장구잣골 : 대정골 서쪽 골짜기

#### 5) 고개

- ◎ 개사리곡(고사릿곡, 고사) : 봉티리 남쪽에 있는 고개
- ◎ 번뎃곡 : 봉티리에 있는 고개
- ◎ 새곡(조티) : 봉티 동쪽에 있는 고개
- ◎ 우릿곡 : 우리골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배락바구 : 긴뎃면당(군산천)에 있는 바위
- ◎ 봉티포강(鳳峙浦江) : 봉티 서쪽에 있는 못
- ◎ 북바구 : 개넛곡면당에 있는 바위로 두드리면 소리가 남
- ◎ 삼충정문(三忠旌門) : 봉티 서쪽 어귀에 있는 정문
- ◎ 숯굴등(炭屈嶺) : 마을 입구의 큰 마을로 내려오는 능선인데 옛날에 새가 많아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무를 태워 연기로 새로 쫓았다고 함
- ◎ 진등 : 대리골 북쪽에 있는 긴 등성이
- ◎ 진화성 : 앞스리기 서쪽에 있는 등성이
- ◎ 큰새미 : 봉티 가운데 있는 큰 샘
- ◎ 통새미 : 봉티 동쪽에 있는 샘

### 5. 용안리(龍安里)

용안리(龍安里)는 본래 진주군 개천면의 지역인데, 1906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에 상물, 하물, 용궁을 병합하여 용안리라 하였다. 행정리로 용안(龍安)과 용궁(龍

宮)의 2개 마을이 있다.

용안마을은 옛날부터 물안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한해가 극심하여 다른 마을은 흉년이 들어도 이 마을만은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취락으로 상물안, 중물안, 점촌, 죽전 등이 있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임란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은 뒷산인 망선봉의 주령 밑에 남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고성이씨, 밀양박씨, 분성배씨, 전주최씨, 진양강씨, 여산송씨, 전주최씨, 해주오씨, 함안조씨, 제주고씨 등이다. 마을 앞에 있는 정자나무에서 매년 음력 정월초이틀에 동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에는 죽전에 김해김씨 문중의 망선재(望仙齋)가, 웃담에는 고성이씨 문중의 망모재(望慕齋)가, 셋담에 광산김씨 문중의 원모재(遠慕齋)와 분성배씨 문중의 화목재(和睦齋)가 있다.

용궁마을은 이곳에 용이 살았다하여 이렇게 불렸으며 1894년에 용안리에서 분동되었다. 마을은 임진왜란 전후인 1600년경에 형성되었으며, 현재 거주하는 경주최씨, 경주김씨, 경산전씨가 입촌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경주최씨, 경주김씨, 경산전씨, 나주임씨 등 여러 성씨가 살고 있다.

### 1) 마을

- ◎ 대밭(죽전, 하물동, 하물안) : 용안동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상물안 아래쪽이 됨
- ◎ 상물안(상물동) : 죽전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새땀(용궁어귀) : 용궁어귀에 있는 마을
- ◎ 새땀 : 죽전 서쪽에 있는 마을
- ◎ 용궁(龍宮) : 상물안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웃땀 : 용안리 동쪽에 있는 마을
- ◎ 점촌 : 죽전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사기점이 있었음

### 2) 산

- ◎ 가리산 : 용안리에 있는 산
- ◎ 망선암(望仙庵) : 속골 동쪽에 있는 산으로 전에 망선암이란 절이 있었음
- ◎ 앞산 : 용궁 앞에 있는 산

### 3) 들, 논

- ◎ 고자터 : 안깁븐 서쪽에 있는 들로 이곳에 사람이 살다가 고자가 되었다 함

- ◎ 독안들 : 죽전 뒤에 있는 들로 독 안이 됨
- ◎ 딘전들 : 용안리 앞에 있는 들
- ◎ 마당배미 : 죽석배미 위에 있는 논
- ◎ 모래배미 : 재갈배미 위에 있는 논으로 모래가 많음
- ◎ 선바우 ; 선바구가 있는 들
- ◎ 옷들1 : 상물안 위에 있는 들
- ◎ 옷들2 : 용궁 동북쪽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선바우에 있는 논
- ◎ 재갈배미 : 고자터 밑에 있는 논으로 자갈이 많음
- ◎ 죽석배미 : 선바우에 있는 논으로 흉년에 죽 한 그릇과 바꿨다고 함

## 4) 골

- ◎ 감남골 : 상물안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도둑골 : 용궁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전에 도둑이 살았다 함
- ◎ 뒀쪽골 : 용난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빨당골 : 절터골 북쪽 옆에 있는 골짜기
- ◎ 속골 : 뒀쪽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안깁븐 : 상물안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용궁골 : 용궁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장구젯골 : 용궁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절터골 : 용궁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터가 있음

## 5) 고개

- ◎ 용궁재 : 용궁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가리산모퉁이 : 가리산에 있는 모퉁이
- ◎ 가리산보 : 죽전 서쪽에 있는 보로 가리산 밑이 됨
- ◎ 덕석바구 : 빨당골에 있는 바위
- ◎ 선바구(바위) : 용궁 어귀 서쪽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서 있다고 선바구라 함
- ◎ 앞산숲 : 마을에 바위가 보이면 화재가 난다고 하여 대나무와 단풍나무로 숲을 조성

하여 마을이 보이지 않게 함

- ◎ 용궁모티이 : 용궁에 있는 모퉁이
- ◎ 용안저수지(龍安貯水池) : 용안리에 있는 못
- ◎ 절터 : 속골 북쪽에 있는 절터
- ◎ 정삼너드령 : 절터 동쪽에 있는 너설로 정수암이란 암자가 있었음
- ◎ 찬물보 : 웃땀 앞에 있는 보
- ◎ 흙새미: 용궁 서쪽에 있는 샘

## 6. 북평리(北坪里)

북평리(北坪里) 본래 진주군 개천면의 지역인데 1906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에 유전(楡田), 강변(江邊), 후동(後洞), 원동(院洞)을 병합하였다.

북평마을은 마을 북쪽에 들(野)이 있다하여 이렇게 불렸다. 자연 취락으로 비노리, 후동, 유전마을이 있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북평리에 소재한 옥천사가 신라고찰임을 감안할 때 주변에 마을이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옥천사 입구의 유전마을은 일제 말까지 대저승이 집단으로 거주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경주김씨, 전주최씨, 문화유씨, 청송심씨, 진양강씨 등이다.

원동마을은 조선후기 진주부사가 통제영으로 행차하는 길목으로 이곳에 고을 원이 쉬어가는 원(院)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졌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 역시 이것으로 추정한다면 조선후기부터 주민이 거주하면서 형성되었다. 마을은 연화산맥이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록에 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을 거주민은 면내에서도 작은 마을로 거주민의 성씨는 광산김씨, 김해김씨 등이다.

### 1) 마을

- ◎ 강변동 : 비노리 서쪽에 있던 마을
- ◎ 늘밭(유전, 동하) : 북평리에 있는 마을
- ◎ 뒷골(후동) : 비노리 남쪽에 있는 마을
- ◎ 비노리(非老里, 우유) : 후동 북쪽에 있는 마을
- ◎ 원동(院洞) : 유전 동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범바구 : 비노리 동쪽에 있는 산

◎ 옥바구 : 지름바구 동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가래배미 : 쇠코배미 밑에 있는 논

◎ 너덜배미 : 이정짓골에 있는 논으로 너덜이 있음

◎ 딛들 : 뒷골에 있는 들

◎ 매주밭들 : 비노리 남쪽에 있는 들

◎ 모래배미 : 너덜배미 밑에 있는 논

◎ 비노릿들 : 비노리 앞에 있는 들로 토질은 비옥하나 한발이 닥치면 수원이 없어 흉작을 면할 수가 없어 비를 빈다하여 비노리(雨遊)라 부르게 되었다고 함

◎ 새엣들 : 비노릿들 북쪽에 있는 들

◎ 쇠코배미 : 모래배미 밑에 있는 논

### 4) 골

◎ 관젯골 : 산짓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굴곡: 원동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금을 캐던 굴

◎ 너븐골 : 원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문바웃골 : 문바구 밑에 있는 골짜기

◎ 배바웃골 : 원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산짓골 : 어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어븐골 : 비노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이정짓골 : 비노리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씨가 심은 정자나무가 있음

◎ 재궁골 : 원동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남산고개 : 남산 밑에 있는 고개

◎ 황새고개 : 원동에서 옥천사로 가는 고개

### 6) 기타

◎ 감사바구 : 기차바구 북쪽에 있는 바위

◎ 관바우 : 원동 서쪽에 있는 바위로 갖처럼 생겼음

◎ 기차바구 : 비노리 북동쪽에 있는 바위

- ◎ 나간쭈 : 원동 북쪽에 있는 소
- ◎ 남생바구 : 문바구 동북쪽에 있는 바위로 남생이처럼 생겼음
- ◎ 남생바구쑈 : 남생바구 밑에 있는 소
- ◎ 매바우 : 용바우 북서쪽에 있는 바위로 매가 깃들
- ◎ 문바구(문암) : 굴곡 동남쪽에 있는 바위로 문처럼 생겼음
- ◎ 배바우 : 배바웃골에 있는 바위
- ◎ 배바우모퉁이 : 배바우 밑에 있는 모퉁이
- ◎ 백련암(白蓮庵) : 옥천사 동쪽에 있는 절
- ◎ 범바구 : 범바구 산에 있는 바위
- ◎ 부엉바구 : 감사바구 동남쪽에 있는 바위로 부엉이가 깃들
- ◎ 세진교(洗塵橋) : 유전마을에 있는 교량으로 일명 무지개다리라고도 함
- ◎ 석굴(石窟) : 개천면 유전(楡田)산에 있는 석굴
- ◎ 쉬는바우 : 남생바구 서쪽에 있는 바위
- ◎ 영감바우 : 문바구 서쪽에 있는 바위
- ◎ 옥샘(옥천, 옥새미) : 옥천사에 있는 샘
- ◎ 옥천사(玉泉寺) : 유전 남쪽에 있는 절
- ◎ 용바우 : 원동 북쪽 길가에 있는 바위로 용처럼 생겼음
- ◎ 원동교(院洞橋) : 원동에 있는 다리
- ◎ 이정지모티이 : 이정짓골에서 유전으로 가는 모퉁이
- ◎ 집바우 : 매바우 밑에 있는 바위
- ◎ 지름바구 : 범바구 동남쪽에 있는 바위로 기름을 칠한 것처럼 미끌미끌함
- ◎ 찬새미 : 옥천사 남쪽에 있는 샘
- ◎ 참새미 : 원동에 있는 샘
- ◎ 황소바위 : 옥천사 입구에 있는 백령암(白靈岩)으로 청련암을 창건할 때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물도 날라주고 돌도 치워주고 나무도 날라 주는 등 많은 일을 도왔다는 전설이 있음

## 7. 명성리(明星里)

명성리(明星里)는 본래 진주군 개천면 지역인데 1906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에 상명과 하명을 병합하여 개천면 명성리가 되었다. 행정리로 하명(下明)과 상명(上明)의 2개 마을이 있다.



하명마을은 명성리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어 이렇게 부른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약 700여 년 전으로 추정하며 옛날에는 진양군과 창원시를 잇는 유일한 역마촌 구실을 하였으며 5일장이 섰던 역골장터였다. 마을 뒤쪽으로는 수리봉이 높이 솟아 있고 마을 앞은 연화산이 건너다보인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강씨, 경주김씨, 문화류씨, 수원백씨 등이다.

상명마을은 명성리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약 500여 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다. 마을은 서·북쪽은 선유산 옥녀봉, 수리봉, 망선봉, 안산 등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거주민의 성씨는 경주김씨 집성촌이다. 마을에는 경주 김씨의 재실인 열화정(悅話亭)이 있다.

### 1) 마을

- ◎ 골안 : 상명 북쪽에 있는 마을
- ◎ 들땀 : 가래산 동쪽에 있는 마을
- ◎ 상명동(上明洞, 웃녘골) : 명성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하명동 위쪽이 됨
- ◎ 시장(畚畓, 장터, 임외) : 하명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하명(下明, 아랫녘골) : 상명 아래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가래산(加里山) : 명성리에 있는 산으로 옛날에 하명마을에 살았던 만석군 부자(富者)가 가을 추수 때 벼 타작을 하면서 겨가 모여서 산이 되었다고 함
- ◎ 안산 : 상명 서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고뫼골 : 들앞들에 있는 들
- ◎ 구릉들 : 상명 남쪽에 있는 들
- ◎ 닷마지 : 고뫼골 남쪽에 있는 들
- ◎ 들앞들 : 들보 동쪽에 있는 들로 앞에 큰 돌이 박혀 있음
- ◎ 백물새 : 닷마지 옆 논
- ◎ 소뿔도라리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
- ◎ 장구배미 : 고뫼골에 있는 논
- ◎ 조구배미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으로 조구(조기)처럼 생겼음

4) 골

- ◎ 강시골 : 소재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관음박재(가람바구) : 작은 소구정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전에 절이 있었음
- ◎ 누부뜸골 : 하명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덧골 : 상명 뒤에 있는 골짜기
- ◎ 불당골 : 상명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산어장골 : 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새밧골 : 안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소재골 : 양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쇠금텅 : 산어장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안골 : 아래감남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양골 : 절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아래감남골 : 쇠금텅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아래감나무가 있었다고 함
- ◎ 작은소구정 : 큰소구정 밑에 있는 골짜기
- ◎ 절골 : 가람바구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누부뜸골 서쪽 골짜기
- ◎ 큰소구정 : 불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
- ◎ 필똥골 : 하명 북쪽에 있는 골짜기

5) 기타

- ◎ 관음사지(觀音寺址) : 마을 동북쪽 관음봉 밑에 있는 암자터
- ◎ 농바구 : 절골에 있는 바위
- ◎ 도치바구 : 농바구 위에 있는 바위
- ◎ 들땀새미 ; 들땀에 있는 샘
- ◎ 배락바구 : 안산에 있는 바위
- ◎ 생이바구 : 명성리 북쪽에 있는 바위
- ◎ 옷밭등 : 상명 남쪽에 있는 등성이
- ◎ 찢지밭등 : 상명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찬새미 : 상명 동쪽에 있는 샘
- ◎ 탕건바우 : 강시골 어귀에 있는 바위

## 8. 예성리(禮城里)

예성리(禮城里)는 본래 진주군 개천면의 지역인데 1906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구례, 덕성동과 영의곡면의 성곡 일부를 병합하여 구례의 예(禮)자와 덕성의 성(城)자를 따서 예성리라 하였다. 행정리로 덕성(德城)과 구례(具禮)의 2개 마을이 있다.

덕성마을은 옛날에는 덩재 또는 사안두라 하였다. 이렇게 부른 것은 중담마을 위쪽에 돌출한 산모양이 사두(蛇頭)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인천채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고 청송심씨 등 여러 성씨가 살고 있다. 취락으로는 웃골, 중담, 비리곡, 아래담 등이 있다. 마을은 연화산 줄기가 북쪽으로 뻗어 내려 영오면 성곡리와 경계를 이룬다. 마을 앞에는 큰들이 있으며, 큰들 아래로 영오천이 흐르고 있다. 거주민의 성씨는 인천채씨, 청송심씨, 밀양박씨, 진양정씨, 경산전씨, 진양강씨, 경산전씨, 진양강씨, 해주씨, 수원백씨, 파평윤씨 등이다. 마을에는 성덕재(聲德齋)가 있다.

구례마을은 1594년경에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은 연화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길게 내려오면서 서쪽은 영오면과 경계를 이루고 동쪽은 깊은 산골을 형성하여 주위가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옛날부터 금·은·동과 철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경주김씨, 분성배씨, 달성서씨, 청송심씨, 진양강씨, 경산전씨, 의령남씨, 파평윤씨, 성주여씨 등이다.

### 1) 마을

- ◎ 구례동(具禮洞, 구례골) : 덕성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덕성동(德城洞, 덩재) : 구례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어봉골(어봉동) : 구례 동쪽에 있는 마을

### 2) 들, 논

- ◎ 관자물들 : 어봉골 북쪽에 있는 들
- ◎ 방아들 : 구례 북쪽에 있는 들
- ◎ 쇄영이(씻똥들, 씨똥밭) : 구례 앞에 있는 들
- ◎ 큰들 : 덩재 앞에 있는 큰 들

### 3) 골

- ◎ 가리골 : 운봉고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갯골(찍골) : 뺏나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구례절골(연대밧골) : 구례동에 있는 골짜기
- ◎ 군봉골 : 묵은밭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매사이골 : 구례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묵은밭골 : 바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밀방골 : 가리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밀밭이 있었음
- ◎ 바린골 : 뿔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뱀밧골 : 찍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비로골 : 덩재 뒤에 있는 골짜기
- ◎ 뺏나무골 : 야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뿔당골 : 중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야시골 : 밀방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야시(여우)가 있었다고 함
- ◎ 운봉골 : 매사이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중산골 : 뱀밧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스님이 이곳에서 수양을 한 곳이라 함
- ◎ 창골 : 칭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창고가 있었다하여 붙여 짐. 혹자는 6.25 사변이후에 생긴 지명으로 6.25사변 때 주민이 대창(죽창)을 들고 공산당과 싸워 많은 전사자가 났다고 하여 창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함
- ◎ 칭녹골 : 어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4) 고개

- ◎ 비로곡 : 덩재 북쪽에 있는 고개

#### 5) 기타

- ◎ 고려장등 : 비로곡에 있는 등성으로 고려장이 있었음
- ◎ 너븐등 : 진등 남쪽에 있는 넓은 등성이
- ◎ 농비구 : 장구등 북쪽에 있는 바위
- ◎ 단징이들보 : 단징이들에 물을 대는 보
- ◎ 목비이(목친등, 목빈양지) : 바린등 남쪽에 있는 등성이
- ◎ 물방애등 : 목친등 북동쪽에 있는 등성이
- ◎ 바린등 : 안산등 남쪽에 있는 등성이
- ◎ 방맹이등 : 속옥등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썩옥등 : 물방애등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안산등 : 너븐등 남쪽에 있는 등성이
- ◎ 연대암(蓮臺庵) : 구례동 남쪽에 있는 절
- ◎ 장구등 : 주개등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주개등 : 방맹이등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진등 : 어븐골 남쪽에 있는 긴 등성이

## 9. 좌연리(佐蓮里)

좌연리(佐蓮里)는 본래 고성군 서마면(西馬面) 지역인데, 1914년에 연동, 신평, 좌이곡을 병합하여 좌이곡(佐耳谷)과 연동(蓮洞)의 이름을 따서 좌연리라 하여 마암면에 편입되었다. 1973년에 다시 개천면에 편입되었으며 행정리로 좌이(佐耳)와 좌연(佐蓮)의 2개 마을이 있다

좌이마을은 좌이산(탕근봉) 아래의 조그만 들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라 아홉 마리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하여 좌구실이라 하였다. 또한 좌이산 이름을 따서 좌이곡(佐耳谷)으로 하여 고려시대부터 개칭하여 부르게 되었다. 구전되기로는 고려시대에 상좌이 마을에는 어씨가 살았고 하좌이 마을에는 오씨가 살았는데, 마을에 있는 큰 숲 덕분에 부촌이 되어 백 여 호 대촌을 이루어 오방(吳芳)이라 불렀다. 어느 해 길을 가던 스님 말을 듣고 숲을 없앤 후로 마을이 폐망했다고 한다. 마을은 좌이산의 주봉인 탕근봉을 중심으로 구만, 마암면과 경계를 이루며 동, 남, 북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함안이씨, 창원정씨, 김해허씨, 분성배씨, 김해김씨, 진양장씨, 밀양박씨 등이다.

좌연마을은 마을 모양이 배와 같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짐대, 배치고개, 배바위 등 배와 관련된 지명들이 많다. 1914년에 좌이곡과 연동의 이름을 따서 좌연리로 하였으며 좌연리를 행정마을로 분동 하면서 좌연이라 하였다. 마을은 배치고개를 경계로 마암면 신리와 접하며 월곡과 신평, 좌구실 등 산재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연화산이 마을 서쪽으로 높이 솟아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안악이씨, 광산김씨, 밀양박씨, 진양장씨 등이다.

### 1) 마을

- ◎ 개정지 : 신평 서쪽에 있는 마을로 갯가가 되며 장자가 있었음
- ◎ 못땀 : 좌이저수지 근처에 있던 마을
- ◎ 상좌이(上佐耳, 웃자구실) : 좌연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신평(新坪) : 아랫자구실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아랫자구실(하좌이) : 웃자구실 아래에 있는 마을
- ◎ 연동(蓮洞, 월곡) : 신평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좌이곡(佐耳谷) : 웃자구실과 아랫자구실을 통틀어 이르는 마을
- ◎ 중좌(中佐) : 웃자구실과 아랫자구실 중간에 있는 마을

## 2) 산

- ◎ 덕산(德山) : 신평 남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구릉들 : 중좌 앞에 있는 들
- ◎ 배바웃들 : 배바위 옆에 있는 들
- ◎ 외진들 : 원안들 남쪽에 있는 외진들
- ◎ 운암평(雲岩坪, 원안들) : 신평 남서쪽에 있는 들
- ◎ 웃들 : 못뚝 옆에 있는 들
- ◎ 장만대미 : 중좌 앞에 있는 논
- ◎ 짐매걸 : 신평 남쪽에 있는 들

## 4) 골

- ◎ 가는골 : 장자골 서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
- ◎ 가장골 : 신평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매장을 했었음
- ◎ 감나무골 : 삼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있었음
- ◎ 덕석골 : 못뚝 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
- ◎ 맹지밭골 : 도림곡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무듬밭골 : 신평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바린골 : 싸리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범장골 : 좌이마을에서 제일 깊은 골로 옛날 범이 많이 살았다고 함
- ◎ 산밭골 : 무듬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삼박골 : 옛날에 삼(蔘)을 많이 재배하였다고 함
- ◎ 빨당골 : 싸리재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삼밭골 : 못담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새띠골 : 옷자구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숨밭골 : 신평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싱곡 : 신평에 있는 골짜기
- ◎ 양골 : 가는골 서쪽 양지에 있는 골짜기
- ◎ 양금집골 : 원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오방골 : 싸리재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원안골(운암골) : 산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은골 : 감나무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은이 났었다고 함
- ◎ 작은앵골 : 숨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장자골 : 좌련리에 있는 골짜기로 장자가 살았다고 함
- ◎ 재앵골 : 신평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절골(황새곡) : 싸리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점골 : 아랫자구실과 옷자구실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옹기점이 있었다고 함
- ◎ 지프실 ; 큰앵골 남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
- ◎ 진밭골 : 싸리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채봉골 : 싸리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1 : 가는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2 : 아랫자구실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큰앵골 : 작은앵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피사리곡 : 좌련리에 있는 고개로 고사리가 많았다고 함
- ◎ 떡재(떡고개, 덕티, 덕재) : 배티고개 남쪽에 있는 고개
- ◎ 배티고개(주재, 주티) : 연동 동북쪽에 있는 고개
- ◎ 싸리재 : 좌련리에 있는 고개
- ◎ 황새고개 : 좌이저수지 서쪽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감바구 : 석상바구 밑에 있는 바위
- ◎ 거문너드렁 : 신평 서쪽에 있는 너설
- ◎ 건네땀새미 : 중좌 동북쪽에 있는 샘

- ◎ 배바우모퉁이 : 배바위가 있는 모퉁이
- ◎ 배바우 : 좌이저수지 서북쪽에 있는 바위로 배처럼 생겼음
- ◎ 생기대(畵) : 좌이마을 입구에 있는 숲
- ◎ 서마지기보 : 아랫자구실 앞에 있는 보
- ◎ 석상바구 : 신평 서쪽에 있는 바위
- ◎ 소바구 : 못뚝 북쪽에 있는 바위로 소처럼 생겼음
- ◎ 약수터 : 하좌이 뒤편에 있는 샘으로 암물과 솟물이 있는데 이물을 마셔서 나병환자들이 병을 고쳤다고 하며 지금도 있음
- ◎ 연화산바구 : 연화산에 있는 바위
- ◎ 용비천(龍飛川) : 좌연리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을 용(龍)이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함
- ◎ 은골새미 : 은골에 있는 샘
- ◎ 장자골너드렁 : 장자골에 있는 너설
- ◎ 좌연리사찰지 : 개천면 좌연리 산 284번지에 있었던 절터
- ◎ 좌이저수지 : 배바위 동남쪽에 있는 저수지로 1955년에 준공
- ◎ 중보 : 짐때걸보와 배마웃들보 사이에 있는 보
- ◎ 짐때걸보 : 짐때걸에 있는 보

### 제 3절 거류면(巨流面 Georyu-myeon)

군 동부에 있는 면이다. 서쪽은 고성읍, 동쪽은 동해면과 접하며, 남쪽은 벽방산(651m), 면화산(414m)을 경계로 통영시와 접한다. 북쪽 당항만과 남동쪽 당동만이 내륙 깊이 만입해 있다. 중앙에 거류산(572m)이 종상형으로 솟아 있고, 산 동쪽과 서쪽에 평야가 넓게 분포한다. 조선 이전에는 진여부곡(珍餘部曲)과 적진향(積珍鄉) 지역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진여부곡은 관아의 동남쪽 25리에 있다. 적진향은 동쪽 20리에 있다.”라고 수록하였다. 『호구총수』에서 동리를 살펴볼 때, 광일면(光一面)과 광이운면(光二運面) 일대였다. 『여지도서』에는 “광내일운면(光內一運面)은 관아에서 20리에 있다. 광내이운면(光內二運面)은 관아에서 60리이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광일·광이·광삼면과 포도면(葡萄面)으로 나누어졌고, 이 중 광이면과 광삼면은 1900년(광무 4) 현재 통영시인 진남군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914년 광일면과 진남군을 개칭한 용남군의 광남면(光南面)을 합치고, 면 중앙에 있는 거류산의 이름을 따서 거류면이라고 칭하였다. 1973년 동해면



감서리를 편입하였고, 현재 9개 법정리를 관할한다.

동리의 지명 중 가래리는 거류산으로부터 바다까지 이어진 계곡이 가래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가래골’로 불리는데서 유래된 것으로 전하며, 화당리는 남촌진(南村鎭)이 있어 ‘남촌진 마을’로 불렸는데, 1895년 통제영과 관할하던 진들이 폐지되고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다. 『여지도서』에는 남촌진에 대해서 “광해군 11년(1619) 도선촌에 있던 진을 관아의 동쪽 적진포(積珍浦)에 소모진(召募鎭)을 옮겨 설치하고 그대로 ‘남촌’이라고 이름 하였다.”라고 수록하였다. 『1872년지방지도』(남촌진)은 남촌진의 모습만을 간결하게 회화적 수법으로 그렸는데, 동헌을 비롯한 객사(客舍), 군관청(軍官廳), 아전청(衙前廳) 등 관아 건물과 군기(軍器), 화약고(火藥庫), 어변정(禦邊亭) 등 군사시설을 표시하고 있으며, 선소인 어변정 앞 바다에는 전선, 병선, 사후선을 함께 묘사하고 있다.

## 1. 당동리(塘洞里)

당동리는 본래 용남군(龍南郡) 광남면(光南面) 지역으로 연당이 있었으므로 당골 또는 연당(蓮塘)이라 하였다. 1914년에 봉곡동(鳳谷洞), 상연동(上蓮洞), 하연동(下蓮洞)을 병합하여 당동리라 해서 거류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동마을은 처음 경주최씨가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으며, 광이면 연동리가 1901년에 진남군 광이면 하연동으로 개칭되었다가 1914년 광이면과 용남군 광남면을 합면하여 거류면 당동리로 개편하였다. 연동이란 지명은 마을에 연지(蓮池)가 있었기 때문이며, 당동으로 바뀐 것은 마을에 못(池)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거주민은 강씨, 김씨, 남씨, 박씨, 서씨, 신씨, 안씨, 양씨, 우씨, 이씨, 임씨, 장씨, 전씨, 정씨, 조씨, 천씨, 추씨, 최씨, 황씨, 홍씨, 한씨 등이다. 마을에는 쌍효각, 쌍효문, 척망대(陟望臺), 포효문(褒孝門), 효열각(孝烈閣) 등이 있다.

신당마을은 1914년 광이면과 용남군 광남면을 합면하면서 인구가 많아 새로 생긴 마을이다. 현재 마을 거주민의 성씨는 강씨, 권씨, 곽씨, 김씨, 나씨, 남씨, 도씨, 유씨, 박씨, 신씨, 손씨, 이씨, 임씨, 장씨, 정씨, 전씨, 조씨, 제씨, 최씨, 홍씨, 한씨, 황씨 등이다. 신당 앞 선창가에는 선창개, 당골판장 앞에는 시장개가 있다.

봉곡마을은 앞으로는 당동만이 보이며, 뒤로는 거류산 정봉인 옥녀봉과 중봉, 필봉 등 세봉우리의 줄기 밑에 자리하고 있다. 북쪽으로 구절산이 있어 하천의 하류가 마을 앞으로 흘러들어 마을 주변에 모래(沙)가 많이 쌓였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이곳을 모래촌(沙村, 모래추리)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1945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자연마을인 새실의 새자를 따서 봉(鳳)자로 하고 계곡 따라 자리 잡고 있으므로 곡(谷)자를 따서 봉곡(鳳谷)이라고

하였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강씨, 구씨, 공씨, 김씨, 박씨, 백씨, 신씨, 이씨, 유씨, 정씨, 지씨, 조씨, 차씨, 최씨, 한씨, 하씨, 황씨, 배씨, 윤씨, 제씨, 안씨, 주씨 등이다.

1) 마을

- ◎ 강촌(江村) : 봉곡 동남쪽 바닷가에 있는 마을
- ◎ 당골(당동리) : 연당이 있어 당골 혹은 연당이라 함
- ◎ 모래실(모래칠, 몰아실, 하련동) : 봉곡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본당(本塘, 상련동) : 당동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당골의 위쪽이 되며 원마을 임
- ◎ 새실(봉곡, 조곡) : 모래실 서쪽에 있는 마을로 황새가 많았다고 함

2) 들, 논

- ◎ 구뭇터 : 당골 북쪽에 있는 논으로 옛날에는 못이 있었음
- ◎ 당골들 : 당골에 있는 들
- ◎ 떡논 : 새실 앞에 있는 논
- ◎ 모래실들 : 모래실에 있는 들
- ◎ 북골 : 북골에 있는 들
- ◎ 새실앞 : 새실 앞에 있는 들

3) 골

- ◎ 갓골 : 당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북골 : 본당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약새밋골 : 북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어름골 : 약새밋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염땅골(염탁골) : 북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4) 고개

- ◎ 가려리고개 : 당골에서 가려리로 넘어가는 고개
- ◎ 봉곡고개 : 봉곡에서 무지샘으로 넘어가는 고개
- ◎ 중당이고개 : 당골에서 송산리의 송정으로 넘어가는 고개

5) 기타

- ◎ 가매바우 : 풀밭골에 있는 바위

- ◎ 당골개 : 당골에 있는 개
- ◎ 당골만(당동만) : 당동리 앞에 있는 만
- ◎ 당골장(당동장) : 신당에 있는 오일장
- ◎ 무지샘 : 약새미 북쪽에 있는 샘으로 무제(기우제)를 지낼 때 이 물을 길어 사용함
- ◎ 복골보 : 복골에 물을 대는 보
- ◎ 선창개 : 신당 앞 선창에 있는 개
- ◎ 시장개 : 당골판장 앞에 있는 개
- ◎ 쌍효각(雙孝閣) : 본당 북쪽 길가에 있는 정문으로 경주 최씨와 효부 함안 조씨의 정문임
- ◎ 쌍효문 : 쌍효각 북쪽에 있는 정문으로 효자 정천동(鄭千東)과 효부 밀양 박씨의 정문임
- ◎ 약새미 : 약새밋골에 있는 우물
- ◎ 채갑이못 : 새실 북쪽에 있는 못으로 이채갑이가 못을 뚫었다고 함
- ◎ 척망대(陟望臺) : 당골 서쪽에 있는 대. 최상조가 쌓아서 매일 부친의 무덤을 바라보았다고 함
- ◎ 포효문(褒孝門) : 본당과 봉곡 사이의 길가에 있는 비. 김상습의 효행을 기록하고 있음
- ◎ 효열각(孝烈閣) : 본당 앞 길가에 있는 정문

## 2. 신용리(新龍里)

신용리는 본래 용남군(龍南郡) 광남면(光南面) 지역인데, 1914년에 신리동, 용동, 연화동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신리와 용동의 이름을 따서 신용리라 하여 거류면에 편입되었다. 행정마을로 용동, 마동, 상원, 하원의 4개 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용동마을은 약 400여 년 전에 김해김씨가 입주하면서 마을을 이루었으며, 대나무가 많아 대롱골, 대나무골이라 불렀다. 용동이라고 한 것은 이곳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서 용(龍)이 승천하였다는 전설 때문이다. 마을은 거류산 남쪽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강씨, 구씨, 김씨, 문씨, 박씨, 백씨, 서씨, 손씨, 이씨, 안씨, 장씨, 정씨, 조씨, 천씨, 최씨, 홍씨, 황씨 등이다.

마동마을의 지명은 갈마음수혈(渴馬飲水穴) 즉 목마른 말이 물을 찾아 헤매다 물을 마시는 형국이라는 풍수설에 기인한다. 자연마을로 탈티, 송골, 청티골, 초전 등이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60여 년 전으로 설씨가 가장 먼저 입주하였으며, 그 후 창녕성씨가 입주하였다고 한다. 또 송골(松谷)마을에는 진양강씨가, 나분티(羅霧峙)마을에는 김해김씨 등이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은 남쪽으로는 통영시 광도면을 경계를 이루며, 동남쪽은 상원마을과 동쪽은 용동마을이 접하여 있고, 서쪽은 은월리 월치마을을 경계로 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강씨, 김씨, 박씨, 안씨, 장씨, 조씨, 지씨, 최씨, 천씨 등이다.

상원마을은 약 400여 년 전 자연마을인 무계촌에서 윤씨와 박씨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조선 말기에 마을이 퇴폐하여 현재의 마을로 이주하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새마을 혹은 신촌(新村)으로도 불렸다. 1914년 광남면과 광일면을 합면하여 거류면 신용리2구로 현 상원과 하원이 한마을을 이루어 오다가 1961년에 상원과 하원이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을은 남으로 면화산 정상을 경계로 산 넘어는 통영시 광도면 황리가 있고, 동쪽은 하원, 서쪽은 마동, 북쪽은 용동과 당동마을이 접해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강씨, 고씨, 공씨, 김씨, 남씨, 도씨, 박씨, 오씨, 양씨, 이씨, 임씨, 진씨, 정씨, 최씨, 홍씨, 한씨 등이다.

하원마을은 조선시대 중엽에 제주고씨가 처음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1914년 진남군 광일면, 용남군 광남면을 병합하여 거류면 새마을 남촌(南村)마을로 부르다가 1945년에 거류면의 하원마을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남촌진(현재 화당리)이 생겨 통영으로 통하는 길이 하원마을을 거쳐 현 상원마을 뒤편으로 통과하였다. 길가에 벼수를 세우고 돌탑을 쌓아 매년 정월 초하룻날 동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마을은 거류면사무소 남쪽 면화산 기슭에 중땀과 아랫땀을 합하여 하원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남쪽에는 면화산 정상능선을 경계로 산 넘어는 광도면 황리마을이 있고, 동쪽은 화당리, 서쪽은 상원마을에 접해있다. 마을 북쪽 앞은 당동만과 동해와 맞물려 있다. 거주민의 성씨는 강씨, 구씨, 김씨, 남씨, 박씨, 배씨, 백씨, 이씨, 임씨, 조씨, 진씨, 최씨, 추씨, 한씨, 황씨 등이다.

#### 1) 마을

- ◎ 갓땀 : 용동 남쪽에 있는 마을
- ◎ 나분디기(나분티, 나분재) : 송곡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덧땀 : 용동 뒤쪽에 있는 마을
- ◎ 마동(신마동, 신마촌) : 송곡 북쪽에 있는 마을
- ◎ 상원(웃땀) : 하원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서짓땀 : 하원 서쪽에 있는 마을로 서재가 있었음
- ◎ 송곡(송골) : 마동 남쪽에 있는 마을
- ◎ 신리(하원, 아래땀, 새말) : 신용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상원의 아래쪽에 해당되며 새로 생겼음
- ◎ 신마동(신마촌, 마동) : 송곡 북쪽에 있는 마을

- ◎ 안팍 : 용동 북편에 있는 마을
- ◎ 용동 : 마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중팍 : 하원 서쪽 북편에 있는 마을
- ◎ 중원 : 상원과 하원 사이에 있는 마을

## 2) 산

- ◎ 문암산 : 용동 서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간녕배미 : 마동 서쪽에 있는 논
- ◎ 갈밭들 : 용동 남쪽에 있는 들로 갈대밭이 있었다고 함
- ◎ 고래실 : 송골 북쪽에 있는 들
- ◎ 구렁들 : 용동 동쪽에 있는 들
- ◎ 극냉이들 : 무수촌 남쪽에 있는 들
- ◎ 민논 : 마동 북쪽에 있는 논으로 밋밋한 버덩이었는데 개간하여 논이 됨
- ◎ 버거지기들(벗걸들) : 용동 동남쪽에 있는 들
- ◎ 벽수걸 : 상원 동쪽에 있는 들
- ◎ 복걸 : 상원 북서쪽에 있는 들로 큰 보가 있음
- ◎ 상구배미 : 용동 서남쪽에 있는 논
- ◎ 상새미들 : 마동 남쪽에 있는 들
- ◎ 세공배미 : 마동 동쪽에 있는 논. 해마다 세공을 바치면 남는 것이 없을 만큼 소출이 적다 함
- ◎ 우무당들 : 용동 서남쪽에 있는 들로 지형이 외진 곳으로 우묵하다고 함
- ◎ 자갈들 : 용동 남쪽에 있는 들
- ◎ 장곡들 : 장곡 밑에 있는 들
- ◎ 텃걸 : 용동 서북쪽에 있는 들
- ◎ 흥걸들 : 마동 동쪽에 있는 들

## 4) 골

- ◎ 도장골 : 송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동작골 : 무수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미륵골 : 어름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높이는 한 길쭉 되는 좌상의 돌미륵이 있음

- ◎ 산지당골 : 구매등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제당이 있었음
- ◎ 삼밭골 : 상원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음
- ◎ 새당골(새장골) : 삼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새로 지은 당집이 있었다고 함
- ◎ 서당골 : 미륵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당이 있었다고 함
- ◎ 성짓골 : 용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어름골 : 바당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작은골 : 큰골에 있는 작은 골짜기
- ◎ 장의골 : 마동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장의사가 있음
- ◎ 준수논골 : 하원 뒤에 있는 골짜기로 준수라는 이의 논이 있었다고 함
- ◎ 중산골 : 용동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죽은 중을 화장했다고 함
- ◎ 청텃골 : 마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철석이 있으며 물이 좋다고 함
- ◎ 큰골 : 청텃골 위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흙짓골 : 송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니분지(니분티, 팔칭이곡) : 니분디기 남쪽에서 광도면 황리의 팔칭이로 넘어 가는 고개
- ◎ 미영밭구미 : 상원 남쪽에 있는 고개로 미영(무명)밭이 있었다고 함

#### 6) 기타

- ◎ 갓밭등 : 용동 서쪽에 있는 등성으로 용동에 사는 갓 만드는 사람의 밭이 있었다고 함
- ◎ 건는개뜯 : 상원 북쪽에 있는 개
- ◎ 건는바구 : 삼밭골에 있는 바위
- ◎ 구매등 : 마동 서쪽에 있는 등성이
- ◎ 굴바구 : 마동 북쪽에 있는 바위로 굴이 있다고 함
- ◎ 기열문(紀烈門) : 달터 앞 길가에 있는 비로 이종숙의 아내 함안 이씨의 열행을 기록 함
- ◎ 농바우 : 팽바우 위쪽에 있는 바위
- ◎ 동작골터 : 동작골에 있는 절터
- ◎ 마당바우 : 황새등 위쪽에 있는 바위로 마당처럼 넓다고 함
- ◎ 문바우(문암) : 문바우등에 있는 두 개의 바위가 문처럼 서 있다고 함
- ◎ 문바우등 : 용동 서북쪽에 있는 등성이
- ◎ 발막골개 : 하원 북쪽에 있는 개로 어살을 치고 고기를 잡았다고 함

- ◎ 상새미 : 마동 서남쪽에 있는 샘
- ◎ 석신바우 : 건는바구 위쪽에 있는 바위
- ◎ 쉬는바구 : 큰골 동남쪽에 있는 바위로 넓고 편편하여 나무꾼이 쉬어간다고 함
- ◎ 상호문 : 용동에 있는 정문
- ◎ 애엿등(윗등) : 신용리와 화당리에 걸쳐 있는 등성이
- ◎ 연애다리 : 용동 앞 길가에 있는 다리로 젊은 남녀가 이곳에서 몰래 만났다고 함
- ◎ 음짓바우 : 바당골에 있는 바위
- ◎ 자갈보 : 자갈들에 물을 대는 보
- ◎ 장의사 : 장의골에 있는 절
- ◎ 중새미 : 마동 서쪽에 있는 샘
- ◎ 지동바우 : 산지당골 위쪽에 있는 바위로 기둥처럼 생겼다고 함
- ◎ 창호각 : 달태곡 길가에 있는 효자추 두관의 정문
- ◎ 청태곡모령이 : 청텃골에 있는 모령이
- ◎ 칼바우 : 용동 서남쪽에 있는 바위로 칼을 세워놓은 모습이라 함
- ◎ 탕건바우 : 칼바우 밑에 있는 바위
- ◎ 통새미 : 하원 복판에 있는 샘
- ◎ 팽바우 : 큰골에 있는 바위
- ◎ 팽풍바우 : 굴바구 서쪽에 있는 바위로 병풍을 친 것처럼 생겼음
- ◎ 황새등 : 용동 서쪽에 있는 등성으로 황새형국이라고 함

### 3. 화당리(華塘里)

화당리(華塘里)는 본래 용남군 광남면 지역으로 진(鎭)이 있었기 때문에 진마을, 남촌진(南村鎭), 남촌(南村)으로 불렸다. 강점기에는 화당 혹은 연화동이라 하였는데 연못이 있어 못골이라고도 하였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씨, 박씨, 배씨, 백씨, 서씨, 성씨, 신씨, 이씨, 박씨, 장씨, 전씨, 추씨, 한씨 등이다.

화당마을은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농업보다는 수산업이 발달해 있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다. 피조개 채묘, 피조개 양식, 미더덕 등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마을의 동편과 서편사이에 있는 논에는 예전에 5일장이 섰던 곳으로 남촌장터이다. 약 60년 전에 없어졌다. 또 남촌진(南村鎭)터가 있는데 본래는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에 설치하였는데 조선 광해군 때에 이곳으로 옮겼다.

1) 마을

- ◎ 동편 : 화당 동편에 있는 마을
- ◎ 서편 : 화당 서쪽에 있는 마을
- ◎ 오쟁이골 : 오장동

2) 산

- ◎ 도티미 : 동편 동남쪽에 있는 산

3) 들, 논

- ◎ 간댓들 : 동편 동쪽에 있는 들
- ◎ 남촌장터 : 동편과 서편 사이에 있는 논으로 예전에 3,8일에 장이 선 곳임
- ◎ 못골 : 간댓들 위쪽에 있는 들로 연못이 있었다고 함

4) 골

- ◎ 딛골 : 서편 뒤쪽에 있는 골짜기
- ◎ 범막골 : 서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범밭골 : 동편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범바우가 있음
- ◎ 숲골 : 동편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숲을 구웠다고 함
- ◎ 작은골 : 동편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중디 : 동편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동편 남쪽에 있는 골짜기

5) 기타

- ◎ 남촌진터 : 남촌에 있는 진터
- ◎ 동편선창 : 동편에 있는 나무
- ◎ 딛바우 : 서편 뒤에 있는 바위
- ◎ 말바우 : 범밭골에 있는 바위
- ◎ 망터 : 오장동 서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왜적의 망을 보았다고 전함
- ◎ 범바우 : 범밭골에 있는 바위
- ◎ 사도머리(사두머리) : 동편 동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뱀처럼 생긴
- ◎ 산지바우 : 딛바우 밑에 있는 바위로 산체를 지냄



- ◎ 서지밀 : 화당 북쪽에 있는 개로 위쪽에 서재가 있었다고 함
- ◎ 서편선창 : 서편에 있는 나루
- ◎ 오장동개 : 오장동에 있는 개
- ◎ 화당소류지 : 화당에 있는 못

#### 4. 거산리(巨山里)

거산리는 거류산 밑에 자리잡고 있다. 임란 직후에 김해김씨가 입주하여 마을을 만들었고, 그 뒤 함안이씨, 밀양박씨, 경주최씨 등 여러 성씨가 입주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옛날에는 이곳을 오산(烏山)이라 하였는데 이는 마을 뒤 산형이 까마귀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1914년에 거류면 거산리라 개칭하였다. 마을이름을 거산이라 한 것은 거류산의 거(巨)자와 오산동의 산(山)을 따서 지었기 때문이다. 마을 앞에 있는 개는 임진왜란 때 이름난 속시개로 유명하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씨, 박씨, 여씨, 이씨, 제씨, 전씨, 정씨, 조씨, 천씨, 최씨 등이다. 거산 동쪽에 길가에 망성대(望省臺)가 있으며 마을 앞에 우뚝 선 동산 위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이곳에서 매년 선달 그믐날밤 자정에 동체를 지낸다. 뒷산 마루에는 약 100년이 넘는 은행나무 한그루가 있는데 진양정씨의 조상이 심은 것이라 한다.

##### 1) 들, 논

- ◎ 두릉배미 : 거산 동쪽에 있는 논으로 둥그렇게 생겼다고 함
- ◎ 상아배미 : 거산 서북쪽에 있는 논
- ◎ 새미들 : 거산 북쪽에 있는 들로 샘이 있음
- ◎ 용기배미 : 거산 서북쪽에 있는 용기모양의 논

##### 2) 골

- ◎ 당쟁골 : 거산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제당이 있었음
- ◎ 송담암터 : 거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송담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음
- ◎ 정자나뭇골 : 거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정자나무가 있었음
- ◎ 제마암터(제만절터) : 거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제마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음

##### 3) 고개

- ◎ 술고개 : 거산에서 감서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술이 많았다고 함

#### 4) 기타

- ◎ 간사지(干瀉池) : 거산 선마 쪽에 있는 저수지
- ◎ 망성대(望省臺) : 거산 동쪽에 있는 대로 효자 박사검이 대를 세우고 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공을 생각했다고 전함
- ◎ 배바구 : 거산 남쪽에 있는 바위
- ◎ 속시개 : 진해만에서 출발하여 회화면과 동해면을 거쳐 거류면 가려리까지의 협수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의 추격을 받아 남해를 빠져 나가려던 왜군이 속았다는 뜻에서 이런 지명이 생겼다고 전함
- ◎ 새미바구 : 거산 북쪽에 있는 바위로 샘이 있음
- ◎ 약샘(藥泉) : 마을에서 약 600m 거류산 아래에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고 하여 매년 칠석이나 백중에는 목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함
- ◎ 은행나무 : 거산 동쪽에 있는 은행나무

### 5. 가려리(佳麗里)

가려리는 본래 고성군 광일면 지역으로 거류산 밑이므로 가리골, 가래골, 가리 등으로 불렸다. 1914년에 장대동, 하촌동, 양촌동을 병합하여 가려리라 하여 거류면에 편입되었다. 행정리로 덕촌과 가동마을이 있다.

덕촌마을은 김해김씨, 수원백씨, 함안이씨, 진양강씨 등이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 옛날부터 이곳을 가래골(가리골)이라 하였는데, 이는 거류산에서 바다까지 계곡이 길어서 마치 가래모양 같았기 때문이다. 1938년에는 덕촌이라 하였는데, 거이는 예로부터 이곳에 어진 사람이 많고 인심이 좋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주민의 성씨는 강씨, 김씨, 박씨, 배씨, 이씨, 유씨, 윤씨, 홍씨 등이다.

가동마을은 황씨, 백씨, 이씨, 김씨 등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며 1938년에 지역이 낮다고 하여 하촌(下村)이라고 부르다가 1952년에 가동으로 변경하였다. 거주민의 성씨는 강씨, 권씨, 김씨, 박씨, 배씨, 백씨, 서씨, 신씨, 심씨, 손씨, 이씨, 임씨, 유씨, 전씨, 정씨, 채씨, 조씨, 최씨, 허씨, 한씨, 황씨 등이다. 마을에는 창원황씨 삼세(三世) 충효기실비(忠孝紀實碑)가 있다.

#### 1) 마을

- ◎ 가동(佳洞) : 가려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덕촌(德村) : 가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동매밀 : 양촌 서쪽에 있는 마을
- ◎ 동사땀 : 동매 동쪽에 있는 마을
- ◎ 북편 : 안땀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새물 : 덕촌 남쪽에 있는 마을
- ◎ 안땀 : 덕촌 북쪽에 있는 마을
- ◎ 양촌(陽村) : 덕촌 동쪽에 있는 마을
- ◎ 옷땀 : 덕촌 위쪽에 있는 마을
- ◎ 장대(長大, 장때) : 서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큰땀 : 덕촌의 큰 마을
- ◎ 탐걸 : 큰땀 서쪽에 있는 마을로 탐처럼 돌을 쌓아 올린 돌무더기가 있음

## 2) 산

- ◎ 동매 : 덕촌 동쪽 들옆에 있는 산
- ◎ 선달빼기 : 덕촌 동북쪽에 있는 산
- ◎ 시리봉 : 덕촌 동남쪽에 있는 산
- ◎ 연자혈(燕子穴, 연자설) : 가러리에 있는 산으로 제비집 지형임
- ◎ 옥녀봉 : 덕촌 동북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대구배미 : 장때 서북쪽에 있는 논으로 대구처럼 생겼음
- ◎ 모래들 : 춘배 남쪽에 모래가 많은 들
- ◎ 소만이 : 장때 남쪽에 있는 들
- ◎ 앞들 : 덕촌 앞에 있는 들
- ◎ 외배미 : 대구배미 위에 있는 논
- ◎ 장때들 : 장때 앞에 있는 들
- ◎ 죽배미 : 외배미 위쪽에 있는 논으로 죽 한 그릇과 바꾼 논이라 함
- ◎ 춘배들 : 장때 서남쪽에 있는 들
- ◎ 한골 : 가동 북쪽에 있는 들
- ◎ 행기배미 : 모래들에 있는 논으로 고성향교에 딸렸었음

## 4) 골

- ◎ 갓골 : 덕촌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성안골 : 덕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용식골 : 가동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용이 났다는 전설이 전함
- ◎ 장수바웃골 : 거류산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장수바우가 있음
- ◎ 횃갓골 : 덕촌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바위

- ◎ 감바구 : 덕촌 동남쪽의 감모야의 바위
- ◎ 농바구 : 장수바웃골 위쪽에 있는 바위
- ◎ 발바우 : 거류산 북서쪽에 있는 바위
- ◎ 북바구 : 가려리와 당동리 경계에 있는 바위
- ◎ 상투바구 : 덕촌 동쪽에 있는 바위
- ◎ 쉬는바구 : 구녕바구 서쪽에 있는 바위로 나무꾼들이 쉬며 놀았다고 함
- ◎ 장수바구 : 장수바웃골에 있는 바위로 장수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고 함

#### 6) 기타

- ◎ 김진사무덤 : 덕촌 동쪽에 있는 무덤
- ◎ 깔매등 : 가동 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지형이 깔매기를 닮았다고 함
- ◎ 깔매등너드렁 : 깔매등에 있는 너설
- ◎ 덧들포강 : 덧들에 있는 소류지
- ◎ 띠밭등(모지등) : 가동 남쪽에 있는 등성이
- ◎ 물나미포강 : 덧들 남쪽에 있는 소류지
- ◎ 미네미못 : 덕촌 남쪽에 있는 못
- ◎ 상새미 : 거류산 남쪽에 있는 샘
- ◎ 서지새미 : 덕촌 북판에 있는 샘으로 옆에 서재가 있었다고 함
- ◎ 설씨정려문(薛氏旌閭門) : 정문등 위 길가에 있음
- ◎ 성안새미 : 가동 동쪽에 있는 샘
- ◎ 약새미 : 덕촌 동쪽에 있는 샘
- ◎ 여시들너드렁 : 깔매등너드렁 남쪽에 있는 너설
- ◎ 이진교(이진교) : 장대 남서쪽에 있는 다리로 고성읍과 경계
- ◎ 정문등 : 덕촌 북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설씨의 정문이 있음
- ◎ 찬새미 : 덕촌 동쪽에 있는 샘
- ◎ 창효문 : 덕촌 북쪽에 있는 효자 이지연의 정문

◎ 횃갓골너드령 : 횃갓골에 있는 너설

## 6. 송산리(松山里)

송산리는 본래 고성군 광일면 지역인데 1914년에 산촌동(山村洞), 구현동(九賢洞), 송정동(松亭洞)을 병합하여 송정(松亭)과 산촌(山村)의 이름을 따서 송산리라 하여 거류면에 편입되었다. 행정마을로 송정과 구현, 도산촌마을이 있다.

송정마을은 약 300여 년 전에 경주이씨, 탐진최씨가 맨 먼저 입촌하였으며 그 후 양천허씨가 입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큰 소나무가 많아 세인들이 이곳을 일송정(一松亭)이라 하였는데, 1914년에 송정이라 개명하였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구씨, 김씨, 박씨, 손씨, 이씨, 류씨, 양씨, 천씨, 최씨, 허씨 등이다. 마을에는 경주이씨 문중의 송곡재(松谷齋) 양천허씨문중의 송양재(松陽齋)를 비롯하여 삼화재(三和齋), 경선재(景先齋), 수당재(修堂齋)가 있다.

구현마을은 송산리 3개 마을 중 중간에 있는 마을로 함안이씨가 처음으로 입주하여 마을을 이루었고, 구씨, 최씨 등이 뒤이어 들어와 생활하고 있다. 마을이 거북이형국이라 하여 예로부터 귀인동(龜仁洞), 귀현동(龜賢洞)이라 하였다. 고려 현종 때 고성현 광일면 구현으로 개칭된 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어진 선비가 아홉 사람이나 살았다고 하여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거주민의 성씨는 강씨, 구씨, 공씨, 김씨, 심씨, 이씨, 조씨, 정씨, 최씨, 황씨 등이다.

도산촌은 임진왜란 시 창원구씨 사충(四忠)이라 불린 구응진(具應辰), 구응삼(具應參), 구응성(具應星), 구동(具棟)의 후손이 송정(松亭)에 거주하다가 이곳으로 정주하였다고 한다. 마을 이름은 수풀이 무성하여 마을 전체가 숲속에 있고 마을이 산속 깊숙이 있다고 하여 도산촌(道山村)이라 하였다. 한때 산촌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마을은 북쪽으로는 거류산이 병풍처럼 감싸 안고, 남쪽은 벽방산이 높이 솟아 해풍을 막아 주는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거주민의 성씨는 강씨, 김씨, 구씨, 나씨, 성씨, 박씨, 이씨, 오씨, 장씨, 정씨, 최씨, 허씨, 하씨 등이다.

### 1) 마을

- ◎ 산촌(도산촌, 돌산촌) : 구현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송정이(소정이, 송정) : 구현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숲넘 : 안팎 북쪽에 있는 마을

◎ 안팎 : 송산리에 있는 마을

## 2) 산

◎ 굴밧등 : 탑등 북쪽에 있는 산

◎ 당산 : 구현 서남쪽에 있는 산

◎ 선사미 : 송산리 북쪽에 있는 산으로 선사미가 있음

◎ 솟굴배기 : 물먹는 덩 북쪽에 있는 산으로 솟을 구웠다고 함

## 3) 들, 논

◎ 고래배미 : 구현 남쪽에 있는 고래실 논

◎ 군열배미 : 덩불배미 밑에 있는 논으로 군열이라는 사람의 논이었음

◎ 당산넙 : 구현에 있는 들

◎ 당산밧들 : 당산 밑에 있는 들

◎ 두릉배미 : 군열배미 밑에 있는 논으로 둥그렇게 생겼음

◎ 덧망개 : 앞망개 뒤쪽에 있는 들

◎ 망개(마안개) : 구현 서쪽에 있는 들로 옛날에는 개였음

◎ 밖구석 : 구현 동남쪽에 있는 들

◎ 밧두들 : 안들 남쪽에 있는 들로 밧을 논으로 만들었다고 함

◎ 안구석 : 밖구석 안쪽에 있는 들

◎ 안들 : 구현 남쪽에 있는 들

◎ 앞망개 : 구현 앞에 있는 들

◎ 일등배미 : 구현 동쪽에 있는 논

◎ 장구배미 : 진등배미 밑에 있는 논

◎ 진등배미 : 구현 남쪽에 있는 긴 논

## 4) 골

◎ 갓골 : 송정 동쪽에 있는 골짜기

◎ 골안 : 구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머구남골 : 산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머구나무(오동나무)가 많았다고 함

◎ 물먹는덤 : 상투바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불씨밧골 : 굴밧등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분덕골 : 구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분덕이라는 과부가 살았다고 함
- ◎ 뿔당골 : 굴밧등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산짓골 : 송정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함
- ◎ 삼밭골 : 구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상투밭골 : 서짓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서짓골 : 송정 뒤에 있는 골짜기
- ◎ 여시랑고개 : 산촌과 구현 사이에 있는 골짜기
- ◎ 재식골 : 산촌 뒤에 있는 골짜기로 무당이 굿을 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함

#### 5) 바위

- ◎ 마당바구 : 굴밧등에 있는 바위
- ◎ 물먹는덤 : 물먹는덤 골짜기에 있는 바위로 바위틈에서 물이 솟아난다고 함
- ◎ 불씨바구 : 불씨밭골에 있는 바위로 디딜방아의 불씨처럼 생겼음
- ◎ 사랑바우 : 구현 뒗산에 있는 바위
- ◎ 상투바구 : 상투바곳골에 있는 바위
- ◎ 칠성바구 : 송정 북쪽에 있는 7개의 바위

#### 6) 기타

- ◎ 구씨사충기적비 : 구현 동쪽에 있는 비
- ◎ 꽃밭등 : 골안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선새미 : 선사미에 있는 샘
- ◎ 진등 : 구현 남쪽에 있는 긴 등성이
- ◎ 탐등 : 머구남골 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탐이 있었음

### 7. 은월리(銀月里)

은월리는 조선시대 광일면 은정리에 속했다가 1914년에 월치동, 정촌동, 신은동을 병합하여 신은(新銀)과 월치(月峙)의 이름을 따서 은월리(銀月里)라 하여 거류면에 편입되었으며 행정마을로 월치, 정촌, 신은의 3개 마을이 있다.

월치마을은 반월설의 달(月)자와 고개를 뜻하는 치(峙)자를 합하여 월치(月峙)라 하였다. 마을 조산(祖山)은 벽방산이 에워싸고 있으며 좌측은 상봉으로부터 무등산에 이르러

좌청룡을 형성하고, 우측은 칠성대로부터 문바위, 동피, 반월설, 거류산으로 이어져 우백호를 이루고 있다. 거주민의 성씨는 강씨, 김씨, 박씨, 서씨, 이씨, 장씨, 조씨, 최씨, 채씨, 천씨, 허씨, 하씨 등이다.

정촌마을은 구전되기로는 정씨(丁氏), 구씨, 백씨의 삼성(三姓)이 도산촌, 정촌 등지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커다란 정자나무가 있어 부근을 은정자동(銀亭子洞)이라 하였다. 이후 마을 이름을 당산으로 부르다가, 조선 중엽에 월치, 정촌, 신은 등을 광일면 은정리라 하였다. 1914년에 거류면 은월리1구라 하였으며 다시 일제말엽에는 은정자의 정(亭)자를 따서 현 지명대로 정촌(亭村)이라 하였다.

약 700여 년 전에 몇 성씨들이 모여 살다가 떠나고 1591년경 김녕김씨가 입주하였고 다음에 함안이씨, 고성이씨 등이 씨족사회를 이루었다. 현재는 강씨, 고씨, 구씨, 권씨, 김씨, 박씨, 이씨, 장씨, 정씨, 최씨, 하씨, 황씨 등이 살고 있다.

신은마을은 조선시대에는 광일면 은정자동이었다. 마을 형성 초기에는 조씨와 최씨가 살았다고 한다. 약 300여 년 전에 정촌마을에서 김녕김씨가 이곳으로 이주하여 주성(主姓)을 이루고 있다. 마을 뒤 동피는 조선시대에 무과시험이 열렸던 곳으로 이곳에 과녁을 세워놓고 신은에서 활을 쏘았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마을이름을 활을 쏘는 장소라 하여 시장(矢場)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신은이라는 지명은 은정자동(銀亭子洞)에서 세 마을로 분동(分洞)되면서 은정자의 첫 자를 따서 지었다. 현재 강씨, 공씨, 권씨, 김씨, 박씨, 백씨, 손씨, 선씨, 이씨, 오씨, 양씨, 임씨, 장씨, 조씨, 최씨, 하씨, 허씨, 황씨, 한씨 등이 살고 있다.

### 1) 마을

- ◎ 달티(달태, 월티) : 달태곡 밑에 있는 마을
- ◎ 도가땀 : 정촌 남쪽에 있는 마을로 술도가가 있었음
- ◎ 신은(시장) : 정촌 북쪽에 있는 마을
- ◎ 정촌(정골, 점촌) : 신은 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강금산 : 월티 동쪽에 있는 산으로 청석이 난다고 함

### 3) 들, 논

- ◎ 구벙잇들 : 신은 북쪽에 있는 들



- ◎ 등버덩 : 월티 서남쪽에 버덩이 있는 들
- ◎ 덕개논 : 여시막등에 있는 논으로 떡을 좋아하는 주인이 흉년에 떡을 얻어먹고 논을 주었다고 함
- ◎ 묵은터 : 월티 서쪽에 있는 논으로 옛날에는 집터였음
- ◎ 사주배미(사지배미) : 월티 앞에 있는 논
- ◎ 새배미 : 묵은터 서쪽에 있는 새로 쫓 논
- ◎ 서젯들(서짓골) : 월티 밑에 있는 들로 서재가 있었음
- ◎ 소구배미 : 신은 뒤쪽에 있는 논
- ◎ 안개골들 : 안개골에 있는 들
- ◎ 이상골 : 이상골에 있는 들

## 4) 골

- ◎ 배남골 : 안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있었음
- ◎ 안개골(앵개골) : 월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안씨들이 많이 살았다고 함
- ◎ 이상골 : 월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신라 때 명승 의상이 수도 했다고 전함
- ◎ 큰골 : 월티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 5) 고개

- ◎ 달태곡(월재, 월티) : 달티 동쪽에서 신용리로 넘어 가는 고개

## 6) 기타

- ◎ 등버덩보 : 등버덩에 물을 대는 보
- ◎ 마당바우 : 큰골에 있는 바위로 넓고 편편함
- ◎ 배암등 : 정촌 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지형이 뱀처럼 구불구불함
- ◎ 사상이바우 : 배남골에 있는 바위로 크고 작은 네 바위가 마치 네 형제처럼 나란히 있음
- ◎ 서장군묘 : 신은 서쪽에 있는 서장군의 무덤
- ◎ 서젯골못 : 서젯골에 있는 못
- ◎ 솔땃등 : 정촌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안개골보 : 안개골들에 물을 대는 보
- ◎ 안개골절터 : 안개골에 있는 절터
- ◎ 여시막등 : 월티 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여우굴이 있었다고 함

- ◎ 칠성대 : 벽방산에 있는 대
- ◎ 큰골너드렁 : 큰골에 있는 너설
- ◎ 큰골상보 : 큰골 윗들에 물을 대는 보
- ◎ 큰골참새미 : 큰골에 있는 샘으로 물이 매우 차다고 함

## 8. 용산리(龍山里)

용산리는 본래 광일면 지역으로 같이 많았다 하여 갈산이라 하였다. 건너편 송산리에 송정마을이 있어서 소가 갈을 뜯어먹기 때문에 이 마을이 가난해 진다하여 용산(龍山)으로 고쳤다고 한다.

1914년에 조일촌 지내동을 병합하여 용산리라 하여 거류면에 편입되었다. 용산리는 약 500여 년 전에 성주배씨가 처음 입주하여 오호촌(烏呼村)이란 마을을 만들었으며 그 후 백씨, 강씨, 김씨가 입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1662년에 갈촌(葛村)으로, 1850년에는 용산리로 개칭하였다. 1979년에는 용산1구, 용산2구로 분동되었다가 1995년에 다시 용산1구와 용산2구를 합동하여 용산마을이 되었다. 거주민의 성씨는 강씨, 구씨, 김씨, 노씨, 류씨, 박씨, 백씨, 서씨, 양씨, 이씨, 임씨, 장씨, 정씨, 제씨, 조씨, 차씨, 천씨, 최씨, 추씨, 허씨, 홍씨, 황씨, 한씨 등이다.

### 1) 마을

- ◎ 갈산 : 용산리
- ◎ 못안(지내) : 조리촌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신촌(새땀) : 용산 동북쪽에 있는 새로 형성된 마을
- ◎ 아랫새땀 : 새땀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옷새땀 : 새땀 위쪽에 있는 마을
- ◎ 조리촌(조일촌) : 지내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왜정 때 같은 크기의 집과 토지를 마련하고 고성군의 각 면에서 근실한 농가 1가구씩 선정하여 이곳으로 옮겨 부락을 형성하였음

### 2) 산

- ◎ 과거똥매 : 용산 남동쪽에 있는 낮은 산으로 옛날 이곳에서 과녁을 놓고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하여 무과 시험을 보았다고 함
- ◎ 똥매 : 용산 동쪽에 있는 들 가운데 있는 둥글고 낮은 산
- ◎ 서무드미 : 용산 북쪽에 있는 산으로 서장군의 무덤이 있다고 함

## 3) 들, 논

- ◎ 마당배미 : 용산 서쪽에 있는 논으로 타작마당이 있었음
- ◎ 못뚝 : 용산 동쪽에 있는 들
- ◎ 방짓골들 : 못안 동쪽에 있는 들
- ◎ 백량골(비암골) : 못안 남쪽에 있는 들
- ◎ 뺨덕 : 용산 동쪽에 있는 들
- ◎ 생수골(생식들) : 못안 동쪽에 있는 들로 생수가 남
- ◎ 진도가리 : 용산 남쪽에 있는 긴 논
- ◎ 진밭(진사래밭) : 마당배미 밑에 있는 논

## 4) 골

- ◎ 동당 : 용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백량골(비암곡) : 용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흰색의 양이 살았다고 함

## 5) 바위

- ◎ 가랑바구 : 부치바구 위쪽에 있는 바위
- ◎ 농바구 : 용산리에 있는 농처럼 생긴 바위
- ◎ 부치바구 : 못안 동쪽에 있는 바위로 부치(부채)를 펴 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함
- ◎ 갯수바구 : 가랑바구 위쪽에 있는 바위로 두드리면 소리가 난다고 함
- ◎ 코마우 : 콧밭등에 있는 바위

## 6) 기타

- ◎ 띠밭등 : 용산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만량절터 : 못안 동남쪽에 있는 만량사 절터로 빈대가 들끓어 폐사되었다고 함
- ◎ 무지터 : 못안 동남쪽에 있는 기우단 터
- ◎ 방짓골보 : 방짓골들에 물을 대는 보
- ◎ 비암골보 : 비암골에 물을 대는 보
- ◎ 산지터 : 못안 서남쪽에 있는 산제당터
- ◎ 새밭등 : 용산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용산못(용산제) : 못안 서쪽에 있는 못

- ◎ 용산포강 : 용산에 있는 소류지
- ◎ 점골포강 : 용산포강 서쪽에 있는 소류지로 근처에 용기점이 있었다고 함
- ◎ 콧밭등 : 용산 남쪽에 있는 등성이
- ◎ 큰새미 : 용산에 있는 큰 샘

## 9. 감서리(甘西里)

감서리는 본래 용남군 광이면 지역인데 1914년에 감동(甘洞), 서림동(西林洞), 동림동(東林洞) 일부를 병합하여 감동과 서림(西林)의 이름을 따서 감서리(甘西里)라 하여 동해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에는 거류면에 편입시켰다. 봉림(鳳林), 감동(甘洞), 용운(龍雲), 송의원(崇義園)의 4개 행정 마을이 있다.

봉림마을은 봉대와 서바래미 두 마을이 합쳐져 행정마을이 되면서 봉대(鳳垔)의 봉자, 서림(西林)의 림자를 결합하여 봉림(鳳林)이라 하였다. 봉대마을은 마을 앞에 숲이 있어 학(鶴)이 때를 지어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서바래미마을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구전되기로는 마을 서북쪽 하천 독에 약 200m 가까운 방풍림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었다고 한다. 고어(古語)에 벽을 바라미라하였기 때문에 숲나무 벽이 있는 서쪽 마을이란 뜻에서 서림(西林)이라 한 것이다.

마을은 거류산의 동쪽 하단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세는 거류산 줄기를 받아 당동만을 흐르고 남으로는 당동리 봉곡마을과 경계를 이룬다. 동으로는 동해면 동림마을, 서편으로 감동과 경계를 두고 있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중엽 전주이씨, 창원황씨, 안동김씨, 인동장씨, 영암김씨 등이 입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강씨, 구씨, 김씨, 박씨, 방씨, 변씨, 배씨, 성씨, 염씨, 이씨, 장씨, 전씨, 천씨, 최씨, 채씨, 황씨 등이다.

감동마을은 1670년경 밀양박씨, 인동장씨 두 성씨가 정착하고 경주이씨 등이 이후에 입주하였다고 한다. 감동이라 부르게 된 것은 1670년경 거주할 당시에는 이곳이 농토가 아니라 숲이었는데, 여기에 우물의 물맛이 좋아 감로정(甘露井)이라 한데서 연유한다. 주민의 성씨는 김씨, 박씨, 방씨, 이씨, 안씨, 장씨, 전씨, 정씨, 조씨, 한씨, 임씨 등 여러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용운마을은 거류면 감서리에 속해 하감(현 용운), 중감(현 감동) 봉림 3개 마을 중의 하나이다. 원래 동명은 하감이 아니라 감동이였다. 감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동, 감골이라 한 것이다. 1914년에 감서리 맨 아래쪽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아래(下)자와 달 감

(甘)자를 부쳐 하감(下甘)이라고 하였다. 1996년 하감이 용운으로 개명 되었다. 마을 형성 연대는 자세하지 않으나 가장 먼저 입촌한 성씨는 회산황씨로 알려져 있다. 1800년대 이후 청주한씨, 밀양박씨, 김녕김씨, 김해김씨, 전주최씨, 함안이씨, 창원정씨, 인동장씨, 수원 백씨, 현풍곽씨, 영일정씨 등이 들어왔고, 1970년대에 온양방씨가, 마지막으로 달성배씨가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송의원마을은 1950년대 나환자들이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마을로 형성되었다. 1956년 나환자수용소 개설 허가를 받아 1959년에 시설허가를 받은 것이다. 1963년 나환자수용소 해체와 동시에 음성나환자촌으로 지정되어, 감서리 1565번지로 행정구역이 편입되었고 1973년에 동해면 감서리에서 거류면 감서리 송의원으로 되었다.

나환자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된 것은 마을 서쪽에 있는 우물 때문이다. 거주민의 성씨는 고씨, 구씨, 김씨, 배씨, 백씨, 서씨, 우씨, 유씨, 윤씨, 이씨, 장씨, 정씨(鄭氏), 정씨(丁氏), 조씨, 지씨, 최씨, 채씨, 한씨, 황씨 등이다.

#### 1) 마을

- ◎ 감곡(甘谷, 감골, 감동) : 서바리미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감나무가 많았다고 함
- ◎ 봉대(奉垓, 봉림) : 감서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서림동(서바리미) : 바라미 서쪽에 있는 마을
- ◎ 개물(하감) : 감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감동 아래쪽이 되며 갯가가 됨
- ◎ 바리미 : 감서리에 있는 마을

### 제 4절 구만면(九萬面 Guman-myeon)

군의 북동부에 있는 면이다. 군에서 면적이 가장 작으며, 동쪽은 회화면, 서쪽은 개천면, 남쪽은 마암면 그리고 북쪽으로 진주시 이반성면과 창원시 진전면에 접한다. 깃대봉(436m), 필두봉(418m), 시루봉(239m) 등 산지가 면을 둘러싸고 있고, 중앙에 평야가 발달한 분지이다. 주변 산지에서 발원한 구만천이 면의 가운데를 지나 남쪽 당항만으로 흘러든다.

조선 이전에는 의선향(義善鄉)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의선향은 현 북쪽 40리 지점에 있다.” 라고 수록 되어 있다. 지명은 『여지도서』에 처음 나타나는데 “구만면은 관아에서 40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동지지』에는 “구만면은 동북으로 처음은 35리, 끝은 45리 이다.” 라고 하였고, 『호구총수』에도 같은 지명으로 기록하였다. 지명은 면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와 관련이 있는데, 9개 산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 구밀촌(九密

村)으로 불렀다는 설과 산지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마치 동굴 안과 같다고 해서 ‘굴안’으로 불렀다는 설이 있다.

『신구대조』를 살펴보면, 1914년에 구만면과 회현면의 녹명(鹿鳴) 일부를 합쳤으며, 1983년에는 개천면 나선리 선동을 편입하였다. 면 소재지인 효락리를 비롯하여 6개 법정리를 관할하며, 동리 지명은 대부분 1914년에 합성되어 만들어 졌다. 저연리(苧連里)는 저동과 연동을 합친 지명인데, 저동은 모시가 많이 생산된 것에 유래하였고, 연동은 필두봉 자락에 있는 연소(淵沼)에 연(蓮)이 많이 있어 이를 연지(蓮池)로 부르면서 유래하였다. 용와리(龍臥里)는 마을 뒷산이 용이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하여 윗마을을 와룡, 아랫마을을 용당라고 했다가 이를 합친 지명이다.

## 1. 효락리(孝洛里)

효락리는 본래 고성군 구만면 지역인데 1914년에 효대(孝大)와 낙동(洛洞)을 병합하여 효자와 낙자를 따서 효락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낙동과 효대의 2개 마을이 있다.

낙동마을은 뒷산이 소태산(갯대봉)인데 여기서 원류하는 시냇물이 맑고 풍경이 좋아서 곡락방(谷樂坊) 또는 낙동(樂洞)이라 부르다가 1914년 낙동으로 개칭되었다. 마을은 1712년경에 전주최씨가 입촌하면서 형성되었으며 소태산 준령을 경계로 회화면 삼덕리와 접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벽진이씨, 울산김씨, 김해허씨, 함안이씨, 광주안씨, 남평문씨, 풍천노씨, 김해김씨 등이다. 마을에는 소천정(蘇川亭)과 구강재(龜岡齋) 등이 있다.

효대마을은 소태촌이라 불렀는데, 1537년경에 전주최씨를 위시하여 현풍곽씨 등 여러 성씨가 입촌하여 마을을 이루었다. 마을에 효자 효부가 많이 나와 마을 명을 효대로 개칭하였다. 마을은 소태산 줄기에 높이 솟은 월계산이 동쪽으로 병풍처럼 둘러있고 마을 뒷산의 범바위는 마을을 수호하고 있는 형상이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현풍곽씨, 재령이씨, 의령남씨, 단양우씨, 밀양박씨, 풍천노씨, 진양정씨, 남평문씨, 안동김씨, 안동권씨, 인천이씨, 전주이씨, 전주전씨 등이다. 마을에는 냉천서당(冷泉書堂)이 있다.

### 1) 마을

- ◎ 낙동(洛洞) : 효락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바끝담 : 낙동 남쪽에 있는 마을
- ◎ 새땀 : 낙동 북쪽에 있는 마을

- ◎ 소대(효대동) : 낙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아래땀(시령정, 신흥대) : 효대동 남쪽에 있는 마을

2) 산

- ◎ 곤계봉(昆季峰, 곤지봉) : 낙동 동남쪽에 있는 산
- ◎ 구곡산(九曲山) : 낙동 동남쪽에 있는 산
- ◎ 풍의시이(치두) : 낙동 동쪽에 있는 산
- ◎ 의성(義城, 의승이) : 낙동 북쪽에 있는 산

3) 들, 논

- ◎ 구렁들 : 낙동 북쪽에 있는 들
- ◎ 새땀앞들 : 새땀 앞에 있는 들
- ◎ 수목들 : 낙동 동북쪽에 있는 들
- ◎ 시비논 : 장구배미 북쪽에 있는 논
- ◎ 아홉사리 : 구곡산에 있는 들
- ◎ 양미창 : 구렁들 북쪽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새땀 앞들에 있는 논

4) 골

- ◎ 고락방(高樂坊) : 낙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대신골 : 낙동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덧산골 : 효대동 뒤쪽에 있는 골짜기
- ◎ 미영밭골 : 낙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옥상골 : 효대동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5) 고개

- ◎ 남성재 : 낙동 서북쪽에 있는 고개
- ◎ 돌장골(석잔치) : 낙동 서남쪽에 있는 고개
- ◎ 셋곡 : 효대동 서쪽에 있는 고개

6) 기타

- ◎ 가닥새미 : 새땀 앞에 있는 샘

- ◎ 구곡계(九曲溪) : 구곡산에 있는 내
- ◎ 귀강재 : 낙동 안에 있는 재실
- ◎ 범바우 : 낙동 동남쪽에 있는 바위
- ◎ 봉듬거리 : 효대동 북쪽에 있는 바위
- ◎ 취석정(醉石亭) : 화림리 주평에 있는 웅달샘으로 5백 년 동안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함
- ◎ 효락교(孝洛橋) : 효대동 서쪽에 있는 다리

## 2. 주평리(酒坪里)

주평리는 본래 구만면 지역으로 단일 법정리로 형성되었다. 옛날에는 원평동(遠坪洞)이라 하였는데 조선조 말엽에 유명한 학자인 박완천당(朴浣川堂)선생과 노묵재(盧墨齋)선생 두 분이 취석정(醉石亭)에서 술잔을 취석 아래 찬샘에 띄워 놓고 대작하였다 하여 주천(酒泉)이라 하였다. 동명 또한 주천으로 부르다가 1914년에 주평리로 고쳤다. 최초로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1450년경으로 밀양박씨가 입촌하면서부터이다. 뒤이어 전주최씨가 1750년경에 입촌하였으며, 1762년경에 창녕조씨가 입촌하여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은 적석산 준령을 경계로 회화면 삼덕리와 창원시 진전면과 접하고 있으며 소태산에서 뺀어 내린 산줄기로 효락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거주민의 성씨는 창녕조씨, 전주최씨, 밀양박씨, 함안이씨, 달성서씨 등이다. 마을에는 취석정(醉石亭)과 성림재(聖林齋), 향송정(香松亭), 주천미륵불이 있다.

### 1) 마을

- ◎ 머들땀(원평) : 주천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번دت치(번촌) : 주천 동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똥매 : 번دت치 동쪽에 있는 산
- ◎ 와인봉(臥人峯) : 주평리에 있는 산

### 3) 들, 논

- ◎ 덩마웃들 : 번دت치 동쪽에 있는 들
- ◎ 매산들 : 주천 서쪽에 있는 들
- ◎ 보도정 : 주천과 머들땀 사이에 있는 들



- ◎ 봉애등 : 번듯치 북동쪽에 있는 들로 지형이 봉어 형국이라 함
- ◎ 새들 : 머들땀 북쪽에 있는 들
- ◎ 섬드미 : 주천 동북쪽에 있는 들
- ◎ 점앞들 : 주평리에 있는 들
- ◎ 흙들 : 머들땀 북쪽에 있는 들
- ◎ 황성골 : 섬드미 동쪽에 있는 들로 황씨가 살았다고 함

#### 4) 골

- ◎ 피밭골 : 번듯치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깨밭이 있었음
- ◎ 미영밭골 : 피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뽕당골 : 번듯치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새인골(선인곡) : 산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적산양달 : 번듯치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갓골 : 섬드미 북쪽에 있는 고개
- ◎ 당고개(똥고개) : 번듯치 북쪽에 있는 고개
- ◎ 엄나무재 : 주천 동북쪽에 있는 고개로 옛날에 엄나무가 무성했다고 함
- ◎ 질미재 : 주평리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구렁새미 : 구렁새미들에 있는 샘
- ◎ 덩바우 : 덩바우들에 있는 바위
- ◎ 새보 : 새들에 물을 대는 보
- ◎ 신타바우 : 주천 북쪽에 있는 바위
- ◎ 취석정(鷲石亭) : 머들땀 동북쪽에 있는 바위
- ◎ 횃기등 : 주천 북동쪽에 있는 등성이

### 3. 화림리(華林里)

화림리는 본래 구만면 지역인데 1914년 내원(화촌)과 외원(당산)마을을 병합하여 화림리라 하였다. 행정리로 신계(新溪), 화촌(花村), 당산(堂山), 선동(仙洞)의 4개 마을이 있다.

신계마을은 일제강점기 점촌마을과 함께 화림리(화촌)에서 분동된 마을로 신계의 고유 동명은 새내이다. 옛날 주평리에서 흐르던 내가 원평(遠坪)들(서재들)을 지나서 셋담(효대와 신계의 사이에 있었던 마을) 앞으로 흘렀는데 홍수로 유로가 바뀌어 신계 앞을 둘러서 흐르게 되고 또 이곳에 마을이 새로 생겨 ‘새로 내가 난 곳’이란 뜻으로 새내라 하였다. 새내를 한자로 신계(新溪)이기 때문에 이를 동명으로 삼았다. 마을은 1860년경에 여주이씨가 하일면 송천에서 이주해 오고, 이후 양천허씨가 거류면 송정에서, 인천이씨가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마을은 효락리와 접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여주이씨, 양천허씨, 진양강씨, 전주최씨, 단양우씨, 나주임씨, 밀양박씨, 성산이씨 등이다. 마을에는 냉천서당(冷泉書堂)과 이회서실(以會書室)이 있다.

화촌마을은 예전에는 내원(內院)이라 하였다. 임란 후에 마을 뒷산에 함박꽃이 많이 피어 뒷산 이름을 작약산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또 각종 꽃이 계절마다 많이 피어 꽃동네라 부르다가 강점기에 화촌으로 개칭하였다. 마을은 1519년에 밀양박씨가 입촌하였고, 다음으로 광주노씨가, 임란 때는 전주최씨가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 현재 전주최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전주이씨, 황보씨 등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은 뒷산의 엄나무재를 경계로 창원시 진전면과 접하고 있으며, 고령토광산이 있다. 마을에는 도산서원과 홍학재, 전주최씨 문중의 재실, 영사재와 화산재, 낙열정 등이 있다. 그리고 순국지사 최정원의 창의비도 있다.

당산마을은 1519년경에 형성되었는데 나씨가 먼저 입촌하고 그 뒤에 안악이씨가, 1712년경에는 전주최씨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은 연화봉이 동남으로 뻗어 내려 용암산과 작약산을 이루고, 옥녀봉의 주맥이 흘러내린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함안이씨, 성산이씨, 진양하씨, 김녕김씨 등이다. 마을에는 당산쌍정, 농산재와 영모재, 옥봉재, 첨모대가 있다.

선동마을은 마을 뒤의 선박골의 풍경이 아름답다 하여 선동이라 하였다. 고려조 현종 때에는 진주군 양전면에 속하였으며, 1895년에는 고성군 개천면의 나선리로 편입되었다가, 1983년 구만면 화림리(선동)로 편입되었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1773년경으로 전주이씨가 입촌하고 그 뒤에 나주임씨, 김해김씨, 합천이씨 등 제씨가 입촌하면서 형성되었다. 마을은 구만면의 가장 오지마을로 동쪽은 가남산, 남쪽은 필두봉, 북쪽은 마봉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동북쪽의 깃대봉을 경계로 창원시 진전면과 경계를 이루며 전주이씨 집성촌이다. 마을에는 삼효각(三孝閣)과 봉산정과(鳳山亭)이 있다.

## 1) 마을

- ◎ 간치골(干池洞) : 외원 북쪽에 있는 마을
- ◎ 내원(內院, 하천, 하촌) : 외원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당산(堂山, 외원) : 화림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신계(新溪) : 내원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점디 : 화림리에 있는 마을로 웅기점이 있었다고 함
- ◎ 점촌(店村) : 사기그릇을 굽고 이를 파는 점(店)이 있었다 하여 유래됨
- ◎ 축안 : 당산 서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당산(堂山, 똥매) : 외원 뒤에 있는 산
- ◎ 용암산(龍岩山) : 간치골 서북쪽에 있는 산
- ◎ 한박산 : 화림리에 있는 산

## 3) 들, 논

- ◎ 남정지 : 하촌 남쪽에 있는 들
- ◎ 다릿들 : 자배미 위쪽에 있는 들로 돌다리가 있음
- ◎ 더운새미 : 당산 북쪽에 있는 들
- ◎ 등정지 : 하촌 동북쪽에 있는 논
- ◎ 서정들 : 당산 동쪽에 있는 들
- ◎ 쫓배미 : 자배미 남쪽에 있는 논으로 소(沼)를 메워서 논으로 만듦
- ◎ 안터 : 당산 동북쪽에 있는 들
- ◎ 자배미 : 하촌 남쪽에 있는 논으로 자처럼 생겼음

## 4) 골

- ◎ 구릿골 : 삼봉등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유같이 생겼음
- ◎ 간치골 : 간치골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맏골 : 하촌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묘가 많다고 함

## 5) 고개

- ◎ 남성재(남성티) : 하천 북쪽에 있는 고개

6) 기타

- ◎ 구선(九仙)바위 : 한박산 위에 있는 바위
- ◎ 남성바위 : 남성재에 있는 바위
- ◎ 넉넉바위 : 화림리에 있는 바위로 흔들면 건들건들한다고 함
- ◎ 농바구 : 하촌 북쪽에 있는 바위
- ◎ 더운새미 : 더운새미에 있는 샘
- ◎ 마당바위 : 농바구 서쪽에 있는 바위
- ◎ 맷골못 : 맷골에 있는 못
- ◎ 붉은밍이 : 하촌 서쪽에 있는 등성이
- ◎ 삼봉등 : 뚝매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서쪽포강 : 하촌 서쪽에 있는 못
- ◎ 큰터 : 당산 서쪽에 있는 집터로 만석꾼이 살았다고 함
- ◎ 통새미 : 당산마을 내에 있는 샘
- ◎ 하밋등 : 붉은당이 남쪽에 있는 등성이
- ◎ 한박산못 : 한박산 밑에 있는 못

4. 저연리(苧連里)

저연리는 본래 고성군 구만면 지역인데, 1914년에 저동(苧洞)과 연동(蓮洞)을 병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동마을은 마을 뒤의 필두봉과 용암산 산록에 연소(淵沼)가 있었는데 옛날에 한 도사가 이곳에 연종(連種)을 뿌려 연이 많이 생산되었다 하여 연지(蓮池)라 하고 지명도 연동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은 약 400여 년 전에 작답이란 곳에서 주민 300여 호가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북쪽은 용암산과 서쪽은 필두봉을 경계로 개천면 청광리와 접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함안이씨, 김녕김씨, 경주김씨, 김해김씨, 진양강씨 등이며, 마을에 필산재(筆山齋), 연과정(蓮坡亭)이 있다. 마을 앞뒤에 조성되어 있는 풍치림에서 예로부터 음력 선달 그믐날 동신제를 지낸다.

저동마을은 모시가 많이 생산되었다고 하여 모시골이라 하였는데, 1984년에 저동으로 변경되었다. 마을은 쪽골에서 300여 호가 거주하다가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이들이 이주하기 전에는 함안이씨가 거주하였고 그 뒤에 곡부공씨, 김해허씨, 수원백씨 등이 거주했다고 한다. 마을은 필두봉 산록지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은 개천면 청광리·봉치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함안이씨, 곡부공씨, 수원백씨, 김해허씨, 밀양

박씨, 창녕조씨, 경주이씨 등이다.

#### 1) 마을

- ◎ 백촌 : 연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백씨가 많이 살았음
- ◎ 연동(連洞) : 저런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하촌 : 연동 동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닛가주 : 모시골에 있는 산
- ◎ 방아산 : 회칫등 북쪽에 있는 산
- ◎ 새갓 : 목전밭 북쪽에 있는 산
- ◎ 필두산 : 배나무골 북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당앞답 : 모시골 서쪽에 있는 들
- ◎ 못두둑 : 연동 위쪽에 있는 들로 못이 있음
- ◎ 뱀거리 : 햅쌀들 동남쪽에 있는 들로 배의 형국이라 함
- ◎ 생이집걸 : 햅쌀들 동쪽에 있는 들로 상엿집이 있었음
- ◎ 섬들 : 저런리에 있는 들
- ◎ 쪽골 : 연동 남쪽에 있는 들로 쪽(국자) 모양이라 함
- ◎ 참새미 : 연동 서북쪽에 있는 들
- ◎ 햅쌀들 : 연동 동쪽에 있는 들

#### 4) 골

- ◎ 가지깃골 : 저런리에 있는 골짜기
- ◎ 목전밭 : 솔밭고랑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솔밭고랑 : 방아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우르리티(우티) : 모시골에 있는 고개로 와우형(蝸牛形)이라 함

## 6) 기타

- ◎ 깨구랑새미 : 연동 북쪽에 있는 샘
- ◎ 노묵재못 : 하촌 서북쪽에 있는 못
- ◎ 들새미 : 험살들에 있는 샘
- ◎ 말바구 : 모시골 서쪽에 있는 바위로 말처럼 생겼음
- ◎ 선달바구 : 연동 북쪽에 있는 바위
- ◎ 솔밭고랑새미 : 솔밭고랑에 있는 샘
- ◎ 찬새미 : 참새미에 있는 샘
- ◎ 회칫등 : 연동 서남쪽에 있는 등성이

## 5. 용와리(龍臥里)

용와리는 본래 구만면 지역인데, 1914년 용당(龍塘)과 와룡(臥龍)을 병합하여 두 마을의 용자와 와자를 따서 용와리로 하였다. 행정리로 와룡과 용당마을이 있다.

와룡마을은 마을 뒷산의 형세가 마치 용(龍)이 누워있는 형상과 같다 하여 이렇게 불렀다. 마을은 1600년경에 달성서씨와 함안이씨가 입촌하면서 형성되었다. 용두산 자락이 날개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형국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는 함안이씨, 달성서씨, 진양강씨, 창령조씨, 전주최씨, 밀양박씨 등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에는 청계정(聽溪亭), 모선재(慕先齋)가 있으며 마을 개울가에 서있는 노거수는 함안이씨의 와룡선생이 청계정을 짓고 심었다고 전한다.

용당마을은 매화산 밑을 흐르는 매림천에 용소(龍沼)가 있었는데 용이 누워있는 형상과 같다 하여 와룡리라 하였다. 윗마을을 와룡, 아랫마을은 용당이라 한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임란 후로 알려져 있다. 마을은 용두산과 매화산 자락의 매림천 주변에 자리하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 구만천이 흐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함안이씨, 인동장씨, 재령이씨, 김녕김씨, 김해김씨, 김해허씨, 청주지씨, 밀양박씨 등이다. 마을에는 망경대(望景臺), 노거수 두 그루, 구만12경 시비 등이 있으며 함안이씨 문중의 부인 전주최씨의 행적비도 있다.

## 1) 마을

- ◎ 와룡동(臥龍洞) : 용와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용당(龍塘) : 와룡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소바구(우암, 탕근재) : 들장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소처럼 생겼음

◎ 시루봉(시리봉) : 소바구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시루를 얹어 놓은 것 같이 생겼다 함

### 3) 고개

◎ 들장재 : 용당 동남쪽에 있는 고개로 돌이 많음

### 4) 기타

◎ 중바위 : 마을 서북쪽 가는등 중간에 튀어나온 높이 15m, 넓이 10평정도의 큰 바위로 옛날 태고 때 천지가 개벽하여 물이 바위위에 중 한사람이 서 있을 정도만 남기고 모두 잠겼다고 함

## 6. 광덕리(廣德里)

광덕리는 본래 구만면 지역인데, 1914년 광암(廣岩)과 덕암(德岩), 회화면의 녹명(帥鳴)일부를 병합하여 광암과 덕암의 명칭을 따서 광덕리라 하였다. 행정리로 광암(廣岩), 중암(中岩), 덕암(德岩)의 3개 마을이 있다.

광암마을은 사당산 산록에 심사봉이 있는데 큰 바위 한 곳에서 금빛이 난다고 하여 동명을 광암이라 하였다. 마을은 1600년경 임진란 전후로 형성되었으며, 가장 먼저 입촌한 성씨는 전주최씨이며, 임란 후에 남평문씨, 창녕성씨, 김해김씨 등이 입촌하였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김해김씨, 창녕성씨, 남평문씨, 광주안씨, 신안주씨, 진양강씨, 함안조씨 등이다. 마을에는 광덕리 지석묘가 있다.

중암마을은 보부상(裸負商)들이 밤늦게 마을 앞을 지나면 다른 곳은 달이 밝아도 이곳만은 구름에 가려 있어 흑달 혹은 흑월(黑月)이라 한 것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1949년 광암마을에서 분동하면서 광덕리의 중간마을이라 하여 중암이라 하였다. 마을은 1803년경에 형성되었다. 밀양박씨, 경주이씨가 처음 이주하였으며 이후 전주이씨, 경주최씨, 초계변씨, 남원양씨 등이 입촌하여 거주하였다. 마을은 나암산을 뒷산으로 하고 쇠편산을 안산으로 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밀양박씨, 경주이씨, 초계변씨, 경주최씨, 남원양씨, 남평문씨 등이다. 마을에는 밀양박씨 문중의 장효각정려비가 있다.

덕암마을은 1018년 이전에는 안씨와 박씨가 살았다하여 안박동(安朴洞)이라 부르다가, 1984년에 뒷산의 큰 암석명을 따서 덕암이라 하였다. 마을은 깃대봉의 줄기가 남으로 뻗어 그 능선으로 회화면 녹명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진양정씨, 김녕김씨, 전주최씨 등이다. 마을 입구에 김해김씨 문중의 쌍효각이 있으며 300여년으로 추정되는 정자나무가 있다.

1) 마을

- ◎ 광암(廣岩) : 광덕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덕암(德岩, 안박동) : 중암 서쪽에 있는 마을
- ◎ 중암(中岩, 흙다리, 흑월) : 덕암 서쪽에 있는 마을
- ◎ 흥복골(興福谷) : 중암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2) 산

- ◎ 구름재 : 중암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이곳에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 함
- ◎ 나암배이 : 중암 북쪽에 있는 산
- ◎ 돌짱재 : 광암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돌이 많음
- ◎ 백(벽)록산 : 덕암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산봉우리의 넓은 바위가 벼락에 맞아 두 쪽으로 갈라져 있어 벼락산 이라고도 부름
- ◎ 새웬산 : 중암 북쪽에 있는 산으로 쇠를 켜었다고 함
- ◎ 안산 : 광암 서쪽에 있는 산
- ◎ 큰병산 : 대산골 서쪽에 있는 산

3) 들, 논

- ◎ 굽턱들 : 중암 서북쪽에 있는 들
- ◎ 동정지 : 광암 남서쪽에 있는 들
- ◎ 두룽배미 : 새핀들에 있는 논
- ◎ 변천들 : 광암 서남쪽에 있는 들
- ◎ 사암들 : 중암 남쪽에 있는 들
- ◎ 새들 : 굽턱보 밑 남쪽에 있는 들
- ◎ 새핀들 : 중암 서쪽에 있는 들
- ◎ 섬똥들 : 덕암 서북쪽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산밭골에 있는 논
- ◎ 청룡들 : 덕암 서쪽에 있는 들
- ◎ 포구남징이 : 동정지 남쪽에 있는 들로 포구나무 정자가 있다 함
- ◎ 황새배미 : 흥복골에 있는 논

4) 골

- ◎ 가장골 : 중암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매장을 했다고 함



- ◎ 대밭털(죽전) : 중암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대산골(절골) : 덕암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음
- ◎ 맏골 : 광암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묘가 많다고 함
- ◎ 무덤골 : 광암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무덤이 많다고 함
- ◎ 범등골 : 가장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산밭골 : 중암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서짓골 : 맏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정짓골 : 중암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정자나무가 있었다고 함
- ◎ 행복걸(홍복걸) : 중암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구름재 : 구름재 밑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광덕소류지(廣德小溜池) : 광암 남서쪽에 있는 저수지
- ◎ 굽턱보 : 굽턱들에 물을 대는 보
- ◎ 농바우 : 덕암 서쪽에 있는 바위
- ◎ 독서석실 : 대산골에 있으며 옛날 선조들이 독서를 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음
- ◎ 사암보 : 사암들에 물을 대는 보
- ◎ 쌍효문(雙孝門) : 덕암 어귀에 있는 김해 김시의 정문
- ◎ 약물새미(찬물새미) : 사당골에 있는 샘

## 제 5절 대가면(大可面 Daega-myeon)

군의 가운데에 위치한 면이다. 남쪽은 고성읍, 동쪽은 마암면, 북쪽은 개천면 그리고 서쪽은 상리면과 영현면과 접한다. 서부 지역은 군의 진산인 천왕산(583m)을 비롯한 학남산(550m), 대곡산(545m) 등이 남북 방향으로 이어지고, 동부 지역은 금정산(356m), 연자산(277m)이 있다. 이들 산지 가운데에 층적 평야가 있는데, 대가저수지에서 관개한다. 면소재지인 유흥리를 비롯하여 9개 법정리를 관할한다.

『호구총수』의 동리를 살펴볼 때, 대둔면(大菴面)과 가동면(可洞面)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 『여지도서』에는 “대둔면은 관아에서 30리에 있다. 가동면은 관아에서 20리에 있다.”고 수록하였다. 『신구대조』에는 1914년 두면을 합치고 그 이름을 대가면으로 바꾼 것으로 기록하였다. 동리의 지명 중 갈천리(葛川里)는 냇물이 갈라져 있어 ‘갈내’, ‘갈터’이라 부른 것에서 유래하였고, 암전리(岩田里)는 태봉산(102m) 밑에 있고 골이 깊고 물이 맑은 연유에서 지명이 유래된 암곡동(岩谷洞)과 마전동(麻田洞)이 합치면서 생긴 지명으로 전한다.

## 1. 척정리(尺亭里)

척정리는 본래 고성군 대둔면 지역으로 1914년에 척곡·관동·화암·행정·가산과 구석마을을 병합하여 자실(尺谷)의 척(尺)자와 행정(杏亭)의 정(亭)자를 따서 척정리라 하여 대가면에 편입되었다. 행정리로 화암(禾岩)과 척곡(尺谷), 관동(冠洞)마을이 있다.

화암마을은 약 400여 년 전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용암이라 하였다. 그 후 시냇물이 맑고 바위가 많다 하여 수암으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화암(禾岩)으로 변경되었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1530년경에 칠원제씨와 함안씨 등 10여 호가 정착하면서 부터로 알려져 있다. 마을은 북쪽으로 백운산 줄기에 둘러싸인 산골 마을이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칠원제씨, 함안씨, 창원황씨, 진양정씨, 김해김씨, 전주최씨, 보성선씨, 경산김씨 등이다.

척곡마을은 원래 자실이라 불렀는데 자 척(尺)자를 따서 척곡이라 하여 척정리의 행정마을이 되었다. 마을의 형성은 1500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칠원제씨가 이때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마을은 동쪽으로는 월형산, 서쪽은 백운산, 남쪽은 식봉산, 북쪽은 성지산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칠원제씨, 김해허씨, 진양정씨, 담양전씨, 전주최씨, 경주최씨, 의성김씨, 기성반씨 등이다. 마을에는 운곡서원, 숙청사, 모의당과 칠원제씨 문중의 경덕재와 운오정이 있다. 이외에도 김해허씨 문중의 경모재, 함안씨 문중의 무헌재 등의 재실이 있다. 또 구석마을 앞에는 신도비와 칠원제씨 문중의 효행효자비가 있고 셋땀에도 효행행적비, 김해허씨 문중의 유허비가 있다.

관동마을은 행정과 박달·가산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강점기에는 척정2구라 하였는데 광복 후에 다시 관동이라 하였다. 마을의 형성은 약 350여 년 전으로 행정마을에 진양정씨가 정착하면서부터라고 한다. 마을은 동쪽으로는 농금산, 서쪽은 백운산, 남쪽은 월형산, 북쪽은 성지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앞재(前峙)와 행장재(峙)를 넘으면 송계마을과, 박달령(博達嶺)을 넘으면 마암면 신리와 경계를 이룬다.

### 1) 마을

◎ 가산(佳山) : 관동 동쪽에 있는 마을

- ◎ 관동(冠洞, 밧달) : 가산 서쪽에 있는 마을
- ◎ 구석마을 : 아랫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똥매 : 주막땀 앞에 있는 마을
- ◎ 섬마을 : 아랫마을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수암(화암) : 척정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신촌(新村, 새땀) : 주촌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아랫마을 : 구석마을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자실(척곡) : 섬마을 남동쪽에 있는 마을
- ◎ 주막땀(주촌, 준마촌) : 섬마을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행정(杏亭) : 관동 서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고조산(顧祖山) : 조상을 돌본다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함
- ◎ 배암산(뱀산) : 섬마을에 있는 산
- ◎ 비름날 : 가산 서남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감곡 : 밧달 앞에 있는 들
- ◎ 구릉들 : 섬변들 북쪽에 있는 들
- ◎ 두릉배미 : 윗등에 있는 논
- ◎ 등머리 : 장군밭들 밑에 있는 논
- ◎ 등부리 : 준마촌 북쪽에 있는 들
- ◎ 마당배미 : 준마촌 동쪽에 있는 논
- ◎ 비름들 : 비름날 밑에 있는 들
- ◎ 서지앞들 : 준마촌 남쪽에 있는 들
- ◎ 섬배암들(섬변들) : 행정 앞에 있는 들
- ◎ 수구남들 : 아랫마을 서북쪽에 있는 들
- ◎ 수암들 : 수암에 있는 들
- ◎ 장군밭들 : 자실 서쪽에 있는 들로 장군바우가 있음
- ◎ 장끼들 : 준마촌 남쪽에 있는 들
- ◎ 점골 : 자실 북서쪽에 있는 들로 쇠점이 있었음

- ◎ 주개배미 : 서짓골에 있는 논으로 지형이 주걱처럼 생겼다고 함
- ◎ 중들 : 아랫마을 남서쪽에 있는 들
- ◎ 진배미 : 가산 남쪽에 있는 논
- ◎ 짚웃구디기 : 화암 동쪽쪽에 있는 논
- ◎ 홍골 : 장군밭들 서북쪽에 있는 들로 물을 대기 위하여 흙통을 놓았다고 함

#### 4) 골

- ◎ 가산골 : 가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가장골 : 척곡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임란 때 전사한 병사들을 가매장한 곳이라 함
- ◎ 개장골 : 자실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덩작골 : 섬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돌밭골 : 장방곡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다고 함
- ◎ 동짓골 : 가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리점(동점)이 있었다고 함
- ◎ 막당곡(幕堂谷) : 백운산 동쪽에 있는 골로 임란 때 의병들이 의거한 곳이라 함
- ◎ 뿔당골 : 말땅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음
- ◎ 산밭골 : 뿔당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밭이 있었음
- ◎ 삼전곡(三傳谷) : 신촌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임란 때 의병들이 왜군을 물리친 전승지라 함
- ◎ 서짓골 : 덩작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재가 있었음
- ◎ 양정지골 : 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은전곡(銀傳谷) : 신촌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임란 때 의병들이 적군을 공격한 곳이라 함
- ◎ 장방골 : 제땅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점작골 : 개장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제땅 : 저작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종웃골 : 돌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춘밭골 : 산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가산골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 5) 고개

- ◎ 가산재 : 가산에 있는 고개

- ◎ 개월재 : 구석마을 북쪽에 있는 고개
- ◎ 농금(弄琴)재(몽금재, 몽금이재) : 서짓골 북동쪽에 있는 고개
- ◎ 대재(대티, 큰재) : 화암 서쪽에 있는 고개
- ◎ 신기곡(성곡) : 주막땀 동쪽에서 준마촌으로 가는 고개
- ◎ 앞곡 : 관동 동쪽에서 준마촌으로 가는 고개
- ◎ 장자곡 : 구석마을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고은바우 : 점작골에 있는 바위로 여러 개의 바위를 꺾어 놓은 것 같이 생겼음
- ◎ 규와등 : 척곡 동쪽에 있는 지명으로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서식한 곳이라 함
- ◎ 두꺼비바위 : 배락바우 밑에 있는 바위로 두꺼비처럼 생겼음
- ◎ 배락바우 : 중바우 밑에 있는 바위
- ◎ 식상봉(食床峯) : 마을 남촌에 있는 산봉우리로 임란 때 의병들이 모여 밥을 지어 먹은 곳이라 함
- ◎ 선암(船岩) : 장전령에서 서쪽 300m 지점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배와 같이 생겼다고 배바위라고 부르고 있으며 임란 때 이 바위를 진지로 하여 북쪽은 아군이 남쪽은 적군이 주둔하여 총격전이 벌어져 많은 군사가 살상당한 애한 것들이 있음
- ◎ 원바위(員) : 가동 마을로 가는 도로변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에서 옛날 선비생원들이 냇물을 바라보며 시(詩)를 읊었다고 하여 유래 됨
- ◎ 장군바우 : 장군밭들에 있는 바위로 장군 밭자국과 용마 밭자국이 있음
- ◎ 중바우 : 탕건 바위 밑에 있는 바위
- ◎ 척정교(尺亭橋) : 관동 남쪽에 있는 다리
- ◎ 탕건바우 : 백운산 위쪽에 있는 바위

## 2. 금산리(琴山里)

월촌(月村)마을은 마을의 형상이 반월과 같다 하여 이를 지명으로 삼았다. 1984년에 금산리 세동에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연대는 약 340여 년 전 김해김씨가 입촌하면서 시작되었다. 마을은 금정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지맥을 경계로 마암면 두호마을과 접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와 상산이씨 등이다. 마을 앞에 3그루의 정자나무가 있는데 봄에 새잎이 한 번에 피면 모내기를 한 번에 하고, 두세 번 피면 피는 회수에 따라 하게 된다고 한다.

세동(細洞)마을은 원래 관월동(觀月洞), 일명 가는골이라 하였는데 한자의 훈(訓)을 따서 세동이라 하였다. 마을은 금정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허씨, 함안이씨, 진양정씨 등이다. 마을에는 금산리선사유지가 있으며 허씨문중의 금산재(琴山齋)가 있다. 마을 중앙에는 약 300년으로 추정되는 정자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에 120kg 정도 되는 들돌이 남아 있다.

신화(新化)마을은 약 600년 전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어느 해에 독이 터져 이곳으로 옮겨와 살게 되면서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신화동(新化洞)이라 하였다. 1984년 금산리의 행정마을이 되었다. 마을은 북으로 금정산과 남으로 고조산이 둘러싸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정씨, 전주최씨, 경주이씨, 남양홍씨 등이다.

가동(可洞)마을은 본래 가동면 내가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에 대가면에 편입되었다. 마을은 조선 초기에 형성되었으며, 금정산 정상에는 기우제를 지내는 제터가 있다. 산중봉에는 피부병에 좋다는 약수정(藥水井)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칠원제씨, 함안이씨, 함안조씨, 재령이씨, 성산이씨, 김해허씨, 진양정씨, 성주배씨, 밀성박씨 등이다. 마을에는 충효정여각, 가은정사를 비롯하여 함안이씨 재실이 있다.

## 1) 마을

- ◎ 가동(可洞, 개동) : 배대산 북쪽에 있는 마을
- ◎ 가부(加富)실 : 월촌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들땀 : 서지앞다 동쪽에 있는 마을
- ◎ 서지앞다 : 세동 서쪽에 있는 마을
- ◎ 세동(細洞) : 금산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신화동(新花洞) : 가동 남쪽에 있는 마을
- ◎ 어은곡(魚隱谷, 어은골) : 세동 북쪽에 있는 마을
- ◎ 월촌(月村) : 세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장자골 : 세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장사가 살았다 함
- ◎ 음달 : 금산리에 있는 마을

## 2) 산

- ◎ 고조산(顧祖山) : 고조산은 조상을 돌본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으로 전하여 짐
- ◎ 드무산 : 금산리에 있는 산
- ◎ 방앗가래 : 세동 서북쪽에 있는 산

- ◎ 설미 : 세동 북쪽에 있는 산
- ◎ 잔당산(齋堂山) : 옛날 천지 개벽 시 해일로 산봉우리에 잔 한잔 놓을 만큼 남고 물에 잠겼을 때에 이곳에 선인(仙人)이 내려와 잔 한잔 들고는 사라졌다 하여 붙여짐

### 3) 들, 논

- ◎ 가리미배미 : 굽턱배미 위쪽에 있는 논
- ◎ 감남골논 : 간남골에 있는 논
- ◎ 개운들 : 개운골에 있는 들
- ◎ 갱이 : 신화동 서북쪽에 있는 들
- ◎ 굽턱배미 : 어렁이배미 밑에 있는 논
- ◎ 나름(나림) : 수위래 남쪽에 있는 들
- ◎ 넘적배미 : 가리미배미 위쪽에 있는 논
- ◎ 노수배미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
- ◎ 동짓골 : 가동 북쪽에 있는 들
- ◎ 마랫들 : 진배밧들 위쪽에 있는 들
- ◎ 못뚝 : 신화동 남쪽에 있는 들
- ◎ 못밖 : 못뚝 바깥에 있는 들
- ◎ 못안 : 못뚝 안쪽에 있는 들
- ◎ 밤설 : 월촌 북쪽에 있는 논으로 밤나무가 있음
- ◎ 비름날 : 가동 서북쪽에 있는 들
- ◎ 사승배미 : 금산리에 있는 논
- ◎ 사으랫들(사월) : 신화동 동쪽에 있는 들
- ◎ 셋비 : 세동 서남쪽에 있는 들
- ◎ 서나무징이 : 가동 서쪽에 있는 들
- ◎ 섬등 : 햇대걸 남쪽에 있는 들
- ◎ 수위래 : 세동 동북쪽에 있는 들
- ◎ 어렁이배미 : 집앞들에 있는 논
- ◎ 월촌앞들 : 월촌 앞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사으랫들에 있는 논
- ◎ 장명이 : 월촌 동쪽에 있는 들
- ◎ 진배미 : 갱이에 있는 긴 논

- ◎ 진배미들 : 진배미가 있는 들
- ◎ 집앞들 : 세동 앞에 있는 들
- ◎ 짝장골 : 세동 북쪽에 있는 들
- ◎ 포구징이 : 가동 서북쪽에 있는 들
- ◎ 햇대결(화짓대) : 가부실 동쪽에 있는 들

#### 4) 골

- ◎ 감남골(감남곡) : 가부실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개운곡(개운골) : 가부실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갯골 : 가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거지밭골 : 월촌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대밭골 : 서지앞담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도우골 : 산짓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매주골 : 신화동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매화골 : 가동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무지터 : 금정산 위쪽에 있는 골짜기
- ◎ 배나무골 : 사으래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뱀골 : 시밧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뽕(불)당골 : 갯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음
- ◎ 빈속골 : 신화동과 가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금산리에 있음
- ◎ 사으래 : 채빙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산밭골 : 세동 앞에 있는 골짜기
- ◎ 세판이 : 제부잣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시밧골 : 세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윈디밭골 : 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장명곡 : 장명이에 있는 골짜기
- ◎ 절텃골 : 진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함
- ◎ 제부잣골 : 매화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진골 : 신화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채빙골 : 생이바구 앞에 있는 골짜기
- ◎ 청룡안 : 가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청아밭골 : 가동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신화동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패밭골 : 신화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가매실곡 : 습산리에 있는 고개
- ◎ 갈마고개 : 금산리에 있는 고개
- ◎ 굴따리 : 금산리에서 마암면 도전리로 가는 고개로 옛날에 금을 캐던 굴이 있다고 함
- ◎ 월촌곡 : 월촌에 있는 고개
- ◎ 질매재 : 신화동 남쪽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금정산 약수정(藥水井) : 금정산 중봉에 있는 우물. 피부병에 특효하다 하여 매년 7월 칠석날에 많은 사람들이 약수를 이용하였으며 특히 매일 조수의 간만에 맞추어 물이 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므로 이 신기한 소문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약수정 확장공사를 마을 사람들이 시작하고 난 후에는 조수의 간만 현상이 없어졌다는 전설이 있음
- ◎ 농바구 : 덩바구 동쪽에 있는 바위
- ◎ 덩바구 : 가부실 남쪽에 있는 바위
- ◎ 매바우 : 매가 앉았다하여 매바위
- ◎ 배락바우 : 금산리에 있는 바위
- ◎ 뱀골찬새미 : 뱀골에 있는 샘
- ◎ 북바구 : 가동 마을 북쪽을 막고 있는 매화산에 있는 큰 바위로 북쪽에 있다 하여 북(北)바위라 부르고 있으며 바위 주위에 매화 낙지(落地)가 있다고 함
- ◎ 상사바구 : 금정산 중턱에 있는 바위
- ◎ 연당못 : 가동 북쪽에 있는 못
- ◎ 옥비(玉碑) : 잔당산 밑의 마을 옆에 약 240년 전에 건립하였다는 김해김씨 선조의 비석
- ◎ 월바구 : 신화동 서북쪽에 있는 바위. 길가에 있는데 넓고 편편하여 옛날에 월님이 쉬어갔다고 함
- ◎ 인통바위(印筒) : 가동마을 약수정에서 약 300m 거리에 있는 바위로 조선조 인조때

고성 현령이 약수 마시러 이곳에 왔다가 이 바위를 보고 어인(御印)과 같이 생겼다 하여 이렇게 불렀다고 함

- ◎ 주개등 : 신화동 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지형이 주걱모양이라고 함
- ◎ 호랭이탁걸바우 : 갯골 북쪽에 있는 바위
- ◎ 벼락바우 : 신화동 양달 뒷산에 있는 바위

### 3. 암전리(岩田里)

암전리는 단일 법정리로 본래 가동면(可洞面) 지역으로 태봉산(台峯山) 밑에 자리하여 골이 깊고 물이 맑다 하여 암곡(岩谷)이라 부르다가 1914년 암곡과 마전(摩田)을 병합하여 암전리(岩田里)로 하여 대가면에 편입되었다. 마을의 형성연대는 약 400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동으로는 태봉산을 중심으로 중곡·상곡·마전과 부수암 등의 자연 취락으로 형성되어 있고 동으로 우산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김해허씨, 김해김씨, 전주이씨, 함안이씨, 성산이씨, 창원황씨, 진양유씨, 순흥안씨, 청송심씨, 밀양손씨, 창원구씨, 영양천씨 등이다. 마을에는 암전리지석묘가 있다.

#### 1) 마을

- ◎ 마전(麻田) : 암곡 동쪽에 있는 마을
- ◎ 상곡(上谷, 암곡) : 암전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부수암(浮水岩, 부시바구) : 하촌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중곡(中谷, 중땀) : 하촌 북쪽에 있는 마을
- ◎ 하촌(下村, 하곡, 아래암곡) : 중곡 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고도산(고질땀면당, 고조봉) : 중곡 북서쪽에 있는 산
- ◎ 장구면당 : 고질땀면당 남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가치밭들 : 공수머리 북쪽에 있는 들
- ◎ 갱빈들 : 중곡 서남쪽에 있는 들로 대가저수지에 침몰되었음
- ◎ 공수머리 : 암곡 서쪽에 있는 들

- ◎ 두룽배미 : 작답 위쪽에 있는 논
- ◎ 매화배미 : 뽕나무배미 위쪽에 있는 논으로 매화나무가 있었다고 함
- ◎ 뽕나무배미: 두룽배미 위쪽에 있는 논으로 뽕나무가 있었다고 함
- ◎ 선창배미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으로 예전에 선창이 있었다고 함
- ◎ 앵구배미 : 장구배미 위쪽에 있는 논
- ◎ 작답 : 중땀 서쪽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앵구배미 밑에 있는 논

#### 4) 골

- ◎ 개랑골 : 마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논골 : 마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돌구덩이(동우골) : 하곡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물동이처럼 생겼다고 하며 이곳에서 돈치기를 하며 놀았다고 함
- ◎ 부치골 ; 동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부치가 있었다고 함
- ◎ 어응골(응골) : 주아곡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절골 : 마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함
- ◎ 제사골 : 중땀 남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우산재(지승곡) : 부시바구에서 고성읍 우산리로 가는 고개

#### 6) 기타

- ◎ 농바우 : 중곡 북쪽에 있는 바위
- ◎ 대가저수지 : 중곡 서남쪽에 있는 큰 저수지
- ◎ 마당바우 : 농바우 남쪽에 있는 바위
- ◎ 문천(文泉)새미 : 암곡 북쪽에 있는 샘
- ◎ 부시바구 : 부수암에 있는 바위

### 4. 유흥리(柳興里)

유흥마을은 1914년 신흥과 유동마을의 이름을 따 유흥리로 하여 법정리가 되었다. 취락 마을로는 날가지·참새미골·소두머리·절골·용머리·갈곡·갈망골·중땀 등이 있다. 마

을이 생긴 연대는 구전되기로는 양씨가 가장 먼저 입촌하여 정착하였다고 한다. 마을은 봉화산(대가봉화대)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대가저수지를 경계로 고성읍과 접하고 있어 대가면의 갑문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허씨, 밀양박씨, 함안이씨, 김해김씨, 전주최씨, 성주배씨 등이다.

삼계(三溪)마을은 옛날에는 각계(覺溪), 객기로 부르다가 두 개울 주변으로 세 땀(고대골땀, 본땀, 새땀)으로 형성 되었다하여 삼계(三溪)라 개칭하였다. 마을 위치가 계설이라 하여 항상 계가 잘 드러날 수 있게 막히지 않아야 번창한다고 하여 지금도 대문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을의 형성연대는 약 500년 전으로 이평(李平)의 선대인 경주이씨가 가장 먼저 마을에 정주하면서 시작되었다. 뒤이어 성주배씨, 경주김씨, 전주최씨 순으로 여러 성씨가 입주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마을은 무량산 줄기인 노적봉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경주김씨, 안악이씨, 김해허씨, 전주이씨, 진양장씨, 함안이씨, 칠원제씨, 창원황씨 등이다. 마을 뒤에는 약 500년으로 추정되는 금포구나무가 있는데 백운산(큰갯)자락에 마을이 처음 생길 때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앞 숲에는 2, 3백년 이상 된 느티나무, 포구나무, 서나무 등 30여 그루의 고목이 마을 남쪽을 감싸고 있어 방풍림 역할을 하고 있다.

### 1) 마을

- ◎ 날가지 : 신흥 남쪽에 있는 마을
- ◎ 목빙기(흑구덕) : 신흥 북쪽에 있는 마을
- ◎ 삼계(三溪, 생기, 각계) : 신흥 북쪽에 있는 마을
- ◎ 솔밖에 : 유동 동쪽에 있는 마을
- ◎ 소두머리 : 유흥리에 있는 마을
- ◎ 신흥(新興) : 유흥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유동(柳洞) : 신흥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절골 : 유동 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너부등(너북등, 너북산) : 신흥 북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공수머리 : 작은넙골 동쪽에 있는 들
- ◎ 너북등들 : 너북등 밑에 있는 들
- ◎ 돌빼기 : 솔태징이 남쪽에 있는 들
- ◎ 새뚝 : 신흥 동쪽에 있는 들
- ◎ 생깃들 : 생기에 있는 들
- ◎ 솔안 : 솔밖에 안쪽에 있는 들
- ◎ 솔태징이 : 신흥 동북쪽에 있는 들
- ◎ 작은넙골 : 유동 동남쪽에 있는 들

#### 4) 골

- ◎ 갈망골 : 유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갈마음수 형국이라 함

#### 5) 기타

- ◎ 삼계우물 : 마을 중앙에 위치한 우물로 예로부터 장군수(將軍水)라 함
- ◎ 서재골 : 참새밧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재가 있었다고 함
- ◎ 참새밧골 : 유흥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칠성바위(七星) : 마을의 앞과 뒤로 일곱 군데곳에 있는 바위로, 어느 도인(道人)이 성을 쌓기 위해 회초리로 돌을 옮겨 가던 중 회초리 밑으로 빠진 돌이란 전설이 있음
- ◎ 큰굽텅 : 생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양화리(楊化里)

양화리는 단일 법정리로 본래 가동면(可洞面) 지역이었다. 예전에 마을에 법천사(法泉寺)라는 큰 절이 있었던 연유로 마을 명을 법천으로 부르다가, 후에 마을 앞에 버드나무가 줄지어 우거져 있다 하여 버들 양(樣)자를 붙여 양화리로 하였다. 1914년 대가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연대는 1700년경으로 가장 먼저 입촌한 성씨는 김해김 씨라고 전한다. 마을은 무량산 자락이 두 날개의 꺾 사방을 에워싸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함안이씨, 청주한씨, 밀양박씨, 의령남씨, 진양정씨, 성주배씨 등이다.

마을에는 법천사지와 양화리석조여래좌상, 봉수지 등이 있으며 마을 개울가에 느티나무 3그루가 숲을 이루어 있는데 정자나무밀이라 부른다. 나무 밑에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고 매년 정월 보름에 동제를 지낸다.

1) 마을

- ◎ 각곡(角谷, 각골, 갓골) : 양화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법천(法川) : 법천사라는 절이 있었다 함
- ◎ 수치골 : 콧드래골 서쪽에 있는 마을
- ◎ 양달 : 갓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양지쪽이 됨
- ◎ 음달 : 갓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음지쪽이 됨
- ◎ 콧드래골 : 각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

2) 산

- ◎ 천왕산(天王山) : 수치골 서북쪽에 있는 산

3) 들, 논

- ◎ 갈뻗들 : 양화 남쪽에 있는 들
- ◎ 골안 : 양화 북쪽에 있는 들
- ◎ 돌패기들 : 양화 남쪽에 있는 들
- ◎ 돌밑(디미) : 양화 남쪽에 있는 들
- ◎ 덧들 : 양화 뒤쪽에 있는 들
- ◎ 생깃들 : 돌패기들 남쪽에 있는 들
- ◎ 숲안들 : 생깃들 북쪽에 있는 들
- ◎ 어덕들 : 양화 동쪽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장수배미 위쪽에 있는 논으로 장구처럼 생겼음
- ◎ 장수배미 : 양화 남쪽에 있는 큰 논
- ◎ 참새밧들 : 양화리에 있는 들
- ◎ 초댕이(소댕이) : 양화 서쪽에 있는 들

4) 골

- ◎ 갓골 : 수치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봉우골 : 양화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수구남골 : 진승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종우골 : 음달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진성골 : 수치골에 있는 긴 골짜기

◎ 큰골 : 양화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 5) 고개

◎ 장구목 : 개방우등 동북쪽에 있는 고개로 지형이 장구의 목처럼 생겼다 함

◎ 전성곡 : 수치골에서 양화로 가는 고개

◎ 처작골 : 양화 동쪽에서 유흥리로 가는 고개. 옛날 한 처녀가 자살했다하여 신행길을 피한다고 함

◎ 아래재(화리티, 화리재, 아래재) : 무량산 서남쪽에 있는 고개

#### 6) 기타

◎ 개방우 : 개방우동에 있는 바위로 개처럼 생겼다 함

◎ 개방우등 : 수치골 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이곳에 개방우 바위가 있음

◎ 방천뚝 : 디미 북쪽에서 양화 남쪽에 이르는 뚝

◎ 법천사(法泉寺, 은행사) : 법천 북편에 있는 절

◎ 섬등 : 양화 앞에 있는 등성으로 섬모양이라고 함

◎ 음달새미 : 음달에 있는 샘

◎ 참새미 : 참새밧들에 있는 샘

◎ 코바위와 해삼바위 : 마을 뒷산 산마루에 있는 큰 바위. 마을 서북쪽 진성골 산비탈에 있는 웅장하고 기이한 바위는 해삼바위라고 부름. 이 바위에는 태고(太古)시 천지개벽을 할 때 해일이 일어나 삼라만상이 물에 잠기었을 적에 코바위는 끝이 상투코만 큼 남았고 해삼바위는 해일이 끝나 물이 빠지고 난 뒤에 바위에 해삼이 붙어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짐

### 6. 연지리(蓮芝里)

연지리는 본래 가동면(可洞面) 지역으로, 1914년 연동(蓮洞)과 지동(芝洞)·평동(坪洞)을 병합하여 연동과 지동의 이름을 따서 연지리로 하여 대가면에 편입되었다. 이곳은 원래 늪지로 연(蓮)을 많이 재배하였다 하여 연동이라 하고, 평동은 넓고 평평한 들 가운데 있다 하여 붙여졌다. 행정리로 지동과 평동 마을이 있다.

지동마을은 시달(時達)이라 부르다가, 1914년 연지리 지동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터골(基谷)과 방화골(芳花谷)의 자연마을이 있다. 마을의 형성은 가장 먼저 밀양박씨가 살다가 그 뒤에 최씨, 허씨, 손씨, 이씨, 제씨가 입주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은

양화저수지 밑의 평야지대에 위치하며 고성읍 덕선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밀양박씨, 전주최씨, 김해허씨, 밀양손씨, 함안이씨, 칠원제씨, 김해김씨, 성주배씨, 단양우씨, 평산신씨, 영산신씨 등이다. 터골마을 입구에 영산신씨와 남평문씨의 열너비가 있다.

평동마을은 넓고 평평한 들 가운데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평동이라 하였다. 마을은 원래 천황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10여 호가 살았는데, 1700년경 청송심씨가 이곳에 입촌하고 그 뒤에 창원황씨가 입촌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마을은 천황산을 경계로 고성읍 무량리와 인접하여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청송심씨, 김해김씨, 칠원제씨, 청주한씨, 고성박씨, 진양하씨, 평산신씨 등이다.

### 1) 마을

- ◎ 골안(호림) : 연동 남쪽에 있는 마을
- ◎ 방화골(방화동) : 방화골 마을의 앞산으로 디딜방아같이 생겼다고 함
- ◎ 사창(社倉) : 방화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연동(蓮洞) : 지동 동쪽에 있는 마을
- ◎ 지동(芝洞) : 연지동에서 으뜸 되는 마을
- ◎ 텃골 : 사창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평동(平洞) : 텃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호림(好林) : 골안

### 2) 산

- ◎ 신걸 : 지동 북서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바구배미 : 신걸에 있는 논
- ◎ 사창들 : 사창 앞에 있는 들
- ◎ 새밧들 : 지동 서북쪽에 있는 들
- ◎ 썩개배미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
- ◎ 장구배미 : 덧들에 있는 논
- ◎ 중들 : 평동 서쪽에 있는 들
- ◎ 지깃들 : 흙들 남쪽에 있는 들



- ◎ 쨩이배미 : 사창 앞에 있는 논으로 모양이 쨩이(키)처럼 생겼다고 함
- ◎ 흙들 : 지동 북쪽에 있는 들

## 4) 골

- ◎ 가장골 : 소름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매장을 했다고 함
- ◎ 갈목고지 : 텃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빈대절터 : 방화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빈대 때문에 망했다고 함
- ◎ 산밭골 : 텃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음
- ◎ 서짓골 : 소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재가 있었음
- ◎ 소름골 : 골안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신당골 : 지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약새밋골 : 약새미가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돌곡 : 연지리에서 유흥리의 신흥으로 가는 고개
- ◎ 문곡 : 연동에서 방화골로 가는 고개
- ◎ 방아골재 : 방화골에 있는 고개
- ◎ 버텃곡 : 연지리에서 유흥리 유동으로 가는 고개
- ◎ 서짓고개 : 서짓골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갈모지너드렁 : 갈모지등에있는 너설
- ◎ 갈모지등 : 연지리에 있는 등성이
- ◎ 농바구 : 골안 남쪽에 있는 바위
- ◎ 뉘이바우 : 선바구 위쪽에 있는 바위
- ◎ 선바위와 칼바위 : 지동마을 서쪽 산에는 바위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바위는 선바위와 칼바위이다. 선바위 바로 앞에는 큰 굴이 있으며 흔들바우는 선바위 옆에 있다. 또 칼바위도 있는데 뽕죽하게 칼날같이 생겼다고 함
- ◎ 이미기뻘덕 : 방화골과 텃골 사이에 있는 버덩
- ◎ 선밭등 : 텃골 서쪽에 있는 등성으로 선바구가 있다.

- ◎ 약새미 : 방화골 북쪽에 있는 샘으로 피부병에 좋다고 하며 칠석날 물맛이를 하였다 함
- ◎ 약수암(藥水庵) : 약새미골에 있는 절
- ◎ 장군바위 : 평동마을 한 가운데서 청황산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간격으로 큰 바위가 띄엄띄엄 들판에 놓여 있는데 옛날 장군들이 이 바위를 짚고 다녔다고 하여 장군바위라 함

## 7. 송계리(松溪里)

송계리는 본래 대둔면 지역으로 신기로도 불렸다. 1914년 장전을 병합하여 송계리로 하여 대가면에 편입되었다. 행정리로 송계(松溪)와 장전(場田) 마을이 있다.

송계마을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산 즉 장밭고개·독메(獨山)·학남산(鶴南山)·혼돈산(混沌山)이 울창한 송림이며, 마을 앞은 시냇물이 흘러 송계라 하였다. 예로부터 산자수려하고 삼재불입지(三災不入之地)라는 말이 전한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고증할 수 없으나 마을 주변의 동산에 고분군이 많이 있고 여기서 금속 칼과 토기 등이 발굴되어 오랜 시기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함안이씨, 김해허씨, 전주최씨, 함동어씨, 함안조씨, 칠원제씨, 양천허씨 등이다. 마을에는 송계리고분이 있으며, 송계리 이씨고개가 있다.

장전마을은 장밭과 괴정으로 형성된 마을로 장밭은 원래 마당만한 밭이 많다고 하여 마당장(場)자와 밭 전(田)자를 붙여 이렇게 불렀다. 괴정(槐亭)은 큰 회화나무가 있어 회화나무 괴(槐)자를 붙여 괴정이라 하였다. 1984년에 장전마을로 행정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은 장밭은 1750년대로 창원구씨가, 1780년대에는 경주최씨가 입촌하면서 시작되었다. 본래 정씨가 많이 살았다고 하나 지금은 한 가구도 남아 있지 않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경주최씨, 함안이씨, 양천허씨, 칠원제씨, 창원구씨, 파평윤씨, 김해김씨, 진양정씨, 원주원씨, 전주최씨, 진양하씨 등이다.

### 1) 마을

- ◎ 괴정(槐亭, 계정) : 장전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장밭(장전) : 괴정 북쪽에 있는 마을
- ◎ 회동(晦洞) : 송계 동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새남산(학남산) : 굴바구 동쪽에 있는 산

◎ 소뿔산(소을산) : 송계리에 있는 산

### 3) 들, 논

- ◎ 곱배미 : 송계 앞에 있는 논
- ◎ 백련남들 : 음달보 동쪽에 있는 들
- ◎ 사창들 : 장전동 북쪽에 있는 들
- ◎ 영들 : 백련남들 동쪽에 있는 들
- ◎ 음달들 : 사창보 동쪽에 있는 들
- ◎ 재갈배미 : 장전동 앞에 있는 논으로 자갈이 많았다고 함
- ◎ 흙택걸들 : 어등 동쪽에 있는 들

### 4) 골

- ◎ 가실미 : 송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도장골 : 괴정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물골 : 도장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좋다고 함
- ◎ 비랑골 : 장전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곧바르다고 함
- ◎ 범의골 : 뿔당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범이 많았다고 함
- ◎ 뿔당골 : 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음
- ◎ 산짓골 : 물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제를 지냈다고 함
- ◎ 솔깃골 : 굴바구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움턱골 : 송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채봉골 : 비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갈곡 : 송계리에 있는 고개
- ◎ 느지곡(옥천골) : 송계리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꽃밭등 : 물새밋골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농바구 : 장전동 남쪽에 있는 바위로 농처럼 생겼음
- ◎ 물똥바구 : 장전동 북동쪽에 있는 바위로 물동이 모양이라고 함

- ◎ 상투바구 : 괴정 동쪽에 있는 바위
- ◎ 열녀비(烈女碑) : 장전동 북쪽에 있는 비
- ◎ 용새미 : 송계 서쪽에 있는 샘으로 들에 있는데 물이 많이 난다고 함
- ◎ 장기바구 : 소을산에 있는 바위로 장기판처럼 생겼음
- ◎ 진등 : 회동 북쪽에 있는 긴 등성이
- ◎ 찬새미 : 괴정 동쪽에 있는 샘
- ◎ 큰골너드렁 : 산짓골 서쪽에 있는 너설
- ◎ 혼돈산(混沌山)장기바위 : 혼돈산의 자태는 곰도 같고 범도 같은 기암이 여기 저기 우뚝 서있는 가운데 장기바위가 있다. 이 바위 위에서 신선들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장기를 두며 즐겼다고 하여 장기바위라고 하며, 이 바위 위에서 눈을 감고 세 바위를 돌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여 지금도 병약자가 쾌유를 비는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소풀(부추·정구지)이 많이 자생하기에 소풀산이라고도 함

## 8. 갈천리(葛川里)

갈천리는 본래 대둔면 지역으로 내(河川)가 갈라져 있다 하여 갈내 또는 갈천이라 하였다. 1914년에 종생(宗生)마을을 병합하여 대가면 갈천리(법정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외갈(外葛)과 내갈(內葛), 종생(宗生)마을이 있다.

외갈마을은 1984년에 분동되면서 갈천리의 바깥쪽 마을이라 하여 외갈이라 하였다. 마을의 형성은 안악이씨가 먼저 들어와 살면서부터라고 한다. 그 후 1700년경에 양천허씨와 전주최씨가 입촌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은 무량산이 서쪽을, 학남산이 서북쪽을 에워싸고 있다. 면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로 거주민의 성씨는 양천허씨, 김해김씨, 김해허씨, 전주최씨, 여주이씨, 남원진씨, 청주한씨, 창원황씨, 안동권씨 등이다. 마을에는 갈천서원(葛川書院)이 있다.

내갈마을은 1984년 외갈과 종생마을로 분동되면서 갈천리의 안쪽마을이라 하여 내갈이라 하였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1700년경으로 유씨와 안씨가 먼저 입촌하였고, 이후에 함암이씨가 입촌하여 대성을 이루었다.

종생마을은 본래 대둔면 지역으로, 1914년 대가면 갈천리에 편입되었다가, 1984년 갈천리의 행정리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종생이란 지명은 지금은 한자로 종(宗)자를 쓰지만 옛날에는 종(種)자를 썼다. 이는 7년 대한(大旱) 가뭄으로 씨앗들이 멸종되었을 적에 이곳에서 씨앗을 퍼뜨렸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옛날 마장(馬場)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형성은 아주 오래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마을은 무량산·천황산·백등산 등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고 있다. 산 너머 양화리 영현면 추계를 경계로 하고 있고 큰땀·건땀·절골·마전 등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여양진씨, 진양강씨, 김녕김씨, 영양천씨, 수원백씨, 함안조씨, 강릉김씨 등이다.

### 1) 마을

- ◎ 갈내(갈천) : 갈라진 내가 있어 갈내 또는 갈천이라 부름
- ◎ 남산 : 내갈천 남쪽에 있는 마을
- ◎ 내갈천 : 갈천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마장(馬場) : 범호산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고려말기에 말을 길렀다고 전함
- ◎ 밖갈내(외갈천) : 내갈천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봉산(鳳山, 어실) : 종생 남쪽에 있는 마을
- ◎ 절골 : 종생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종생(宗生, 마재이) : 절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큰땀 : 내갈천 북쪽에 있는 큰 마을

### 2) 산

- ◎ 깃대면당 (중산골면당) : 중산골에 있는 산
- ◎ 당산(堂山) : 내갈천 동쪽에 있는 산으로 당산제를 지냄
- ◎ 뚝매 : 봉산 북쪽에 있는 산
- ◎ 무량산(無量山) : 종생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581m 임
- ◎ 백등산 : 종생마을 서쪽을 가로막고 있는 산으로 꼭대기에 흰 바위가 있는데 마을에서 이 바위가 보이면 마을에 아무 탈이 없고, 숲이 우거져 바위가 보이지 않으면 꼭 산불이 나서 불에 타 바위가 보이게 된다고 함
- ◎ 안산 : 안골에 있는 산
- ◎ 중승산 : 범호산 동남쪽에 있는 산
- ◎ 타리재 : 종생 동쪽에 있는 산
- ◎ 할개앞다 : 내갈천 서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굽들 ; 내갈천 서북쪽에 있는 들

- ◎ 나무달 : 갈천리에 있는 들
- ◎ 너마지기 : 내갈천 북쪽에 있는 논
- ◎ 농바긋들 : 내갈천 남쪽에 있는 들
- ◎ 다우달 : 종생 북편에 있는 들
- ◎ 당산들 : 당산 밑에 있는 들
- ◎ 마당배미 : 내갈천 동쪽에 있는 들
- ◎ 생깃들 : 내갈천 서쪽에 있는 들
- ◎ 소목들 : 종생 북쪽에 있는 들
- ◎ 신보탄들 : 내갈천 동쪽에 있는 들
- ◎ 어실들 : 어실에 있는 들
- ◎ 우옹골들 : 홍골들 위쪽에 있는 들
- ◎ 큰들 : 종생 북편에 있는 들
- ◎ 큰어실들 : 어실골의 큰 들
- ◎ 텃논 : 내갈천 앞에 있는 논
- ◎ 햇대거리(훗대거리) : 종생 서쪽에 있는 들
- ◎ 홍골들 : 내갈천 동남쪽에 있는 들

#### 4) 골

- ◎ 돌짱골(돌짱생이) : 반장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반장골 : 내갈천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보뻗골(뿔밭골) : 내갈천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팔 받이 있었다고 함
- ◎ 산태골 : 중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사태가 많이 났다고 함
- ◎ 새내밋골 : 내갈천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소목골 : 소목들이 있는 골짜기
- ◎ 안골 : 봉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오시랑고랑 : 반장골 밑에 있는 골짜기
- ◎ 작은골 : 초장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중산골 : 종생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중을 화장했다고 함
- ◎ 초장골 : 보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초장골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 5) 고개

- ◎ 가릿재 : 절골에서 영현면 추계리로 넘어가는 고개
- ◎ 마장잇재 : 마장에 있는 고개
- ◎ 범천재 : 종생에서 양화리의 수치골로 넘어가는 고개

## 6) 기타

- ◎ 가매바구 : 무량산에 있는 바위
- ◎ 남산새미 : 남산에 있는 샘
- ◎ 농바구 : 봉산 남쪽에 있는 바위
- ◎ 디지바구 : 중산골에 있는 바위로 뒤주모양을 함
- ◎ 마장터 : 마장 남쪽에 있는 버덩
- ◎ 상토바구 : 봉산 동쪽에 있는 바위
- ◎ 심심바구 : 봉산 북쪽에 있는 바위로 신선이 놀았다고 함
- ◎ 왕바구 : 산태골에 있는 큰 바위
- ◎ 중바구 : 내갈천 동쪽에 있는 바위
- ◎ 찬물새미 : 종생 남쪽에 있는 샘
- ◎ 큰너드렁 : 종생 서쪽에 있는 너설

## 9. 신전리(薪田里)

신전리는 단일 법정리로 본래 대둔면 지역으로 주변에 숲이 많다 하여 섯밭이라 부르다가, 1914년 신전리(薪田里)라 하였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약350여 년 전으로 이때부터 주민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은 큰땀과 거설매땀, 협동땀 등 3개의 취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마을 북쪽은 혼돈산 줄기가 뻗어 있고 마을 앞은 송계천과 갈천천이 합류하여 영천강으로 흐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밀양박씨, 칠원제씨, 평택임씨, 인동장씨, 김해김씨, 청주한씨, 청풍김씨, 파평윤씨, 여양진씨, 김해허씨, 단양우씨 등이다. 마을에는 대둔사지가 있다.

## 1) 마을

- ◎ 거설매(땀) : 섯밭 서쪽에 있는 마을
- ◎ 새터 : 신전리에 있는 새로 된 마을
- ◎ 섯밭(신전) : 숲이 많아 섯밭이라 부름

◎ 운곡(雲谷) : 신전 동북쪽에 있는 마을

2) 산

◎ 똥매 : 운곡 서남쪽에 있는 산

◎ 소녹산 : 소녹골에 있는 산

3) 들, 논

◎ 까지노 : 설밭 남쪽에 있는 논

◎ 느릅징이 : 운곡 앞에 있는 들

◎ 마당바우(솔깃들) : 운곡 남쪽에 있는 들

◎ 새텃들 : 새터에 있는 들

◎ 장구배미 : 설밭 남쪽에 있는 논

◎ 장터꺼리 : 마당바우 밑에 있는 들로 예전에 장이 섰다고 함

◎ 큰들 : 설밭 안에 있는 큰 들

◎ 황새배미 : 설밭 동쪽에 있는 논으로 지형이 황새 모양이라고 함

4) 골

◎ 산짓골 : 설밭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제를 지냄

◎ 상잇골 : 산짓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향교가 있었음

◎ 소녹골 : 운곡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소시랑골 : 설밭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오래밭골 : 설밭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많아서 오리가 많았다고 함

◎ 참새밧골 : 설밭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큰골 : 운곡 동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5) 고개

◎ 땅재 : 운곡에서 설밭으로 가는 고개

6) 기타

◎ 가매바구 : 북방바구 옆에 있는 바위로 가마처럼 생겼음

◎ 대바구 : 큰골에 있는 바위



- ◎ 마당바우 : 솔밭들에 있는 바위
- ◎ 북방바구 : 운곡 북쪽에 있는 바위로 두드리면 북소리가 난다고 함
- ◎ 섯밭내(신전천) : 섯밭에 있는 내
- ◎ 어산너드렁 : 어산에 있는 너설
- ◎ 옷새미 : 찬새미 위쪽에 있는 샘으로 옷나무가 많았다고 함
- ◎ 찬새미 : 섯밭 서쪽에 있는 샘

## 제 6절 동해면(東海面 Donghae-myeeon)

군의 동쪽 끝단에 있는 면이다. 면 전체가 동쪽으로 돌출되어 거류면과 접하고 있는 서쪽을 제외한 3면이 바다에 면해 있다. 남쪽은 당동만에 면하고 북쪽은 당항만을 사이에 두고 회화면과 창원시 진전면을 마주한다. 당항만 입구에 외산리와 창원시를 잇는 동진교가 2001년 개통되었다. 동쪽 바다는 거제시와 창원시로 이어진다. 군에서 면적이 가장 넓으며 수양산(419m), 응암산(397m), 구절령(565m) 등 대부분 산지를 이루고 있고, 서쪽 거류면 경계 지역과 북쪽 해안선을 따라 평야가 분포한다. 리아스식 해안으로 당항만, 당동만 이외에도 작은 만이 해안선 곳곳에 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곡산향(曲山鄉)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현 동북쪽 20리에 있다.” 고 하였다. 『호구총수』의 동리를 살펴보면 광이운면(光二運面)의 당동(堂洞)·외곡산리(外曲山里)·포도도(葡萄島)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광이면(光二面)과 포도면(葡萄面)으로 나누어 졌고, 이 중에서 광이면은 1900년(광무4)에 진남군에 편입되었다. 『신구대조』에는 1914년 포도면과 진남군에 편입되었던 광이면을 다시 고성으로 이관하여 합치고, 지명을 동해면(東海面)으로 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동해’는 군의 동쪽바다에 접해 있는 위치적 관계에서 만들어진 지명이다. 1973년 감서리가 거류면으로 편입되었고, 현재는 9개 법정리를 관할한다. 곡산봉수(曲山烽燧)가 있었고 장기리에 그 터가 남아있다.

『대동지지』에는 포도도에 목장이 있다고 하였고, 『여지도서』에는 “관아의 동쪽 40리에 있다. 육지에 이어져 있으며, 명례궁(明禮宮)에서 둔전을 설치했다. 유민산에서 뻗어 나온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지도』와 『청구도』에는 포도도가 섬이 아닌 육지로서 비교적 크게 그려져 있지만, 『대동여지도』에는 육지와 떨어진 작은 섬으로 표시하였다.

## 1. 장기리(章基里)

장기마을은 원래 포도면 지역으로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하는 마을로 문장력과 서예에 뛰어난 묵희(墨熙 일명 묵군자)라는 학자가 배출되는 등 문장(文章)의 본원지라는 뜻으로 장기(章基)로 불렸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임진왜란 이후로 창녕조씨와 밀양박씨가 정착하면서 시작되었다. 마을은 철마산과 구절산 밑에 해안을 끼고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담양전씨, 함안이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전주최씨, 인동장씨 등이다. 마을에는 철마산성터가 있다.

### 1) 마을

- ◎ 가운데담 : 장기 중앙에 있는 마을
- ◎ 군진(군징이) : 장기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대초방 : 용흥동
- ◎ 아룻담 : 장기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장기(장터) : 장기리의 으뜸가는 마을
- ◎ 점골(점곡) : 군진 서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봉화대 : 점골 서남쪽에 있는 산
- ◎ 철마령 : 장좌리의 경계산
- ◎ 보등산 : 봉화대가 있는 산

### 3) 들, 논

- ◎ 장깃들 : 장기 앞에 있는 들
- ◎ 아칭개 : 장기 동쪽에 있는 들
- ◎ 덕넘어 : 장기 동쪽에 있는 들

### 4) 골

- ◎ 금골 : 장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쇠가 낫다고 함
- ◎ 송탕골 : 일명 작은골로 숲을 만들었다고 함
- ◎ 얼음골 : 구절산 중턱 장기쪽 골짜기

## 5) 고개

◎ 상장등 : 장기에서 장좌리의 상장으로 가는 고개

## 6) 기타

◎ 구절폭포 : 장기 서남쪽에 있는 폭포

◎ 북바구 : 장기 서남쪽에 있는 바위로 북처럼 생겼음

◎ 쓱시개 : 장기 북쪽에 있는 개

◎ 장기못 : 장기에 있는 못

◎ 진등 : 장기 남쪽에 있는 긴 등성이

◎ 철마산성 : 철마산에 있는 성으로 길이는 370 미터 임

◎ 판시곡 : 장기와 군진 경계의 산정

◎ 메밭등 : 장기 동남쪽의 산정

## 2. 양촌리(陽村里)

양촌리는 본래 고성군 포도면(葡萄面) 지역인데, 1914년 검포(檢浦)와 덕곡(德谷), 법동(法洞)을 병합하여 양촌리로 하여 동해면에 편입되었다. 검포(檢浦), 덕곡(德谷), 법동(法洞)의 행정마을이 있다.

검포마을은 약 400여 년 전에 김해김씨와 밀양손씨가 입촌하여 옛 지명인 수양마을로 취락을 이루고 살면서, 임란 때 마을 앞의 수양산과 마을 뒤의 우산사이에 아군의 검문소가 있었다 하여 검포(檢浦)라 하였다. 후에 수양로(垂陽路)를 중심으로 남쪽마을을 수양, 북쪽마을을 검포라 하였으며 1984년 두 마을을 합하여 검포(檢浦)로 하였다. 마을의 형성 연대는 약 400여 년 전으로 김해김씨가 입촌하였고 그 뒤에 밀양손씨가 입촌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밀양박씨, 밀양손씨, 연일정씨, 함안조씨, 삭영최씨 등이다. 마을에는 철마산성터, 양촌리성터, 양촌리지석묘군이 있다. 또 마을 앞 하천변에는 약 200여 년 전에 김해김씨 선조가 심었다는 서나무 30그루와 포구나무 2그루가 보존되어 있다.

덕곡마을은 250여 년 전 번덕과 장황곡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번덕의 덕(德)자와 장황곡의 곡(谷)자를 따서 지금의 양촌리 덕곡이라 하였다. 1700년대에 경주이씨와 창원황씨가 입촌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1800년대에 수원백씨, 경주최씨, 밀양박씨, 김해김씨 등이 입촌하였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창원황씨가 대성을 이루고, 김해김씨, 경주이씨, 수원백씨, 경주최씨, 밀양박씨 등 여러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에는 양촌리고분군과 궁

감전수장양부혁불망비가 있다.

범법동마을은 예로부터 장수마을로 알려져 있는데, 동명은 약 250여 년 전에 이곳에 포도둔감(葡萄屯監)의 공무 집행소(執行所)가 있어 모든 법을 시달하고 집행하였다 하여 범법동(凡法洞)이라 하다가 1942년 큰땀, 하부천, 당거리의 3개 땀을 합쳐 양촌리 범법동이라 하였다.

마을의 형성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지 않다. 다만 임란 때 무기와 땀 등 장비를 만들었다는 궁터가 있어 사람이 거주하게 된 것도 이때로 추정하고 있으며 1630년대부터 김해김씨, 광산김씨, 전주최씨, 밀양박씨, 창원황씨 등 여러 성씨가 입촌하여 거주하면서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 앞은 진해만에 면하고 마을 뒤로는 매암산과 수양산 자락에 큰담, 하부천, 당거리 등 3개의 자연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광산김씨, 밀양박씨, 전주최씨, 창원황씨, 전주이씨, 경주최씨 등 여러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에는 땀바끝과 궁터(宮址)가 있다.

#### 1) 마을

- ◎ 개골 : 양촌리에 있는 마을
- ◎ 건개(검포) : 양촌리에서 으뜸기는 마을. 임란 때 군사 주둔지로 행인을 검색했던 곳이라고 함
- ◎ 논골(답곡) : 검포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당항(땅끄래) : 범법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당이 있었다고 함
- ◎ 대곡(큰골) : 답곡 서쪽에 있는 마을
- ◎ 덕곡(소곡, 작은골) : 적포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범법동(법동) : 소곡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적포 : 검포 동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고성(옛성) : 검포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성이 있었음
- ◎ 공서바우 : 공서바우가 있는 산
- ◎ 당끄래똥매 : 당끄래 북쪽에 있는 산
- ◎ 목구멍당 : 덕곡 서쪽에 있는 산
- ◎ 방어산 : 큰땀 마을 앞에 있는 산으로 마을의 모든 재앙을 막아준다 하여 방어산이라 부름

- ◎ 쇠피이끝(우평) : 검포 북쪽에 있는 산으로 소의 형국이라 함
- ◎ 안산 : 덕곡 남쪽에 있는 산
- ◎ 이성면당 : 검포 동북쪽에 있는 산
- ◎ 주례안산 : 법동에 있는 산으로 거북이 모양이라 함. 옛날에 산이 바다 쪽으로 걸어 가고 있는 것을 아이가 밥을 짓다가 엄마에게 부작지를 두드리면서 산이 걸어간다고 하자 그만 산이 멈추어 섰다고 함
- ◎ 질매당면당 : 얼음골 동쪽에 있는 산으로 길마형국이라 함
- ◎ 호박들끝 : 큰골 북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갓초랭이 : 보구논또가리 북쪽에 있는 논
- ◎ 고래실 : 덕곡 서쪽에 있는 들
- ◎ 논골구렁 : 논골에 있는 들
- ◎ 당매끝 : 당끄래 서북쪽에 있는 들
- ◎ 말반지기(질가배미) : 진배미 밑에 있는 논
- ◎ 보구논또가리 : 동매뻘덕 동남쪽에 있는 논으로 보구라는 사람의 논이라 함
- ◎ 새들 : 논골 동북쪽에 있는 들
- ◎ 수양산들 : 수양산 밑에 있는 들
- ◎ 약물통 : 부구논또가리 동쪽에 있는 논
- ◎ 작은골땀들 : 작은골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법동에 있는 논
- ◎ 진배미 : 큰골들에 있는 논
- ◎ 큰골들 : 큰골에 있는 들

### 4) 골

- ◎ 갈맞골 : 머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거성골 : 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너르밭골 : 무시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넓은 바위가 있음
- ◎ 대곡(큰골) : 답곡 서쪽에 있는 마을
- ◎ 마금창(선사골) : 범의대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머은골 : 법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무시밭골 : 덕곡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범의대지골 : 거싱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얼음골 : 최풍숫골 :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최풍숫골 : 양촌리에 있는 골짜기로 최풍수가 살았다 함
- ◎ 흥녹골 : 안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5) 고개

- ◎ 아랫재 : 검포 남쪽에 있는 고개
- ◎ 옷재 : 검포 남쪽에 있는 고개

6) 기타

- ◎ 개골개 : 청숙골개 동쪽에 있는 개
- ◎ 공서바위(共席岩) : 적개 남쪽에 있는 바위로 빈 술 모양임. 강점기에 회의장소 사용되었다고 함. 현재는 공수바위(共首岩)라 부름
- ◎ 논골뺨덕(동매뺨덕) : 큰골과 사이에 있는 버덩
- ◎ 다근밭(따끔밭, 바근밭) : 개골 동쪽에 있는 버덩
- ◎ 상보 : 중보 위쪽에 있는 보
- ◎ 수구등 : 개골 위쪽에 있는 등성이
- ◎ 이성터 : 이성 먼당 위에 있는 성터
- ◎ 적개 : 적포에 있는 개
- ◎ 청숙골개 : 검포 앞 복판에 있는 개
- ◎ 큰골개 : 큰골 앞에 있는 개
- ◎ 큰골새미 : 큰골에 있는 샘
- ◎ 하부내 : 하부천

3. 내산리(內山里)

내산리는 본래 포도면 지역인데 1914년 내신동과 전도(錢島)를 병합하여 내산리라 하였다. 행정리로 내신(內新)과 전도(錢島)의 2개 마을이 있다.

내신마을은 임진왜란 때 군막(軍幕)이 있었던 곳으로 막개(막포)로 불렸으며 1984년부터 내산리 내신마을이라 하였다. 마을의 형성연대는 자세하지 않으나 임진란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강씨, 전주이씨, 김해김씨 등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

다. 마을은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뒤는 장군산이 있다. 자연 부락으로 큰막개, 작은막개, 목섬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은 전주이씨, 광산김씨, 진양강씨, 창녕조씨, 연안차씨, 거창유씨 등이다. 마을에는 전주이씨 문중의 재실인 관락정과 광산김씨 문중의 재실인 이락정이 있다.

전도마을은 본래 포도면 지역으로 1914년 내산리에 편입되었으며 1984년 전도마을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연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최초로 전도마을에 입촌하였다는 김해김씨의 26대 자손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마을은 동해면 소재지인 장기 마을에서 동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해안지대에 팽이바다를 앞으로 넓은 해안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안악이씨, 밀양박씨, 창원황씨, 고성이씨 등이다. 마을에는 내산리고분군이 있으며 마을의 중앙에 생숲이 보존되어 있다. 이 숲은 약 450여 년 전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동신제를 지내던 자리에 서나무와 팽나무를 심어 큰 숲을 이룬 것으로 마을 이름도 숲땀이라 부르고 있다.

### 1) 마을

- ◎ 고래실(古來室) : 내산리 고분군의 고려장(高麗葬)을 고래장(古來葬)으로 인정하여 고래실로 표기하여 마을 명을 고래실로 부름
- ◎ 내신동(대막포, 큰막개) : 소막포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목섬(큰개) : 내신동 남쪽에 있는 마을
- ◎ 범바윗골(호암곡) : 소막포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소막포(작은막개) : 내신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가는개굴텃 : 도무짜리 남쪽에 있는 산
- ◎ 갓지미기(하동목사진터) : 큰막개 북쪽에 있는 산으로 임진왜란 때 하동목사가 진을 친 곳이라 함
- ◎ 당산터 : 전도 남쪽에 있는 산으로 정월대보름날 당산제를 지낸다 함
- ◎ 뚝매 : 전도 서쪽에 있는 산
- ◎ 장군산 : 소막포 서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전도들 : 전도 앞에 있는 들

4) 골

◎ 문동골 : 전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문둥이가 많았다 함

◎ 안골 : 전도 북쪽에 있는 골짜기

5) 고개

◎ 막개고개(전도고개) : 전도 뒤에 있는 고개

◎ 서짓골고개 : 큰막개 남쪽에 있는 고개

6) 기타

◎ 동땃등 : 전도 서쪽에 있는 등성이

◎ 범바구(호암) : 범바위골에 있는 바위로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남녀가 소원을 빌었다고도 함

◎ 장기바구 : 범바구 밑에 있는 바위로 장기판 모양이라고 함

◎ 적개 : 문동골 남쪽에 있는 개

◎ 조밭개굼텅 : 마장네 끝에 있는 구덩이로 조씨밭이 있다고 함

#### 4. 외산리

외산리는 본래 포도면 지역인데 1914년 대천(大川)과 좌부천(佐夫川)을 병합하여 외산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대천과 좌부천의 2개 마을이 있다.

대천마을은 큰 대나무 밭이 있었다하여 죽전(竹田)이라 부르다가 일제 때에 대천부락으로 개칭하였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400여 년 전으로, 곡부공씨, 강릉유씨가 입촌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바깥대내, 안대내, 돈막마을 등 3개 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뒤에는 절구산이 병풍처럼 펼쳐있으며, 마을 앞은 당항만에 접한 해안마을로 북쪽으로 바다를 건너 창원시 진동면 시락리와 경계를 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강릉유씨, 곡부공씨, 밀양박씨, 광산김씨, 창원정씨 등이다. 마을에는 명강재(明綱齋)가 있다.

좌부천마을은 임란 때 당항포해전에서 전락상 요충지로 주민들이 의병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여 좌부(佐夫)라 하였고, 또한 마을 앞바다가 내(川)와 같이 생겼다 하여 좌부천이라 불렀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1545년경부터 주민이 입촌하여 정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은 뒤로는 노인산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마을 앞의 바다를 경계로 하여 북쪽으로



창원시 진전면 시락리와 접하고 있다. 동남쪽으로는 진해만, 서쪽은 당항만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광산김씨, 전주이씨, 곡부공씨, 창원황씨, 창녕성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등이다.

마을에는 수호신을 모신 당산이 있으며, 약 200여 년 전에 천씨(千氏) 한 분이 심었다고 전하는 당산나무가 있다. 이곳에서 매년 음력 선달 그믐날 밤에 동제를 지낸다. 또한 당산나무 밑에는 들들이 있는데, 옛날 이 마을에 살던 한 장정이 풀짐 속에 넣어서 당산나무 밑에 두고 마을 사람들이 힘겨루기를 하였다고 한다.

### 1) 마을

- ◎ 대천(돈막) : 안대내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돌이 많다고 함
- ◎ 바끝대내 : 안대내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안대내(죽천) : 대천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좌부내(좌부천) : 외산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2) 산

- ◎ 개돌바우면당 : 나무성바우골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개처럼 생긴 바위
- ◎ 노인산(노인봉) : 좌부천 마을의 뒷산. 노인이 허리를 굽혀 작지를 짚고 있는 형상과 같다고 함
- ◎ 외면당(이성면당) : 외산리에 있는 산
- ◎ 장군산(將軍山) : 좌부천 마을 앞산. 갑옷을 입고 진해만을 경계(警戒) 하는 형상이라 함
- ◎ 절구산 : 대천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절구와 같이 생겼다고 함. 옛날 유씨(劉氏)성의 장사가 임진왜란 때 왜군이 마을에 쳐들어와 노략질을 하자 마을 뒷산으로 달려가 큰 절구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을 보고는 야간을 이용하여 마을주민을 모두 다른 곳으로 대피시킨 후에 물이 고인 절구를 넘어뜨려 마을에서 잠자고 있던 왜군을 일시에 수장시켜 마을사람을 구하였다는 전설이 전해 짐

### 3) 바위

- ◎ 덕바위 : 큰돌바끝 북쪽에 있는 넓은 바위
- ◎ 농바구 : 하내 동쪽에 있는 바위
- ◎ 세풍끝(쇠풍끝) : 외면당 밑에 있는 바위
- ◎ 큰돌바곳 : 돈막 남쪽 밑에 있는 바위

4) 골

- ◎ 갓골 : 안대내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각골 : 좌부내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산땃골 : 바끝대내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삼밭잇골 : 갓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고랑 : 각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하내 : 좌부내 동쪽에 있는 골짜기

5) 고개

- ◎ 뒤속곡 : 외산리에서 양촌리 적포로 가는 고개
- ◎ 떡곡 : 외산리에서 양촌리 검포로 가는 고개

6) 기타

- ◎ 갓골참샘이 물 : 갓(冠)을 쓰고 내려다보는 형상이라 함
- ◎ 남성바우모티이 : 나무성바우골 아래에 있는 모퉁이
- ◎ 외일목 : 창원시 진전면 시락리 소포(小浦)마을과 진해만에 접하여 있는 해협(海峽)으로 임진왜란 때 당항포해전에서 왜군이 패(敗)하여 도주하는 왜선을 이 지점에 예인(曳引)하여 완전 소멸한 곳이라 하여 예인목 또는 예인끝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외일목 또는 외일끝이라 부름
- ◎ 제비등대 : 바끝대내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좌부나루터(좌부내나루) : 좌부내에 있는 나루터. 좌부내에서 진전면 시락리 속개로 건너 감
- ◎ 하동부사 진터(陳地) : 외일목에서 남쪽으로 약 50m 지점에 위치한 험산(險山)으로 산 정상에 진지가 있는데 인력으로 구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임란 때 아군의 경계 초소였다고 함
- ◎ 한나루 선창 : 나룻배로 진전면 시락리 소포마을로 왕래하던 도선장으로 선창터가 현재 남아 있음

5. 용정리(龍亭里)

용정리 본래 포도면 지역인데 1914년 가룡포(駕龍浦)와 매정(梅亭)을 병합하여 용정리라 하였다. 행정리로 매정(梅亭)과 가룡(駕龍)의 2개 마을이 있다.

매정마을은 산수가 좋아 옛날 선비가 도(道)를 닦던 곳으로 풍수지리설에 매화낙지(梅花落地)라 불리다가 조선시대 말엽에 마을이 바다에 인접하였다하여 매정포(梅亭浦)라 하여 용정리에 속하였으며, 1984년 용정리 매정마을(행정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약 200여 년 전으로 은진송씨와 김해김씨가 최초로 입촌하여 정착하면서 시작되었다. 마을 뒤의 주산이 양 날개를 펼쳐 왼쪽은 주래산, 오른쪽은 똥피산이 동네를 감싸고 있으며 자연마을인 세포는 양쪽에 쇠걸이산과 호암산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수원백씨, 김해김씨, 창원·장수황씨, 밀양박씨, 함안·고성이씨, 영양천씨, 창원정씨, 연일정씨 등이다. 마을 중심의 하천변에 정자나무가 있는데, 옛날에는 바다 입구까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으나 지금은 느티나무 두 그루와 포구나무 한그루만 남아 있다.

가룡마을은 지형이 용(龍)이 수레를 끄는 형상이라 하여 큰 마을을 대가룡포(浦)라 하고 작은 마을은 소가룡포(浦)로 불렀으며, 1914년에는 용정리에 속했다가, 1984년 가룡으로 분동되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200여 년 전으로 은진송씨가 이곳에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시작되었다. 마을은 동해면의 최동단(最東端)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망일포와 대가룡포, 소가룡포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영양천씨, 김해김씨 등이다. 마을에는 원각사가 있다.

### 1) 마을

- ◎ 가는개(세포) : 매정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가룡포 : 성일포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용이 수레를 끄는 형상이라 함
- ◎ 대밭땀 : 용정리에 있는 마을로 대밭이 있음
- ◎ 망일포(望月浦 혹은 망일포(望日浦)) : 동해면의 최동단(最東端)에 위치한 마을로 여기사 일·월출(日·月出)을 바라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부름
- ◎ 매이리(성일포) : 가는개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소가룡포(작은가룡포) : 가룡포 남쪽에 있는 마을
- ◎ 안골 : 매정 동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걸성이끝 : 매이리 동쪽에 있는 산
- ◎ 돌구산 : 용정리에 있는 산
- ◎ 망일봉(매일봉) : 용정리에 있는 산
- ◎ 설바지(쇠바지) : 용정리에 있는 산

- ◎ 송꼬지 : 매일 동북쪽에 있는 산
- ◎ 시리봉(증봉) : 매정 남서쪽에 있는 산
- ◎ 호암산(虎岩山) : 매정마을에 있는 산으로 산 정상 바위 밑에 호랑이 굴이 있었다고 함

3) 들, 논

- ◎ 장구배미 : 매정 서쪽에 있는 논

4) 골

- ◎ 가룡골 : 돌구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가막골 : 소가룡포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갓골 : 매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배끝맷골 : 이새맷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배나무골 : 매이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있었다고 함
- ◎ 산하골 : 매정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솟골 : 매정마을 큰산 아래 부분의 작은 골에서 옛날 솟을 구웠다고 함
- ◎ 씨사니밭골 : 소가룡포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씨사니(모자라는 사람)의 밭이 있었다고 함
- ◎ 안골 : 안골마을에 있는 골짜기
- ◎ 이새맷골 : 가룡포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유생원의 묘가 있다 함
- ◎ 포산골 ; 매정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하마소골(下馬小谷) : 매정마을 큰산 왼쪽에서 마을 뒤쪽에서 형성된 골짜기로 입구에 하마비(下馬碑)가 옛날에는 있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없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왜병이 정보를 전하기 위하여 이곳을 말을 타고 지나다가 신령이 나타나 왜병은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정보를 전하지 못하여 왜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당항포 해전에서 전멸되었다는 일화가 전함

5) 고개

- ◎ 군지미 : 가는개 동쪽에 있는 고개
- ◎ 매일재 : 매일봉 밑에 있는 고개
- ◎ 탕건바웃재 : 가룡포에서 장좌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탕건바우가 있음
- ◎ 하마곡(하마석곡) : 하마골에 있는 고개
- ◎ 하부랫곡 : 매정에서 양촌리의 하부천으로 넘어가는 고개

## 6) 기타

- ◎ 가는개 : 세포 앞에 있는 개
- ◎ 가매바구 : 집등바구 밑에 있는 바위
- ◎ 굴바구 : 굴밭등에 있는 바위
- ◎ 굴밭등 : 매바우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글써바우(글써이) : 매정마을에 있는 바위로 중국 진시왕의 사자(使者) 서불이가 불로초를 구하려 이곳에 왔다가 서시과차(徐市過此)라고 새긴 바위가 있었다는 설이 있으며 선비들이 자주 이곳에 찾아와 즐겨 놀았다고 함
- ◎ 꽃밭등 : 시리봉 정남쪽에 있는 등성이
- ◎ 망대끝 : 매이리 동북쪽에 있는 개
- ◎ 매바우 : 응암산에 있는 바위
- ◎ 석섬바구 : 시리봉 북쪽에 있는 바위
- ◎ 진등 : 매정 서쪽에 있는 긴 등성이
- ◎ 집등바구 : 징경바구 밑에 있는 바위
- ◎ 징경바구 : 매일봉 서쪽에 있는 바위
- ◎ 찬새미 : 매정 서쪽에 있는 샘
- ◎ 칼바구 : 매정 서남쪽에 있는 바위
- ◎ 코바우 : 매바우 동쪽에 있는 바위
- ◎ 탕건바우 : 탕건바우재에 있는 바위로 탕건처럼 생겼음
- ◎ 퇴기바우 : 석섬바구 밑에 있는 토끼처럼 생긴 바위

## 6. 장좌리(壯佐里)

장좌리는 동해면 소재지에서 구절산의 구절령과 철마산의 철마령을 경계로 반대편에 위치한 면내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법정리로 본래 포도면 지역으로 장자골 또는 장좌곡(壯佐谷)이라 하였다. 1914년 상장동, 중장동, 하장동과 광이면의 선동 일부를 병합하여 동해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우두포(牛頭浦), 상장(上狀), 하장(下壯), 구학포(九鶴浦)의 4개 마을이 있다.

우두포마을은 마을 서편에 있는 작은 반도가 소머리(牛頭)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지명으로 삼았다. 1984년 장좌리 우두포(행정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은 동해면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우두포 본동과 대패진, 미포, 도미개의 조그만 해안 취락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어촌 마을로 한말에는 진해만의 어업 전진기지였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고성씨, 영양천씨, 경주최씨, 전주최씨, 수원백씨, 담양전씨, 경주김씨 등이다.

상장마을은 장좌골의 맨 위쪽에 위치한 상촌과 중촌, 점촌의 자연취락으로 1984년 장좌리의 위쪽에 있다고 하여 상장마을이라 하였다. 마을은 면소재지인 장기마을에서 남쪽으로 구절산과 철마산의 경계인 산등성이 밑에 자리 잡고 있다. 상촌과 중촌, 점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해면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영양천씨, 김해김씨, 남원양씨, 함안씨 등이다.

하장마을은 본래 포도면 지역으로 장좌리의 중심마을이다. 고종 때 호암사 건립 시에 위패를 봉안하면서 발전을 바라는 의미에서 마을이름을 장좌동이라 하였고 1984년 장좌리의 아래쪽마을이라 하여 하장이라 하였다. 마을의 형성연대는 왜란 때 천만리공이 왜적을 섬멸한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전후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초로 입향한 성씨는 영양천씨로 1592년 입촌하였고, 그 후 1833년경에 남원양씨가 입촌하였다. 마을은 장좌골의 아래쪽 평야지대에 형성된 장좌리의 가장 으뜸가는 마을이다. 앞은 시루봉이 뒤는 호령산이 솟아 있고 깊은 골에서 흘러내리는 장좌천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은 마을은 대성을 이루고 있는 영양천씨와 남원양씨 등이다. 마을에는 호암사가 있다.

구학포마을은 장좌리에 속한 마을로 신라의 원효대사가 구법 차 이곳을 지나다가 아홉마리의 학이 아홉 개의 샘에서 노는 것을 보고 구학정(九鶴亭)이라 한테서 지명이 유래한다. 1984년 구학포라 하였다. 마을은 큰구학포, 작은구학포, 에밤이의 3개 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맨 먼저 영양천씨가 임진왜란 후에 입촌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장좌리에서 남쪽 진해만 쪽으로 돌출한 산 지맥의 오목한 곳에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서쪽으로 큰구학포, 중앙이 작은구학포, 동쪽 끝이 에밤이 마을로 진해만에 돌출해 있다. 거주민의 성씨는 영양천씨, 밀양박씨, 연일정씨, 김해김씨 등 여러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 1) 마을

- ◎ 대구학포(큰구학포) : 소구학포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도미개(도미포) : 우두포 남쪽에 있는 마을
- ◎ 독야(외배미, 오배미, 에밤이) : 하장 남쪽에 있는 마을
- ◎ 상장(상촌, 은점곡) : 중장 위쪽에 있는 마을
- ◎ 새땀 : 하장 서쪽에 있는 마을
- ◎ 소구학포(작은구학포) : 대구학포 서쪽에 있는 마을
- ◎ 양땀 : 하장 동쪽에 있는 마을
- ◎ 우두래(우두포) : 도미개 북쪽에 있는 마을

- ◎ 장자골(장좌리) : 장좌리의 으뜸가는 마을
- ◎ 점땀(점촌) : 상장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중장(중촌) : 장자골 중앙에 있는 마을
- ◎ 큰땀 : 하장남쪽에 있는 마을
- ◎ 하장(하촌) : 중장 아래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농바구산 : 외배미 남쪽에 있는 산
- ◎ 망태먼당 : 매바우 동쪽에 있는 산
- ◎ 매암산(응암산) : 점촌 동북쪽에 있는 산
- ◎ 삐죽대 : 상장 동남쪽에 있는 산
- ◎ 소꼬랑이골 : 도미개 남쪽에 있는 산으로 소꼬리 모양을 함
- ◎ 양산 : 상장 앞에 있는 산으로 양산을 펴놓은 모양을 함
- ◎ 작은골 : 큰구학포 동쪽에 있는 산
- ◎ 호령산 : 마을 뒤에 있는 호령산은 호랑이가 걸터앉은 형상으로 호랑이가 앉았다고 함

## 3) 들, 논

- ◎ 구릉 : 하장 동쪽에 있는 들
- ◎ 생깃들 : 참남장이 북쪽에 있는 들로 향교가 있었다고 함
- ◎ 맏골 : 맏골에 있는 들
- ◎ 서원들 : 하장 북쪽에 있는 들
- ◎ 소쿠리골 : 상장 서남쪽에 있는 들
- ◎ 쌍바리배미 : 구릉 안쪽에 있는 논
- ◎ 애포 : 사아장 동쪽에 있는 들
- ◎ 원답 : 상장 남쪽에 있는 들
- ◎ 은깃골 : 상장 남쪽에 은이 났었다고 함
- ◎ 참남장이 : 하장 북쪽에 있는 들

## 4) 골

- ◎ 골논골 : 자빠진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까막골 : 하장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대초곡(큰팍골) : 하장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맏골 : 상장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밤나무골 : 상장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많았다고 함
- ◎ 부산골 : 하장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새앵골 : 가막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성지밭골 : 중촌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소초곡(작은팍골) : 작은곶에 있는 골짜기
- ◎ 자빠진골 : 상장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중죽골 : 파장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중집골 : 점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퇴끼넛골 : 점촌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파칭골 : 하장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해앗골 : 상장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일정때 화약고가 있었다 함

#### 5) 고개

- ◎ 바람곡 : 상장에서 외산리 최풍숫골로 가는 고개
- ◎ 애기새먼당 : 하장 서북쪽에서 작은구학포로 가는 고개
- ◎ 큰구학재 : 우두포에서 큰구학포로 가는 고개
- ◎ 큰산재 : 상장 서쪽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파넉바우 : 작은구학포와 큰구학포 사이에 있는 바위
- ◎ 깨진바우 : 상장 서북쪽에 있는 깨진 바위
- ◎ 농바구 : 농바구산에 있는 바위
- ◎ 대패진 : 우두포 마을의 동쪽에 뺏어 나온 지점으로 큰 파도가 늘 세차게 부딪친다는 곳이라 하여 다타진이라고 하던 것이 대패진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음
- ◎ 도미포(도미개) : 우두포 마을의 남서쪽에 있는 개(浦)
- ◎ 매바우 : 맏골에 있는 매같이 생긴 바위
- ◎ 미개 : 도미개 동쪽에 있는 개
- ◎ 부응바구 : 장사바구 위쪽에 있는 바위
- ◎ 불바구 : 상장 남쪽에 있는 바위로 불을 켜놓은 것처럼 벌겍다 함



- ◎ 삐죽대너드렁 : 삐죽대에 있는 너설
- ◎ 생깃보 : 생깃들에 있는 보
- ◎ 쇠끝등(해끝등) : 하장 서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혀끝처럼 생겼다고 함
- ◎ 시루봉 : 시루봉은 아주 옛날 해일 때 온 들녘과 산이 모두 물에 잠겼을 때, 이 산 꼭대기에 떡 시루만큼만 남았다 하여 시루봉이라 하였다고 전함
- ◎ 애포보 : 애포에 물을 대는 보
- ◎ 우뚝개 : 우두포에 있는 개
- ◎ 은짓골보 : 은짓골에 있는 보
- ◎ 장사바구 : 하장 서쪽에 있는 바위
- ◎ 장좌교 : 장좌천에 있는 다리
- ◎ 진등 : 하장 서쪽에 있는 긴 등성이
- ◎ 참남징이보 : 참남징이에 물을 대는 보
- ◎ 참새미 : 호룡새미 서쪽에 있는 샘
- ◎ 정북 : 외곡 북쪽에 있는 돌섬
- ◎ 나랏고지(강나루) : 동해면에서 회화면 당항리의 내륙으로 건너가는 나루터
- ◎ 홍도령굴 : 중진골에 길이 약 8m 가량의 굴. 어느 날 농부가 굴 앞을 지나다 안에서 숟가락 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보니 터벅머리 총각이 성씨를 물으니 홍씨라 하여 다음 날 다시 가보니 총각도 살림도구도 없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 굴을 홍도령 굴이라 부른다고 함
- ◎ 행안등 : 하장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호룡새미 : 참새미 옆에 있는 샘

## 7. 봉암리(鳳岩里)

봉암리는 본래 용남군(龍南郡) 광이면(光二面) 지역으로, 1914년 동림동(東林洞), 외곡동(外谷洞), 선동(仙洞)의 일부와 포도면(葡萄面)의 하장동(下壯洞) 일부를 병합하여 봉암리로 하여 고성군 동해면에 편입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장항(獐項), 입암(立岩), 동림(東林)의 3개 마을이 있다.

장항마을은 마을 뒤의 구절산 산줄기 하단부가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산세가 시슴과 같다하여 녹촌(鹿村)이라 하였다. 그 후 산세가 사슴모양이 아니라 노루목과 같다하여 장항(獐項)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350여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항본마을(노루목)과 큰구학포

일부를 포함한 자연마을이 합쳐져 장항마을이 되었다. 장항 본마을(노루목)에 맨 먼저 입촌한 성씨는 평산신씨이며 다음으로 재령이씨, 김해허씨, 경주김씨 등의 순이라고 한다. 마을은 구절산 줄기가 길게 뻗어있고, 태봉산이 평풍처럼 둘러싸인 남향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에는 근모재(近慕齋), 우모재(禹慕齋), 취당재(翠堂齋), 효자후암김공유적비(孝子厚菴金公遺蹟碑)가 있다.

입암마을은 900여 년 전에 마을 명을 선동(仙洞)이라 하였는데 이는 선바위골(仙岩谷) 입구에 신선바위가 우뚝 솟아있어 이렇게 불렀다. 그 후에 바위가 서 있다하여 선(仙)과 선(立)으로 표기하면서 입암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봉암리는 봉이 신선바위에서 알을 품었다 하여 이렇게 불렀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1690년경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씨, 조씨, 한씨 등이 입촌하였고 뒤이어 진양강씨가 윗마을에 입촌하고, 인동장씨가 아랫마을에 입촌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강씨와 인동장씨가 많이 살고 있으며 다음으로 김해김씨와 전주이씨 등이다.

동림마을은 본래 용남군 광이면 지역인데 1914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조선시대 말엽에 거류면 감서리(당시 동해면 감서리)와 동해면 봉암리 사이에 방풍림(防風林)을 조성하여 동쪽을 동바림, 서쪽을 서바림으로 칭하다가 1984년 동바림을 동림(東林)으로 개칭하여 동림마을이 되었다. 마을의 형성 연대는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초로 조씨가 입촌하여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김해김씨와 전주최씨가 많이 살고 다음으로 전주이씨 등이 살고 있다. 마을은 거류산을 앞으로 하고 마을 뒤로 당산을 병풍처럼 두른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 북쪽은 동해면 외곡리와 접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전주최씨, 전주이씨 등이다.

### 1) 마을

- ◎ 노루목(장항, 녹촌) : 선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못밑 : 동림마을을 못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 기뻐서 기뻐하기 위하여 현 마을회관 뒤쪽에 소류지를 만들어 그 밑에 취락이 형성되었다하여 마을 명을 못밑이라 부름
- ◎ 서땀 : 서림동
- ◎ 선동(입암, 선바우) : 봉암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아랫땀 : 선동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웃땀 : 선동 위쪽의 마을

## 2) 산

- ◎ 고뺨등만당 : 입암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콧등 모양을 함
- ◎ 당산(堂山) : 동림 마을 뒷산. 옛날에 국마(國馬)를 기르는 목장이 내·외곡리 및 봉암리 일대에 있을 때 말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성을 쌓고 성 안에 막사를 지어 말을 관리하던 목장산성(牧場山城)이 있었던 곳으로 마을 뒷산을 당산이라 부름
- ◎ 도고룡 : 동림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산의 맥이 할아버지 산을 뒤돌아 보며 서 있는 형상이라 함
- ◎ 삼밭골먼당 : 용군이 동쪽에 있는 산
- ◎ 쇠목재 : 비룡골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소를 놓아먹임

## 3) 들, 논

- ◎ 갯닷마지기 : 갯들에 있는 논
- ◎ 갯들 : 봉암리에 있는 들
- ◎ 구싯들 : 서담 동쪽에 있는 들
- ◎ 네거리들 : 동림 서북쪽에 있는 들
- ◎ 말뚝배미 : 용징잇골레 있는 논
- ◎ 분독골 : 구싯들 동쪽에 있는 들
- ◎ 사답(절논) : 말뚝배미에 밑에 있는 논
- ◎ 심배잇들 : 동림 서남쪽에 있는 들
- ◎ 성밭 : 입암 동북쪽에 있는 들
- ◎ 용군이(용징잇골) : 입암 동북쪽에 있는 들
- ◎ 정문들 : 서담 북쪽에 있는 들
- ◎ 호구댕이끝 : 호구댕이끝에 있는 들

## 4) 골

- ◎ 고무골 : 소동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문바우밭 : 비둔이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문모양의 바위가 있음
- ◎ 분독골(분통골) : 고뺨등만당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비룡골 : 분독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삼밭골 : 삼밭골먼당 밑에 있는 골짜기
- ◎ 선바웃골 : 선바우가 있는 골짜기
- ◎ 소동골 : 고뺨등만당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수지골밭골 : 용군이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풀밭이 많음
- ◎ 여섯골 : 동림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호구댕이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호구당(호구댕) : 선바웃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노루목재 : 노루목에 있는 고개
- ◎ 배둔재(비둔이재) : 봉암리에 있는 고개
- ◎ 토끼내재(토항티) : 도고룡 동남쪽에 있는 고개로 토끼가 뒤를 보고 달리는 형국이라 함

#### 6) 기타

- ◎ 강정자나무 : 봉암리 입암마을의 강씨촌 아랫마을 중앙에 있는 나무로 진양강씨가 이곳에 정착할 당시에 심었다고 전함
- ◎ 구절산폭포(九節山瀑布) : 동해면 구절산에 위치하고 있다. 용두폭포(龍頭瀑布) 또는 사두암폭포(獅頭岩瀑布)라고도 불린다. 높이 10m이상의 암벽 단애로 이루어진 수층의 폭포가 연접되어 한줄기 큰 폭포를 이루고 있으며 큰 가뭄에도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다고 함
- ◎ 납닥바구 : 탕건바구 밑에 있는 바위
- ◎ 너른개 : 호구댕이 동쪽에 있는 개
- ◎ 노루목개 : 노루목 옆에 있는 개
- ◎ 독새안바구 : 입암 동북쪽에 있는 바위
- ◎ 돌새미 : 탕건바구 서쪽에 있는 샘
- ◎ 비렁 : 입암 동북쪽에 있는 바위
- ◎ 선바우(입암) : 선동 뒤에 우뚝 서 있는 바위
- ◎ 선바웃개 : 입암 앞에 있는 개
- ◎ 선창끝 : 아랫땀 앞에 있는 개
- ◎ 쇠보탕이뻘덕 : 용군이 위쪽에 있는 버덩
- ◎ 수석정(水石亭) : 동해면 봉암리 선동(仙洞)에 있는 정자
- ◎ 용궁저수지 : 동림 동남쪽에 있는 저수지
- ◎ 장군바우 : 호구댕이에 있는 바위로 바위 사이의 석류나무는 장군의 회초리를 뜻하는 것이라 함

- ◎ 장사(壯士)바위 : 장항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 ◎ 절충장군비 : 아랫땀에 있는 비
- ◎ 진땀등 : 아랫땀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진퓌개 : 선창끝 동쪽에 있는 개
- ◎ 큰골새미 : 큰골에 있는 샘
- ◎ 호구댕이 : 진편덕 동쪽에 있는 개
- ◎ 효열비 : 절충장군비 동쪽에 있는 비

## 8. 외곡리(外谷里)

외곡리는 원래 용남군 광이면 지역인데 1914년 고성군의 동해면에 편입되어 곡산, 국산 또는 외곡산, 외국산으로 불렸으나 1984년 외곡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정남(井南)과 정북(井北)의 2개 마을이 있다.

정남마을은 외곡리 안에 옛날에 우물 3개가 있었는데, 가운데 우물이 들샘, 남쪽 우물이 한샘, 북쪽에 돌샘이라 하였다. 마을은 중아의 들샘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마을을 정남으로 하고, 북쪽마을을 정북마을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연대는 임란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별 입촌 연대를 살펴보면 1600년대에 고성이씨를 비롯한 창원정씨, 전주최씨, 연일정씨 등 제씨가 입촌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은 거류면 감서리와 경계를 하고 있고 고성읍에서 동해면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연일정씨, 전주이씨, 경주최씨, 창원황씨 등이다.

정북마을은 외곡리의 3개 우물 중에 중앙에 있는 들샘을 기준으로 하여 마을이 샘 북쪽에 있다 하여 마을 이름을 삼았다. 주민이 마을에 거주하게된 것은 임란 전후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씨는 고성이씨, 전주최씨, 김해김씨 등 세 씨족이 거주하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은 구절산을 뒤로 하고 북쪽은 내곡리와 접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고성이씨, 전주최씨, 김해김씨, 연일정씨 등 여러 성씨 등이다.

### 1) 마을

- ◎ 감정곡(감정골) : 정북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고삿땀 : 정북 서쪽에 있는 마을
- ◎ 국산(외곡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냇가땀 : 정남 남쪽에 있는 마을
- ◎ 바깥국산(외국산, 외국리, 외국) : 국산의 바깥 마을

- 아랫땀 : 외국 아래쪽에 있는 마을
- 옷땀 : 외국 위쪽에 있는 마을
- 장골땀 : 장부 동쪽에 있는 마을
- 정남 : 국산 남쪽에 있는 마을
- 정북 : 정남 동쪽에 있는 마을
- 큰고랑 : 정남 동남쪽에 있는 마을
- 큰골땀 : 정북 동쪽에 있는 마을
- 한내 : 외국리에 있는 마을

## 2) 산

- 구절령 : 정북 동북쪽에 있는 산
- 남산음달 : 진평 남쪽에 있는 산
- 당산면당 : 부응드미 남쪽에 있는 산
- 솔찌면당 : 소지뻐덩이에 있는 산

## 3) 들, 논

- 갓골 : 정북 북쪽에 있는 들
- 나발배미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
- 대밭들 : 정남 북쪽에 있는 들
- 독그밋들 : 정남 남쪽에 있는 들
- 방앗골 : 도그밋들 서북쪽에 있는 들로 지형이 방아 모양 임
- 뻬들 : 정남 서쪽에 있는 들
- 사장터(새장터) : 정남 동북쪽에 있는 들로 활을 쏘던 곳이라 함
- 성안진배미(수안진배미) : 정남 북쪽에 있는 들
- 소구배미 : 나발배미 밑에 있는 논
- 솔안뎃들 : 솔안앞들 뒤에 있는 들
- 골안앞들 : 정남 남쪽에 있는 들
- 장구배미 : 한내에 있는 들
- 정청들 : 한내 서쪽에 있는 들
- 진배미 : 솔안앞들에 있는 논
- 찬새밋들 : 정청들 서쪽에 있는 들

◎ 큰 들 : 외곡리에 있는 큰 들

◎ 한내 들 : 한내에 있는 들

#### 4) 골

◎ 개남골 : 정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죽나무가 많았다 함

◎ 건들바구 : 건들바구가 있는 골짜기

◎ 달티바웃골(일티) : 큰보탕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복끄밀 : 남산음달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부응드미 : 건들바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부영이집이 있다 함

◎ 진평 : 사당미 남쪽에 있는 골짜기

◎ 큰고랑 : 복끄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큰보탕골 : 꽃밭등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 5) 고개

◎ 구절재 : 구절령 밑에 있는 고개

#### 6) 기타

◎ 감정 : 감정골에 있는 샘

◎ 갓골보 : 갓골에 물을대는 보

◎ 건들바구(부석암) : 사두폭포에 있는 바위로 흔들면 건들거린다고 함

◎ 고끄랑바우 : 탈티바우 밑에 있는 바위

◎ 꽃밭등 : 개남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

◎ 내리바우 : 외곡리에 있는 바위

◎ 내리바우굴 : 내리바우 위쪽에 있는 굴

◎ 넓적바우 : 정남 동쪽에 있는 바위

◎ 달티바우 : 달티바웃골에 있는 바위

◎ 달티바웃굴 : 달티바웃골에 있는 굴

◎ 들새미 : 정북과 정남 사이에 있는 샘

◎ 땅골바우 : 정남 동쪽에 있는 바위

◎ 땅골밭굴 : 땅골바우 밑에 있는 굴로 50여명이 들어갈 수 있다 함

◎ 마당바우 (사두암) : 폭포절 북쪽에 있는 바위

- ◎ 보덕암(폭포절) : 정북 남쪽에 있는 절
- ◎ 사두폭포(용두폭포, 용호폭포) : 정남 동남쪽에 있는 폭포
- ◎ 소지뻘덩(솔지뻘덩) : 북끄밀 서쪽에 있는 버덩으로 솔이 많았다고 함
- ◎ 짝네밧등 : 사두폭포 서쪽에 있는 등성이
- ◎ 찬새미 : 찬새밧들에 있는 샘
- ◎ 통새미 : 정북 북쪽에 있는 샘
- ◎ 한내다리 : 한내 앞에 있는 다리
- ◎ 함새미 : 정북 서쪽에 있는 샘
- ◎ 황새등 : 정남 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황새가 많이 앉았다고 함
- ◎ 흰방앗간너드렁 : 마당바우 동쪽에 있는 너설

## 9. 내곡리(內谷里)

내곡리는 고성읍과 동해면 소재지의 중간지점인 동해면 소재리로부터 약 5km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용남군 광이면 지역으로 국산(외곡리) 안쪽이므로 안국산 또는 내국산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내곡, 내곡이라 하다가, 1914년 외곡동 일부를 병합하여 동해면의 내곡리로 하였다. 남촌(南村)과 북촌(北村)의 2개 마을이 있다.

남촌마을은 1984년 내곡리의 남쪽마을을 남촌(행정리)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씨의 입촌 연대를 살펴보면 김해김씨와 연일정씨가 1600년대에 입촌하였고, 뒤이어 창원황씨, 전주이씨, 경주최씨 등 성씨가 입촌하여 살면서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 뒤로 구절산이 자리 잡고, 앞에는 거류산을 바라보며 당항만을 끼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연일정씨, 전주이씨, 경주최씨, 창원황씨 등이다.

북촌마을은 남촌마을의 동명 유래와 같이 내곡리의 북쪽에 위치하였다 하여 북촌(행정리)마을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입촌 연대를 살펴보면 1600년경에 김해김씨, 연일정씨, 순흥안씨가 입촌하고 그 뒤에 창원황씨, 함안이씨 등이다. 마을에는 내곡리성터, 목장성터, 곡산봉수지가 있다.

### 1) 마을

- ◎ 골땀 : 내곡 북쪽에 있는 마을
- ◎ 궁땀 : 내곡 동쪽에 있는 마을
- ◎ 내곡리(내곡, 내국) : 내곡리의 으뜸가는 마을
- ◎ 도망개 : 한내 서쪽에 있는 마을



- ◎ 동사땀 : 내곡 북편에 있는 마을
- ◎ 밤골(야곡, 율곡) : 하진두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상진두(웃성날, 웃나리꼬지) : 내곡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새땀 : 내곡 북쪽에 있는 마을
- ◎ 성날 : 아랫성날과 웃성날에 걸쳐 있는 마을로 성이 있는 산 밑임
- ◎ 아랫성날(하진두, 아릿나리꼬지) : 상진두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웃땀 : 궁땀 북쪽에 있는 마을
- ◎ 중땀 : 웃담과 아랫담 중간에 있는 마을
- ◎ 한내 : 내곡 서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구들재(구월산, 구절령) : 살맏등 동쪽에 있는 산
- ◎ 구밭산 : 삼밭산 밑 동쪽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가 9개 임
- ◎ 꽃밭등(소캐불) : 빨당골 동쪽에 있는 산
- ◎ 대암바구 : 소캐불 동쪽에 있는 산
- ◎ 땅앞 : 지땅 동쪽에 있는 산
- ◎ 몰구부리 : 밤골 서북쪽에 있는 산
- ◎ 봉웃산 : 주구넷골 동쪽에 있는 산
- ◎ 삼밭산 : 구들재 밑 동쪽에 있는 산으로 세 봉우리로 되어 있음
- ◎ 시리봉 : 구들재 위쪽에 있는 산으로 시루모양임
- ◎ 아릿땅앞 : 땅앞 아래쪽에 있는 산
- ◎ 웃땅앞 : 땅앞 위쪽에 있는 산
- ◎ 지땅(지땅산) : 배남골 동쪽에 있는 산으로 제당이 있었다고 함

## 3) 들, 논

- ◎ 대천들(한내들) : 한내에 있는 들
- ◎ 도망들 : 내곡 서쪽에 있는 들
- ◎ 뒷등들 : 내곡 서북쪽에 있는 들
- ◎ 땅앞들 : 땅앞 밑에 있는 들
- ◎ 말랑들 : 내곡 남쪽에 있는 들
- ◎ 몰채등들 : 내곡 북쪽에 있는 들

- ◎ 빨남술 : 내곡 서쪽에 있는 들로 빨나무(웃나무 비슷함)가 있었다고 함
- ◎ 소짐승들 : 내곡 남쪽에 있는 들
- ◎ 싱경배미 : 덧등들에 있는 논
- ◎ 아랫덧들 : 내곡 서남쪽에 있는 들
- ◎ 음매잇들 : 율곡에 있는 들
- ◎ 익고지들 : 내곡 서쪽에 있는 들

#### 4) 골

- ◎ 동잔설 : 밤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딱발굼텅 : 조아등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머우골 : 산짓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밤골 : 율곡에 있는 골짜기
- ◎ 배남골 : 등잔설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방앗골 : 양짓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빨당골 : 구발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음
- ◎ 산짓골 : 봉웃등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소아짓골 : 지땅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양짓골 : 딱발굼텅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주구넛골 : 진등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내곡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큰산재 : 방앗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5) 기타

- ◎ 굴바구 : 빨당골에 있는 바위
- ◎ 내리지바구 : 굴바구 위쪽에 있는 바위
- ◎ 대암바구 : 소캐불 동쪽에 있는 바위
- ◎ 동사땀새미 : 동사땀에 있는 샘
- ◎ 덧등보 : 덧등들에 물을 대는 보
- ◎ 땅앞모티이 : 땅앞에 있는 모퉁이
- ◎ 말랑보 : 말랑들에 물을 대는 보
- ◎ 머우들 : 머우골에 있는 등성이

- ◎ 살땃등 : 큰산재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성날나루 : 성날에 있는 나루터
- ◎ 애기새미 : 물채등들에 있는 샘
- ◎ 음매잇보 : 음매잇들에 물을 대는 보
- ◎ 조아등 : 머우골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진등 : 소아짓골 동쪽에 있는 긴 등성이

## 제 7절 마암면(馬岩面 Maam-myeon)

군의 중북부에 위치한 면이다. 북쪽은 개천면과 구만면, 남쪽은 고성읍, 서쪽은 대가면과 접해 있고 동쪽으로 회화면과 당항만에 면하고 있다. 북쪽은 매봉산(285m), 시루봉(239m), 성산(102m), 남쪽은 성지산(456m), 금정산(356m), 사월산(108m) 등 산지에 둘러싸여 있고 산지 사이로 마암천이 남동 방향으로 흘러 당항만까지 이어진다. 마암천 주변에 좁고 긴 곡저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곤의부곡(坤儀部曲)과 발산부곡(鉢山部曲)의 일부에 속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곤의부곡은 현 북쪽 15리 지점에 있다. 발산부곡은 현 동쪽1리 지점에 있다.” 고하였다. 『호구총수』와 『여지도서』에는 지명을 마암면으로 수록하였고, 이후 『조선지리지』에는 동마면(東馬面)과 서마면(西馬面)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1914년 동마면과 서마면이 다시 합치고 화양면(華陽面) 배둔 일부를 편입하면서 예전의 마암을 지명으로 정하였다. 1973년 좌연리가 개천면으로 편입되어 현재 9개 법정리를 관할한다. 지명은 석마리(石馬里)입구에 있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2개의 돌말에서 유래하였다. 『영남읍지』에 돌말을 마암(馬巖)으로 기록하고 있다. 석마리 돌말(도 민속문화재 제1호)에는 예전에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많았는데 백발노인이 나타나 한 쌍의 돌말을 만들고 제사를 지낼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이를 따르자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다.

동리의 지명을 살펴보면 두호리(頭湖里)는 지형이 바다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형상이라서 ‘머리개’ · ‘두포(頭浦)’로 불린데서 유래하였다는 설과, 임진왜란 당항포 해전에서 잘려진 왜병의 목이 마을 앞 바다로 무수히 떠밀려 온 데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다.

### 1. 두호리(頭湖里)

두호리는 단일 법정리로 형성된 마을로 본래 동마면(東馬面) 지역으로 지형이 머리처럼

바닷가에 내밀었다 하여 머리개 또는 두포(頭浦)라 하였는데 1914년 마암면의 두호리라 하였다. 마을은 의령남씨, 진양하씨, 광산김씨가 가장 먼저 입촌하여 살았다고 하나 형성 시기는 자세하지 않다. 마을의 지세는 마을 뒤로는 자양산과 사월산이 솟아 있고 그 아래에 작은 덕주산이 감싸고 있다. 마을 앞은 거류산이 높이 솟아있으며 그 아래 속시개(沼所江)를 막아 이루어진 간사지(干瀆地)가 넓은 들판을 이루고 있다. 현재 거주 성씨는 성산이씨가 대성을 이루며 의령남씨, 밀양박씨, 전주최씨, 남원양씨, 경주최씨, 은진송씨, 고성이씨 등이다. 마을에는 덕산서원(德山書院), 덕산재(德山齋), 의령남씨 조암(操庵), 병마절도사 이간(李侃)선생의 사적비와 이희(李僖)선생의 부인 평산신씨의 열녀정려문 등이 있으며 마을 어귀에 해신을 모신 사당인 해신당이 있어 음력 이월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 1) 마을

- ◎ 두포(頭浦, 두호, 머릿개) : 임란 때 당항포 해전에서 패하여 소소강(沼所江)을 따라 도주하던 왜병을 추격하여 전사한 왜병의 목(頭)이 무수히 바다에 떠밀려 마을 앞바다로 왔다고 함
- ◎ 정문등(旌門燈) : 두호 서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곤기안산(보양산) : 두호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삼락리의 곤기 안산이 됨
- ◎ 섬뜰산 : 안산동쪽에 있는 산
- ◎ 덕주산(德周山) : 두호 서쪽에 있는 산
- ◎ 안산 : 두호 앞에 있는 산
- ◎ 질매지 : 돛장골 동쪽에 있는 산으로 질매처럼 생겼다고 함

### 3) 들, 논

- ◎ 가부실들 : 두호 서북쪽에 있는 들
- ◎ 걸망들 : 두호 동북쪽에 있는 들
- ◎ 마당배미: 두호 앞에 있는 논
- ◎ 머에배미 : 주개배미 옆에 있는 논
- ◎ 시비배미 : 주개배미 위에 있는 논
- ◎ 주개배미 : 가부실들 북쪽에 있는 논으로 주걱처럼 생겼음
- ◎ 채봉골 : 두호 남쪽에 있는 들

## 4) 골

- ◎ 갓나무골 : 두호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갓나무가 있었다고 함
- ◎ 도읍장골(돛장골) : 덕주산 밑에 있는 골짜기
- ◎ 윗골 : 두호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기와를 구웠음
- ◎ 이부밭골 : 돛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
- ◎ 종자골(種子谷) : 두호리 가부실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가부곡(加富谷, 가부실고개) : 정문동에서 대가면 금산리 가부실로 넘어가는 고개
- ◎ 냇곡 : 머릿개에서 정문동으로 가는 고개

## 6) 기타

- ◎ 농바구 : 두호 서쪽에 있는 바위
- ◎ 덕주골못 : 덕주산 밑에 있는 못
- ◎ 두호리 학계(學契) : 고종원년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곤의서원(昆義書院)이 폐지되자 마을의 여러 어른들이 모여 후세의 강학을 위하여 사재(私財)를 모아 학계(學契)를 만들어 전답(田畓)을 마련하여 학동들의 교육비로 충당했다. 그러나 토지개혁으로 인하여 대부분 개인소유로 되어버리고 지금은 마을 숲과 밭 1,650㎡만이 있음
- ◎ 원수새미 : 원숫등에 있는 샘
- ◎ 이씨정문 : 정문동에 있는 정문

## 2. 삼락리(三樂里)

삼락리는 본래 동마면(東馬面) 지역인데 1914년 평산동, 두락정, 곤기를 병합하여 삼락리로 하여 마암면에 편입되었다. 행정마을로 곤기(昆基)와 평부(平釜)의 2개 마을이 있다. 삼락리의 유래는 임진왜란 때 이곳에 안동김씨와 연일정씨가 살면서 삼신락정(三神樂亭)이라는 정자목을 신봉하여 당산제를 지냈는데 삼신은 산신(山神), 수신(水神), 목신(木神)이다. 이곳의 지명을 삼신의 삼(三)자와 낙정의 낙(樂)자를 따서 지었다고 한다.

곤기마을은 1602년경에 마을이 형성될 당시에는 곤의(昆義)라 하였다가 광해군 때 곤기로 개칭하였다. 마을은 곤기, 낙정(洛亭), 간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1602년 무렵에 함중어씨가 먼저 입촌하였으며, 그 뒤에 성산어씨가, 다음에 광산김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 북서쪽으로 잔등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함중어씨 선조의 제단이

있는 샘골산 준령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 낙정과 간사지마을은 마암면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마을 앞은 당항만의 속시 바다에 접하여 거류면과 동해면을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성산이씨, 함안이씨, 함중어씨, 연일정씨, 수원백씨, 칠원제씨, 인동장씨, 창원황씨, 진양하씨 등이다. 마을에는 곤의서원(昆義書院)과 월파정(月波亭)이 있다.

평부마을은 조선시대 철성현 당시에는 평산동(平山洞)이라 칭하였으나 그 후에 지금의 평부로 마을 명을 개명하였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임란 때로 이곳에 안동김씨와 연일정씨 두 가문이 살다가 임란과 동시에 헤어졌다고 전하고 있어 이때부터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마실(부곡), 큰외골, 안땀, 꼬장뱅이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 뒤쪽으로 자양산을 등지고 마을 앞은 속시바다(당항만)에 면하여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허씨, 전주최씨, 함안이씨, 삭녕최씨, 칠원제씨, 진양정씨 등이다. 마을에는 전승목과 낙산암이 있다.

### 1) 마을

- ◎ 가매실(부곡) : 윗골 남쪽에 있는 마을
- ◎ 간사지 : 광지리산 밑에 있는 마을
- ◎ 건윗골(큰윗골, 대외곡) : 평산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꼬장배기 : 안땀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고려장이 많았다고 함
- ◎ 낙정(樂亭, 두락정) : 윗골 남쪽에 있는 마을
- ◎ 이랑고지(안락곡) : 큰다비곡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안땀(내곡) : 건윗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평산 안쪽이 됨
- ◎ 외곡(外谷, 윗골, 평산) : 낙정 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가삼 : 안땀 동쪽에 있는 산
- ◎ 광지리산 : 낙정 동북쪽에 있는 산
- ◎ 돌고산 : 낙정 동쪽에 있는 산
- ◎ 성지산(聖智山) : 곤기마을에 있는 산. 옛날 성지도사(聖智道師)가 이곳을 지나가면서 고려장 무덤자리를 잡아주었다고 하여 유래됨
- ◎ 지빗날 : 평산 동쪽에 있는 산으로 쥐처럼 생겼다 함
- ◎ 큰골면대이 : 큰골에 있는 산

## 3) 들, 논

- ◎ 가매실들 : 가매실에 있는 들
- ◎ 가부갯들 : 곤기 북동쪽에 있는 들
- ◎ 가산들 : 안땀 동쪽에 있는 들
- ◎ 꼬끄랑배미 : 외배미 밑에 있는 꼬불꼬불한 논
- ◎ 무등갯들 : 곤기에서 낙정에 이르는 들
- ◎ 백골들 : 백골에 있는 들
- ◎ 새미배미 : 백골들에 있는 논으로 샘이 있음
- ◎ 외배미논 : 평산에 있는 논으로 외따로 있음

## 4) 골

- ◎ 각정지 : 건윗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널구릿골 : 낙정에서 가매실에 이르는 골짜기로 너구리굴이 있음
- ◎ 무덤개 : 곤기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은 옛날에 바다로 임란 때 당항포 해전에서 전사한 왜군의 사체가 떠 밀려와 무덤을 이루었다고 함
- ◎ 백골 : 평산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있었음
- ◎ 삼지골 : 건윗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세 개의 골짜기로 이루어 짐
- ◎ 산지골 : 아랑고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체를 지냄
- ◎ 서깃골1 : 큰다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서깃골2 : 평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재가 있었음
- ◎ 스스렁골 : 가매실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안골 : 안땀 서쪽 안에 있는 골짜기
- ◎ 작은다비 : 작은다비곡 밑에 있는 골짜기
- ◎ 채봉골 : 건윗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가매실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 5) 고개

- ◎ 개운이 : 부곡에서 대가면 금산리 월촌으로 가는 고개
- ◎ 구등짱골 : 아랑고지에서 낙정으로 가는 고개
- ◎ 대다복티(大多福峙, 큰다비곡) : 가매실 서북쪽에 있는 고개
- ◎ 덧곡 : 평산에서 보진리의 소라골로 가는 고개

- ◎ 무등재 : 곤기에서 낙정으로 넘어가는 고개
- ◎ 성지곡 : 아랑고지에서 낙정으로 가는 고개
- ◎ 작은다비곡(소다복티) : 아랑고지 서남쪽에 있는 고개
- ◎ 장곡 : 백골에서 보전리로 가는 고개

### 6) 기타

- ◎ 간사지뚝 : 간사지 앞에 있는 뚝
- ◎ 고려장무덤 : 곤기마을 성지산 아래쪽에 고려장 무덤이 있는데 지금도 허물어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남아 있으며 옛날에는 이 무덤에서 해가 지면 솔뚜껑 소리가 들려왔다는 전설이 있음
- ◎ 낙정나루터 : 곤기마을에 있었던 나루터. 옛날 동해와 거류면 그리고 안정방면으로 오가는 길손들이 이곳에서 나룻배로 왕래 하였는데 1952년도에 간척사업으로 농토로 변하고 나루터는 제방으로 변하여 거류면과 연결된 도로로 활용됨
- ◎ 되섬 : 아랑고지 동남쪽에 있는 섬
- ◎ 두락정(頭洛亭) : 곤기마을에 있는 정자. 임진왜란 때 당항포 해전에서 수백 명의 왜병의 목을 베어 죽였는데 그 왜병의 머리가 들물에 밀려 마을 앞바다로 떠내려 왔다가 하여 두락정이라 부르게 됨
- ◎ 부곡저수지 : 부곡 앞에 있는 저수지로 1945년에 준공
- ◎ 작은개 : 아랑고지 남쪽에 있는 개

## 3. 보전리(寶田里)

보전리는 본래 동마면 지역인데, 1914년 전포(田浦), 보대동(寶垔洞), 범화동 일부를 병합하여 보대와 전포의 이름을 따서 보전리로 하여 마암면에 편입되었다. 행정마을로 보대(寶垔)와 전포(田浦), 동정(東井)의 3개 마을이 있다.

보대마을은 1914년 마암면의 보전리에 속했다가 1984년 보전리의 보대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마을내의 여러 지명을 고찰해 볼 때 임진왜란 전후로 추정된다. 마을 앞은 호두산이 감싸 안으며, 뒤로는 용암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마을이 형성될 때에는 깊숙한 골짜기로부터 윗담, 간담, 아랫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차츰 도로변으로 옮겨졌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성산이씨, 김해허씨, 전주이씨, 함안이씨, 달성배씨 등이며 마을에는 성산이씨 문중의 자양재(紫陽齋)와 전주최씨 문중의 재실이 있다.



전포마을은 450여 년 전 당상산 밑 서쪽에 달성서씨가 거주하였는데 터전을 잡지 못하고 망하였다 하여 마양골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전포라는 동명이 생긴 것은 당상산 동편에 창녕군 영산에서 입촌한 신봉수(辛鳳壽)와 밀양군 산내면에서 입주한 박두유(朴斗有) 등 두 가문이 살면서 동명을 전포(밭개)로 불렀다고 한다.

마을은 당항만의 해안에 접해 있으며 바다를 건너 동해면과 경계를 하고 있다. 당상산이 마을 뒤를 에워싸고 마을 앞에는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영산신씨, 밀양박씨, 김해김씨, 남평문씨, 김녕김씨, 진양강씨 등이다. 마을에는 영산신씨 문중의 영모재(永慕齋)가 있으며 재령이씨의 효행비가 있다.

동정마을은 옛날 묵정포, 일명 먹정개에서 유래되었다. 옛날에 이곳에 샘(井)과 산(山)이 있었는데 샘물이 먹물처럼 검다하여 묵정(墨井)이라 하였으며, 이 샘에 붓을 담가 문필을 휘두르면 높은 인재가 난다고 하여 산 이름도 휘두를 룡(弄), 붓 필(筆)자를 따서 농필산(弄筆山)이라 하였다. 이곳에 인가가 들어서면서 이 샘 이름을 따서 묵정골(墨井谷)이라 하였다. 1945년에 전포마을에서 분동되면서 묵정포의 井자와, 전포 마을의 동쪽에 있는 밝은 동방의 마을이란 뜻에서 동(東)자를 붙여 동정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은 당항만 해안 쪽에 위치하며, 동으로는 회화면 당항포, 북으로는 마암면 화산리 원진마을과 인접해 있다. 자연 취락으로 본동마을과 아랫마을인 계밭골, 윗마을인 삼거리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정씨, 김해김씨, 인동장씨, 경주김씨, 전주이씨 등이다.

### 1) 마을

- ◎ 간땀(중땀) : 보대 중앙에 있는 마을
- ◎ 개밭골(계밭골) : 보대 중앙에 있는 마을
- ◎ 동정(東井, 묵정개, 묵정포) : 밭개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묵정개(墨井浦) : 밭개(전포(田浦))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밭개(전포) : 보전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버너실 : 소리골 북쪽에 있는 마을
- ◎ 보대(寶垔) : 버너실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새터 : 보대 동쪽에 있는 마을
- ◎ 소내골(소라골) : 버너실 남쪽에 있는 마을
- ◎ 아래땀 : 보대 아래 쪽에 있는 마을
- ◎ 웃땀 : 보대 위쪽에 있는 마을

◎ 치남 : 보대 서북쪽에 있는 마을

2) 산

◎ 모릿날골: 개발골 동쪽에 있는 산

◎ 양산 : 동정 동쪽 양지에 있는 산

3) 들, 논

◎ 머애배미 : 안들에 있는 논

◎ 바구배미 : 머애배미 옆에 있는 논

◎ 안들 : 보대 앞에 있는 들

4) 골

◎ 각골 : 거몽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거웅골 : 동정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굽턱골 : 동정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다비 : 보대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대밭골 : 보대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음

◎ 도둑골 : 보대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도둑이 많았다고 함

◎ 도른짓골짜 : 보대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동네갓골 : 동정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마당골 : 벌곡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마당처럼 넓음

◎ 박난골따리 : 보대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새끼골 : 동정 동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안목골 : 보대 서쪽에 있는 골짜기

◎ 큰골 : 각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호미곡(虎尾谷, 호밋곡) : 보대 남쪽에 있는 골짜기

5) 고개

◎ 벌곡 : 동정 서남쪽에 있는 고개

◎ 세동곡 : 보대에서 대가면 금산리 세동으로 가는 고개

◎ 장선목 : 보대에서 도전리 명송으로 가는 고개로 장승이 섰었음

◎ 조동곡 : 보전에서 도전리 조동으로 가는 고개

#### 6) 기타

- ◎ 각시바위 : 모릿날끝 남쪽에 있는 바위로 바닷가에 외따로 서있는데, 아이를 바라는 부인이 정월에 돌을 던져 얹히면 아들을 낳는다고 함
- ◎ 개구리 바위 : 보대마을 중간지점의 농지에 있는 바위. 바위 뒷산이 뱀등으로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형상과 같다 하여 붙여졌다. 옛날부터 이 바위를 건드리면 재앙이 따른다 하여 논 가운데에 그대로 두고 있으며 일설에 지석묘라고 함
- ◎ 개바구 : 보대 앞에 있는 바위로 개처럼 생겼는데 머리 부분이 깨어졌음
- ◎ 개발골새미 : 개발골에 있는 샘으로 거지가 지나다가 목욕한 뒤로 물이 나지 않는다고 함
- ◎ 군청샘 : 보대마을에 있는 샘으로 일제강점기 군청에서 나와 샘을 팠다 하여 붙여진 이름
- ◎ 모래나루 : 치남 동남쪽에 있는 나루터
- ◎ 노랑바위 : 모릿날끝 앞 바닷가에 있는 노란 빛깔의 바위
- ◎ 논개 : 전포 동쪽에 있는 개로 논이었음
- ◎ 박난굴 : 박난굴파리에 있는 굴
- ◎ 버너실새미 : 버너실에 있는 샘
- ◎ 부이바우 : 개발골 동쪽에 있는 바위로 부엉이 집이 있음
- ◎ 산배기보 : 보대 앞에 있는 보
- ◎ 손태뜯 : 동정 동쪽에 있는 독으로 1965년 정순태가 씹음
- ◎ 아랫보 : 어랫땀에 있는 보
- ◎ 용바위 : 용암산에 있는 용처럼 생긴 바위. 용바위 밑에 신라시대 때 동(銅)을 채굴했다는 동굴이 현재에도 남아 있으며 입구에서 돌을 던지면 맑은 물소리가 난다고 함
- ◎ 음달보 : 보대 남쪽에 있는 보
- ◎ 정지남보 : 보대 서쪽에 있는 보로 정지나무가 있었음
- ◎ 큰등 : 동정 서쪽에 있는 큰 등성이
- ◎ 해평모퉁이 : 개발골 서쪽 동정으로 가는 모퉁이

#### 4. 화산리(禾山里)

화산리는 본래 고성군 동마면 지역으로 수실(繡谷) 또는 화곡(禾谷), 화산(禾山)이라

하였는데, 1914년 서화동, 동화동과 법화동, 도동의 각 일부와 화양면의 배둔동 일부를 병합하여 화산리라 하여 마암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마을로 원진(遠津)과 법진(法津), 화산(禾山)의 3개 마을이 있다.

원진마을은 마을 먼 곳에 나루터가 있다 하여 원날이라 불렀으며, 마을 명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원진(遠津)이 되었다. 1978년에 화산리 법진에서 분동(행정마을)되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자세하지 않으나 이곳의 지명들이 임진왜란과 관련된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란전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은 동북쪽은 회화면 배둔리와 경계를 하고 있으며 동쪽은 당항만에 면하여 있다. 마암천과 구만천이 마을을 양쪽에서 감싸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진양강씨, 진양정씨, 광산김씨, 함안이씨, 달성배씨, 창원정씨, 창원황씨, 창원구씨 등이다. 마을에는 화산리성터, 나씨정열비문각을 비롯하여 임란 때 왜적을 격파하여 대공을 세운 이응성(李應星)의 신도비, 암행어사 선정비, 군수 유씨(兪氏)의 선정비, 함안이씨 문중의 성산재(城山齋)가 있다.

법진마을은 조선시대 말엽에 마을 입구에 장승(법수)이 있어서 법수동이라 하였다. 해방 후에는 준법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스스로 법을 다스리는 마을이라 하여 법수동을 법진(法津)으로 개명하였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대략 임진왜란 전후로 추정하고 있으며 옛날부터 창원정씨, 김해허씨, 성산이씨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은 멀리 시루봉 줄기가 남쪽으로 길게 뻗어 내리는 곳에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창원정씨, 김해김씨, 칠원제씨, 김해허씨, 성산이씨 등이다.

화산마을은 동화, 서화, 향정의 3개 취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수실(繡谷) 또는 한자로 화곡(禾穀)이라 칭하였으나 마을이 아담한 화자형(禾字型)의 산 아래에 형성되어 있다 하여 화산으로 개명하였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임진란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달성배씨, 전주최씨, 함안이씨, 여주이씨, 남평문씨, 진양정씨 등이다. 마을에는 수림서원, 산해정, 양정재, 화양재 등의 정자와 각 문중의 재실이 있다. 또 경암배정학사적비(敬菴裴正學事蹟碑), 매담배도홍사적비(梅潭裴道弘事蹟碑), 각정배공유허비(覺亭裴公遺墟碑), 여주이씨선생제단비(麗州李氏先祭壇碑) 등이 있다.

### 1) 마을

- ◎ 군진(軍津) : 군징이고개 밑에 있는 마을
- ◎ 동동(東洞, 동화, 동수실) : 법진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목정지(향정지) : 법수동 남쪽에 있는 마을
- ◎ 법수동(법화리, 법화동) : 법진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법수(장승)가 있었음

◎ 서동(西洞, 서화, 서수실) : 화산 서쪽에 있는 마을

◎ 원진(院津) : 군진 동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성산(城山) : 법수동 동쪽에 있는 산으로 성터가 있음

## 3) 들, 논

◎ 걱정들 : 섬뿔들 동쪽에 있는 들

◎ 고분달 : 등들 남쪽에 있는 들로 구로가 있었음

◎ 금뿔나뿔들 : 서동 남동쪽에 있는 들

◎ 너드리 : 법수동 서쪽에 있는 들

◎ 멩에배미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

◎ 배비잇들(배빈평) : 원진 남쪽에 있는 들

◎ 사당곶 : 흥곶등 북쪽에 있는 들로 사당이 있었음

◎ 섬보들 : 숲안들 서남쪽에 있는 들로 지형이 섬처럼 되었음

◎ 섬뿔들 : 사당곶 남쪽에 있는 들

◎ 섬안들 : 동수실 남쪽에 있는 들

◎ 세논 : 통논 밑에 있는 논으로 소처럼 생겼다 함

◎ 수통배미1 : 섬보 옆에 있는 논으로 수통이 있었음

◎ 수통배미2 : 연수논 밑에 있는 논

◎ 숲안들 : 법수동 남쪽에 있는 들

◎ 시랫골들 : 시랫골에 있는 들

◎ 연수논 : 시랫골에 있는 논

◎ 장구배미 : 숲안들에 있는 장구 모양의 논

◎ 장구뿔 : 걱정들에 있는 장구 모양의 논

◎ 통논 : 흥곶들에 있는 논

◎ 흥곶들 : 섬안들 남쪽에 있는 논

## 4) 골

◎ 감나무골 : 원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있었음

◎ 군진골(軍津谷) : 원진마을 뒷산 정상에 임진왜란 때 아군의 진지가 구축되어 적을

관측할 수 있는 요새지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곳을 근진골이라 부름

- ◎ 돌짱골 : 서화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삼밭골 : 법수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서짓골1 : 목정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재가 있었음
- ◎ 서짓골2 : 원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재가 있었음
- ◎ 섬안 : 서짓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시랫골(시례곡) : 섬안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잔당골 : 시랫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잣나무가 있었음
- ◎ 재량골 : 동수실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임진왜란 때 군량을 쌓아 두었다고 함

#### 5) 고개

- ◎ 군정이고개 : 법수동에서 회화면 배둔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임진왜란 때 아군이 진을 쳤다고 함
- ◎ 돌짱재 : 돌짱골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각정들보 : 각정들에 있는 보
- ◎ 들새미 : 법수동 북쪽에 있는 샘
- ◎ 배비잇들보 : 배비잇들에 물을 대는 보
- ◎ 빨당골등 : 화당골등 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불당이 있었음
- ◎ 사당결보 : 사당결에 있는 보
- ◎ 산짓골새미 : 동수실 동쪽에 있는 샘
- ◎ 산해정(山海亭) : 수림잣등에 있는 정자
- ◎ 서짓골너드렁 : 서짓골에 있는 너설
- ◎ 섬안정자 : 섬안들에 있는 정자나무
- ◎ 속등 : 원진 서북쪽 속에 있는 등성이
- ◎ 수림잣등 : 돌짱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
- ◎ 수실못 : 수실에 있는 못
- ◎ 양정재(養正齋) : 산해정 밑에 있는 정자
- ◎ 용암사(龍岩寺) : 성산에 있는 절
- ◎ 원(遠)나무 : 멀리 나무가 보이는 장소

- ◎ 지방개 : 원진 동쪽에 있는 개
- ◎ 재량골너드렁 : 재량골에 있는 너설
- ◎ 절터 : 원진 서북쪽에 있는 절터
- ◎ 진등 : 금뽕나뭇들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집마구 : 화당골등 북쪽에 있는 바위
- ◎ 참새미 : 서수실 남쪽에 있는 샘
- ◎ 통새미 : 동수실 서쪽에 있는 샘
- ◎ 화당골등 : 화산등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화당골뺨덕 : 화당골등에 있는 버덩
- ◎ 화산등(禾山嶺): 금뽕나뭇들 동쪽에 있는 등성이

## 5. 도전리(道田里)

도전리는 본래 서마면 지역인데, 1914년 용전(龍田), 선미(船尾)등 일부와 동마면의 도동(道洞)일부를 병합하여 도동과 용전의 이름을 따서 도전리로 하여 마암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마을로 명송(明松), 도전(道田), 기전(基田), 용전(龍田), 초선(草船)의 5개 마을이 있다.

명송마을은 약 200여 년 전에 정윤명(鄭允明)이란 선비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조용히 은거할 곳을 찾던 중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고 정각을 세워 명송정(明松亭)이라 한 데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성산이씨, 김해허씨, 광산김씨, 전주이씨, 진양정씨, 김해김씨 등이다.

도전마을은 1914년 마암면으로 개편되면서 도동과 용전의 이름을 따서 도전이라 하였다. 달리 나분다리(羅紛橋)라 부르기도 한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300여 년 전으로 광천안씨와 함안조씨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마을은 도전리 기전마을의 금정산에서 발원된 나분천 주변에 동·서로 길게 형성되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달성배씨, 김해허씨, 광산김씨, 풍천노씨, 진양강씨, 안악이씨, 김해김씨 등이다.

기전마을은 원래 도동이라 하였는데, 1955년 도전리를 분동(행정마을로) 하면서 현재의 기전으로 바꾸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1800년을 전후로 양천허씨, 달성배씨, 전주최씨, 진양정씨 등이 입촌하면서 부터로 전한다. 마을은 금정산 아래에 위치하여 터골과 배량골, 가안땀이 그 가운데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양천허씨, 전주최씨, 칠원제씨, 진양정씨, 달성배씨, 김해허씨, 광산김씨, 고성이씨 등이다. 마을 입구에는 양천허씨 문중의 재실인 도양재(道陽齋)와 달성배씨부인창원정씨의 효행비가 있다.

용전마을은 고성현으로 개칭될 당시 서마면의 용전마을로 존치하였다. 전주최씨의 집성촌이며 마을은 금정산 자락에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외에 분배씨 1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조선마을은 본래 서마면 지역으로 선미등이라 칭하였는데, 1914년 서마면과 동마면을 병합하여 마암면이 되면서 도전리에 편입되어 마을 명을 푸무실(초곡)과 선미등의 이름을 따서 조선이라 하였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푸무실은 300여 년 전으로 보고 있다. 처음 김해허씨와 남평문씨의 두 가문이 살면서 마을에 초원이 풍부하다 하여 푸무실이라 하였으며, 선미등은 고려 현종 9년에 서마면에 속했을 때 마을 형상이 배(船)와 같고 배의 꼬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선미등이라 하였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전주최씨, 김해허씨, 남평문씨, 함안이씨, 인동장씨, 밀양박씨 외 여러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에는 도연서원(道淵書院), 남평문씨 문중의 재실인 초계재가 있다.

### 1) 마을

- ◎ 갈골(葛谷) : 나분달닷산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기전(基田, 조동) : 도전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나분다리 : 대밭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명송(明松, 수통골) : 도전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선미(船尾) : 용전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영계(조선) : 푸무실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용전(龍田) : 조동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못이 있었음
- ◎ 텃골 : 배낭골 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금정산(琴井山)과 기우제(祈雨祭) : 기전마을 남쪽에 있는 산. 물이 많아 굴속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소리가 항상 청량한 거문고 소리와 같이 울려 퍼진다고 하여 금정산이라 함. 한발 때에는 산에 올라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며, 기우제를 지낸 후에는 반드시 비를 맞고 하산하였다고 함
- ◎ 나분달닷산 : 나분다리 뒤에 있는 산
- ◎ 벼락산 : 기전마을에 있는 산으로 옛날에 벼락을 맞아 두 쪽으로 갈라졌다고 함



## 3) 들, 논

- ◎ 골안 : 용진 앞에 있는 들
- ◎ 대삼들 : 나분다리 앞에 있는 들
- ◎ 말배미 : 구릉보 위쪽에 있는 논
- ◎ 바우배미 : 집앞보 밑에 있는 논
- ◎ 밖들(큰들) : 명송 앞에 있는 들
- ◎ 방정지 : 벌보 북쪽에 있는 들로 정자나무가 있음
- ◎ 석화배미 : 말배미 옆에 있는 논으로 흉년에 석화 한 사밭과 바꾸었다고 함
- ◎ 시리배미 : 말배미 위에 있는 논
- ◎ 아랫방정지 : 방정지 아래쪽에 있는 들
- ◎ 정지나뭇들 : 뚝맷등 북동쪽에 있는 들로 정자나무가 있음
- ◎ 황새밋등들 : 방정지 북쪽에 있는 들

## 4) 골

- ◎ 가장골 : 대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假葬)을 했었다 함
- ◎ 갓골 : 용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골골짜 : 선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굿골 : 외동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대밭골 : 도전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밭이 있었음
- ◎ 못골 : 명송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못이 있었음
- ◎ 무대밋골 : 명송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방영골 : 배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범등골 : 용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새앵골 : 용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선독골 : 가장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세인골 : 용진마을에 있는 골짜기. 먼 옛날에 세 사람이 태어나서 살았다함
- ◎ 숫통골 : 명송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곳에 명송정(明松亭)을 세워 정각 앞에 샘(井)을 파 주위에 숫을 묻어 물을 정화시켰다고 하여 숫통골이라고 함
- ◎ 외동골 : 도전리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중영골 : 배낭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채봉골 : 선미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명송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품무실 : 선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햇골 : 선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

5) 고개

- ◎ 개월재(개울재) : 기전에서 대가면 금산리 갯골로 넘어가는 고개
- ◎ 대밭골재 : 대밭골에서 보전리 보대로 넘어가는 고개
- ◎ 내낭골재 : 배낭골에 있는 고개

6) 기타

- ◎ 가는바구(걷는 바위) : 기전마을에 있는 바위로 옛날에 어느 가난한 집 처녀가 머리를 감으려고 머리를 풀고 마당으로 나왔다가 산을 쳐다보니 바위가 걸어가고 있어 큰 소리로 "바위가 걷는다."고 외치자 그만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 하여 가는 바위 또는 걷는 바위라 부름
- ◎ 가마바위와 마당바위 : 기전마을에 있는 바위로 색시가 시집갈 때 타고 가는 가마와 같이 생겼다 하며, 마당바위는 마당같이 넓게 깔려 있어 색시가 시집을 와 그 바위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함
- ◎ 구릉보 : 소남정보 위에 있는 보
- ◎ 녹두바위 : 용전마을 서쪽 발둑에 있는 조그만 바위로 이 바위를 건드리면 호랑이가 내려와서 개를 물고 갔다고 함
- ◎ 도전저수지 : 기전 서남쪽에 있는 저수지
- ◎ 돌담무덤 : 용전마을 북쪽 약 200m 지점의 뚝땃등에 있는 무덤
- ◎ 뚝보 : 도전리 동쪽에 있는 보
- ◎ 뜨뜨릿보 : 방정지 북쪽에 있는 보
- ◎ 마당바구 : 범등골 남쪽에 있는 넓은 바위
- ◎ 방정지보 : 방정지에 있는 보
- ◎ 배암등1 : 방영골 서쪽에 있는 등성이
- ◎ 배암등2 : 선미 서쪽에 있는 등성이
- ◎ 벌보 : 도전리 북쪽에 있는 보
- ◎ 소남정보 : 도전리 남쪽에 있는 보
- ◎ 아랫방정지보 : 아랫방정지에 있는 보

- ◎ 옷방정지보 : 옷방정지에 있는 보
- ◎ 진등 : 배낭골 뒤에 있는 긴 등성이
- ◎ 집앞보 : 도전리 남쪽에 있는 보
- ◎ 큰바구 : 범등골 남쪽에 있는 바위
- ◎ 푸무실못 : 푸무실에 있는 못
- ◎ 호박샘 : 금정산 기슭에 있는 샘

## 6. 장산리(章山里)

장산리는 본래 서마면 지역으로 지형이 노루처럼 생겼다 하여 장산(獐山) 또는 녹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서장산, 동장산, 선미동 일부를 병합하여 장산리로 해서 마암면에 편입되었다. 행정마을로 장산(章山)과 서장산(西章山)이 있다.

장산마을은 위의 지명유래 외에도 조선시대 중엽에 천산재 허선생(天山齋許先生)의 문장(文章)이 나라 안에 널리 알려지면서 지명도 글 장(章)자의 장산으로 자구(字句)가 바뀌었다고도 한다. 김해허씨 문중의 집성촌이다. 마을은 북쪽은 장산, 남쪽은 금정산, 서쪽은 오방산에 둘러싸여 있다. 마을 앞은 넓은 황새미들이 펼쳐 있고 들 가운데로 마암천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마을 앞에는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장산숲이 우거져 있어 이름난 낙지(樂地)로 알려져 있다. 예전부터 김해허씨 집성촌으로 형성되었는데, 진양강씨, 전주최씨, 창원황씨, 광산김씨 등도 거주하고 있다. 마을에는 도지정문화재인 허씨고가(許氏古家)와, 지방기념물인 장산숲 외에도 정절공유허비(貞節公遺墟碑), 노산정(鷺山亭), 경모재(敬慕齋), 지산재(旨山齋), 이로재(履露齋), 죽사정(竹史亭), 열효각(烈孝閣), 감루비(感淚碑) 등이 있다.

서장산마을은 본래 서마면 지역으로 1914년 마암면 장산리에 편입되었다가 1984년 장산리의 서장산(행정마을)마을이 되었다. 마을은 서산재(西山齋) 기문(記文)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장산마을과 동일시기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지세는 장산(章山) 마을의 서쪽에 연접하여 장산(獐山) 자락에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가 대성을 이루고, 함안이씨, 광산김씨, 밀양박씨, 김해허씨, 단양우씨, 남양홍씨 등이다. 마을에는 서산재(西山齋), 서림재(西林齋), 효행비(孝行·烈碑) 등이 있으며, 풍치림인 서장산림(西章山林)의 경관도 수려하다.

### 1) 마을

- ◎ 녹동(鹿洞, 장산) : 장산리의 으뜸가는 마을

- ◎ 동장산(東章山) : 장산 동쪽에 있는 마을
- ◎ 바래미(서장산, 발립) : 장산 서쪽에 있는 마을
- ◎ 새땀 : 소불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갓기실(까치설) : 서장산 서쪽에 있는 산
- ◎ 바르미 : 서장산 서쪽에 있는 산으로 바람이 썸
- ◎ 장산(獐山) : 장산리에 있는 산

## 3) 들, 논

- ◎ 대구배미 : 황새미들 남쪽에 있는 논으로 대구(물고기)와 바꾸었다고 함
- ◎ 말배미 : 대구배미 서쪽에 있는 논으로 말(馬)처럼 생겼음
- ◎ 머에배미 : 말배미 밑에 있는 논으로 멩에처럼 생겼음
- ◎ 부음배미 : 말배미 동쪽에 있는 논
- ◎ 섬배미 : 대구배미 남쪽 옆에 있는 논으로 큰 돌이 논 가운데 섬처럼 있음
- ◎ 짐택걸 : 장산 앞에 있는 들
- ◎ 통논 : 섬배미 동쪽에 있는 논
- ◎ 황새미들 : 장산에 있는 들로 황새가 많이 앉았다고 함

## 4) 골

- ◎ 산밭골 : 장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새매젓골 : 새땀에 있는 골짜기로 절과 샘이 있었음
- ◎ 소불골 : 장산리에 있는 골짜기
- ◎ 지독골 : 소불골 밑에 있는 긴 골짜기

## 5) 기타

- ◎ 거랭이보(웃선창보) : 아래선창보 밑에 있는 보
- ◎ 새보 : 오랑보 밑에 있는 보
- ◎ 아래선창보 : 갓기실 남쪽 냇가에 있는 보
- ◎ 오랑보 : 갓기실 남쪽에 있는 보

## 7. 성전리(聖田里)

성전리는 본래 서마면 지역인데, 1914년 성전리로 마암면에 편입되었으며 그 후에 행정리로 성전과 발산(發山)으로 분동되었다가, 1982년 성전리(법정리)로 병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전마을은 단일 법정리로 1914년 마암면에 편입되면서 마을에 성암사가 있어 이것으로 지명을 삼았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현재 거주하는 달성배씨와 창원황씨의 입촌 연대를 고려하면 삼사백년 전으로 추정된다.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동으로는 시루봉이, 서쪽 매봉산 자락에는 농경지가 길게 조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달성배씨, 함안이씨, 창원황씨, 창원정씨, 밀양박씨, 김해김씨, 김해허씨, 경주최씨, 창녕조씨, 단양우씨 등이다. 마을에는 성전리성터가 남아 있으며 성전 칠곡암(七谷庵)과 장승에 얽힌 이야기 등이 전승된다.

### 1) 마을

- ◎ 독골(발산, 학산) : 돌장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성전(聖田) : 성전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2) 산

- ◎ 말무디미 : 성전 동쪽에 있는 산으로 말(馬)무덤이 있다고 함
- ◎ 매봉산(응봉산) : 성전 서쪽에 있는 산
- ◎ 봉디미 : 절골 북서쪽에 있는 산
- ◎ 쑥골비알 : 성전 동남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가새논 : 통논 밑에 있는 논
- ◎ 구렁들 : 발산 서쪽에 있는 들
- ◎ 돈대미 : 성전 동남쪽에 있는 들로 지대가 높다고 함
- ◎ 두둑배미 : 활배미 위에 있는 논
- ◎ 솔데뱅이 : 성전 북쪽에 있는 들
- ◎ 음내기 : 발산 남쪽에 있는 들로 엄나무가 있었음
- ◎ 자작논 : 쟁이배미 밑에 있는 논
- ◎ 쟁이배미 : 성전에 있는 논

- ◎ 통논 : 무더미에 있는 논
- ◎ 활배미 : 구렁들에 있는 논으로 활처럼 생겼다고 함

#### 4) 골

- ◎ 농밭골 : 발산 뒤에 있는 골짜기
- ◎ 모감지골 : 절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산태골 : 절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사태가 났다고 함
- ◎ 성짓골 : 성전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쑥골 : 쑥골비 앞에 있는 골짜기
- ◎ 절골 : 성전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음

#### 5) 고개

- ◎ 돌장골(석잔티) : 독골 동남쪽에 있는 고개
- ◎ 무디미 : 성전에서 석마리의 가시골로 가는 고개
- ◎ 산태골재 : 성전에서 구만면 용당으로 가는 고개
- ◎ 소불곡 : 성전에서 장산리로 넘어가는 고개
- ◎ 신고개(신재, 신티, 싱곡) : 성전 서북쪽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농바구 : 농밭골에 있는 바위
- ◎ 딛들큰바우 : 성전 뒤에 있는 바위
- ◎ 상투바구 : 농바구 서쪽 밑에 있는 바위
- ◎ 장군등 : 절골 북쪽에 있는 등성이

### 8. 신리(新里)

신리는 본래 서마면 지역으로 어은동(漁隱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마암면으로 개칭되면서 새로 마을이 형성되었다하여 신리(新里)라 하였다. 현재 양촌과 음촌의 2개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현재 거주하는 함안이씨와 여주이씨, 광산김씨 등의 문중이 1500년대에 입촌하였음을 상기한다면 아주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은 개천면 좌연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북쪽의 매봉산 밑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함안이씨, 광산김씨, 밀양박씨, 성산이씨, 진양정씨 등이다.

마을에는 수령이 500년이나 되는 은행나무가 있다. 한 때는 이 나무가 무척 무성하여 신리마을의 뒷산에 닿을 듯 했으나 임진왜란 때 수군 통제부에서 세병관을 짓기 위해 베어 간 후, 그 뿌리에서 다시 움이 돋아나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신지마을은 신리의 법정리에 속하였는데, 본래 서마면 지역으로 어은동이라 하다가 후에는 죽현동이라 하였다. 1914년에는 마암면에 편입되었으며 1967년에는 신리에서 분동되면서 마을 뒤에 못(池)이 있어 신리의 신(新)자와 못(池)자를 따서 신지가 되었다. 마을은 마암면의 최단 서쪽에 형성된 행정마을로 어은골을 경계로 대가면과 인접하며, 배치고개를 넘어 개천면 좌연리와 경계를 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함안이씨, 광산김씨, 여주이씨, 합천이씨, 단양우씨, 고성이씨, 김해김씨, 김해허씨, 장수황씨 등이다. 마을에는 피바위에 얽힌 전설이 구전되고 있다.

### 1) 마을

- ◎ 새마(신리) : 신리의 으뜸가는 마을
- ◎ 양촌(陽村) : 음촌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어은곡(魚隱谷, 어은골) : 양촌 남쪽에 있는 마을
- ◎ 음촌(陰村) : 양촌 동북쪽에 있는 마을

### 2) 들, 논

- ◎ 배딧들 : 배티고개 밑에 있는 들

### 3) 골

- ◎ 각골 : 양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거릿골 : 양촌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긴삼박골 : 양촌에 있는 긴 골짜기
- ◎ 대륙골 : 어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도둑골 : 대륙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도박골 : 음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동촌골 : 어은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묵림골 : 어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배낭골 : 동촌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삼박골 : 양촌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서작골 : 대륙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약새미골 : 새마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은행나무골 : 새마 뒤에 있는 골짜기
- ◎ 절골 : 양촌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줄밭골 : 지프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지프실 : 양촌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짜른삼박골 : 삼박골에 있는 짧은 골짜기
- ◎ 채봉골 : 배티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한서리골 : 배낭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4) 고개

- ◎ 농금재(농금티) : 어은골 저수지 남쪽에 있는 고개로 성지산 밑이 됨
- ◎ 배티고개 : 양촌 북서쪽에 있는 고개
- ◎ 산밭골재 : 양촌에서 개천면 좌련리 자구실로 가는 고개

#### 5) 기타

- ◎ 개살등 : 어은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
- ◎ 배낭골너드렁 : 배낭골에 있는 너설
- ◎ 서작골너드렁 : 서작골에 있는 너설
- ◎ 수박등 : 어은골 서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짜리등 : 어은골 북쪽 뒤에 있는 등성이
- ◎ 양달너드렁 : 어은골 뒤에 있는 너설
- ◎ 어은골저수지 : 어은골에 있는 저수지로 1942년에 준공
- ◎ 주치등 : 어은골 남서쪽에 있는 등성이
- ◎ 큰갯너드렁 : 어은골 남서쪽에 있는 너설
- ◎ 평토등 : 삼박골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한서리너드렁 : 한서리골에 있는 너설

### 9. 석마리(石馬里)

석마리는 본래 고성군 서마면 지역으로 마을에 석마(石馬)상이 있어 이렇게 불렸다. 1914년 감동 일부를 병합하여 석마리라 하여 마암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행정



마을로 석마(石馬)와 감동(甘洞)의 2개 마을이 있다

석마마을은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 아래에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마상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마을이름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마암면의 명칭 또한 이 석마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석마상의 조성연대가 고려시대로 추정되고 있어 마을도 이 시대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여주이씨, 함안이씨, 전주최씨, 밀양박씨, 김해허씨, 정선전씨 등이다. 마을에는 지방민속자료인 석마(石馬) 외에도 석마리지석묘군의 사적과 위계서원과 혼천재(混泉齋)가 있다.

감동마을은 본래 서마면 지역인데, 1914년 마암면 석마리에 편입되었다. 마을에 감나무가 많아 시동(柿洞)이라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마을 회관을 건립하여 감동회관이라 칭한 이후부터 계속 감동이라는 동명을 사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자세하지 않으나 아주 오랜 옛날에 안씨가 많이 살았다고 하며 임진왜란 전에 양천허씨와 진양강씨가 진주에서 이주하였으며, 뒤이어 전주최씨가 입촌하면서 현재의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마을은 오방산 줄기의 산록지대에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강씨, 전주최씨, 양천허씨, 광산김씨, 진양정씨 등이며 진양강씨 문중의 재실인 죽림재(竹林齋)가 있다.

### 1) 마을

- ◎ 가시골(위계) : 감동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건너땀 : 가시골 동쪽에 있는 마을
- ◎ 고래 : 가시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
- ◎ 뒫땀 : 가시골 서쪽에 있는 마을
- ◎ 석마(石馬) : 석마리의 으뜸가는 마을

### 2) 산

- ◎ 무디미 : 가시골 동북쪽에 있는 산
- ◎ 해박골 : 감동 서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대안(장터) : 가시골 앞에 있는 들로 큰 바위가 있음
- ◎ 대추배미 : 위계 서쪽에 있는 논으로 대추나무가 있었음
- ◎ 돌뱅잇들 : 감동앞에 있는 들로 큰 바위가 있음

- ◎ 마당배미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
- ◎ 섬배미 : 마당배미 밑에 있는 논
- ◎ 장구배미 : 돌뱅잇들에 있는 논
- ◎ 지민창 : 가시골 앞에 있는 들
- ◎ 회남들 : 석마 북쪽에 있는 들로 큰 회나무가 있음

#### 4) 골

- ◎ 가래실골 : 여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뽕시락골 : 석마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뽕당골 : 고래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성짓골 : 가래실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속골 : 성짓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여시골 : 감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여우가 살았다고 함
- ◎ 유봉골 : 성짓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절골 : 석마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증승골 : 위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지르싯골 : 석마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춘양골 : 진동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고래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호두산(범등골) : 감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질등 : 칼등 남쪽에서 대가면으로 가는 고개

#### 6) 기타

- ◎ 구바위 : 감동 앞에 있는 바위
- ◎ 늘구리등 : 고래 서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굴이 있음
- ◎ 대안보 : 대안에 있는 보
- ◎ 마암(馬岩, 석마) : 석마 앞에 있는 두 개의 바위로 말처럼 생겼음
- ◎ 방아등 : 고래 서쪽에 있는 등성으로 방아형국이라 함
- ◎ 배락바우 : 감동 서쪽에 있는 바위

- ◎ 칼등 : 고래 남쪽에 있는 등성이로 칼처럼 생겼음
- ◎ 풍산등 : 고래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회남들보 : 회남들에 있는 보

## 제 8절 삼산면(三山面 Samsan-myeon)

군의 남쪽에 위치한 면이다. 북쪽은 고성읍과 상리면, 서쪽은 하일면과 접하고 있다. 중앙이 남쪽으로 돌출하여 동쪽은 고성만, 남서쪽은 자란만에 면하며 누은섬을 비롯한 14개의 섬이 있다. 갈모봉산(368m), 매바위산(226m), 봉화산(256m)등 산지가 많이 분포하고, 산지 사이로 병산천, 미홍천 등 소하천이 남북방향으로 흐르면서 곡저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박달부곡(博達部曲)과 어례향(魚禮鄉)에 속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박달부곡은 현 서쪽 20리 지점에 있다. 어례향은 현 서쪽 30리 지점에 있다.”고 수록하였다. 『호구총수』의 동리명을 살펴보면, 서리면(西里面) 지역에 속하였고, 『여지도서』에는 상리면과 합쳐 상서리면(上西里面) 그리고 『1872년지방지도』에는 상남면(上南面)으로 기록하였다. 『구한국행정구역일람』에는 상서면과 상남면으로 구분하고 있고, 『여지도』(고성)의 마암면 일대 『신구대조』에 의하면 1914년 상서면과 상남면을 통합하고 삼산(三山)을 면의 이름으로 하였다. 삼산이라는 지명은 갈모봉산·매바위산·봉화산을 뜻한다고 전하는데, 『호구총수』에 삼봉포(三峰浦), 『광여도』에 내삼봉봉산(內三峯封山)·외삼봉봉산(外三峯封山) 등 세 산과 관련된 지명이 있다. 1983년 이당리와 대독리는 고성읍에 편입되었고, 현재는 6개 법정리를 관할한다. 『해동지도』에는 어례향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옛 지명을 적은 것이 아니라 어례향포(魚禮鄉浦)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에는 “어례향포는 관아의 서쪽 30리에 있다.”고 수록하였고, 『대동지지』에는 “어례포(魚禮浦)는 어령포(魚令浦)로도 부른다.”고 하였다. 『호구총수』에는 어령포(於令浦)로 기록하였다.

### 1. 병산리(屏山里)

병산리의 지명유래는 마을의 형세가 삼면이 산으로 병풍을 둘러친 모양새 같다 하여 생겼으며, 고려현종 때 고성현으로 개칭될 때 상서면(上西面)에 속하였다가 1914년 상남면과 상서면이 삼산면으로 병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고려현종 때 상서

면 병산리로 행정구역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짐작한다면 주민이 거주하게 된 것은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마을의 지세는 남쪽은 고성만에 임해 있고 동, 서, 북쪽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즉 병풍산과 호랑이처럼 생긴 범바위산(虎岩山), 매의 형세를 닮은 매바위산 등이 그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동광(銅鑛)이 있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달성서씨, 전주이씨, 밀양박씨, 영일정씨, 김해김씨, 김녕김씨, 진양정씨 등이다. 마을에는 현용재(現龍齋)를 비롯하여 병산재, 곡부정(谷夫亭), 한송정(韓松亭), 선영재(善迎齋) 등이 있다.

### 1) 마을

- ◎ 가는밭(밭촌, 박촌, 세암) : 새물땀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상촌(上村, 윗골, 상곡, 은개) : 중촌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새마을(새물땀, 신촌) : 병산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중촌(中村) : 상촌 동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매바위산(용암산) : 새마을북쪽에 있는 산으로 매바위가 있음
- ◎ 범바위(호암산) : 세암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범바위가 있음

### 3) 들, 논

- ◎ 간사이안 : 갯논 남쪽에 있는 들로 간척지 임
- ◎ 개논 : 병산 앞에 있는 들
- ◎ 구릉 : 세암 동쪽에 있는 들
- ◎ 너른짓골들 : 너른짓골에 있는 들
- ◎ 소모들 : 윗골 남쪽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덕걸들에 있는 논으로 장구처럼 생겼다고 함
- ◎ 중땀들 : 중땀에 있는 들
- ◎ 집앞 : 새마을 앞에 있는 들

### 4) 골

- ◎ 금밭골 : 노루등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금이 났었다고 함
- ◎ 깨막골 : 병산에 있는 골짜기로 피밭(깨밭)이 있었다고 함

- ◎ 나부등 : 산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너른짓골 : 피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범바웃골 : 범바우에 있는 골짜기
- ◎ 산짓골 : 병산에 있는 골짜기로 산제를 지냈음
- ◎ 어름골 : 병풍디미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작은산밭골 : 산밭골의 작은 골짜기
- ◎ 절텃골 : 채봉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채봉골 : 나부등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초고리골(초곡) : 어름골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소금징이재 : 세암에서 이당리 배골로 넘는 고개(소금쟁이)
- ◎ 소목 : 공동묘지 뺨덕 북쪽에서 이당리 배골로 가는 고개
- ◎ 영송고개(영송재, 영선고개) : 장지 뒷산에 있는 고개로 조선시대 때 철성부에서 오는 원을 이곳에서 맞이하였다고 함
- ◎ 옷골재 : 윗골에서 이당리의 당골로 넘어가는 고개
- ◎ 영개윗골 : 건개윗골

#### 6) 기타

- ◎ 노루등 : 병산리에 있는 등성이
- ◎ 너른짓골보 : 너른짓골 들에 있는 보
- ◎ 덕걸들보 : 덕걸들에 있는 보
- ◎ 매바우 : 호암산에 있는 바위로 범처럼 생겼다고 함
- ◎ 은애바우 : 윗골 북쪽에 있는 바위
- ◎ 좃등 : 너른짓골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병풍디미 : 소목 북서쪽에 있는 바위디미
- ◎ 포구남거리 : 새마을 북쪽에 있는 버덩으로 둘째가 세 이름 되는 포구나무가 있었다고 함
- ◎ 힌너드령 : 피밭골 서쪽에 있는 너설

## 2. 두포리(豆布里)

두포리는 본래 고려 현종 9년에 고성현으로 개칭될 때 상남면(上南面) 지역인데 1914년

두모치, 포교, 장지동, 용호동 일부를 병합하였다. 이 때 두모치(豆毛峙)와 포교(布橋) 두 마을의 앞 글자를 따서 두포리(豆布里)로 개칭하였다. 행정리로 장지, 두모, 포교, 와도, 덕산의 5개 마을이 있다.

장지마을은 구전에 따르면 임진란 때 군령포 앞바다에 침입한 왜적을 농군(農軍)을 동원하여 섬멸하고 이순신 장군 진중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운 이덕상(李德祥 일명 쇠스랑장군)의 이름을 따서 덕산개라 하였다. 근래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논 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논왈리와 군인이 주둔한 군령포의 3개 자연마을을 병합하면서 장지마을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400여 년 전으로 짐작된다. 마을은 봉화산이 뒤로 에워싸고 있으며, 앞으로는 고성만이 펼쳐져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고성이씨, 진양정씨, 밀양박씨, 진양강씨, 창원황씨, 전주이씨, 경주최씨, 삭녕최씨, 경주이씨, 의령남씨, 단양전씨, 문화류씨, 김해김씨, 은진송씨 등이다. 마을에는 두포리봉수지가 있다.

두모마을은 두포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명은 마을입구의 작은 고개인 두모치(豆毛峙)에서 연유하여 두모치 또는 두모라고 하였다. 마을의 형성 연대는 고려 현종 9년에 상남면의 두모치마을로 존치한 바 있어 이때부터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은 윗땀, 중땀, 아래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윗땀에는 건너땀, 셋땀, 안골의 3개 취락이 있으며, 마을 동쪽은 봉화산이 앞뒤로 둘러싸고 있으며, 남쪽에는 대덕산이 바다를 가로막고 있어 분지 형상이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진양정씨, 평택임씨, 고성박씨, 경주이씨, 나주정씨, 능주구씨, 창원황씨, 성산김씨, 진양강씨, 전주이씨 등이다. 마을에는 신선골과 마을 안산의 농우(農牛)형상에 대한 일화가 전해진다.

포교마을은 마을중간이 두 동강난 것 같은 형세로 길게 동남으로 뻗어 베(布)를 깔아 놓은 형상과 같다하여 베포 자(布)와 다리교 자(橋)를 따서 포교라 불렀다. 버드래, 늑개, 모래치, 땀땀, 박골, 와도(누운섬)의 6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1962년 늑개, 모래치, 박골, 땀땀의 4개 자연마을이 덕산의 행정마을로 분동되었고, 1988년 와도가 분동되었다. 마을의 형성연대는 경주이씨가 맨 먼저 정착하고 이어 진양강씨가 입촌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고려현종 9년에 고성현으로 개칭되면서 상남면에 속하였다가 1914년 상서·상남면이 삼산면으로 병합되어 삼산면 두포리 포교마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은 자란만으로 둘러싸인 해안에 자리 잡고 있다. 동남쪽 해상에는 팔섬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도투마리여가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경주이씨, 능주구씨, 진양강씨, 김해김씨, 고성이씨, 창원황씨, 경주최씨, 은진송씨, 성주배씨, 밀양박씨, 연안차씨 등이다. 마을에는 명당에 관한 전설이 구전되고 있다.

와도는 달리 누운섬이라고도 한다. 1987년 두포리 포교마을에서 분동되어 독립된 행정

마을이다. 전설에 의하면 지구가 생성될 때 암소 한마리가 누워 잠을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섬이 되었다고 하여 누운섬이라 하였다고 한다. 마을은 1856년 영양천씨가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 남서쪽으로 한려수도를 끼고 있으며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능주구씨, 경주이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진양정씨 등이다.

덕산마을은 1938년 이전에는 두포리 포교마을에 속하였으나, 1962년 녹개, 모래치, 박골, 맏땀을 합하여 덕산마을(행정리)로 하여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연대는 임진왜란 이후로 파평윤씨가 처음 입주하였고 그 후에 진양강씨, 능주구씨, 경주이씨가 정착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동광의 채광(대덕광산)이 성행하였다. 마을은 4개의 자연마을(녹개, 모래치, 박골, 맏땀)로 형성되어 있다. 마을 위에는 든바위산이 둘러 쌓여있고 앞은 자란만이 펼쳐진 전형적인 어촌마을이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파평윤씨, 진양강씨, 능주구씨, 경주이씨, 창원황씨, 밀양박씨, 곡부공씨 등이다.

### 1) 마을

- ◎ 군령포(軍令浦) : 논왈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굽덕땀(심정촌) : 중땀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논왈리(論曰里, 장지동) : 군령포 서북쪽에 있는 땀
- ◎ 녹개(녹을개, 와도) : 맏땀 동쪽에 있는 마을(덕산)
- ◎ 두모부락(豆毛部落) : 사전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맏땀(웅촌) : 포교부락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모래티(사티) : 포두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버드내(두포리, 버드리, 포교마을) : 두포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사전동(沙田洞, 사리골) : 두모부락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신촌(新村) : 새마을 길가 땀
- ◎ 아랫마을(하촌) : 중땀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안곡(安谷, 안골) : 사전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유천(柳川) : 포두리, 베다리
- ◎ 중땀(중촌) : 굽덕땀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하촌(下村) : 두모 아랫마을

### 2) 산

- ◎ 봉화산(烽火山) : 논왈리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봉화터가 있음

- ◎ 와도산(臥島山) : 누운섬에 있는 산
- ◎ 진끝 : 장지동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지형이 길쭉하게 생겼다 함

3) 들, 논

- ◎ 돌팍걸 : 새마을 남쪽에 있는 들
- ◎ 맷곡밀 : 매담 동쪽에 있는 들
- ◎ 머에배미 : 새마을에 있는 논
- ◎ 앵구배미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으로 지형이 앵구렁하다(굽다) 함
- ◎ 장구배미 : 중담 앞에 있는 논
- ◎ 주꺼배미 : 맷곡 밑에 있는 논

4) 골

- ◎ 감장골(감정골) : 새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농밭골 : 아랫마을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도독골 : 감장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돌팍골 : 새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돌새목골 : 사전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두뭇골 : 두모부락 있는 골짜기
- ◎ 매곡 : 포교부락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상더등이 : 군령포 선창으로 군령포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여숙꿈 : 군령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은집골 : 아랫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이개골 : 두모부락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씨 선산이 있다 함
- ◎ 절골 : 두모 북쪽에 있음

5) 기타

- ◎ 나비섬(접도) : 괴암섬 남쪽에 있는 섬으로 지형이 나비처럼 생겼다고 함
- ◎ 농바우 : 농밭골에 있는 바위
- ◎ 누운섬(와도) : 포고 남쪽에 있는 섬 부락
- ◎ 두도(豆島, 팔섬) : 버드내 동남쪽에 있는 섬
- ◎ 도루마리 : 버드내 남쪽에 있는 여



- ◎ 문래섬(문뢰섬) : 나비섬 서남쪽에 있는 섬
- ◎ 비도(碑島, 비사도): 덕산개 앞에 있는 섬
- ◎ 성거리 : 성이 있던 곳으로 군령포 남쪽에 있음
- ◎ 소티(小峙)섬 : 누운섬 서남쪽에 있는 작은 섬
- ◎ 상대호(上大虎, 윗대호)섬
- ◎ 아귀바우(애기바위) : 아랫마을 동쪽에 있는 바위로 애기를 업은 형국이라 함
- ◎ 아랫대구섬(아랫대호섬, 하대구도, 아랫대구섬) : 윗대호섬 서남쪽에 있는 섬
- ◎ 영송재(迎送峙) : 장지마을에서 병산리로 넘어가는 재(峙)로서 옛날 장군이나 영급(守級)이 다른 곳으로 진출되어 갈 때 이 고개에서 가족이나 군인들이 환송하였다고 함
- ◎ 윗대호섬(상대호섬) : 소티섬 동남쪽에 있는 섬
- ◎ 코바우 : 농밭골에 있는 바위

### 3. 미룡리(米龍里)

미룡리는 본래 삼남면 지역인데 1914년 삼산면으로 개칭 되면서 미동과 용호동 일부를 병합하여 미동과 용호동의 이름을 따서 미룡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대포(大浦)·용호(龍湖)·미동(米洞)의 3개 마을이 있다.

대포마을은 옛날부터 갯벌의 자원이 풍부하여 해산물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염전이 마을에 있어 소금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큰개(한개)로 불려진데서 동명이 유래한다. 미룡리에서 분동되면서 한개를 한문으로 표기하면서 대포(大浦)라 하였다. 마을이 생긴 시기는 약 300년 전으로 어로(漁撈)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던재에는 수원백씨와 전주최씨가, 가맛골에는 파평윤씨와 김해김씨가, 더개에는 김녕김씨, 뱃목에는 경주이씨가 입촌하면서 형성되었다. 마을은 자란만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뒤로는 구면당산이 에워싸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남평문씨, 창원황씨, 고성이씨, 김해김씨, 진양정씨, 경주이씨, 밀양박씨, 영양천씨 등이다.

용호마을은 옛 부터 어룡개라 불렀는데 이는 남해 바다에서 용이 북으로 굽이쳐 올라와 대덕산과 든바위산을 지나 반것날(대포마을로 돌아가는 모퉁이)에서 반거(盤踞)하였기 때문이다. 또 용호만의 좌측에 누워있는 돌여(암초)는 큰 고기 형상을 하여 썰물 때에는 수면에 나타나고 밀물 때는 바다 속으로 잠기고 하면서 마을을 지키고 있다하여 어룡개(漁龍捕)로도 불렸다. 1914년 상서면과 상남면이 삼산면으로 통합되면서 지금의 미동과 용호·대포마을을 미룡리로, 용호마을은 호수와 같은 어룡개라 하여 어룡개의 용(龍)자와 호수의 호(湖)자를 따서 용호라 하였다.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약 600년 전으로 남평문씨와 고성이씨가 먼저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마을은 성지산이 남으로 갈라 내리면서 등성이를 따라 간짓골·서짓골·한짓골·대밭골·성짓골·통싯골·은골·무릉골 등의 골짜기를 이루면서 용호들판을 형성하고 있다. 앞바다의 보루섬(보리섬)은 바다의 태풍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고성이씨, 김녕김씨, 능주구씨, 경주이씨, 과평윤씨, 연안차씨, 밀양박씨, 진양정씨, 창원황씨, 함안조씨, 전주최씨, 진양강씨 등이다.

미동마을은 고려 현종 9년에 고성현으로 개칭될 당시 상남면의 미곡으로 되었다가, 1914년 상남면과 상서면이 삼산면으로 병합되면서 미룡리(米龍里)의 미동마을로 변경되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고려 현종 때 상남면 미곡으로 행정구역이 형성되었으므로 주민이 거주하게 된 것은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구전에 의하면 가장 먼저 빈씨와 강씨가 입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하나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다. 마을 지세는 남쪽은 바다에 임하고 동·서·북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1960년대까지 동(銅)을 채굴한 동광산으로 유명한 광맥이 있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고성이씨, 남평문씨, 나주임씨, 순흥안씨, 진양하씨, 여산송씨, 창원황씨, 밀양박씨, 연안차씨, 진양강씨, 문화유씨, 창원구씨, 인동장씨 등이다.

### 1) 마을

- ◎ 가티(加峙, 덧개) : 대포 남쪽에 있는 마을
- ◎ 대곡(大谷, 큰골) : 미곡 북쪽에 있는 마을
- ◎ 대밭골(죽전동) : 용호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대포(大浦, 큰개, 한개) : 뱀목 동쪽에 있는 마을
- ◎ 덕개(덕포) : 덧재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덧재(가티) : 대포 남쪽에 있는 마을
- ◎ 도룡골 : 미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마전곡(麻田谷, 삼밭골) : 솔몽지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미곡(米谷, 작은골, 소곡, 자안골) : 미동 남쪽에 있는 마을
- ◎ 미동(米洞) : 미곡 북쪽에 있는 마을
- ◎ 배암목(뱀목, 사항) : 덕개 북쪽에 있는 마을
- ◎ 사곡(寺谷, 절골) : 큰골 남쪽에 있는 마을
- ◎ 선창골 : 도룡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소곡(小谷, 작은골, 자안골, 미곡) : 미동 남쪽에 있는 마을

- ◎ 솔몽지(송양지) : 삼밭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용호동(龍湖洞, 용호) : 미룡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2) 산

- ◎ 당산 : 용호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당산제를 지낸다 함
- ◎ 든바위산 : 용호 남쪽에 있는 산
- ◎ 방갓날 ; 용호 남서쪽에 있는 산
- ◎ 성지산 : 용호 동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개두래 : 작답 남쪽에 있는 들
- ◎ 날끝 : 대포 북쪽에 있는 들
- ◎ 두룽배미 : 날끝에 있는 논
- ◎ 말배미 : 안꾸렁에 있는 논
- ◎ 새뱀드리기 : 은골작답에 있는 논
- ◎ 손목 : 대밭골 남쪽에 있는 들로 솔이 많았다고 함
- ◎ 안꾸렁 ; 용호 남쪽에 있는 들
- ◎ 은골작답 : 대밭골 남서쪽에 있는 들로 원집이 있었다고 함
- ◎ 작압 : 용호 남쪽에 있는 들
- ◎ 진배미 : 말배미 밑에 있는 긴 논

## 4) 골

- ◎ 서짓골 : 용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성짓골 : 대밭골 아래 있는 골짜기
- ◎ 작은한집골 : 한집골의 작은 골짜기
- ◎ 큰한집골 : 한집골에 있는 큰 골짜기
- ◎ 한집골 : 용호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장꼭재 : 절골에서 갈모봉산으로 넘어가는 고개
- ◎ 한개고개 : 한개에 있는 고개

6) 기타

- ◎ 개구리섬(상두도) : 선창끝 서쪽에 있는 섬
- ◎ 괴암도(槐岩島, 괴암섬) : 개 앞에 있는 섬이란 뜻으로 덧재 서남쪽에 있음
- ◎ 낙매이바우 : 용호 뒤 낭떠러지에 있는 바위
- ◎ 맥도(麥島, 보리섬) : 보리앞섬(바로 앞에 있는 섬)
- ◎ 무릉골폭포 : 무릉골에 있는 폭포로 높이는 4m되는데 나병에 좋다고 함
- ◎ 상두도(祥頭島) : 선창끝 서쪽에 있는 섬
- ◎ 상주(祥珠)섬 : 용호만(어룡개)에 위치한 섬으로 용이 남해 바다에서 북으로 굽이쳐 올라오다가 대포마을 모퉁이에서 반거(盤踞)하면서 입에서 토해낸 여의주로 섬이 생겼다고 함
- ◎ 선바우 : 성지산에 있는 바위
- ◎ 애기바우 : 도롱골 남쪽에 있는 바위로 애기를 업은 것 같은 형상임
- ◎ 약물바구등 : 덧재와 덕개 사이에 있는 등성이

4. 삼봉리(三峰里)

삼봉리는 본래 고려 현종 9년에 고성현으로 개칭될 시 상남면의 삼봉포 지역으로 삼면에 산봉우리가 셋이 있다 하여(갈모봉, 천황산, 선황산) 삼봉리라 불렀으며, 1914년 뱃골·솔안땀·쌀골·옥대동·산제골·큰땀·소토골·상촌·하촌을 병합하여 삼봉리라 하여 삼산면에 편입되었다. 행정리로 상촌·해명의 2개 마을이 있다.

상촌마을은 1914년 상남·상서면이 병합되어 삼산면으로 개칭될 당시 삼봉리의 행정구역에 속했다가 1918년 삼봉리가 분동되면서 마을 위쪽에 위치하였다 하여 상촌(행정리)이라 하였다. 마을 북쪽 뒤로 갈모봉, 선황봉, 천황봉의 세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있고 골이 깊으며 삼봉천이 마을 중심을 흐르고 있다. 현재는 달성서씨, 진양강씨, 전주이씨, 함안이씨, 경주김씨, 김해김씨, 성산김씨, 고성이씨, 평산신씨, 충주석씨, 경주이씨, 안동김씨 등이 거주하고 있다.

해명마을은 하촌마을이 삼봉리에서 분동되면서 아랫땀·솔섬·새땀·배신·대거리·해명날 등의 자연마을을 묶었으며, 2008년 해명으로 변경하였다. 해명은 바다에서 해가 밝아 오는 희망찬 마을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원래 상남면에 속해 있었는데 상남면과 상서면이 1914년에 병합되어 삼산면으로 개칭될 때 하촌으로 존치하였으며,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마을에 입촌한 문중의 연대를 살펴보면 약 200년 전인 1,800년경으로 추정한다. 마을 동쪽은 갈비산이 뻗어 바다에 접하고, 서쪽은 무동산의 좌청룡 기슭에 형성되었으며, 남쪽은

통영시 사랑도를 바라보고 있다. 광복 후 귀환동포가 많이 입주 하였고 근래에는 굴 양식 등 어업 인구가 늘어났다. 거주민의 성씨는 남평문씨, 파평윤씨, 진양정씨, 김녕김씨, 밀양박씨 등이다.

마을에는 남평문씨의 입고성(入固城)한 선조의 제사를 모시는 재실이 있다. 또 마을 뒷산에 사당을 지어 당산할매를 모시고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동제를 지내며, 마을 수호신인 목신(木神)(포구나무)에게도 제를 지내는데 이는 약 200년 전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

### 1) 마을

- ◎ 대촌(大村, 큰땀) : 산제골 서쪽에 있는 마을
- ◎ 미곡(米谷) : 쌀골
- ◎ 배골(이곡) : 상촌 북쪽에 있는 마을
- ◎ 산제골(산제곡) : 옥대동 남쪽에 있는 마을
- ◎ 상촌(上村) : 삼봉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새땀(신촌) : 소토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소토골(정토골) : 큰땀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솔안땀(송내촌) : 배골 남쪽에 있는 마을
- ◎ 씨룻골 : 쌀골 북쪽에 있는 마을
- ◎ 옥대동(玉垜洞) : 쌀골 서쪽에 있는 마을
- ◎ 하촌(下村) : 새땀 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모도산 : 해명날 북쪽에 있는 산
- ◎ 갈모봉 : 의적 갈봉의 근거지

### 3) 들, 논

- ◎ 도랑목들 : 솔안땀 동쪽에 있는 들
- ◎ 딛들 : 옥대동 뒤에 있는 들
- ◎ 매산이들 : 솔안땀 남쪽에 있는 들
- ◎ 버금덩이 : 큰땀 동쪽에 있는 들
- ◎ 열두마지기 : 삼봉리에 있는 들로 열두 마지기 되는 논이 있음
- ◎ 장구배미 : 도랑목들에 있는 논

◎ 큰봇들 : 도랑목들 북쪽에 있는 들

#### 4) 골

◎ 가막골 : 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산짓골 : 산제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함

◎ 새뺑골 : 술안땀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쇠가 났다고 함

◎ 서남골 ; 술안땀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나무가 있음

◎ 소톡골 : 소토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외집골 : 술안땀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용이집골 : 큰땀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산디밭골 : 옥대동 동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정신골 : 술안땀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큰산디밭골 : 옥대동 북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 홍골 : 배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기타

◎ 검은섬(흑서, 가무여) : 밤섬 서북쪽에 있는 섬

◎ 농바구 : 상투바위 북서쪽에 있는 바위

◎ 두룽바구 : 옥대동 남쪽에 있는 바위

◎ 들어언친바구 : 술안땀 북동쪽에 있는 바위

◎ 밤섬(율도) : 술섬 동남쪽에 있는 섬

◎ 상투바구 : 배골 북서쪽에 있는 바위

◎ 술섬(송도) : 해명날 동남쪽에 있는 섬

### 5. 장치리(長峙里)

장치리는 본래 고려 현종 9년에 고성현으로 개칭될 때 상남면 지역인데, 1914년 장박(長朴)과 화리치(禾里峙)를 병합하여 장치리로 하여 삼산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중촌(中村)과 장백(長栢)마을이 있다.

중촌마을은 1914년 상남·상서면이 병합되어 삼산면으로 개칭될 당시 장치리의 행정구역에 속했다가 1918년 장치리를 행정동리로 분동하면서 능골·달막·뒷골·중땀·들땀·숫도골의 자연마을을 묶어서 상촌과 하촌 중간에 있다하여 중촌이라 하였다. 달리는 수리치

(재)라고 하는데 이는 마을 뒤(북쪽) 산세가 마치 수리가 날아가는 모양과 같기 때문이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1800년경으로 창원정씨, 현풍곽씨, 여양진씨, 함안이씨 등이 입촌하면서 부터로 알려져 있다.

마을의 지세는 뒤로 무동산과 천황산이 둘러있고 남쪽은 몽동산이 앞을 막아 그 사이로 길게 뻗어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20여 년 동안 동(銅)을 채굴하는 석봉광산이 있었으며 현재 거주 성씨는 창원정씨, 여양진씨, 전주이씨, 진양정씨, 현풍곽씨, 김해허씨, 인동장씨, 함안이씨, 전주최씨, 진양강씨, 경주최씨, 연일정씨, 김해김씨, 강릉유씨, 청주한씨, 은진송씨, 성산이씨, 합천이씨, 진양하씨, 고성이씨, 함안조씨 등이다.

장백마을은 장치리에 속한 행정리로 1918년 행정구역 개편 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장 먼저 장씨가 입촌하고 그 다음으로 박씨와 이씨가 입촌하여 마을이 형성되어 장박이로 불렸으며 지금은 장백이로 부르고 있다. 마을은 고려 현종 때 고성현으로 개칭될 당시 상남면의 장박(長朴)으로 존치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거주 성씨는 전주이씨, 밀양박씨, 김해김씨, 현풍곽씨, 수원백씨, 김해허씨, 달성서씨, 전주최씨 등이다. 마을에는 전주이씨 재실로 장백재(長栢齋)와 추모재가 있다. 또 장치산성이 있는데, 이 성터에서 멀리는 사랑도와 가까이는 자란도가 눈 아래 보인다.

### 1) 마을

- ◎ 금곡(金谷, 능골, 금골, 은골, 은곡) : 중촌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달막(월막, 달막이) : 뒷골 서쪽에 있는 마을
- ◎ 뒷골(후곡) : 달막 동쪽에 있는 마을
- ◎ 들땀(야촌) : 윗소뚝골 서쪽에 있는 마을
- ◎ 상장백(上長伯, 윗장백) : 장백 위쪽에 있는 마을
- ◎ 상정토곡(上鼎土谷, 윗소뚝골) : 수리티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소뚝골 : 윗장백 동쪽에 있는 마을
- ◎ 숲안땀 : 들땀 북쪽에 있는 마을
- ◎ 아랫장백(하장백) : 장백 아래 쪽에 있는 마을
- ◎ 양달땀 : 소뚝골 양달 쪽에 있는 마을
- ◎ 윗장백 : 장백 위쪽에 있는 마을
- ◎ 장박(長朴) : 장백마을을 일컬음
- ◎ 장백(長栢, 장백장촌) : 중촌 남쪽에 있는 마을
- ◎ 화리티(禾里峙) : 수리티 땀

2) 산

- ◎ 능골산 : 능골 뒤에 있는 산
- ◎ 뒷골산 : 뒷골에 있는 산

3) 들, 논

- ◎ 고래실 : 중촌 남쪽에 있는 들
- ◎ 광산교(鑛山橋, 석봉교) : 들땀 남쪽에 있는 다리
- ◎ 뒷들 : 뒷골에 있는 들
- ◎ 소뚝골들 : 소뚝골에 있는 들
- ◎ 통전 : 통전새미가 있는 논
- ◎ 한질밀 : 소뚝골 동남쪽에 있는 들

4) 골

- ◎ 능골안 : 능골산에 있는 골짜기

5) 기타

- ◎ 가매바우 : 뒷골 북쪽에 있는 바위
- ◎ 말바우 : 능골에 있는 바위로 말처럼 생겼음
- ◎ 목섬(항도) : 아래 장백 남쪽에 있는 섬
- ◎ 통전새미 : 한질밀 북쪽에 있는 샘
- ◎ 합숙쏘 : 중촌에 있는 버덩
- ◎ 장백성지 : 아랫마을 뒤에 있는 예 성터

6. 판곡리(板谷里)

판곡리는 본래 상서면 지역으로 1914년 상남면과 상서면이 병합되어 삼산면으로 개칭되면서 판운지(板雲池)와 운곡(雲谷)을 합하여 판곡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지세가 하늘에 구름이 넓게 펼쳐있는 형상과 같다하여 너른지라 지금도 부르고 있다. 판곡리로 동명이 된 것은 판운지와 운곡이 병합되면서 판운지의 판(板)자와 운곡의 곡(谷)자를 따서 붙였기 때문이다.

판곡마을은 윗땀, 아래땀, 갈망개, 마리개, 노리목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진 법정리로,



마을이 형성된 것은 고려 현종 9년에 고성현으로 개칭될 당시 상서면의 관운지와 운곡마을로 존치 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주민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의 지세는 서북쪽으로 매 바위산 준령이 길게 남북으로 뻗어 있으며 마을 남쪽은 두리봉이 앞을 가려 고성읍과 경계하고 있으며 갈만개와 마리개마을은 고성만의 바다에 임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순흥안씨, 청주한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전주최씨, 능주구씨, 진양강씨, 달성서씨, 창원황씨, 초계변씨 등이다. 마을에는 망사재(望思齋)가 있으며 허씨문중 재실과 김해허씨 문중의 재실이 있다.

### 1) 마을

- ◎ 갈마포(渴馬浦, 갈만개) : 마리개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입구에 조그만 샘이 있었는데 그 샘에서 대인과 말이 목마름을 면하였다하여 유래 됨
- ◎ 너른지(관운지) : 관곡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
- ◎ 노리목(노루목, 녹황) : 불암천 남쪽에 있는 마을
- ◎ 마리개(마리포) : 갈만개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대인이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다가 말이 목이 말라 가지를 못하고 섰다고하여 유래 됨
- ◎ 아래땀 : 널운지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우땀 : 널운지 위쪽에 있는 마을
- ◎ 작은마리개 : 마리개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 2) 산

- ◎ 두리봉 : 널운지 남쪽에 있는 산
- ◎ 똥대산 : 갈만개 앞에 있는 산
- ◎ 만엄비알 : 널운지 북쪽에 있는 산
- ◎ 시리봉 ; 썩선골 위쪽에 있는 산
- ◎ 은개끝 : 마리개 남쪽에 있는 산
- ◎ 허산 : 널운지 북동쪽에 있는 산으로 허씨의 묘가 많다고 함

### 3) 들, 논

- ◎ 매나무들 : 매나뭇등에 있는 들
- ◎ 매웃골들 : 웃땀 동쪽에 있는 들

4) 골

- ◎ 가운데골 : 청지나뭇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갓골 : 가운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까막골 : 갈만개에 있는 골짜기
- ◎ 도치끝(집새끝) : 선창끝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돼지 형국이라 함
- ◎ 들팍골 : 송낙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못골 : 집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못이 있었다고 함
- ◎ 밭골 : 절랫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밭이 있었음
- ◎ 선창끝 : 갈만개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송낙골 : 노리목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소나무가 많았다고 함
- ◎ 석선골 : 큰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절랫골 : 널운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함
- ◎ 집골 : 채분지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청지나무골 : 널운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갓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5) 고개

- ◎ 장곡 : 판곡리에서 병산리로 가는 고개

6) 기타

- ◎ 강지잇등 : 갈만개 동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강정모양이라 함
- ◎ 매바우 : 매나무등에 있는 바위
- ◎ 매등 : 허산 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매화낙지 형국이라 함
- ◎ 배암등 : 널운지 북동쪽에 있는 등성이
- ◎ 불암천 : 독골에 있는 내
- ◎ 소두방여 : 토기섬 동남쪽에 있는 여로 지형이 소두방(솔뚜껍)처럼 생겼다고 함
- ◎ 수문교(水門橋) : 노리목 동쪽에 있는 다리

## 제 9절 상리면(上里面 Sangni-myenn)

군의 서쪽에 위치한 면이다. 북서쪽은 사천시 정동면, 동북쪽은 영현면과 접하고 있다.

동쪽은 대가면과 고성읍 그리고 남쪽은 삼산면, 하이면과 접한다. 남동쪽에서 시작되는 상동천이 면 가운데를 가로질러 북서쪽의 사천천으로 흐른다. 이를 경계로 북동쪽에는 양전산(311m), 오두산(421m), 천황산(343m) 그리고 남서쪽의 무이산(546m)과 수태산(575m) 등 구릉성 산지들이 둘러싸고 있다.

삼한시대에는 변한(弁韓) 성한(星韓) 땅이었으며, 이후 보령향(保寧鄕)으로 불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보령향은 현 서쪽 40리 지점에 있다.”고 한다. 『호구총수』에는 현재의 지명인 상리면(上里面)으로 기록하였고, 『여지도서』와 『대동지지』에는 현재의 삼산면인 서리면(西里面)과 합쳐 상서리면(上西里面)으로 기록하였다. 『해동지도』와 『여지도』 등 고지도에서는 상리면으로 표시하였다. 『신구대조』에 따르면 1914년 상리면 지역은 그대로 상리면이 되었다. 현재는 9개 법정리를 관할한다. 『1872년지방지도』에는 상리면 지명 옆에 “구읍(舊邑)에서 40리 떨어져 있다.”고 적고 있는데, 구읍이라고 한 것은 읍치가 1870년부터 1874년까지 통영 성안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 1. 척번정리(滌煩亭里)

척번정리는 1914년 조동(槽洞)과 척정(滌亭)을 병합하여 조정리(槽亭里)로 하였다가 1938년 재조정시 척번정리로 고쳤다. 조정리라 한 것은 구시골이란 뜻으로 마을 지형이 소죽통처럼 생겼다하여 유래되었다. 척번정리의 지명유래는 마을이 평평하게 보이지만 비가 오면 빗물이 깨끗이 씻은 듯이 온데간데없이 없어지기 때문에 씻을 척(滌), 번(煩), 정자 정(亭)자를 따서 척번정리로 하였다. 이는 불교적인 의미가 짙은 이름으로 근심 걱정이 없는 마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약 100년 전에는 대나무가 울창하여 죽번정(竹煩亭)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척정마을은 마을 서쪽에 있었던 고인돌(칠성바위)과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돌칼이 발굴된 바도 있어 아득한 옛날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함안이씨와 전주최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고 그 외 삭녕최씨, 김해김씨 등 30여 성씨가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마을에는 오정자나무라 부르는 정자나무가 군목으로 지정되었는데 수종은 느티나무로 수령 250년가량이다. 옛날에는 동제를 지냈으나 1960년부터 지내지 않다.

조동마을은 척번정리의 행정마을로 1914년 조동과 척정을 병합하여 조정리로 하였다가 1938년 척번정리로 개칭하였으며, 1984년 척번정리의 조동(행정리)마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척번정리와 동일하며 현재 거주 성씨는 전주이씨, 함안이씨, 김해김씨, 영일정씨, 전주최씨 등이다. 마을은 면소재지 척정마을과 인접하며 마을 뒷산이

병풍처럼 사방을 에워싸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동산리에서 원류하는 하천이 북으로 흐르고 있다.

평촌마을은 1914년경에 조동마을에 편입되었다가 광복 후 분동되어 1984년에 평촌마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이 생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동 마을에서 분동 당시 남평문씨, 청주한씨, 전주이씨 등이며, 마을은 쪽박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뒤쪽은 비교적 넓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남평문씨, 청주한씨, 전주이씨 등 10여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 1) 마을

- ◎ 상촌(上村, 옷땀) : 척정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정문등(旌門燈) : 조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김해김씨의 정문이 있었다고 함
- ◎ 조동(槽洞) : 평촌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조정리(槽亭里) : 척정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척정(漣頃) : 척변정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2) 산

- ◎ 똥매산 : 옷땀 남쪽에 있는 산
- ◎ 아암산(啞岩山) : 두릉밭골에 있는 산
- ◎ 음달 : 쭈시밭골 남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뒷들 : 척정 뒤에 있는 들
- ◎ 불맷들 : 비룩구 동남쪽에 있는 들
- ◎ 비룩구 : 조동 동남쪽에 있는 들
- ◎ 정지남들 : 척정 동쪽에 있는 들로 정자나무가 있었음
- ◎ 택징이 : 조동 동쪽에 있는 들

### 4) 골

- ◎ 고등골 : 문동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구시골 : 우막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구시 형국이라 함
- ◎ 도장골 : 장자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매프락골 : 도장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문등골 : 조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살대밭골 : 잔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쭈시밭골 : 조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우막골(새막골) : 옷땀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쇠막이 있었다고 함
- ◎ 움개밭골 : 살대밭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잔골 : 매프막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 장자골 : 고동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장사가 살았다고 함
- ◎ 홍골 : 움개밭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감재(감티재) : 척정 동남쪽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덕석너드렁 : 조동 서쪽에 있는 너설
- ◎ 성지바우 : 옷땀 동쪽에 있는 바위
- ◎ 이성바구 : 조동 남쪽에 있음
- ◎ 콧대배기 : 큰등 서쪽에 있는 등성이
- ◎ 큰등 : 조동 서쪽에 있는 큰 등성이
- ◎ 형제바위 : 두롬밭골의 북쪽에 10여 미터 높이로 서 있는 두 개의 바위

## 2. 고봉리(古鳳里)

고봉리 고봉마을은 조선시대에 윗마을을 고곡(告谷)이라 하고 아랫마을을 봉곡(鳳谷)이라 하였으며 1600년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다. 1895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곡과 봉곡의 앞 글자를 따서 고봉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1600년을 전후로 고성이씨가 입주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거창유씨, 밀양박씨, 김해김씨, 전주이씨, 평강채씨, 남평문씨, 경산전씨 등이 들어와 현재 10여 성씨가 마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마을은 인근 사천시 정동면과 경계하고 있으며 북쪽은 영현면과 접하고 있고 동서북이 산으로 에워싸여 있다. 마을에 수령이 300년가량 된 정자나무가 있는데 봄에 잎이 균일하게 피면 모내기를 일제히 마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때 할 수 없다고 한다.

비곡마을은 골이 깊고 산이 높으며 경지면적이 좁아 처음에는 까마귀 오(烏)자와 날 비(飛)자로 비오동(飛鳥洞)이라 하였다. 1938년에 고봉리 2구로 변경되었다가 1984년 비곡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으며 작은 골짜기가 많이 산재해 있다. 북쪽으로는 영현면과 접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영일정씨, 밀양박씨, 고성박씨 등 제씨가 마을에 살고 있다.

### 1) 마을

- ◎ 고곡(古谷, 고실) : 봉곡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봉곡(鳳谷, 새땀) : 시리봉 동쪽에 있는 마을
- ◎ 비고곡(非古谷, 比古谷, 비고실, 안고실) : 고봉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장자터(장재터, 장재기) : 고봉 저수지 북쪽에 있는 마을로 장씨가 살았다고 함

### 2) 산

- ◎ 불당산(佛堂山) : 봉곡 서북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가름장이 : 중들 밑에 있는 들
- ◎ 가매숫들 : 구릉등들 밑에 있는 들
- ◎ 구릉등들 : 가름장이 밑에 있는 들
- ◎ 두릉배미 : 중들에 있는 논
- ◎ 섬논뚝 : 비고실 남쪽에 있는 들
- ◎ 소정들 : 비고실 남서쪽에 있는 들로 소나무 정자가 있었음
- ◎ 안골 : 비고실 동쪽에 있는 들
- ◎ 중들 : 봉곡 서쪽에 있는 들

### 4) 골

- ◎ 감나무골 : 못시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고시내미 : 범릿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피밭골 : 안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녹싯골 : 산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대밭골 : 산밭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도치새미 : 중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똥치밭골 : 녹식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모시밭골 : 도치새미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모시밭이 있었다고 함
- ◎ 물방앗골 : 망림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방아가 있었다고 함
- ◎ 범잇골 : 불당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범이 있었다고 함
- ◎ 불당골 : 토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음
- ◎ 산밭골 : 작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음
- ◎ 싱밭골 : 정짓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안산골 : 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은개남골 : 똥치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은개나무가 있음
- ◎ 절골 : 큰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중산골 : 장재터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중을 화장했다고 함
- ◎ 큰골 : 고실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큰밭골 : 물방앗골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토골 : 대밭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문고개(문고갯재) : 고봉저수지 동남쪽에 있는 고개
- ◎ 버물재 : 봉곡 남쪽에 있는 고개
- ◎ 부련이재 : 문고개 북쪽에 있는 고개
- ◎ 오산재(절골재) : 비고곡에서 오산리로 넘어가는 고개

#### 6) 기타

- ◎ 가름징이보 : 가름징이에 물으 대는 보
- ◎ 가매숫들보 : 가매숫들에 물을 대는 보
- ◎ 덕석바우 : 부련이재에 있는 바위로 덕석처럼 생겼음
- ◎ 버물재너드렁 : 버물재에 있는 너설
- ◎ 작은꽃밭등너드렁 : 봉곡 남쪽에 있는 너설로 꽃이 많이 핀다고 함
- ◎ 정짓골모티어 : 정짓골에 있는 모퉁이
- ◎ 진등 : 봉곡 북쪽에 있는 긴 등성이
- ◎ 큰골너드렁 : 큰골에 있는 너설

### 3. 신촌리(新村里)

신촌리는 1895년에 지방제도를 개정할 때 가슬(歌瑟)이었으며, 마을 앞을 국도가 지나가면서 한때 새들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1938년에는 마을 뒤에 장군당 둔전밭골, 벼락식골, 후미밭골 등의 산이 있어 산세가 피파설이라 하여 마을 이름이 좋지 못하다하여 신촌(新村)으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은 대략 1600년을 전후하여 형성되었는데, 먼저 김해김씨와 의령남씨가 정착하여 살았으며 그 후 순흥안씨, 해주최씨, 고성이씨, 진양정씨, 거창유씨, 경주최씨, 달성서씨, 진양강씨, 수원백씨 등의 성씨가 입촌하여 현재의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은 사천시 정동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 1) 마을

- ◎ 가곡(柯谷, 신촌리) : 상리면 지역으로 가실 또는 가곡이라 함
- ◎ 도둑골 : 가실 남쪽에 있는 마을로 도둑이 있었다고 함
- ◎ 신촌(新村) : 가실 북쪽에 있는 마을
- ◎ 아래땀 : 우땀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우땀 : 신촌 위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마지매이(모지맹이, 모지매이) : 신촌리에 있는 산
- ◎ 장군댕이(장군당) : 신촌 남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시룻들 : 신촌 앞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시룻들에 있는 논

#### 4) 골

- ◎ 까짓골 : 후강이 밭골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재가 많았다고 함
- ◎ 떡개남골 : 가실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떡갈나무가 많았다고 함
- ◎ 배락실골 : 신촌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새앵골 : 앤산앗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수리골 : 도둑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안산앗골 : 소시랑등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장재밭골 : 신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진진밭골 : 신촌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후강이밭골 : 새앵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굴방아골재 : 신촌리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가곡모퉁이 : 가곡에 있는 모퉁이
- ◎ 곱동병 : 신촌 북편에 있는 소
- ◎ 소시랑등 : 배락실골 서쪽에 있는 등성이
- ◎ 시룽보 : 시룽들에 물을 대는 보
- ◎ 장군바구 : 장군댕이에 있는 바위
- ◎ 주개등 : 후강이 밭골에 있는 등성이

### 4. 오산리(烏山里)

오산리는 마을 뒤의 오두산(烏頭山)이 풍수상 까마귀가 마을의 수호신처럼 마을의 재앙을 막는다 하여 까마귀 오(烏)자를 따서 오산(烏山)이라 하였다. 마을의 형성연대는 자세하지 않으나 남명조식 선생의 제자인 백곡선생(白谷先生)의 손자가 진주 수곡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조선시대 중기로 짐작할 수 있으며 후에 청주한씨가, 1675년 경에는 경주정씨가 입촌하고 평강채씨와 전주이씨가 입촌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은 오두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여양진씨, 청주한씨, 밀양박씨, 전주이씨, 경주정씨, 전주최씨 등이다.

중촌마을은 한때 개울이라 하였는데, 마을의 형세가 개와 호랑이가 양쪽에서 마주보고 있는 사이로 썩은 밥을 먹으러 가는 격이기 때문이다. 1984년에 가동마을에서 분동되어 오산리 중촌 마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옛날 마을에 서재가 있어 지금도 서재골이란 명칭이 있으며 임란 전에는 밀양박씨가 거주하였고 그 후 평강채씨, 전주최씨, 남평문씨 등 제씨가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은 상리면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 뒤로는 서재골, 호랑이골, 감나무골 등 10여개의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사천강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밀양박씨, 평강채씨, 전주최씨, 남평문씨 등이다.

가동마을은 오산리에서 분동된 마을로 1913년경에 가동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한수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을은 평강채씨가 입촌한 1430년경부터로 전해진다. 면 내에서 가장 작은 마을로 채씨, 곽씨, 박씨, 최씨, 문씨, 김씨 등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에는 평강채씨 문중의 영선재(永善齋)가 있다.

### 1) 마을

- ◎ 기곡(基谷, 텃골) : 오산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내촌(內村, 안땀) : 한식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배끝땀 : 새땀 동쪽에 있는 마을
- ◎ 새땀(신기) : 한식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아랫개울 : 웃개울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한식골(한수곡, 웃개울) : 안땀 동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새핀앞다 : 서젓골에 있는 산
- ◎ 오두산(烏頭山) : 오산 북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갯밭오산 : 물방아들 서쪽에 있는 등성이
- ◎ 들산배미 : 용소들에 있는 논
- ◎ 모른뵈자리 : 오산 남쪽에 있는 들
- ◎ 물방아들 : 땀너매 서쪽에 있는 들
- ◎ 새도랑 : 진목정 서쪽에 있는 들
- ◎ 서답 : 지프내 서북쪽에 있는 들
- ◎ 섬등 : 용소들 서쪽에 있는 들로 지형이 섬처럼 생겼음
- ◎ 썩은땀들 : 안땀 앞에 있는 들
- ◎ 와실들 : 진목정 서쪽에 있는 들
- ◎ 용소들 : 오산 동쪽에 있는 들
- ◎ 지프내 : 새도랑 북쪽에 있는 들
- ◎ 진목정 : 갯밭 서쪽에 있는 들
- ◎ 한식땀들 : 한식골 뒤쪽에 있는 들

## 4) 골

- ◎ 감남골 : 오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고독골 : 오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공치밭골 : 감남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썩이 많았다고 함
- ◎ 기목장이 : 새땀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돈들막 : 지깃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산땀골 : 창아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삼밭골 : 새땀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서젓골 : 안땀 뒤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서재가 있었다고 함
- ◎ 수리골 : 텃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어름밭골 : 한싯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와실 : 갓등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이 길게 누워있다고 함
- ◎ 지깃골 : 고독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진등골 : 산땀골 북쪽에 있는 긴 골짜기
- ◎ 창아밭골 : 공치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채봉골 : 돈들막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초막골 : 오산 동쪽에 있는 등성이

## 5) 기타

- ◎ 갓등 : 수리골 서쪽에 있는 등성이
- ◎ 군대모퉁이(군등모퉁이) : 오산에 있는 모퉁이
- ◎ 깨구리바구 : 와실에 있는 바위
- ◎ 꽃밭등 : 염생이등 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염소 형국이라고 함
- ◎ 남대문바구 : 와실 동쪽에 있는 바위로 깨구리처럼 생겼다고 함
- ◎ 널뻘지 : 새핀앞담 동쪽에 있는 버덩
- ◎ 농바구 : 어름바구 서쪽에 있는 바위
- ◎ 대밭등 : 와실 서쪽에 있는 등성으로 대밭이 있었다고 함
- ◎ 떡등 : 안땀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망바구 ; 대밭등 동쪽에 있는 바위
- ◎ 썩은바우 : 농바우 서쪽에 있는 바위
- ◎ 어름바구 : 어름밭골에 있는 바위

- ◎ 염생잇등 : 질매빠랑 동쪽에 있는 등성이로 지형이 염소형국이라고 함
- ◎ 질매빠등 : 널빤지 동쪽에 있는 버덩
- ◎ 콧대배기 : 농바구 동쪽에 있는 등성이

## 5. 동산리(東山里)

동산리는 1895년까지 상서면에 속해 있었다. 마을은 본동(本洞)과 모정골, 어전골(느랏골)과 점터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의 형성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동산리 마을에 거주하는 김해김씨 문중의 기록에 의하면 약 400여 년 전에 이곳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뒤이어 안동김씨 등 제씨가 마을에 입촌하여 약 150년 전에는 본동에만 100여 호가 넘게 살고 있어 최성기를 이루었다.

마을의 지세는 수태산 줄기를 경계로 하일면 수양리와 본면의 무선리와 접하고 있으며, 향로봉을 경계로 하이면과 접하고 있다.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외 10여 성씨가 살고 있다. 마을에는 오효일부(五孝一婦) 정려비와 열녀비가 있다.

### 1) 마을

- ◎ 동산(東山) : 동쪽으로 수태산이 있으므로 동산이라고 함
- ◎ 모정(茅亭) : 느랏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어전(於田, 느랏골) : 동산 서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똥매 : 동산 서쪽에 있는 산
- ◎ 썰맷질 : 동산 서쪽에 있는 산
- ◎ 안산 : 동산 서쪽에 있는 산
- ◎ 지내등 : 모정 북쪽에 있는 산
- ◎ 철마산(鐵馬山) : 동산리에 있는 산으로 태고 때 모 장군이 철마를 타고 이곳에 와서 쉬어 갔다고 하여 이렇게 부름. 쇠말뚝에 말고삐를 매었다는 곳은 쇠말뚝이라 하며, 장군과 군졸이 칼을 한테 묶어서 세운 곳은 속쇠산(東釧山)이라 한다. 또 장군이 쉬었다는 곳은 느랏골(於田谷)이라고도 함

### 3) 들, 논

- ◎ 골안들 : 동산에 있는 들

◎ 산짓골들 : 동산 동쪽에 있는 들로 산제를 지냄

◎ 솔정들 : 동산 서북쪽에 있는 들

#### 4) 골

◎ 매밭골 : 동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모정골 : 모정에 있는 골짜기

◎ 손목고랑 : 동산리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좁다고 함

◎ 오지밭골 : 모정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옷골 : 동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쪽박골 : 동산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천대밭골 : 동산에 있는 골짜기

◎ 큰골 : 동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흙덕골 : 동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수대재 : 학동재 동북쪽에 있는 고개

◎ 울터지재 : 지내동 남쪽에 있는 고개

◎ 학동재 : 동산에서 하일면 학림리로 넘어가는 고개

#### 6) 기타

◎ 붉은너드렁 : 딱밭너드렁 서쪽에 있는 너설

◎ 삼형지바우 : 천대밭골 서쪽에 있는 바위

◎ 새말등 : 매밭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

◎ 쇠꼬지너드렁 : 동산 서쪽에 있는 너설

◎ 자빠진너들 : 쇠꼬지너드렁 서쪽에 있는 너설

### 6. 망림리(望林里)

망림리 구미(龜尾)마을은 1914년에 망림리에서 분동되어 망림2구라 하였다. 광복 후에 구미라 칭하였는데, 그것은 앞산의 형세가 거북이와 같고 마을의 위치가 거북이의 꼬리부분이라 거북이 구(龜), 꼬리 미(尾)자를 붙인 것에서 유래한다. 마을의 형성시기는 입촌한 성씨들을 통해 16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입촌한 성씨는 맨 먼저 합천이씨였으며,

다음으로 김해김씨, 고성박씨, 원주원씨, 밀양박씨, 달성서씨 등이다. 마을은 깃대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합천이씨, 김해김씨, 고성박씨, 원주원씨, 밀양박씨, 달성서씨, 칠원제씨 등이다. 합천이씨 문중의 송은재(松隱齋), 고성박씨의 구산재(龜山齋), 원주원씨의 숭모재(崇慕齋), 비(碑)로는 밀양박씨효자비와 고성박씨송덕비가 마을에 있다.

망림마을은 망림리의 본동마을로 1500년경에 전주최씨, 밀양박씨, 창원황씨가 거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 앞 산세가 뛰어나고 문수암 밑의 팔송정 숲이 아름다워 숲을 바라보면서 항상 희망을 갖고 살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바랄 망(望), 수풀 림(林)자를 따서 망림(望林)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이 생긴 연대는 1500년경으로 전주최씨, 밀양박씨, 창원황씨가 입촌하여 살았다고 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밀양박씨, 창원황씨 등이다. 마을에는 망모재(望慕齋), 치암재(痴庵齋)가 있다.

### 1) 마을

- ◎ 고송(高松) : 두지봉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구미동(龜尾洞) : 옛날 한 노승이 이곳을 지나다가 터를 잡았다고 전함
- ◎ 두지골(두지동) : 송정 동쪽에 있는 마을
- ◎ 망림 : 마을 앞에 숲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 서나무징이(서정) : 구미 동쪽에 있는 마을
- ◎ 송정(황땀, 황촌) : 자양촌 동쪽에 있는 마을
- ◎ 아릿장승걸 : 물방앗보 서쪽에 있는 마을
- ◎ 웃장승걸 : 아릿장승걸 위에 있는 마을
- ◎ 장골땀(재앵골, 자양촌, 장양곡) : 평땀 북쪽에 있는 마을로 최씨의 재실이 있었다고 함
- ◎ 장자기(장재터) : 서나무징이 동쪽에 있는 마을
- ◎ 장갯골 : 점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장사가 살았다고 함
- ◎ 평촌(平村, 평땀) : 자양촌 서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깃대산 : 옛날 산 정상에 깃대를 꽂아 신호를 보내는 산이라 하여 이렇게 부름
- ◎ 대보산(덤벽산) : 평땀 남쪽에 있는 산으로 들 가운데 바위더미가 있음
- ◎ 모정날 : 평땀 남쪽에 있는 산
- ◎ 옥봉 : 송정 동쪽에 있는 산으로 지형이 구슬모양이라고 함

◎ 험석바구 : 험석바구가 있는 산

### 3) 들, 논

- ◎ 가락골 : 구미 동쪽에 있는 들
- ◎ 가맷들 : 평담 남쪽에 있는 들로 지형이 가마처럼 생겼음
- ◎ 구밧들 : 한들 북쪽에 있는 들
- ◎ 대문안 : 평담 동북쪽에 있는 들
- ◎ 대보들(망림앞들) : 망림 앞에 있는 들
- ◎ 새미배미 : 가맷들에 있는 논
- ◎ 소승갯들 : 평담 서쪽에 있는 들
- ◎ 시렁배미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
- ◎ 아부갯들 : 평담 서쪽에 있는 들
- ◎ 오리정들 : 한들 서쪽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한들에 있는 논
- ◎ 평담들 : 평담에 있는 들
- ◎ 한들 : 구미 앞 남쪽에 있는 들

### 4) 골

- ◎ 독새골 : 성짓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독사가 많았다고 함
- ◎ 모시밭골 : 평담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모시밭이 있었다고 함
- ◎ 부치밭골 : 독새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30년 전까지 돌부처가 있었다고 함
- ◎ 산탯골 : 평담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사태가 자주 발생했다고 함
- ◎ 성짓골 : 재앵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앵이밭골(팽이밭골) : 모시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고양이처럼 생겼다고 함

### 5) 기타

- ◎ 두깨비바우 : 평담보 동북쪽에 있는 바위
- ◎ 부치밭골새미 : 부치밭골에 있는 샘
- ◎ 산태골약새미 : 산탯골에 있는 샘
- ◎ 성짓골굴바우 : 성짓골에 있는 바위
- ◎ 소승개모티어 : 소승갯들 위쪽에 있는 모퉁이

- ◎ 수박등 : 송정 북쪽에 있는 등성이로 지형이 수박모양이라고 함
- ◎ 수박등새미 : 수박등에 있는 샘
- ◎ 장재(長財)터 : 옛날 부자가 살았다고 함
- ◎ 진등 : 두지골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찬바람 고개 : 깃대산 서쪽 능선 중턱에 있는 조그마한 고개
- ◎ 힘석바구 : 평땀 서쪽에 있는 바위

## 7. 무선리(武仙里)

무선리 무선마을은 약 100년 전에 진보이씨가 입촌하여 마을 이름을 무리산이라고 불렀는데, 1930년에 선동과 분동되면서 무선마을이라 하였다. 마을은 무이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보이씨, 전주최씨, 함안이씨, 경주최씨, 합천이씨, 현풍곽씨, 밀양박씨 등이다.

선동마을은 옛날에는 무이산 덕디였다고 한다. 청량산 밑에 신령과 선비가 많이 배출되었다 하여 신선 선(仙)자를 따서 선동이라 하였으며 마을 뒷산이 무이산이라 무리산마을이라고 고을 원이 지어 주었다고도 한다. 마을이 생긴 연대는 약 200여 년 전으로 전주최씨가 처음 이곳에 정착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령남씨가 임란 때 입촌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의령남씨, 밀양박씨 등 10여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 1) 마을

- ◎ 남촌(南村, 상동) : 문수곡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들땀 : 새땀 서쪽에 있는 마을
- ◎ 무이산(武夷山) : 팔송정 남쪽에 있는 마을로 무이산 밑이 됨
- ◎ 문수곡(文殊谷, 문시곡, 문시골) : 새땀 남쪽에 있는 마을
- ◎ 새땀 : 선동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안덕대(선동) : 새땀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팔송정(八松亭) : 무선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2) 산

- ◎ 무이산(武夷山, 文殊山) : 팔송정 남쪽에 있는 산으로 문수암이 있음. 문수산이라고도 함
- ◎ 새갓삐알 : 생이바구 서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갈밭들 : 무이산 서쪽에 있는 들
- ◎ 덕내밋들 : 무이산 동쪽에 있는 들
- ◎ 새땀들 : 새땀 앞에 있는 들

## 4) 골

- ◎ 굴밭 : 피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굴밭이 됨
- ◎ 피밭골 : 굴바람이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도둑골 : 선동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물골 : 왕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상문수(上文殊) : 무이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선이리집골 : 부짓등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선일이라는 중이 살았다고 함
- ◎ 안도장골 : 도장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
- ◎ 왕밭골 : 문수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작은골 : 선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지비골 : 선동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초막골 : 문수암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선동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하문수(下文殊) : 문수암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호박골 : 문수암 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물골재 : 물골에 있는 고개
- ◎ 밖덕대 : 무선리에서 자은리 밖덕대로 가는 고개
- ◎ 수태재 : 수태산 밑에 있는 고개
- ◎ 절골고개 : 수태산 동남쪽에 있는 고개
- ◎ 중고개 : 선동에서 하문수로 가는 고개

## 6) 기타

- ◎ 가마바구 : 상문수에 있는 바위
- ◎ 공긋대바구 : 지비골에 있는 바위로 어느 도사가 괴여놓고 비를 피했다고 함

- ◎ 굴밭등 : 굴바람이 서쪽에 있는 등성으로 굴이 있다고 함
- ◎ 도장골새미 : 도장골에 있는 샘
- ◎ 문수암(文殊庵) : 문수산에 있는 절
- ◎ 배암등 : 무이산 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지형이 뱀모양이라고 함
- ◎ 부짓등 : 문수암 남쪽에 있는 등성이
- ◎ 생이바구 : 가마바구 서쪽에 있는 바위
- ◎ 안도장너드령 : 안도장골에 있는 너설
- ◎ 열마지기보 : 무이산 동쪽에 있는 열마지기 되는 논에 물을 대는 보
- ◎ 왕마우 : 왕밭골에 있는 바위
- ◎ 입벌린마우 : 하문수 서쪽에 있는 바위
- ◎ 진등 : 문수골 서남쪽에 있는 긴 등성이
- ◎ 큰갓 : 무이산 북쪽에 있는 너설

## 8. 자은리(自隱里)

자은리리는 단일 법정리이다. 본래 상서면의 지역으로 마을 안에 잔 다리가 많았다 하여 잔다리 또는 작은교라 하였다. 1914년 선당골, 건너땀, 안땀, 외덕대, 덕백을 병합하여 자은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 말엽 안땀에 지금의 면사무소격인 행정치소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확히 고증된 바는 없다. 자은이라는 이름은 임란 때 왜적이 고성에서 진주 방면으로 쳐들어와 많은 양민을 학살할 때 이곳에 숨어 안전했다 하여 스스로 자(自)자와 숨을 은(隱)자를 붙였다고 한다.

동서남쪽에 범호산, 까치산, 선당산, 큰골산이 에워싸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경주최씨, 거창유씨, 칠원제씨, 곡부공씨, 전주최씨, 분성배씨 등이다.

### 1) 마을

- ◎ 건너땀 : 안땀 남쪽에 있는 마을
- ◎ 덩버기(덤베이, 덕백) : 밖덕대 북쪽에 있는 마을
- ◎ 밖덕대(외덕대) : 안땀 북쪽에 있는 마을
- ◎ 새청거리 : 안땀 남쪽에 있는 마을
- ◎ 선당곡(仙堂谷, 선당골) : 건너땀 동쪽에 있는 마을
- ◎ 안땀 : 건너땀 북쪽에 있는 마을
- ◎ 잔다리(자은리, 자은교) : 상리면 지역으로 잔 다리가 많아 이렇게 부름

## 2) 산

- ◎ 칸치산(작산) : 밖덕대 북쪽에 있는 산으로 지형이 까치머리 형국이라 함
- ◎ 범의골면당 : 범의골에 있는 산
- ◎ 큰골면당 : 자은리의 큰 골짜기에 있는 산

## 3) 들, 논

- ◎ 칸치날뿌리(칸치날푸리) : 덩버기 동쪽에 있는 들로 칸치날의 끝이라 함
- ◎ 새청거리 : 새청거리에 있는 들
- ◎ 안땀들 : 안땀 앞에 있는 들

## 4) 골

- ◎ 범의골 : 건너땀 동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선동재 : 밖덕대에서 무선리의 선동으로 가는 고개

## 6) 기타

- ◎ 성지바우 : 큰골 면당에 있는 바위

## 9. 부포리(夫浦里)

부포리 부포마을의 지명은 감티, 부개, 부포라 하였는데, 감티는 통영에서 70리, 진주에서 70리 되는 지점으로 이곳에서 옛날 사천, 진주, 지리산지역의 산적과 통영, 창원, 부산등지의 산적이 서로 만나 감투싸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부개는 천황산 줄기가 지아비 부(夫), 클 개(날개) 포(浦)자 모양이기 때문에 지어졌으며, 부포는 일제 때 행정구역 개편 때 지어진 이름이다. 광복 후 분동이 되면서 부포와 내부포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임란 때로 당시 수원백씨가 먼저 입촌하였고 그 후 밀양박씨, 전주최씨, 평택임씨 등이 입촌하였다. 마을은 뒤로는 천황산이 앞으로는 선당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수원백씨, 밀양박씨, 평택임씨, 과주염씨, 함안이씨, 진양정씨, 김해김씨, 전주최씨 등이다. 마을에는 수원백씨 문중 재실인 쌍충재(雙忠齋)와 추모비가 있다.

내부포마을은 강점기에 부포리의 법정리였다가, 광복 후 분동되면서 부포와 내부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연대는 약 500여 년 전으로 창녕조씨가 정착하여 살면서부터이다. 그 후에 수원백씨가 입촌하여 골땀, 안땀 장성거리의 마을로 산재 되었다. 마을은 천황산 자락에 자리 잡은 4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수원백씨, 함안이씨, 남평문씨, 전주이씨, 창원황씨, 남원양씨, 창녕조씨, 평강채씨, 청송심씨, 인동장씨, 진양하씨, 진양강씨 등이다.

### 1) 마을

- ◎ 골땀(중터, 중고개) : 내촌 서쪽에 있는 마을
- ◎ 내촌(內村, 안땀) : 중터 동쪽마을
- ◎ 면양(眠羊) : 장성가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장성가(長城街, 장승거리) : 면양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장터거래 : 장승거래 남쪽에 있는 마을
- ◎ 피밭골 : 부포리 안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창녕조씨가 이곳에서 피농사로 생계를 이었다고 함

### 2) 산

- ◎ 개방산 : 안땀 동남쪽에 있는 산
- ◎ 남산 : 안땀 남쪽에 있는 산
- ◎ 덩벽산 : 안땀 남서쪽에 있는 산
- ◎ 박산 : 큰골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박씨의 선산이라고 함
- ◎ 선당산 : 면양 남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가랫골 : 점땀들 북쪽에 있는 들
- ◎ 국갯들(부갯들) : 부개 앞에 있는 들
- ◎ 장승거리앞들 : 장승거리 앞에 있는 들
- ◎ 점땀들 : 안땀 서북쪽에 있는 들
- ◎ 중들 : 안땀 어귀에 있는 들
- ◎ 중배논 : 안땀 서쪽에 있는 논으로 중배(올벼보다 늦은 벼)를 심었다고 함
- ◎ 칭논 : 안땀에 있는 논으로 옛 군청의 논이라고 함

- ◎ 통전 : 중고개 남쪽에 있는 논
- ◎ 화젯대걸 : 개방산 밑에 있는 들

## 4) 골

- ◎ 대지막골 : 장승거리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돼지가 많았다고 함
- ◎ 미랭잇골 : 면양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벌밭골 : 부포에 있는 골짜기로 벌이 많아 사람의 접근이 없었다고 함
- ◎ 분덧골 : 장승거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새부랭뱅이 : 천장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선바구 : 선바구가 있는 골짜기
- ◎ 성짓골 : 박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아시고랑 : 서짓등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전어골 : 부포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이곳에 전어가 살았다함
- ◎ 천장골 : 안땀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안땀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피밭골 : 선당산(仙堂山) 아래 독메에 명당이 있었는데 임란 때 왜적이 기운을 꺾기 위해 불을 피우고 쇠말뚝을 이곳에 박자 용마가 나와 이산 저산으로 뛰면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함
- ◎ 함정골 : 면양 동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감티(甘峙, 감재, 감티고개, 감티재) : 대곡산 남쪽에 있는 고개
- ◎ 피산재(장재텃골, 패삿재) : 장성가에서 망림리 장재터로 넘어가는 고개
- ◎ 중고개(중티, 골땀) : 내촌 서쪽에 있는 마을

## 6) 기타

- ◎ 갓등 : 큰갓등 동남쪽에 있는 등성이
- ◎ 갬산등 : 중고개 서남쪽에 있는 등성이
- ◎ 서짓등 : 장승거리 뒤쪽에 있는 등성이로 서재가 있었다고 함
- ◎ 선바구 : 갓등 동남쪽에 있는 바위
- ◎ 큰갓등 : 새부랭뱅이 동남쪽에 있는 큰 등성이

## 제 10절 영오면(永吾面 Yeongo-myeon)

군의 북부에 있는 면이다. 북쪽과 서쪽은 진주시 금곡면에 접하고, 남쪽은 영현면 그리고 동쪽은 개천면이다. 면의 동쪽에 선유산(418m), 남쪽에 연화봉(478m)이 각각 뻗어 있으며, 북쪽에 개천천과 영오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서쪽에는 영천강이 남에서 북으로 흘러 진주시 금곡면과의 경계에서 합류한다. 이들 하천 연안 일대에 제방을 쌓아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다. 1906년(광무 10) 진주에서 고성으로 편입되었다. 『호구총수』에는 진주 남면(南面)의 영이곡리(永耳谷里)와 오읍곡리(吾邑谷里)로 기록하였고, 『여지도서』(진주)에는 “영이곡은 관아에서 40리이다. 오읍곡은 관아에서 40리이다.” 라고 수록하였다. 『구한국 행정구역일람』에는 영이곡면은 성산(城山)·양산(陽山) 등 7개 동리, 오읍곡면은 동동(東洞)·서동(西洞) 2개 동리를 관할하였고, 『신구대조』에 따르면 1914년 앞의 두 면과 진주군 금곡면 덕계동(德溪洞)·성산동(省山洞)·석계동(石界洞)의 각 일부를 병합하고 두 면의 이름에서 집자하여 영오면으로 개편하였다. 현재 7개 법정리를 관할한다.

## 1. 영대리(永大里)

영대리는 본래 진주군 영이곡면(永耳谷面) 지역인데 1895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에는 영동(永洞)일부와 대동(大洞)을 병합하여 영오면의 영대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옥동(玉洞)과 영대(永大)마을이 있다.

옥동마을은 본래 영대리 지역이었으나 1984년에 영대리의 옥동(행정리)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임진란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은 연화산 주봉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지맥의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밀양박씨, 과평윤씨, 창녕성씨, 김해김씨 등이다.

영대마을은 영대리의 본 마을로 옛날부터 영구실(또는 영귀실)이라 하였으며 1984년에 영대리의 행정리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대리 역시 옥동마을과 비슷한 시기인 임란 전후로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밀양박씨가 입촌하였고, 이후 여산송씨도 입촌하였다고 하나 현재 후손은 거주하지 않는다.

마을은 연화산 주봉에서 뻗어 내린 산맥이 남북으로 형성된 산록에 영대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밀양박씨, 능주구씨, 전주최씨, 인동장씨 등이다. 마을에는 재실(齋室)로 김해김씨 문중의 추원재(追遠齋), 성헌재(城軒齋), 죽헌정

사(竹軒精舍)가 있으며, 밀양박씨 문중에도 근년에 건립한 재실이 있다. 이외에도 김해김씨 문중의 공적비, 추모비, 행적비가 있다.

### 1) 마을

- ◎ 대편: 연구실 동쪽에 있는 마을
- ◎ 상촌 : 연구실 남쪽에 있는 마을
- ◎ 영대(永大, 영귀실, 영이곡, 연구실, 개옥) : 영대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옥동(玉洞) : 영대 서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당산 : 영대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정월 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냄
- ◎ 바꿈산 : 영대리 동쪽에 있는 산으로 한발이 계속되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음
- ◎ 불당산(佛堂山) : 옛날에 불당이 있었다고 하여 불당산이라 함
- ◎ 울티산 : 구름당골 남쪽에 있는 산으로 밤나무가 많다고 함
- ◎ 조산모(造山慕) : 영오초등학교 앞에 있는 조산

### 3) 들, 논

- ◎ 낭끝들 : 옥동 서북쪽에 있는 들
- ◎ 보통 : 옥동 앞에 있는 들
- ◎ 섬들 : 상촌 남쪽에 있는 들
- ◎ 호미등(虎尾燈) : 산등이 호랑이 꼬리와 같이 생겼다고 함

### 4) 골

- ◎ 갓골 : 옥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고름장골 : 영대리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고재장터로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음
- ◎ 구름당골 : 성짓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고 함
- ◎ 도래골 : 성곡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맨발골 : 칭기 밑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메밀밭이 있었음
- ◎ 무덤짓골 : 당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범골 : 지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분목골 : 평정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빨당골 : 새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음
- ◎ 새납골 : 중승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새똥골 : 지징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새잉골 : 외앤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새지골 : 토생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성짓골 : 빨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외앤골 : 울티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중승골 : 도래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중이 살았다 함
- ◎ 지시골 : 범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지중골 : 무듬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지징골 : 외앤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칭기밀 : 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옥동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토생밭골 : 난대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핑정골: 지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땡핀재 : 땡핀에 있는 고개
- ◎ 성곡(성고재, 성티) : 연화봉 서북쪽에 있는 고개로 영현면 연화리로 감

#### 6) 기타

- ◎ 구름당골너드렁 : 구름당골에 있는 너설
- ◎ 섬들보 : 섬들에 물을 대는 보
- ◎ 안산모티이 : 옥동 남쪽에 있는 모룽이
- ◎ 영대교 : 영대에 있는 다리로 1932년에 준공
- ◎ 영대저수지 : 영대 동남쪽에 있는 저수지
- ◎ 옥동교(玉東橋) : 옥동 서쪽에 있는 다리로 1932년에 준공
- ◎ 지시골보 : 지시골에 있는 보
- ◎ 진납등 : 옥동 남서쪽에 있는 긴터버덩
- ◎ 횃대등 : 연구실 남동쪽에 있는 등성이



## 2. 오서리(吾西里)

오서리는 단일 법정리로 형성된 마을이다. 본래 진주군 오읍곡면(吾邑谷面) 지역인데 속칭 읍실로 불렸다. 읍실의 서쪽이 오서리로 1895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에 급곡면의 덕계, 성산, 석계동 일부를 병합하여 영오면의 오서리로 하였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약 400여 년 전에 충주석씨가 입촌하면서 부터로 잡고 있다. 연화산 산록에 자리하며 서쪽은 영천강을 경계로 진주시 금곡면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은 연화산맥을 경계로 영현면 연화리와 접하여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과평윤씨, 전주최씨, 철성이씨, 여산송씨, 충주석씨, 김해김씨, 칠원제씨, 창원황씨 등이다. 마을에는 동산재(東山齋), 화강재(花岡齋), 도양재(道陽齋), 모성재(募誠齋), 고부쌍열사적비(姑婦雙烈事蹟碑)가 있다.

### 1) 마을

- ◎ 떡개골 : 오서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떡집이 있었다고 함
- ◎ 새터(신기) : 오서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싯밭 : 오서 북쪽에 있는 마을
- ◎ 안골 : 떡개골 남쪽에 있는 마을
- ◎ 오읍골(吾邑谷, 읍실, 오읍실) : 오동리의 읍실

### 2) 산

- ◎ 갓골산 : 오서 남쪽에 있는 산
- ◎ 당피산(당향산) : 새터 동남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대치물 : 오서 남쪽에 있는 들
- ◎ 대티들 : 새터 근처에 있는 들
- ◎ 두리면당 : 오서 서쪽에 있는 들
- ◎ 못들 : 읍실 서북쪽에 있는 들
- ◎ 웃들 : 오서 서쪽에 있는 들
- ◎ 하골들 : 오서 서남쪽에 있는 들

### 4) 골

- ◎ 갯골 : 오서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공서밭골: 오서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 ◎ 구릿골 : 새동네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구시(구유)형국이라 함
- ◎ 새동네 : 점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차나골 :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 점골 : 오서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웅기점이 있었음

### 5) 기타

- ◎ 오서지(吾西池, 전골못) : 오서 동남쪽에 있는 저수지
- ◎ 사평보(砂平洑) : 오서리와 금쪽간에 있는 둑

## 3. 오동리(吾東里)

오동리는 단일 법정리로 형성된 마을로 본래 진주군 오읍곡면(吾邑谷面)의 지역인데 오읍곡(속칭 읍실)의 동쪽이 되므로 오동(吾東)이라 하였다. 1895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영오면의 오동리가 되었다. 마을은 약400여 년 전에 달성서씨가 입촌하여 집성촌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마을 서북쪽으로는 진주시 금곡면과 접하며 영오천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달성서씨, 여양진씨, 전주이씨, 진양강씨 등이다. 마을에는 영모재(永慕齋), 동화정(東華亭), 백원정(百源亭) 등이 있다.

### 1) 마을

- ◎ 구복(龜伏, 구복골) : 오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오동(吾東) : 오읍곡의 동쪽에 해당되므로 오동이라 함
- ◎ 오읍곡(오읍곡, 오읍골, 읍실) : 오동과 오서리의 오서에 걸쳐 있는 큰 마을
- ◎ 옥동(윤촌) : 오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동아재 : 오동 남쪽에 있는 산으로 동이처럼 생겼다 함
- ◎ 소산 : 구시밭골모티이 북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내앤들 : 정지배기 서쪽에 있는 들

- ◎ 마당배미 : 오동 서북쪽에 있는 논
- ◎ 매구배미 : 오동 북쪽에 있는 논
- ◎ 부전배미 : 매구배미 위쪽에 있는 논
- ◎ 새모실 : 재당구미 동쪽에 있는 들
- ◎ 온숫들 : 온숫골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새모실 밑에 있는 논
- ◎ 재당구미 : 내인들과 정자배기 사이에 있는 들
- ◎ 정자배기 : 오동 북서쪽에 있는 논으로 정자나무가 있음
- ◎ 중섬 : 오동 북쪽에 있는 들

#### 4) 골

- ◎ 강생이밭골 : 쇠젓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거문대이밭골 : 강생이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대밭골 : 큰집골 밑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방아골 : 화성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생인골 : 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쇠젓골 : 온숫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약새밋골 : 오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약새미가 있음
- ◎ 온숫골 : 구북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온수가 났다고 하는데 샘은 불치병에 걸린 손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산신령의 도움으로 찾아냈다고 전함
- ◎ 큰골 : 오동 동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화성골 : 생인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5) 기타

- ◎ 구시밭골모티이 : 윤촌에서 오동으로 가는 모퉁이
- ◎ 내앤보 : 내인들에 물을 대는 보
- ◎ 약새미 : 약새밋골에 있는 샘
- ◎ 온수교(溫水橋) : 오동 동북쪽에 있는 다리
- ◎ 온수지(溫水池, 온숫골못) : 온숫골에 있는 못
- ◎ 진쏘 : 오동 북쪽에 있는 긴 소

#### 4. 영산리(永山里)

영산리는 본래 진주군 영이곡면(永耳谷面) 지역인데, 1895년에 고성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에 영서, 성산, 동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영서와 성산의 이름을 따서 영산리라 하였다. 행정리로 신흥, 성산, 낙안의 3개 마을이 있다.

신흥마을은 1984년에 영산리 신흥마을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임란 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양정씨가 입촌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 뒤의 도사(道斯)산맥이 북쪽에서 남으로 뻗어 내린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북쪽은 진주시 금곡면과 경계를 하고 있으며 마을 앞의 들판은 영오면 영오천이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정씨, 전주최씨와 신안주씨 등이다. 마을에는 진양정씨 문중의 영계재(永溪齋)와 전주최씨 문중의 재실이 각각 있다.

성산마을은 1984년에 영산리 성산마을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임란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해김씨가 약 400여 년 전에 입촌하여 대성을 이루었으며 다음에 영월엄씨, 강능유씨 등 제씨가 입촌하면서 현재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은 용암산을 주봉으로 뻗어 내린 산록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으로는 마을 뒷산을 경계로 진주시 금곡면 가봉리와 접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영월엄씨, 강능유씨, 진양정씨, 전주이씨, 밀양박씨, 밀양손씨, 칠원윤씨, 진양강씨, 안동김씨 등이다. 마을에는 김해김씨 문중의 추원재(追遠齋), 성헌재(城軒齋), 죽헌정사(竹軒精舍)가 있으며 밀양박씨 문중에서 건립한 재실도 있다. 그리고 행적비(行蹟碑), 연호정사(蓮湖精舍), 경일재(敬逸齋), 추모재(追慕齋) 등도 있다. 마을 어귀에 약 350여 년 된 회나무가 있는데 꽃이 피면 꽃 중에 소리 나는 꽃이 있어 이 꽃을 찾아 따 먹으면 총명해 진다고 한다.

낙안마을은 1986년 성산마을에서 행정리로 분동된 영오면의 면소재지이다. 일제 때 도로가 개설되면서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에는 낙안시장이 개설되어 인구가 점차 늘어나 오늘과 같은 마을로 형성되었다. 영오천과 개천천이 합류하는 삼각지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앉은 형상이라 하여 예로부터 평사낙안(平沙落雁)이라 하였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밀양박씨, 단양우씨, 경주정씨, 진양정씨, 남원양씨, 달성서씨, 인천채씨, 안동김씨, 파평윤씨, 전주최씨, 광산김씨, 인동장씨, 창원구씨 등이다. 마을 동쪽 산기슭에 독립지사 강영순(姜永淳)공의 독립운동 공적비와 영오면에 최초로 전기를 가설한 윤두상(尹斗相)의 공적비와 김해김씨 문중의 효행비(孝行碑)가 있다.

## 1) 마을

- ◎ 갯바이들(입암) : 신흥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낙안(落鴈, 낙안들) : 성산 남쪽에 있는 마을
- ◎ 성산(城山) : 영산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신흥(新興) : 잡실 서쪽에 있는 마을
- ◎ 자읍곡(自邑谷, 자실) : 성산 서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미미산 : 성산 동쪽에 있는 산
- ◎ 신흥뒷산 : 신흥 뒤에 있는 산

## 3) 들, 논

- ◎ 떡뱅이들 : 신흥 앞에 있는 들
- ◎ 미산들 : 성산 동쪽에 있는 들
- ◎ 밤밭들(밤벚들) : 성산 동쪽에 있는 들

## 4) 골

- ◎ 까분다리(아주까리) : 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떡골 : 성산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못이 있었다고 함
- ◎ 새밋골 : 잡실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샘이 있었다고 함
- ◎ 생곡(生谷, 생골) : 성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소천밭골 : 생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절골 : 성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접시골 : 소천밭골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잡실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 5) 고개

- ◎ 가래고개(갈티) : 갯바이들 북쪽에 있는 고개
- ◎ 대월고개(대우러치, 대월티) : 잡실 서쪽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갯바구(입암) : 갯바이들 서북쪽에 있는 바위

- ◎ 농바구 : 잡실 북동쪽에 있는 바위
- ◎ 미산보(尾山洑) : 미산들에 물을 대는 보
- ◎ 밤밭들보 : 배암들에 물을 대는 보
- ◎ 천자쏘 : 낙안들 서쪽에 있는 소

## 5. 성곡리(省谷里)

성곡리는 본래 진주군 영이곡면(永耳谷面) 지역으로 생실 또는 생곡이라 하였는데 1895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에는 영동 일부를 병합하여 영오면의 성곡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행정리로 생곡(生谷)과 금산(金山)마을이 있다.

생곡마을은 1984년에 성곡리 생곡마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약 400년 전으로 임란 때 단양우씨가 가식산에서 피난하여 정착하면서 부터로 알려져 있다. 비슷한 시기에 경주김씨도 입촌하였으며 약 100년 전에는 밀양박씨가 입촌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다. 마을은 남쪽의 연화산 줄기가 뺏어내려 마을 앞 뒷산을 형성하고, 생곡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단양우씨, 경주김씨, 밀양박씨, 김해김씨 등이다. 마을에는 농산정(農山亭)과 경주김씨 문중의 모선재(慕先齋), 단양우씨 문중의 가식재(嘉植齋)와 오봉재(五鳳齋)를 비롯하여 가식산 기슭에는 가서사(嘉書祠)가 있다. 비각(碑閣)으로는 마을 입구에 경주김씨의 쌍효각(雙孝閣)과 마을 서쪽 입구의 밀양박씨의 선행비가 있다.

금산마을은 본래 영오면 성곡리에 속하였는데 옛날에 마을 뒷산에서 금이 나왔다고 하여 생금산으로 불렸으며 1984년에 성곡리 금산마을이 되었다.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임란 때로 당시 오씨가 살았다고 한다. 마을은 남으로 연화산을 주봉으로 뺏어 내린 산줄기가 마을 앞 뒷산을 형성하고 정수곡에서 원류하는 하천이 합류하는 금산천 앞으로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수원백씨, 진양정씨, 경주이씨, 김해김씨 등 체씨가 살고 있다. 마을에는 진양정씨 문중의 귀후재(歸厚齋)와 수원백씨 문중의 의남재(以南齋)가 있다. 비각으로는 수원백씨 문중의 백초월대선사(白初月大禪師)의 순국비와 효행비가 있다.

### 1) 마을

- ◎ 금산(金山, 생금산) : 생곡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생곡(生谷, 생실) : 성곡리
- ◎ 웃땀 : 생곡 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감티재 : 옷땀 동남쪽에 있는 산
- ◎ 대장산 : 대장골에 있는 산
- ◎ 새갓앞다 : 중산골 북쪽에 있는 산
- ◎ 안맷산 : 진등 북쪽에 있는 산
- ◎ 점뒤가닥 : 안맷산 북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개넛들 : 생곡 북동쪽에 있는 들
- ◎ 대밭논 : 전남들에 있는 논
- ◎ 전남들 : 생곡 북쪽에 있는 들로 전나무가 있었다고 함
- ◎ 청애배미 : 개넛들에 있는 논으로 청어를 주고 얻은 논이라 함

## 4) 골

- ◎ 가시골 : 작은 젓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감치락골 : 부목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대장골 : 생곡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대장밭골 : 생곡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딛골 : 대장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매산이골 : 새갓앞다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배락맞은골 : 생곡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어느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함
- ◎ 배장골 : 대장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부목골 : 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불매골 : 금산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 ◎ 오가실 : 대밭등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오가가 살았다고 함
- ◎ 윗배장골 : 배장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
- ◎ 작은젓골 : 생곡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정시골 : 감치락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중산골 : 점뒤앞다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금산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큰젓골 : 금산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 통시골 : 오가실 남쪽에 있는 골짜기

### 5) 기타

◎ 농바우 : 감티재에 있는 바위

◎ 대밭등 : 정시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

◎ 매산이바구 : 매산이골에 있는 바위

◎ 머리엿은등 : 설매등 북쪽에 있는 등성이

◎ 물미큰등 : 통시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

◎ 새밧등 : 부목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

◎ 설매등 : 멩에등 동북쪽에 있는 등성이

◎ 쌍효문 : 대장산 밑에 있는 정문

◎ 이름없는등 : 머리엿은등 북쪽에 있는 등성이

◎ 진등 : 이름없는등 북쪽에 있는 등성이

## 6. 연당리(蓮塘里)

연당리는 본래 진주군 영이곡면 지역인데, 1895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고성군에 연향과 본당을 병합하여 영오면의 연당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범계(帆溪), 연촌(蓮村), 본양(本陽), 악양(岳陽)등 4개 마을이 있다.

범계마을은 기러기가 내려앉는 격인 평사낙안마을의 상류에 위치하여 돛단배가 시내에 떠있는 듯 평온한 마을이라 하여 지명으로 삼았다. 광복 후 귀환동포가 정착하면서 가구수가 늘어나 행정리로 분동되었다. 마을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원주(原住)한 성씨가 김녕김씨, 김해김씨, 진양정씨로 전한다. 마을은 낙안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북쪽으로 낙안마을과 접하고 있다. 진양정씨, 김녕김씨, 김해김씨, 고성박씨, 고성이씨, 인동장씨 등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에는 진양정씨 문중 재실인 모남재(慕南齋)가 있다.

연촌마을은 본래 연당리로 마을 안 연못에 연(蓮)이 있다하여 연당이라 불렀는데 광복 후 인구가 증가되면서 행정리로 분동되어 연촌으로 하였다.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임란 후부터 김녕김씨가 입촌하여 정착하였고 그 뒤에 선산김씨와 진양정씨가 입촌하였다고 한다. 마을은 선유산을 주봉으로 동남쪽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맥이 앞·뒷산을 이룬 산골짜기에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녕김씨, 인동장씨, 진양강씨 등 제씨가 살고



있다. 마을에는 연당리고분군이 있으며 마을 입구에 파평윤씨 문중의 열녀비와 밀양박씨 문중의 효열비가 있다.

본양마을은 연당리의 중심마을로 원래 본양 또는 본댕이, 본당으로도 불려왔으나 연당리를 행정리로 분동하면서 본양이라 하였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임란을 전후하여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을은 선유산을 주봉으로 하여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지맥의 산록 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하씨, 김해김씨, 진양정씨, 전주이씨, 여흥민씨, 밀양박씨, 진양강씨, 청송심씨, 파평윤씨 등이다. 마을에는 진양하씨 문중 재실인 연산재(蓮山齋)가 있다.

악양마을은 본래 연당리에 속한 마을로 악양 또는 앵동으로 불렸으나 연당리를 행정리로 분동하면서 악양이라 하였다. 마을은 약 200여 년 전 진양하씨가 본양에서 이곳으로 이주하면서부터 형성되었다. 서북쪽으로 시리봉을 경계로 진주시 진성, 문산, 금곡면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 건너편에 선유산이 높이 솟아 필봉을 이루고, 용이 가로누운 형상과 같은 용당동이 뻗어 있으며 서쪽은 말이 누워있는 형상이라 하는 말티재가 있다. 옛날 진주와 서울을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하씨, 진양정씨, 의령여씨, 영월신씨 등이다.

### 1) 마을

- ◎ 범계(帆溪, 신흥, 신촌) : 연행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본당(本塘, 본양, 본댕이) : 연당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앵동(액양, 악양) : 본당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연당(蓮塘) : 연당리에서 중심 되는 마을
- ◎ 연촌(蓮村, 연행동, 지니) : 신흥 동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고름산 : 연당 서쪽 어귀에 있는 산으로 고려장이 있는 산임
- ◎ 당산 : 보양 동쪽에 있는 산
- ◎ 덧재 : 본양 뒤에 있는 산
- ◎ 반모정 : 본양 남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거물전도랑들 : 액양 남쪽에 있는 들
- ◎ 고랭이 : 숲밑 위쪽에 있는 들

- ◎ 구리밭들 : 연당리에 있는 들
- ◎ 귀넷들 : 본양 동남쪽에 있는 들
- ◎ 너븐들 : 가는등 서쪽에 있는 들
- ◎ 높은도랑 : 본양 서북쪽에 있는 들
- ◎ 달구밭들 : 연당 동북쪽에 있는 들
- ◎ 독밖에 : 밋밋들 서쪽에 있는 들
- ◎ 들가운데 : 연당 서쪽에 있는 들
- ◎ 밋밋들 : 앵동까래 서남쪽에 있는 들
- ◎ 상동까래 : 연당리에 있는 논
- ◎ 서짓까래 : 상동까래 서쪽에 있는 논
- ◎ 석짓걸 : 본양 북동쪽에 있는 논
- ◎ 숲밑 : 연당 서쪽 어귀에 있는 들
- ◎ 친구실 : 본양 서쪽에 있는 들
- ◎ 앵동까래 : 서짓까래 서쪽에 있는 논
- ◎ 자갈들 : 연당 서북쪽에 있는 들
- ◎ 자갈배미 : 진배미 밑에 있는 작은 논
- ◎ 장구배미 : 구리밭들에 있는 논
- ◎ 진밭들 : 집텃골 서쪽에 있는 들
- ◎ 진배미 : 집텃골에 있는 논
- ◎ 칭개당 : 액양 동남쪽에 있는 들
- ◎ 태밑 : 본양 서남쪽에 있는 들
- ◎ 휘양배미 : 친구실 서쪽에 있는 논

#### 4) 골

- ◎ 군봉골 : 배천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까분짓골 : 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당집골 : 본양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올텃걸 : 액양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배천골(배천곡) : 연당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백정이 살았다고 함
- ◎ 산지나뭇골 : 액양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제를 지냄
- ◎ 상사골 : 연당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새골짜 : 까분짓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성짓골 : 상사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쑥골 : 연당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아박골 : 새골짜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안골 : 연당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작은골 : 본양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 집텃골 : 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채봉골 : 아박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본양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포목골 : 액양 동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군봉곡 : 연당 남쪽에 있는 고개
- ◎ 매안곡 : 연동 남쪽에 있는 고개
- ◎ 안막골 : 연당 동남쪽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꽃밭등 : 본양 동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참꽃이 많다고 함
- ◎ 뗏밭등 : 바린등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바린등 : 꽃밭등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상사등 : 상사골에 있는 등성이
- ◎ 솔등재 : 아릿맷등 서쪽에 있는 등성으로 큰 솔이 있다고 함
- ◎ 아릿맷등 : 옷맷등 아래쪽에 있는 등성이
- ◎ 연당교 : 연당 서북쪽에 있는 다리
- ◎ 연못(연지) : 연당 서쪽 어귀에 있는 못으로 연꽃이 많음
- ◎ 우정(牛亭) : 연촌마을 입구 오른쪽 어귀에 있는 바위
- ◎ 옷맷등 : 연당리에 있는 등성이
- ◎ 진등 : 본양 동쪽에 있는 긴 등성이

### 7. 양산리(陽山里)

양산리는 본래 진주군 영이곡면(永耳谷面) 지역인데, 1895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고 1914

년에 영오면의 양산리라 하였다. 행정리로 양기(陽基)와 양월(陽月)의 2개 마을이 있다.

양기마을은 1914년 양산리에 속하였으며, 광복 후 인구가 증가하여 행정리로 분동되면서 양기라 하였다. 양기, 양호동, 수동 등 3개 취락이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임란 전에는 주씨가 거주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살고 있지 않다. 임란을 전후하여 삭녕최씨가 진주시 진성면에서 이주하여 왔으며, 약 300년 전에는 김해김씨가 입촌하였다. 마을은 북쪽에 병풍처럼 둘러있는 산을 경계로 진주시 진성면과 접하며, 동남쪽은 개천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삭녕최씨, 김해김씨, 전주최씨, 영강유씨, 달성서씨, 만산송씨, 강능구씨, 밀양박씨, 진양정씨, 분성배씨 등이다. 마을에는 동락정(東洛亭), 삭녕최씨 문중의 모호재(募湖齋), 김해김씨 문중의 경양재(景陽齋)가 있다. 비각으로는 김해김씨의 효행비가 있다.

양월마을은 양산리에 속해 있는 마을로 광복 후 인구가 증가되면서 행정리로 분동되었다. 취락으로 양월과 매월동이 있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400년 전 경으로 전주이씨와 파평윤씨가 입촌하면서 부터이다. 마을 북쪽은 진주시 진성면과 경계를 이루며 마을 건너에는 선유산이 솟아있고 그 기슭에 매월동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이씨, 파평윤씨, 경산전씨, 나주임씨, 진양강씨 등이며 마을에는 전주이씨 문중의 송산재(松山齋), 영광유씨 문중의 선양재가(仙陽齋)가 있다.

### 1) 마을

- ◎ 마덜(매월, 마월, 마드래) : 양월 동쪽에 있는 마을
- ◎ 머릿골(신기, 수곡) : 양월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윗양산(양월) : 양기 동쪽에 있는 마을
- ◎ 아래양산(양기) : 매월 서쪽에 있는 마을
- ◎ 양기새땀 : 양기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양월(陽月) : 양기 동쪽에 있는 마을
- ◎ 양월새땀(새땀) : 양월에 있는 새로 된 마을

### 2) 들, 논

- ◎ 고랭이들 : 매월 북쪽에 있는 들
- ◎ 구시도랑들 : 머릿골 앞에 있는 들
- ◎ 덩달도랑들 : 매월 동북쪽에 있는 들
- ◎ 도지맛도랑들 : 지픈도랑 밑에 있는 들

- ◎ 들땀 : 새땀 북서쪽에 있는 들
- ◎ 새도랑들 : 구시도랑들 밑에 있는 들
- ◎ 새들 : 양산 동쪽에 있는 들
- ◎ 새땀들 : 새땀 앞에 있는 들
- ◎ 새미도랑들 : 매월 앞에 있는 들
- ◎ 새땃들 : 양산 앞에 있는 들
- ◎ 지픈도랑들 : 양기 앞에 있는 들
- ◎ 허무도랑들 : 양월 앞에 있는 들

## 4) 골

- ◎ 감남골 : 매월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많았다 함
- ◎ 골고랑 : 매월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도룡골 : 장재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방뜸골 : 선유산(구산천)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백암골 : 단양우씨 선조인 선략장군(宣略將軍) 묘소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영오와 대천 등지에서 진주의 반성장으로 가는 큰길이었다.
- ◎ 작은골 : 범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장재터 : 감남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범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돈뺑 : 양월 동남쪽에 있는 고개로 돈치기를 많이 하였다 함
- ◎ 백암고개(백암티) : 양기 서북쪽에 있는 고개
- ◎ 사지미기 : 매월 동남쪽에 있는 고개로 지형이 사자형국이라 함
- ◎ 소재곡 : 양산리에서 개천면 명성리로 가는 고개
- ◎ 수리재 : 양산리에서 진양군 남산리 남사로 가는 고개
- ◎ 아랫백암고개 : 매암고개 아래쪽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구구리등 : 자래등 서쪽에 있는 등성이
- ◎ 굴바구 : 매월 동남쪽에 있는 바위로 호랑이굴이 있다 함

- 너북등 : 구구리등 동쪽에 있는 등성이
- 대밭등 : 매월 서쪽에 있는 등성이
- 삼각바구 : 굴바구와 진너드령 사이에 있는 바위
- 서남배기 : 농바구 서쪽에 있는 바위로 서나무가 있었다 함
- 성지바구(형제바구) : 머릿골 동쪽에 있는 바위
- 이정지 : 양기 앞에 있는 정자나무로 서나무 두 그루인데 두 아름이나 됨
- 자래등 : 머릿골 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지형이 자라모양임
- 장군너드령 : 진너드령 북쪽에 있는 너설
- 장군뚝병 : 매월 동쪽에 있는 뚝병
- 장군새미 : 장군너드령 북편에 있는 샘
- 짐모통이 : 머릿골 동북쪽에 있는 모롱이로 용기점이 있었다고 함
- 진너드령 : 굴바구 밑에 있는 너설

## 제 11절 영현면(永縣面 Yeonghyeon-myeon)

군의 북서부에 있는 면이다. 북서쪽은 진주시 금곡면에 접하고 서쪽 양전산(311m), 대곡산(545m), 천황산(343m)으로 이어지는 산지를 경계로 상리면과 접한다. 북동쪽은 연화산도립공원에 속하는 연화산(524m), 혼돈산(499m), 어산(534m)이 영오면과 개천면의 경계가 된다. 동쪽은 석창산(336m), 송구산(527m), 남쪽은 천황산(343m)이 각각 대가면과 상리면과의 경계를 이룬다. 산지들이 면을 둘러 『광여도』의 상리면 일대를 싸고 있으며 안쪽에는 추계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대가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영천강에 합류한다.

『삼국사기지리지』에서는 고성의 세 개 영현(領縣) 중 하나인 상선현(尙善縣)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본래 일선현(一善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고 한다. 고려시대에 영선현(永善縣)으로 지명이 바뀌고, 1018년(고려 현종 9) 진주목에 편입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영선현, 『여지도서』(진주)에는 영현(永縣) 그리고 『호구총수』에는 영현리(永縣里)로 진주목 남면에 속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1906년(광무 10) 개천면 등 다른 5개면과 함께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2000년 대가면 신전리 일부가 대법리에 편입되었으며, 현재 면 소재지 침점리를 비롯하여 8개 법정리를 관할한다. 『대동여지도』에는 지명으로 영선을 적었지만 고현(古縣)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영창역(永昌驛)을 표시하는데, 『여지도서』(진주)에 “영창역은 관아의 남쪽52리에 있다. 동쪽으로 고성 송도역까지 60리, 서쪽으로 곤양 완사역까지 90리이며, 북쪽으로 소촌 본역까지 60리이다.” 라고 수록하

였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진주)에 따르면 인담부곡(麟潭部曲), 송자부곡(松慈部曲), 복산향(福山鄉)이 영선현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고성의 영현을 언급하면서, “문화량현(蚊火良縣)은 지금은 알 수 없다.” 고하였는데, 『대동여지도』에는 면 남쪽에 문화량을 고현(古縣)으로 표시하고 있다.

## 1. 침점리(砧店里)

침점리는 본래 진주군 영선면(永善面)지역인데 1906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한일합방 이전에는 관동으로 칭하다가 이후 침촌과 점촌의 첫 글자를 따서 침점리가 되었다. 1984년에는 분동하여 행정리로 침점1구와 침점2구 마을이 있다. 마을은 가장 먼저 평강채씨, 삭영최씨, 달성서씨 등이 입촌하면서 형성되었다. 1670년경에는 평택임씨가 입촌하고 다음으로 단양우씨, 김해김씨, 김녕김씨 등 제씨가 입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침점 1구는 영현면의 중심지에 위치한 면소재지 마을로 동쪽은 금태산의 두 줄기가 뺨어내려 있고 서쪽은 영천강이 서북으로 흐르고 강 주변에는 비교적 넓은 들판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단양우씨, 평택임씨, 온양방씨 등 제씨가 살고 있다. 마을에는 단양우씨 문중의 재실이 있다.

침점2구는 마을 뒷산의 형세가 어미돼지가 새끼돼지를 거느리고 잠자는 형세와 같다 하여 저침실이라 불렀는데, 1914년에 침점리라 하여 영현면에 편입되고 1984년에 분동되면서 침점2구라 하였다. 1592년에 진양강씨가 임진왜란을 피해 입촌하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강씨 집성촌이며 전주최씨 등이다.

### 1) 마을

- ◎ 간동(間洞, 점촌, 묵은역골) : 침촌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쇠점이 있었으며 영선현에 딸린 영창역(永昌驛)이 있었다고도 한다. 이조 중엽의 역촌(驛村)임
- ◎ 침촌(砧村, 저침실) : 점촌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쇠덩이 : 철을 달군 곳 소등을 뜻하며 임란 때 소등을 탄 장군이 있었다고 전함

### 2) 들, 논

- ◎ 범벅배미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으로 흉년에 범벅(떡)을 얻어먹고 이 논을 주었다고 함
- ◎ 장구배미 : 점촌 남쪽에 있는 논

◎ 진상배미 : 범벽배미 밑에 있는 논

### 3) 골

◎ 거뭇내골 : 침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

◎ 금텃골 : 금태산 밑에 있는 골짜기

◎ 미양골 : 침촌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부의밭골 : 작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뽕나무골 : 지비젓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뽕나무가 있었다고 함

◎ 서젓골 : 점촌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골 : 큰골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정지나무골 : 침촌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정자나무가 있었다고 함

◎ 제갯골 : 지릿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계를 모아 샅다고 함

◎ 지비젓골 : 정지나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지릿골 : 부의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큰골 : 거뭇내골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 4) 고개

◎ 느지만치고개 : 느지에서 옥천사로 가는 고개

### 5) 기타

◎ 가매쏘 : 점촌 남쪽에 있는 깊은 소

◎ 거뭇너드렁 : 거뭇내골에 있는 너설로 검은 빛깔이라 함

◎ 거안산(居案山) : 거사안산으로 맞은편의 억고산 밑에 거사 수십 명이 거주한 흔적이 남아 있음

◎ 금태바우 : 점촌 동쪽 금태산에 있는 바위

◎ 깨진바우(배락바우) : 큰 바우 동쪽에 있는 바위로 벼락을 맞아 여러 조각으로 깨어 졌음

◎ 벼락바위 : 침전리에 있는바위로 옛날 장군이 숨어 피신한 곳으로 일명 장군바위라 부르고 있으며 수륙십자로(水陸十字路)의 청석바위와 다리 등이 있음

◎ 배룻골 : 점촌 남동쪽에 있는 모퉁이로 대법리로 통합

◎ 영현장 : 침점리에 있는 5일장으로 4일과 9일에 섬



- ◎ 원땃겉모퉀이 : 점촌 북쪽에 있는 모퉀이로 조선시대 원집이 있었다고 전함
- ◎ 큰바우 : 침촌 동쪽에 있는 큰 바위
- ◎ 연화리국창 : 이조 중엽 이 곳에 국창을 설치하여 현곡을 징수, 보관하는 도감이 있었다고 함
- ◎ 절터 : 연화1구 통일신라 진불암이 있던 자리로 석불과 삼층석탑이 있음

## 2. 추계리(楸溪里)

추계리는 단일 법정리로 형성된 마을로 본래 진주군 영선면(永善面) 지역으로 가리재 고개 밑에 마을이 있다하여 가리재 또는 추현이라 하였는데, 1906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에 영현면 추계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650년경 달성서씨와 진양정씨가 맨 먼저 입촌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동·서·남쪽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골마을로 선바위산 골짜기에서 원류하는 냇물이 마을 앞을 지나 영천강으로 흐르며 농경지는 계단식 천수답이 많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진양강씨, 장흥마씨, 전주최씨, 함안조씨, 창원황씨, 완산전씨 등이다.

### 1) 마을

- ◎ 반장땃 : 추현 북쪽에 있는 마을로 반장재 밑임
- ◎ 새땃 : 추현 남쪽에 새로 된 마을
- ◎ 큰땃 : 추현 북쪽에 있는 큰 마을

### 2) 산

- ◎ 갈내비알 : 추현 동북쪽에 있는 산
- ◎ 석장산(石場山) : 추현 동북쪽에 있는 산
- ◎ 앞산면당 : 추현 앞에 있는 산

### 3) 들, 논

- ◎ 골턱배미 : 반장땃 앞에 있는 논
- ◎ 굽턱배미 : 도밤논 남쪽에 있는 논
- ◎ 닷마지기 : 추현 서쪽에 있는 논
- ◎ 도밤논 : 큰들 남쪽에 있는 논
- ◎ 말배미 : 큰들 북쪽에 있는 논으로 생김새가 말(斗) 모양이라고 함

- ◎ 염불배미 : 말배미 밑에 있는 논
- ◎ 집앞들 : 추현 앞에 있는 들
- ◎ 큰들 : 추현 북쪽에 있는 들
- ◎ 한질배미 : 큰들 위쪽에 있는 논

#### 4) 골

- ◎ 가장골 : 풀밭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매장으로 했었다고 함
- ◎ 굴밭굼텅 : 주먹바구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굴바우가 있음
- ◎ 절골 : 진밭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함
- ◎ 중산골 : 중산골면당에 있는 골짜기
- ◎ 진골 : 중산골 북쪽에 있는 긴 골짜기
- ◎ 진밭골 : 추현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긴 밭이 있었음
- ◎ 풀밭골 : 절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가리재 : 추계리에 있는 고개
- ◎ 갈재 : 가장골 서남쪽에 있는 고개로 가래나무가 있었다고 함
- ◎ 반장재 : 추현 동북쪽에서 대가면 갈천리 안갈내로 가는 고개
- ◎ 종생잇재 : 추현에서 갈천리의 종생으로 가는 고개
- ◎ 해비잇재 : 예순네갯굼텅 북동쪽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굴바우 : 굴밭굼텅에 있는 바위
- ◎ 꽃밭등 : 반장재와 큰땀 사이에 있는 등성으로 진달래꽃이 많이 핀다고 함
- ◎ 너북등 : 중산골 위쪽에 있는 등성
- ◎ 선바구 : 선밭등에 있는 바위
- ◎ 선바위등 : 추계 마을의 동남쪽 산 능선에 옛날 마을 아낙네들이 들에서 품앗이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한 아낙이 "바위가 걸어간다."고 외치자 여럿이 보는 순간 바위가 산등성에 우뚝 섰다고 함
- ◎ 아랫진골등 : 진골 아래쪽에 있는 등성이
- ◎ 웃진골등 : 진골 위쪽에 있는 등성이

- ◎ 주먹바구 : 추계리에 있는 바위로 주먹처럼 생겼다고 함
- ◎ 큰너드렁 : 추현 남서쪽에 있는 너설
- ◎ 화짓등 : 가장골 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조선 말엽에 마상락(馬相樂)이 과거에 급제하여 화짓대를 세웠다고 전함

### 3. 봉발리(鳳鉢里)

봉발리는 본래 진주군 영선면(永善面) 지역으로 1906년에 고성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에는 봉대(鳳台)와 발촌(鉢村), 금능(金陵)을 병합하여 영현면의 봉발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봉발1구, 봉발2구, 금능 등 3개 마을이 있다.

봉발1구는 임란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면서 지동(枝洞)으로 부르다가 그 후에 마을 서쪽 산 밑에 사찰이 들어서면서 발리 또는 발촌이라 하였다. 1914년에 분동하여 봉발1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은 동·서·남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강씨, 청주한씨, 영월엄씨, 수원백씨 등이다.

봉발2구는 1984년에 봉발리에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남원양씨, 수원백씨, 김녕김씨, 김해허씨, 동래정씨 등이다. 마을에는 동안좌목(洞案座目)과 교민록(敎民錄)이 있다.

금능마을은 예전에는 쇧등 또는 쇧띠로 불렸다. 마을 앞산과 성지골 사이의 깊은 골이 예전에 쇧를 팠던 곳이라 한다. 1914년에 영현면의 봉발리에 편입되었다가, 1984년에는 분동되어 금능마을이라 하였다. 마을은 임진란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하며 한때는 수원백씨, 김녕김씨, 영월엄씨, 진양강씨, 분성배씨, 남평문씨 등 40여 호가 거주하였다.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마을로 백운산을 경계로 상리면 고봉리와, 망림리를 경계한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수원백씨, 김녕김씨, 진양강씨, 분성배씨, 영월엄씨, 김해김씨 등이다.

#### 1) 마을

- ◎ 고무(古舞)골(봉대) : 발촌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바너절(발촌) : 췌등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췌등(금릉, 주촌) : 발촌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절골(배곡) : 발촌 남쪽에 있는 마을

2) 산

- ◎ 모성산(慕聖山) : 봉대 북쪽에 있는 산
- ◎ 무동산(舞童山) : 봉대 동쪽에 있는 산
- ◎ 바릿골(발산곡) : 발촌 서쪽에 있는 산
- ◎ 봉두산(鳳頭山) ; 봉대 남서쪽에 있는 산
- ◎ 부응디미 : 매사이바우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부영이가 있었다고 함

3) 들, 논

- ◎ 객정들(손정들) : 봉대 북쪽에 있는 들
- ◎ 구렁 : 바너절 서남쪽에 있는 들
- ◎ 기깃들 : 범바웃들 동쪽에 있는 들
- ◎ 마당배미 : 봉대앞에 있는 논으로 타작마당이 있었음
- ◎ 바탕걸들 : 몽채징이 남쪽에 있는 들
- ◎ 범바웃들 : 범바웃골에 있는 들
- ◎ 새머리 : 봉두 밑에 있는 들
- ◎ 아랫구렁 : 웃구렁 아래쪽에 있는 들
- ◎ 용밋들 : 용밋골에 있는 들
- ◎ 용운들(용의넛들) : 손정들 북쪽에 있는 들
- ◎ 웃구렁 : 구렁 위쪽에 있는 들
- ◎ 지성배미 : 아랫구렁에 있는 논으로 옛 좌수의 논이었다고 함
- ◎ 집앞들 : 바너절 앞에 있는 들
- ◎ 탐거리 : 탐거리에 있는 들

4) 골

- ◎ 갓골 : 봉발리에 있는 골짜기
- ◎ 고집골 : 셋등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고삿집이 있었다고 함
- ◎ 구멍골 : 발촌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나인곡(느렁잇골) : 금릉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다릿골 : 봉대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돌장승(돌짱재골, 돌장승, 석장승) : 봉대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딛골 : 금릉 뒤쪽에 있는 골짜기

- ◎ 반쟁잇골 : 봉대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배골 : 발촌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범바웃골 : 췌등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소금징이(염장골) : 무동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수룽골 : 췌들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많다고 함
- ◎ 신선골 : 반쟁잇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새판골 : 금릉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쇠를 파냈다고 함
- ◎ 안골 : 금릉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용밋골 : 봉대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용의 꼬리처럼 생겼다고 함
- ◎ 절골 : 신선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함
- ◎ 탑거리 : 췌등과 봉대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돌로 쌓아서 만든 탑이 있다고 함
- ◎ 텃고랑(텃골) : 금릉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퇴깃골 : 부웅디미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고실재(큰고개, 문고개) : 췌등 서쪽에서 고봉리 고실로 가는 고개로 영부리의 문고개 밑이 됨
- ◎ 돌장승재((돌짱재) : 봉대 동북쪽에서 대가면 갈천리로 가는 고개로 돌로 만든 장승이 있음
- ◎ 반장재 : 봉대 남동쪽에서 대가면 갈천리로 가는 고개

#### 6) 기타

- ◎ 고양이 바위 : 안골 논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바위로 안골이 쥐설이 되어서 쥐가 벼를 먹으러 가려 해도 고양이 바위 때문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가난이 없고 인심이 좋았다고 전함
- ◎ 너븐등 : 탑거리 서쪽에 있는 넓은 등성이
- ◎ 마당바우 : 절골 남쪽에 있는 바위로 마당처럼 넓고 편편하다고 함
- ◎ 매산이바우(매사이바우) : 용밋골 서쪽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 앞에서 “매산아”(또는 매선아)라고 소리치면 메아리가 울린다고 하는데, 구름에 가린 해가 빨리 나오라는 뜻으로 “할딱 벗은 배선아 돈 한 닢 주꾸마 춤추라” 라는 동요가 있다고 함
- ◎ 범바우 : 성지골 안에 우뚝 솟아 있는 바위로 범이 올라 앉아 있었다고 함

◎ 병풍바우 : 돌장승 북쪽에 있는 바위로 높은 바윗돌이 평풍처럼 둘러 있다고 함

#### 4. 대법리(大法里)

대법리는 본래 진주군 영선면(永善面) 지역으로 1906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에 대촌리, 법이리, 산하리, 영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대촌(大村)과 법이(法耳)의 첫 글자를 따서 대법리(大法里)로 하여 영현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대촌과 법촌의 2개 마을이 있다.

대촌마을은 본래 진주군 지역으로 큰 마을이라 하여 한담(대촌)으로 부르다가 1984년 대법리 대촌마을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은 서북쪽의 금태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은 범호산을 바라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달성서씨, 인동장씨, 밀양박씨, 밀양손씨, 수원백씨, 전주이씨, 연일정씨, 파평윤씨 등이다. 마을에는 사찰지가 있으며, 계승사의 석간수에 얽힌 전설이 전한다.

법촌마을은 옛날 버구(바위) 또는 법이(法耳)라 불렀다. 1914년에 영현면의 대법리에 병합되었으며 1984년에는 대법리 법촌마을이라 하였다. 마을의 형성 연대는 자세하지 않으나 이씨가 가장 먼저 입촌하였으며 뒤이어 1440년경에 수원백씨가 입촌하였다고 한다. 마을은 서북쪽으로 금태산과 어산이 둘러있고 마을 앞은 병풍등이 가로 놓여 있다. 마을 뒤로는 명담산이 둘러 싸여 있다. 동쪽으로는 대가면 신전리와 경계를 이룬다. 수원백씨, 청풍김씨, 김해김씨, 대안박씨, 함안조씨, 평택임씨, 인동장씨, 경주이씨 등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마을에는 수원백씨 재실인 명관재(明官齋)가 있다.

##### 1) 마을

- ◎ 금태결(산밑, 산하) : 금태산 밑에 있는 마을
- ◎ 대촌(大村, 한담) : 대법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법이(法耳, 버구, 법귀) : 대촌 동쪽에 있는 마을
- ◎ 진상골 : 법촌 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구시미 : 대촌 서쪽에 있는 산으로 지형이 구시(구유)처럼 생겼다고 함
- ◎ 굿바우 : 굿바우가 있는 산
- ◎ 금태산(金太山) : 대촌 서북쪽에 있는 산

◎ 부등디미 : 봉응디미가 있는 산

### 3) 들, 논

◎ 가분땃들 : 대촌 남서쪽에 있는 들

◎ 배방들 : 대촌 남동쪽에 있는 들

◎ 손영들 : 금태골 남쪽에 있는 들

◎ 팬논 : 배방들에 있는 논으로 어느 흉년에 팬(편덕)을 얻어먹고 이 논을 주었다고 함

◎ 한짓새들 : 가분땃들 서쪽에 있는 들로 큰 길 옆이 됨

◎ 합친배미 : 팬논 위쪽에 있는 논으로 두 배미로 나뉘어 있는데 합쳐서 한 배미로 만듦

◎ 행기배미 : 배방보들에 있는 논

### 4) 골

◎ 금땃골 : 대촌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금태산 밑이 됨

◎ 안골 : 버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땅재 : 대촌 북쪽에 있는 고개

◎ 마상정 : 버구 동쪽에서 대가면 신전리로 가는 고개

◎ 얼음장이재 : 대촌 남동쪽에서 대가면 갈천리로 가는 고개

◎ 황곶곡(황계) : 진상골 남쪽에서 대가면 갈천리 밖갈내로 가는 고개

### 6) 기타

◎ 각산등 : 큰등 동쪽에 있는 등성이

◎ 금대암터 : 금태산에 있는 금대암의 터

◎ 금태사(金太寺) : 금태골 북쪽 금태산에 있는 절. 본래 이곳에 금대암(金臺庵)이란 절이 있었는데 새로 절을 짓고 금태사라 함

◎ 부응디미 : 대촌 서남쪽에 있는 바위로 부엉이가 깃들었다고 함

◎ 산신바우 : 대촌 북서쪽 금태산에 있는 바위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함

◎ 새삼바우 : 대촌 남쪽에 있는 바위

◎ 애기무덤(여기무덤) : 애기바우 밑에 있는 무덤으로 기생의 묘라고 함

◎ 애기바우(女妓岩) : 새삼바우 밑에 있는 바위

- ◎ 장스이설등 : 행기등 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장씨의 선산이 있다고 함
- ◎ 행기등 : 대촌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황새등 : 버구 동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황새가 많았다고 함

## 5. 영부리(永芙里)

영부리는 본래 부연촌(浮蓮村)이라 하였는데 진주군 영선면(永善面)에 속하였다가 1906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영동리 일부와 부촌을 병합하여 영현면의 영부리가 되었다. 행정리로 영부(永芙)와 영동(永洞)의 2개 마을이 있다.

영부는 본래 부연촌이라 하였는데 1984년 영부리를 분동하여 영부마을이 되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수원백씨가 임란 때 입촌하면서 부터이다. 뒤이어 밀양박씨가 조선시대 인조 때 입촌하였고, 김해김씨가 효종 때 부연(浮蓮) 마을에 입촌하였으며, 진양정씨가 약 200여 년 전에 입촌하면서 현재의 마을로 형성되었다.

마을은 서쪽으로 부런이재를 경계로 상리면 고봉리에 접하며, 서남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수원백씨, 밀양박씨, 진양정씨 등 이다. 마을에는 사정자(四亭字)나무 숲과 수원백씨 문중의 화천재(華泉齋), 밀양박씨 문중의 밀산재(密山齋), 김해김씨 문중에 연산재(連山齋), 진양정씨 문중의 영봉재(永峰齋)가 있다.

영동마을은 마을 뒤 산골이 길게 흘러다 하여 길 영(永)자를 따서 영동이라 하였다. 일명 영청이라고도 부른다. 옛날 이곳에 영창역이 있었던 곳으로 역의 마위탑이 있었다. 마을은 약 1500년 전후로 형성되었으며 가장 먼저 입촌한 성씨는 주씨와 천씨이다. 그 후 1600년경에 해주오씨, 진양정씨, 김해김씨, 전주이씨 등이 입촌하여 마을이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은 동·서·남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마을 위쪽 골에서 발원한 시내(川)는 마을 앞을 흘러 영천강으로 흐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해주오씨, 진양정씨, 김해김씨, 전주이씨 등이다.

### 1) 마을

- ◎ 부촌(芙村, 부런이) : 영동 남쪽에 있는 마을
- ◎ 양달땀 : 영동서쪽에 있는 마을
- ◎ 영동(永洞, 영청) : 부런이 북쪽에 있는 마을
- ◎ 음달땀 : 양달땀 동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구시미(조산) : 영동 동쪽에 있는 산으로 지형이 구시(구유)를 닮았다고 함
- ◎ 대곡산(大谷山) : 동산 서남쪽에 있는 산
- ◎ 동산(東山) : 영동 동남쪽에 있는 산
- ◎ 맥전산(麥田山, 보리가닥) : 영동 동북쪽에 있는 산
- ◎ 성산(城山) : 영부마을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산봉우리에 성을 쌓은 석축이 남아 있음

## 3) 들, 논

- ◎ 너르실들(느리실들, 상평) : 영동 북쪽에 있는 들
- ◎ 두름배미 : 장구배미와 마당배미 산에 있는 논으로 둥그렇게 생겼음
- ◎ 마당배미 : 장구배미 동쪽에 있는 논으로 타작마당이 있었다고 함
- ◎ 마사리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으로 옛 영창역의 마위탑(馬位塔)이 있었다고 함
- ◎ 방아배미 : 장방사리 옆에 있는 논
- ◎ 밭둑들 : 영동 알에 있는 들
- ◎ 샘싯들 : 영동 앞에 있는 들
- ◎ 숲안들 : 샘싯보 밑 북쪽에 있는 들로 숲의 안쪽이 됨
- ◎ 오리전(오리밭들) : 영동 동쪽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너르실들에 있는 논으로 장구처럼 생겼음
- ◎ 장방사리 : 영동 동북쪽에 있는 논으로 쟁반처럼 생겼음

## 4) 골

- ◎ 고시남골 : 양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고시내미 밑이 됨
- ◎ 금댓골 : 영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법리의 금태산 밑이 됨
- ◎ 동산골 : 동산 밑에 있는 골짜기
- ◎ 마골짜 : 장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백당골(백탄곡) : 고시남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백탄(참숯)이 났었다고 함
- ◎ 부자곡(富子谷, 부정골) : 부촌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산짓골 : 작은 고댓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제를 지냄
- ◎ 새밧골 : 음달새미 위쪽에 있는 골짜기
- ◎ 쇠통골 : 영부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철광(鐵鑛)을 캐어 농기구 등을 만들었다고 함

- ◎ 양전곡(양전골) : 마골짜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작은고랫골 : 부정골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5) 고개

- ◎ 고시내미 : 영부에서 상리면 고봉리의 고실로 가는 고개
- ◎ 동산재 : 동산골에 있는 고개로 영부리에서 봉발리로 넘어 감
- ◎ 문고개 : 부촌 남서쪽에서 상리면 고봉리로 가는 고개
- ◎ 쇠똥곡 : 부촌 남동쪽에서 봉발리의 금릉(췌등)으로 넘어가는 고개

6) 기타

- ◎ 가미쏘 : 영동마을 동북쪽에 있는 영천강의 소(沼). 옛날에 소를 지나는 오솔길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혼인행차 가마가 서로 마주치게 되어 길을 양보하면 불길한 재앙을 당한다 하여 서로 다투다가 두 채의 가마가 소에 빠졌다고 하여 붙여짐
- ◎ 고시내미못 : 고시내미 밑에 있는 못
- ◎ 맹맹바구 : 너르실보 동쪽에 있는 바위로 명매기의 집이 있었다고 전함
- ◎ 안팍새미 : 부런이 안쪽에 있는 샘
- ◎ 음달새미 : 영동 동쪽에 있는 샘
- ◎ 파랑쏘 : 영동 동남쪽에 있는 소로 파래미(파리미)가 많았다고 함

6. 봉림리(鳳林里)

봉림리는 단일 법정리로 형성된 마을로 옛날에는 내촌(內村)마을이라 불렀다. 본래 진주군 영선면 지역으로 마을이 봉대산 밑에 있다하여 봉림이라 하였으며, 1906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에 영현면의 봉림리가 되었다. 마을은 임란 전후로 형성되었으며 파평윤씨의 집성촌이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파평윤씨가 대성을 이루고 전주이씨, 김녕김씨, 김해김씨, 은진송씨, 진양정씨, 동래정씨 등이다. 마을에는 늦전 전설이 구전되고 있다.

1) 마을

- ◎ 내촌(內村, 늦점) : 봉림 동쪽에 있는 마을로 늦점이 있었다고 함

2) 산

- ◎ 젓갓 : 서깃골 서쪽에 있는 산으로 윤씨들이 계를 모아서 산 것이라고 전함

## 3) 들, 논

- ◎ 고도방천(고동방천) : 나무실 동쪽에 있는 논으로 고동이 많았다고 함
- ◎ 곱뜰 : 새반 서쪽에 있는 논
- ◎ 나무실 : 작답 서쪽에 있는 논
- ◎ 둥그배미 : 문당들 동쪽에 있는 들
- ◎ 모사리 : 봉림 서북쪽에 있는 논
- ◎ 새들 : 늦점 동쪽에 있는 들로 새로 쌓은 독이 있음
- ◎ 새반(새밤) : 옷들에 있는 논
- ◎ 솔갱븐 : 새들 옆 냇가에 있는 논
- ◎ 숲거리 : 둥그배미 북쪽에 있는 논
- ◎ 옷들 : 봉림 동쪽에 있는 들
- ◎ 작답 : 곱뜰 서쪽에 있는 논

## 4) 골

- ◎ 가래골 : 젓갓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갓골 : 솔찌방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강구실 : 시리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나무실 : 봉림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너으골 : 갓등 북쪽 미에 있는 골짜기
- ◎ 뱅골 : 너으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서리밭골 : 큰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서짓골 : 갓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솔찌방 : 나무실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소나무가 많았다고 함
- ◎ 작은강구실 : 강구실에 있는 작은 골짜기
- ◎ 작은어드방골 : 가래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 큰강구실 : 강구실에 있는 큰 골짜기
- ◎ 큰어드방골 : 가래골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 5) 고개

- ◎ 갓골재 : 내촌 동남쪽에 있는 고개
- ◎ 솔밧재 : 내촌 북서쪽에서 사천군 금곡면으로 가는 고개

- ◎ 작은재 : 내촌 서남쪽에서 상리면 고봉리로 가는 고개로 큰재보다 작음
- ◎ 큰재 : 내촌 남서쪽에서 사천군 정동면으로 가는 고개로 인근에서는 가장 큰 고개

#### 6) 기타

- ◎ 갓등 : 강구실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도랑새미 : 두리새미 위쪽에 있는 샘
- ◎ 두리새미 ; 봉림 북쪽에 있는 샘
- ◎ 마당재 : 강구실 북쪽에 있는 버덩
- ◎ 배남골 : 왕골 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배나무가 있었다고 함
- ◎ 엉덩막 : 봉림 동북쪽에 있는 소로 언덕 밑이 됨
- ◎ 웅당 : 엉덩막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왕골 : 땡골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호박새미 : 늦점 앞에 있는 샘으로 모양이 호박(디딜방아의 확)처럼 생겼다고 함

### 7. 신분리(辰盆里)

신분리는 본래 진주군 영선면 지역인데, 1906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에 신촌과 분촌을 병합하여 두 마을의 첫 글자를 따서 신분리라 하였다. 행정리로 평촌(坪村)과 매촌(梅村), 신촌(新村)의 3개 마을이 있다.

평촌마을은 원래 미양곡의 줄기가 끝을 이룬 골짜기로 그 모양이 어미돼지가 새끼를 품고 잠을 자는 모양 같다고 하여 저침곡이라 하였다. 1914년 대홍수로 침수되어 강 건너 언덕에 마을이 새로 형성된 것이다. 마을은 혼둔산에서 뺀어 내린 미양곡의 산자락에 펼쳐진 들판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앞으로 영천강이 서북쪽으로 흐르며 강변에 들판이 조성되어 있다. 거주민은 진양강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마을에는 강씨 문중의 수상정(水上亭)이라는 서재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어지고 강씨 문중의 효자열부비가 있다.

매촌마을은 지형이 매화나무 같다하여 분매촌이라 하였다. 1914년에 영현면의 신분리가 되었고 1984년에는 신분리의 매촌마을이 되었다. 마을은 대략 임란전후로 형성되었으며 그 당시부터 거주한 성씨는 정씨로 전해지고 있다. 그 후에 진양강씨와 수원백씨가 거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마을은 동남쪽이 웅장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북쪽은 들판이 형성되어 영천강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정씨, 김씨, 유씨, 황씨, 윤씨, 손씨, 심씨, 엄씨 등이다.

신촌마을은 원래 마을 뒷산이 새우등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새비재라 하였다. 1984년에 신분리에서 분동되어 신촌이라 하였다. 마을은 혼둔산 줄기의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화골에서 원류하는 하천이 마을로 흐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밀양박씨, 경주김씨 등이다.

#### 1) 마을

- ◎ 매촌(분촌, 분매골, 분매곡, 불맷골) : 신촌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뺨덕말(평촌, 월평) : 미양산 서쪽에 있는 마을
- ◎ 새비재(신촌, 사병령) : 매촌 동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똥매등 : 약물등 동남쪽에 있는 산
- ◎ 미양산(美陽山) : 평촌 동쪽에 있는 산
- ◎ 버릿재(버릿재) : 진등 북쪽에 있는 산으로 벌이 날아가는 형국이라 함
- ◎ 지석산 : 분촌 남쪽에 있는 산으로 산제를 지냈다고 함

#### 3) 들, 논

- ◎ 갓고랑들 : 매촌 동북쪽에 있는 들
- ◎ 귀깃들(구교평) : 신촌 서남쪽에 있는 들
- ◎ 굴새뭇들 : 매촌 동북쪽에 있는 들
- ◎ 마당배미 : 매촌 앞에 있는 논으로 타작마당이 있었다고 함
- ◎ 메기배미 : 매촌 서북쪽에 있는 논
- ◎ 번넛들 : 신촌 서쪽에 있는 들
- ◎ 새들(역들) : 평촌 서남쪽에 있는 들로 새로 개간하여 넓은 들. 옛날 역에 딸렸다고 함
- ◎ 앓들 : 매촌 서북쪽에 있는 들로 용기를 구웠다고 함
- ◎ 오마들(오마평) : 평촌 북쪽에 있는 들
- ◎ 한갯들 : 신촌 서북쪽에 있는 들

#### 4) 골

- ◎ 골안 : 버릿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굴새무골 : 빈속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굴이 있는데 그 안에 샘이 있다고 함

- ◎ 나만골 : 분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미양골(미양곡) : 미양산 밑에 있는 골짜기
- ◎ 빈속골 : 매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새빛골 : 평촌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얼음골 : 새비재 북쪽 연화리에 걸쳐 있는 골짜기
- ◎ 점골 : 매촌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웅기점이 있었다고 함

#### 5) 고개

- ◎ 망고개 : 신촌 동쪽에 있는 고개로 지형이 옥토망월(玉兔望月) 형국이라 함

#### 6) 기타

- ◎ 깨목담(아기담) : 평촌마을 앞밭들에 돌이 많아 이것을 주워 모아 놓은 무덤이라 하며 옛날에 애기장을 독에 구멍을 뚫고 이 돌무덤에 매장을 하였기 때문에 아기담이라고도 함
- ◎ 굴글진바우 : 골안에 있는 바위로 산 위에서 굴글어진(당글어 떨어진) 바위라 함
- ◎ 배락바이 : 세바이 위쪽에 있는 바위로 벼락을 맞았다고 함
- ◎ 상구모티이 : 신촌 북동쪽 연화리의 경계에 있는 모퉁이로 옛 영선면의 향교가 있었다 함
- ◎ 상투바구 : 배락바이 동북쪽에 있는 바위
- ◎ 선달빼기 : 매촌 서쪽에 있는 바위로 선달이 탕건을 쓰고 서 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함
- ◎ 약물등 : 매촌 동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약물이 났다고 함
- ◎ 줄바우 : 상투바구 남쪽에 있는 바위로 줄을 지어 솟아 있다 함

### 8. 연화리(蓮花里)

연화리는 본래 진주군 영선면(永善面)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대방촌이라 하였으며, 1906년에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에 연동(蓮洞)과 화촌(花村)을 병합하여 연화리가 되어 영선면에 편입되었다. 행정리로 연화1구와 연화2구 마을이 있다.

연화1구는 1984년 연화리의 연화1구로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 중엽에 국창(國倉)이 설치되어 창촌(倉村)이라고도 불렀다. 마을은 임란 전부터 형성되었으며 최초로 입촌한 성씨는 밀양박씨이며 뒤이어 경주이씨가 입촌하였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밀양박

씨, 경주이씨, 해주오씨, 진양정씨, 달성서씨, 김해김씨 등이다. 마을에는 연화리성터, 연화산 통일사지의 미륵불과 삼층석탑이 있다. 비각으로는 연화2구의 인동장씨 가문의 열녀비가 있으며, 거창유씨 문중의 열녀비각인 표행각이 있다. 또 진양정씨 문중의 연산재(蓮山齋), 달성서씨 문중의 모선재(募先齋)와 연천재(蓮川齋), 김해김씨 문중의 경산재(景山齋)가 있다.

연화2구는 마을에 백일홍나무가 군락으로 자생해 화촌(花村)이라 하여 1984년에 연화2구로 분동되었다. 마을은 연화산을 뒤로 남북으로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다. 영현면에서 가장 인구가 적으며 인동장씨 집성촌이다. 마을에는 느티재(峙) 전설이 구전되고 있으며, 느티재 동구에는 수방각(壽芳閣)이 있다. 이는 옥산 장한우(玉山長翰遇)의 처 김해김씨 부인의 표열각(表烈閣)이다.

### 1) 마을

- ◎ 느재(느지, 화촌) : 연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대방촌(大坊村, 한짓들) : 창촌 동쪽에 있는 마을
- ◎ 창마을(연동) : 연화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창촌(倉村) : 연화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영선창이 있었음

### 2) 산

- ◎ 매봉재 : 절골 북서쪽에 있는 산으로 매처럼 생겼다 함
- ◎ 못빈양지 : 매봉재 서쪽에 있는 산
- ◎ 물무디기 : 싸릿재 북쪽에 있는 산
- ◎ 빙곡산(氷谷山) : 상봉 서남쪽에 있는 산
- ◎ 상봉(上峯) : 느지 동남쪽에 있는 산
- ◎ 중지가닥 : 맏대바굿골 서쪽에 있는 산
- ◎ 큰음달산 : 너븐등 서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돈넛들 : 연동 남쪽에 있는 들
- ◎ 두리이들 : 연동 북쪽에 있는 들
- ◎ 마당배미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으로 타작마당이 있었음
- ◎ 뭉글배미 : 마당배미 밑에 있는 논

- ◎ 보선논 : 느지 앞에 있는 버선처럼 생긴 논
- ◎ 선돌빼기논 : 보선논 위쪽에 있는 논으로 큰 돌이 박혀 있음
- ◎ 선덧들(성후들) : 연동 서쪽에 있는 들
- ◎ 안가내 : 연동 서쪽에 있는 들
- ◎ 앞들: 연동 앞에 있는 들
- ◎ 작답들 : 중짓들 서쪽에 있는 들
- ◎ 작은들 : 느지 앞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중짓들에 있는 논
- ◎ 중짓들 : 연동 북쪽에 있는 들
- ◎ 창들(창평) : 창촌 앞에 있는 들
- ◎ 큰들 : 느지 앞에 있는 큰 들
- ◎ 하평들 : 선덧들 서쪽에 있는 들
- ◎ 화짓대거리 : 연동 서쪽에 있는 논

#### 4) 골

- ◎ 굴쩍골 : 느지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기양실(이곡) : 등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덩불골(덤뽕골) : 제낙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범이 많았다고 함
- ◎ 등골 : 빨당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맏대바굿골 : 평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빨당골 : 중지앞다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작은덤뽕골 : 덩뽕골의 작은 골짜기
- ◎ 절골 : 물무디미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제낙골 : 사부실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큰덤뽕골 : 덩뽕골의 큰 골짜기
- ◎ 평밭골 : 굴쩍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황골(황곡) : 연화리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성지고개 : 황골 동남쪽에 있는 고개
- ◎ 싸릿재 : 연화리에 있는 고개로 싸리나무가 많았다고 함



◎ 점골재 : 창촌 서부쪽에서 영오면 오서리의 점골로 가는 고개

#### 6) 기타

◎ 갓등 : 목민양지 서쪽에 있는 등성이

◎ 굴절터 : 굴쩍골에 있는 절터로 절 옆에 굴이 있었음

◎ 굴쩍골물청바위 : 굴쩍골에 있는 바위

◎ 굴쩍골약새미 : 굴쩍골에 있는 샘

◎ 너븐등 : 갓등 서쪽에 있는 넓은 등성이

◎ 동글너드렁 : 작은너드렁 밑에 있는 너설

◎ 맷대기바우 : 맷대바곳골에 있는 바위

◎ 뽕당골약새미 : 뽕당골에 있는 샘

◎ 작은너더렁 : 너븐등에 있는 작은 너덜

◎ 창촌미륵(倉村彌勒) : 창촌탑 옆에 있는 돌미륵으로 원래 굴쩍골에 있던 것을 옮겼다고 함

◎ 창촌탑 : 창촌에 있는 3층탑으로 본래 굴쩍골에 흩어져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고 함

◎ 큰너더렁 : 너븐등의 큰 너덜

◎ 평바구 : 평밭골에 있는 바위

## 제 12절 하이면(下二面 Hai-myeon)

군의 남서부에 위치한 면이다. 서쪽은 사천시 향촌동·용현면에 접하고 있고, 동쪽은 하일면과 접한다. 동북쪽은 향로봉을 경계로 상리면과 접하고, 서북쪽은 봉암산을 경계로 사천시 사남면과 접한다. 남쪽으로 한려수도에 면한다. 전체적으로 면의 북부와 동부는 구릉성 산지이고, 서쪽의 봉현천 일대에 평야가 넓게 발달하여 면의 중심부를 이룬다. 남서쪽 해안에 소규모 간척평야가 조성되어 있다. 남쪽 해안 상족암군립공원 내에는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화석산지가 있는데, 중생대 백악기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 유명하고, 중생대 새발자국 화석지로는 세계 최대이다.

상리면·하일면과 함께 조선 시대 이전에는 보령향(保寧鄉) 지역이었고, 『호구총수』에는 ‘하이운면(下二運面)’, 『여지도서』에는 ‘하리이운면(下里二運面)’으로 기록되었다. 『광여도』, 『1872년지방지도』 등 고지도와 『조선지리지』에는 하이면(下二面)으로 적고

있다. 『신구대조』에는 1914년 하이면과 하일면 입암(立岩) 일부, 사천군 수남면(洙南面) 궁지동(宮{旨洞) 일부를 합쳐현재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였다. 상족암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지리지와 고지도에서 반드시 언급하고 있는데, 『지승』에는 구체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 1. 덕호리(德湖里)

덕호리는 1895년에 이운면이 하이운면으로 개칭될 당시 군호와 신덕리로 존치하였다가, 1914년에 하이운면의 입암리 일부와 사천군의 궁지동 일부를 병합하여 신덕과 군호의 이름을 따서 덕호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두수(杜樹), 신덕(新德), 부평(富平), 군호(君湖)의 4개 마을이 있다.

두수마을은 마을 앞의 풍치림이 줄을 지어 우거져 있다 하여 이를 동명으로 삼았다. 1750년경 고성박씨와 밀양박씨가 입촌하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마을 뒤의 사당산 줄기가 뻗어 마을까지 이어져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고성박씨, 밀양박씨, 김해김씨, 경주최씨, 수원백씨, 청송심씨, 풍천노씨, 김녕김씨 등이다.

신덕마을은 1895년에 이운면이 하이운면으로 개칭될 당시까지 신덕리로 존치하였다가 1914년 군호리와 병합하여 덕호리로 하였다. 광복 후 분동되면서 내촌과 평촌을 합쳐 신덕이라 하였다. 마을은 고성박씨가 1760년대에, 밀양박씨가 그 다음으로 입촌하면서부터 형성되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고성박씨, 김해김씨, 경주·전주최씨 등이다.

부평마을은 옛날 강씨 성들이 모여 산다고 해서 강상몰이라고 하였다. 그 후 마을이 가난해서 약 100여 년 전에 마을 명을 부평(富平)으로 개칭하였다. 마을은 약 250년 전에 진양강씨가 입촌하면서 형성되었으며 여러 취락이 봉현천과 석지천변에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남평문씨, 남양홍씨, 분성배씨, 전주이씨, 밀양박씨 등이다.

군호마을은 군의 요새지라는 의미로 군지개(軍池浦)라 하였는데 안군지와 바깥군지개로 형성되어 1개 동(洞)이 되었다. 바깥군지개는 지금의 신덕마을에 편입 되었으며, 안군지개는 갈목개와 점담(店村)으로 3개 마을을 합쳐 1914년에 군호마을이라 하였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밀양박씨, 인동장씨, 삭령최씨, 경주이씨, 전주이씨, 진양강씨, 남평문씨 등이다. 마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팽나무가 있는데 매년정월 보름에 동제를 지냈다. 잎 색깔이 일찍 짙어지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 1) 마을

◎ 갈모개 : 점담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강상물(망상물) : 새땀 건너쪽에 있는 마을
- ◎ 군지개(군재, 군호) : 발군재 남쪽에 있는 마을
- ◎ 논개(답포) : 점담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두수골(두수) : 신덕 동쪽에 있는 마을
- ◎ 새땀 ; 강상물 남동쪽에 있는 새로 생긴 마을
- ◎ 점담 : 군호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용기점이 있었음

## 2) 산

- ◎ 강대머리 : 발군재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지형이 광대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음
- ◎ 기미기끝 : 발군재 서쪽에 있는 산
- ◎ 덩산 : 두수 남쪽에 있는 산
- ◎ 목너매 : 갈개 동쪽에 있는 산
- ◎ 발군재덧산 : 발군재 뒤에 있는 산
- ◎ 사당산(射堂山) : 신덕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남쪽은 성벽을 쌓은 흔적이 있으며 돌담 사이에 굴 꺾질과 기와 조각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란 때의 성지로 추정하나 고증할 수는 없음
- ◎ 중바우 : 갈모재 서쪽에 있는 산
- ◎ 회남골재 : 두수 남쪽에 있는 산으로 회나무가 많음

## 3) 들, 논

- ◎ 땅바지 : 진배미 밑에 있는 논
- ◎ 소구남배미 : 소정들에 있는 소고 모양의 논
- ◎ 소정들 : 두수 남쪽에 있는 들
- ◎ 시비기 : 덩산 밑에 있는 논으로 시비(물구렁)가 많음
- ◎ 옷들 : 두수 동쪽 위에 있는 들
- ◎ 작밭 : 신덕 앞에 있는 들로 개를 개간하여 밭을 만들었음
- ◎ 진배미 : 소구남배미 밑에 있는 진논
- ◎ 짐대배미 : 회양배미 서쪽에 있는 논으로 배의 짐대(돛대) 모양 임
- ◎ 통새밋들 : 강상물 앞에 있는 들로 통새미가 있음
- ◎ 회양배미 : 군호 서쪽에 있는 논

4) 골

- ◎ 갓바우골 : 두수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기목나무골 : 군호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느티나무가 많음
- ◎ 두수골 : 신덕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작은뒤골 : 두수 뒤에 있는 작은 골짜기

5) 고개

- ◎ 덩밑고개 : 덩바우 밑에 있는 고개
- ◎ 모개넘재 : 두수에서 석지리로 가는 고개
- ◎ 봉웃골재 : 군재 동남쪽에 덕명리의 봉웃골로 가는 고개

6) 기타

- ◎ 갓바우(관암) : 갓바우골에 있는 갓처럼 생긴 바위
- ◎ 깨구리바위 ; 두수 북쪽에 있는 개구리 모양의 바위
- ◎ 꺼멍바우 : 좃대바우 위에 있는 바위
- ◎ 덩바우 : 덩산에 있는 바위
- ◎ 도둑골 : 중바우 동쪽 높이 30미터 가량 되는 산벼랑에 있는 굴로 도둑이 숨어살면서  
    푹었다 함
- ◎ 들땀새미(평촌샘) : 신덕 남쪽에 있는 샘
- ◎ 생피개 : 군호 서남쪽에 있는 개
- ◎ 장군바우 : 갓바우 동쪽에 있는 큰 바우
- ◎ 정새미 : 두수 서쪽에 있는 샘으로 속병에 좋다고 함
- ◎ 좃대바우 : 두수 북쪽에 있는 좃대 모양의 검은 바위
- ◎ 태미기 : 새땀 남쪽에 있는 보
- ◎ 통새미 : 통새밋들에 있는 통 모양의 샘

## 2. 덕명리(德明里)

덕명리는 본래 하이면 지역으로 1914년 딱밭골(楮田)과 봉화골을 병합하여 덕명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덕명과 제전 마을이 있다.

덕명마을은 1914년 덕명리의 단일 법정리였다가 1995년 제전마을이 행정마을로 분동되

었다. 마을은 약 400여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마을 뒤로 망림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마을 앞은 한려수도권에 접하며 상죽암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정씨, 남원양씨, 밀양박씨, 함안조씨, 김해김씨, 여산송씨, 진양강씨 등이다. 마을에는 덕명리봉수지, 덕명리지석묘, 망림산성지 등이 있다. 마을 앞 당산나무에서 매년 10월 보름에 동제를 지낸다. 마을 내에 진양정씨 재실이 있다.

제전마을은 90년대 초까지는 덕명리의 자연마을이었다. 그러다가 1995년에 분동되면서 행정리가 되었다. 예전부터 닥나무 밭(楮)이 많아 닥밭골이라 하였는데 한자화 되면서 제전이라 하였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 진양강씨가 입촌하면서부터라고 전해진다. 마을은 망림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덕명마을과 인접하고 있다. 마을 앞은 한려수도권에 접하며 제전해수욕장을 끼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강씨, 진양정씨 등이다.

### 1) 마을

- ◎ 딱밭골(저전) : 덕명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봉화골(봉화곡) : 저전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봉화를 올렸다고 함

### 2) 산

- ◎ 까막골면당(까면골면당) : 봉화골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까마귀 머리 모양임
- ◎ 까만당 : 덕명마을 뒤의 다복산 줄기에 있는 산봉우리로, 천지개벽 시에 바닷물이 들어와 산이 물에 잠기고봉우리가 까마귀 모양만큼 까마득하게 남았다고 전함
- ◎ 망쟁이끝 : 봉화골 남쪽에 있는 산으로 망을 보았다고 함
- ◎ 밤창개끝 : 봉화골 남쪽에 있는 산
- ◎ 시리봉 : 봉화골 남동쪽에 있는 산으로 시루모양을 함
- ◎ 지앗등면당 : 덕명 뒤에 있는 산으로 기와를 구웠다고 함
- ◎ 촛대봉 : 봉화골 동쪽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가 촛대 모양을 함
- ◎ 큰들산 : 덕명 서쪽에 있는 산

### 3) 골

- ◎ 까막거지 : 덕명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덧골 : 봉화골 뒤에 있는 골짜기
- ◎ 봉웃골 : 봉화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불당골 : 덕명마을 서쪽 너머에 있는 골(谷)로, 약 200여 년 전에 암자가 있었다고 함
- ◎ 삼당골 : 덕명마을 산 너머에 있는 골(谷)로 당산에 단군님을 모시고 이 골에 신하인 삼신(三神)을 모신 곳이라 하여 이렇게 부름. 일설에는 임란 때 수군대장이 군졸을 훈련시킨 곳이라 함
- ◎ 작은쌍밭 : 덕명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 진골 : 봉화골 서쪽에 있는 긴 골짜기
- ◎ 큰골 : 봉화골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큰쌍밭 : 덕명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 4) 고개

- ◎ 군지기재 : 봉화골 북서쪽에서 덕호리의 군지개로 넘어가는 고개
- ◎ 뿔당골재 : 뿔당골에 있는 고개로 덕명 북쪽에서 월흥리로 넘어 감
- ◎ 섯밭재 : 딱밭골에서 월흥리의 섯밭으로 가는 고개

#### 5) 기타

- ◎ 군바우 : 덧개에 있는 바위로 구멍이 있음
- ◎ 덕명등대 : 밤창개 남쪽에 있는 등대
- ◎ 덧개 : 덕명 뒤에 있는 개
- ◎ 덧방여 : 덕명 남쪽에 있는 여로 밑으로 리(센 파도)를 받음
- ◎ 밤참개(야깃개) : 덕명마을 앞 등대가 있는 갯가
- ◎ 상선암(上仙岩) : 덕명마을 바닷가에 있는 반석. 선녀들이 내려와 상족암에서 베를 짜고 목욕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곳이라 하여 붙여짐. 옛날에 여기서 별신굿을 하였다 함
- ◎ 상족(床足, 쌍밭, 쌍바리) : 덕명 동쪽 2km쯤 떨어진 바닷가에 있는 놀이터
- ◎ 시리개 : 봉화골 앞, 시리봉 밑에 있는 개
- ◎ 촛대바위 : 제전마을 앞쪽 바다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촛대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짐

### 3. 월흥리(月興里)

월흥리는 옛날에는 월아(月牙)라 하였다. 1914년 신흥(新興)과 월아(月牙), 하일면의 입암(立岩) 일부를 병합하여 월아와 신흥의 이름을 따서 월흥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월흥, 입암, 신흥, 정곡의 4개 마을이 있다.

월흥마을은 1914년 월아와 신흥의 이름을 따서 월흥이라 하였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400여 년 전으로 허씨가 입촌하면서 부터로 알려져 있다. 마을은 북쪽은 무등산, 동남쪽은 다복산, 서남쪽은 백화산에 둘러싸여 있다. 현재 거주민은 밀성박씨, 진양강씨, 달성배씨, 전주이씨, 김녕김씨, 곡부공씨, 전주최씨, 진양하씨 등이다. 마을에는 밀성박씨 문중의 재실인 줄헌재(拙軒齋)가 있으며 효자열녀비, 밀양박씨 문중 재실인 덕숭재(德崇齋)와 공적비가 있다. 마을 동편 뒷산 기슭에 있는 포구나무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순에 동제를 지내고 있다.

신흥마을은 주변에 쉼밭(薪田)이라는 숲이 우거져 있어 이를 동명으로 삼았다. 광복 후에 새 신(新)자에 월흥의 흥(興)자를 따서 신흥(新興)으로 개칭하였다. 마을의 형성 연대는 당산의 제단과 입석(지석묘) 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거석시대까지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당산에 있는 비석에는 함안조씨가 일찍이 마을에 살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마을은 동네 오른쪽에 숫갯산(雌山)이, 마을 왼쪽에 청룡등이 있어 좌청룡, 우백호의 지세를 갖추고 있다. 마을 입구를 장승거리라 하였으며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함안조씨, 함안이씨, 전주이씨, 전주최씨, 김녕김씨, 괴평윤씨, 김해김씨, 안동권씨, 밀양박씨, 고성박씨 등이 거주하고 있다.

### 1) 마을

- ◎ 바깥정골 : 안정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선바우(이면입암) : 월아 남쪽에 있는 마을
- ◎ 쉼밭(신흥) : 피죽들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안정골(점동, 정곡) : 바깥정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월아(타래) : 월흥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
- ◎ 피죽들 : 월아티 서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다복산(多福山) : 월흥리에 있는 산
- ◎ 당산면당(당산문당) : 점동 뒤에 있는 산으로 당산제를 지냄
- ◎ 뚝매 : 신흥 앞 들 가운데 있는 산
- ◎ 무등산(無登山) : 월흥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일명 이승산이라고 함
- ◎ 박선달 : 안골 동남쪽에 있는 산
- ◎ 잔배미 : 모시랑골 동쪽에 있는 산

◎ 사당산(射堂山) : 두수 뒤에 있는 산. 봉화지이며 산 정상에는 기와 및 굴 껍질 등이 있음

3) 들, 논

- ◎ 너밤논 : 월아 북서쪽에 있는 논으로 너마지기가 됨
- ◎ 마당배미 : 새미배미 위에 있는 논으로 타작마당이 있었음
- ◎ 바랑자리 : 순빙이 밑에 있는 논
- ◎ 새미배미 : 진배미 밑에 있는 논으로 샘이 있음
- ◎ 순빙이 : 진배미 위에 있는 논
- ◎ 장구배미 : 타래 동쪽에 있는 장구 모양의 논
- ◎ 장아치배미 : 마당배미 위에 있는 논
- ◎ 진배미 : 타래 남쪽에 있는 긴 논
- ◎ 질밋논 : 월아 남쪽 길 밑에 있는 논
- ◎ 청국장이배미 : 장아치배미 위에 있는 논
- ◎ 피죽들(지죽들) : 설밭 동쪽에 있는 들

4) 골

- ◎ 가접골(강정골, 강정곡) : 군봉골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 고리점골 : 월흥리에 있는 골짜기
- ◎ 구수밭골 : 고리점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군봉곡(군봉골) : 다복산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벌이 꽃당골의 꽃으로 향하는 형국이라 함
- ◎ 꽃당골(화동곡) : 찬사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참꽃이 많이 피음
- ◎ 단지골 : 큰뻔덕 서쪽에 있는 단지 형국의 골짜기
- ◎ 도른골 : 잔너매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덧골 : 입암 뒤에 있는 골짜기
- ◎ 모시랑골(모전곡) : 피죽들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모시밭이 있었음
- ◎ 물난곡 : 피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백화방 : 점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뿔당골 : 점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음
- ◎ 새미고랑 : 새비장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샘이 있음
- ◎ 새비장골 : 덩밍이고개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순대밭골 : 백화당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수누대(식대)가 많았음
- ◎ 안골 : 물난골 동쪽 안에 있는 골짜기
- ◎ 작은집산골 : 땅곡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장배골 : 땅곡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장자골 : 점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장사가 살았다고 함
- ◎ 질매밭골 : 월흥리에 있는 골짜기
- ◎ 천시밭골 : 도른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풀밭골 : 신흥 동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군봉골고개 : 군봉골에 있는 고개로 월아 동남쪽에서 하일면 춘암리로 넘어 감
- ◎ 덩밍이고개 : 월흥리에서 덕명리로 가는 고개
- ◎ 땅곡 : 월흥리에서 하일면 춘암리로 가는 고개
- ◎ 빨당골재 : 빨당골에 있는 고개로 덕명리로 넘어 감
- ◎ 서리재(수리재) : 아룡재 서남쪽에 있는 고개
- ◎ 아룡재 : 월흥못 동북쪽에 있는 고개
- ◎ 예성곡재 : 월아에서 하일면 춘암리 선바우로 가는 고개로 옛 석성(石城)터가 있음
- ◎ 월아티(월아재, 타래재) : 선바우 북쪽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갓등 : 박선달 동남쪽 가에 있는 등성이
- ◎ 피삿바우 : 피죽들에 있는 바위. 고양이 세 마리가 쥐를 잡아먹으러 가는 형국이라고 함
- ◎ 농바우 : 월아 북쪽에 있는 농모양의 바위
- ◎ 매사이바위 : 덩밍이고개에 있는 바위
- ◎ 사장터(射場) : 월흥마을 서쪽에 있는 야산으로 여기서 활을 쏘는 연습을 하였다고 함
- ◎ 선바우(입암) : 이면입암 서남쪽에 우뚝선 바위
- ◎ 요룽골너드렁(큰너드렁) : 다복산에 있는 너덜
- ◎ 용바우 : 점동 북쪽 길가에 있는 바위
- ◎ 질매바우 : 질매밭골에 있는 질매(길마) 모양의 바위
- ◎ 찬새미 : 전너매에 있는 샘으로 물이 매우 참
- ◎ 칭기바우 ; 농바우 밑에 있는 바위로 층층으로 솟아 있음

- ◎ 큰뺨덕 : 새미고랑 서쪽에 있는 큰 버덩
- ◎ 벼락암 : 두수 동쪽에 있는 벼락바위
- ◎ 통전도랑 : 와룡산 밑에 있는 보

#### 4. 사곡리(沙谷里)

사곡리는 본래 하이면 지역으로 모래가 많아 모래실 또는 사곡(沙谷)이라 하였다. 1914년 사곡리로 하여 단일 법정리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남평문씨와 김해김씨가 오래전부터 살았다고 구전되나 확인할 수 없으며, 임란을 전후하여 전주최씨 집성촌으로 형성되었다. 마을은 사당산 자락에 자리 잡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을에는 사곡리성지, 황산수정이 있다. 또 사당산전설과 사곡산전설이 구전되고 있기도 하다.

##### 1) 마을

- ◎ 모래실(사곡리) : 하이면의 지역으로 모래가 많으므로 모래실, 한자로 사곡이라 함
- ◎ 어부적골 : 모래실 남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부자 어씨가 살았다고 함

##### 2) 산

- ◎ 망낙끝 : 모래실 남서쪽 어귀에 있는 산
- ◎ 사당산(射堂山) : 사곡리 뒤쪽에 위치한 산

##### 3) 들, 논

- ◎ 밭다이 : 모래실 앞에 있는 들

##### 4) 골

- ◎ 감남골 : 산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많음
- ◎ 군두곡(郡頭谷, 군두웃골) : 모래실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배남골 : 감남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많음
- ◎ 산밭골 : 큰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전에 삼밭이 많았음
- ◎ 야지미집골(팔십곡) : 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절골 : 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음
- ◎ 타락골 : 모래실 동남쪽 타랫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
- ◎ 호박골 : 황제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 바위로 디딜방아의 확을 만들었다고 함

◎ 황제골 : 모래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감남골재 : 감남골에 있는 고개

◎ 덧재 : 모래실 뒤에서 석지리로 가는 고개

◎ 봉징잇곡 : 봉징이골에 있는 고개로 큰골에서 석지리의 음촌으로 넘어 감

◎ 아래동네갯 : 모래실 동남쪽에 있는 고개로 마을 공유의 멧갯이 있음

◎ 타랫고개 : 모래실 동남쪽에서 월흥리의 타래로 가는 고개

#### 6) 기타

◎ 갈피보 : 모래실 남서쪽에 있는 보로 피가 많았다고 함

◎ 사곡뭇(사곡지) : 사곡 남쪽에 있는 뭇

◎ 설밭모퉁이 : 모래실 남쪽에서 월흥리의 신흥(설밭)으로 가는 모퉁이

◎ 외답보 ; 모래실 남쪽에 있는 보로 강점기 때 일본인의 논에 물을 대었음

◎ 큰보 : 갈피보 남쪽에 있는 큰 보

### 5. 석지리(石芝里)

석지리는 본래 하이면 지역으로 1914년에 남고개 일부와 사천구의 궁지동 일부를 병합하여 석지리라 하였다. 행정리로 신촌(新村), 양촌(陽村), 남산(南山), 음촌(陰村)의 4개 마을이 있다.

신촌마을은 사천시와 경계를 이루며 약 200년 전에 주민이 입주하여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신촌이라 하였다. 마을은 천씨가 가장 먼저 입주하고 뒤이어 김해김씨가 입주하여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 현재 김해김씨, 밀양박씨, 진양강씨, 평강채씨, 재령이씨, 함안조씨, 경주최씨, 달성서씨, 합천이씨, 창녕성씨, 경주정씨, 동래정씨, 고성이씨 등이 거주하고 있다.

양촌마을은 석지리 음촌마을과 마주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지쪽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하여 양촌이라 하였다. 마을은 인근의 지식묘 등의 유적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면 아득한 옛날 이 근처에 권세가를 위시한 일단의 주민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전되기로는 마을에 황씨가 가장 먼저 입주하였고, 임란 이후에 월성손씨가, 약 350년 전후로 고성이씨, 고성박씨, 김해김씨가 차례로 입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은 와룡산과 비로봉의 산줄기가 한데 어우러져 있고 월부산과 덧고개에서 솟아 서남쪽에 남산과 서북을 막아

풍산을 이룬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고성박씨, 고성이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창원황씨, 진양강씨, 전주최씨, 진양정씨, 진영김씨, 연흥민씨 등이다. 마을에는 수로왕릉이라 전하는 석지리지석묘가 있으며 서재터가 남아 있다.

남산마을은 마을 뒤의 남산이름을 따서 지명으로 삼았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1880년 경으로, 가장 먼저 진양강씨가 입촌하고 밀양박씨, 월성손씨가 입촌하였다. 마을은 마을 뒤의 남북으로 뻗은 남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향을 하고 있다. 봉현천을 경계로 사천시와 접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월성손씨, 밀양박씨, 합천이씨, 상주최씨 등이다.

음촌마을은 1984년 석지리 음촌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약 150년 전으로 진양강씨가 입촌하였으며 차례로 고성이씨와 밀양박씨가 입촌하여 정착하였다. 마을 뒤 동쪽 산자락에 서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 와룡천이 흐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강씨, 전주최씨, 밀양박씨, 김녕김씨, 동래정씨, 김해김씨, 경주김씨, 달성서씨, 남평문씨, 고성이씨, 인동장씨, 고성손씨 등이다. 마을 개울 옆 당산나무에서 매년 음력 선달 그믐날에 당산제를 지냈는데, 현재는 양촌마을 단독으로 지내고 있다.

### 1) 마을

- ◎ 남산(南山, 남산밀) : 풍산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남산 밀이 됨
- ◎ 새땀(신촌) : 양촌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양달땀(양촌) : 석지 양달쪽에 있는 마을
- ◎ 음달땀(음촌) : 양달땀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풍산골(풍산곡) : 남산 밑 서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남산(南山) : 양촌 북쪽에 있는 산
- ◎ 부엉산 : 남산 동쪽에 있는 산
- ◎ 솔태산 : 독점골 북쪽에 있는 산
- ◎ 장군산 : 음촌 북쪽에 있는 산으로 장군대와 형국 임
- ◎ 처낭산 : 음촌 동쪽에 있는 산
- ◎ 풍산(豊山) : 풍산골 뒤에 있는 산

### 3) 들, 논

- ◎ 구렁들 : 음촌 동북쪽 구렁에 있는 들

- ◎ 날끝들 : 양촌 날끝 밑에 있는 들
- ◎ 독점골 : 음촌 북쪽에 있는 들로 독점이 있었음
- ◎ 백가성들 : 양촌 북쪽에 있는 들
- ◎ 사짓배미 : 음촌 앞에 있는 논으로 흉년에 사짓밥을 지어 주고 이 논을 얻었다고 함
- ◎ 소장터배미 : 사짓배미 위에 있는 논
- ◎ 숲밧들 : 새땀 북쪽에 있는 들
- ◎ 웃골 : 음촌 위쪽에 있는 들
- ◎ 음촌앞 : 음촌 앞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터안배미 위에 있는 논으로 지형이 장구처럼 생겼음
- ◎ 집앞들 : 양촌 앞에 있는 들
- ◎ 터안배미 : 소장터배미 위에 있는 논

## 4) 골

- ◎ 안골 : 음촌 안쪽에 있는 골짜기
- ◎ 음시랑골 : 음촌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해엿골 : 음촌남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모래실재(사곡재) : 석지리에서 모래실로 가는 고개
- ◎ 봉징잇재 : 음촌 동남쪽에서 사곡리 큰골로 가는 고개
- ◎ 소고개재 : 양촌마을의 뒷산으로 와룡산이 넘어다 보임
- ◎ 솔땃곡 : 음촌 북쪽에 있는 고개
- ◎ 질매고개 : 양촌에서 사곡리로 가는 고개
- ◎ 큰골재 : 음촌 남쪽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꽃바위 : 음촌마을 뒷산 줄기 끝에 바위가 줄을 지어 있는데, 돌을 갈면 꽃무늬가 나타나다 함
- ◎ 구렁들보 : 구렁들에 있는 보
- ◎ 날글 : 새땀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웃보 : 웃골에 있는 보

## 6. 와룡리(臥龍里)

와룡리 와룡마을은 옛날에는 서리띠라 하였으며 신라시대에는 상치동(霜峙洞)으로 불렀다. 마을 뒷산이 와룡산이므로 이를 동명으로 삼았다. 마을의 형성된 연대는 1700년경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을에 가장 먼저 입촌한 성씨는 진양강씨이다. 그러나 운흥사가 676년에 창건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이때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은 와룡산의 상봉인 향로봉, 일명 상두바위를 중심으로 좌우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천마산, 남서쪽은 남산이 가로막혀 있다. 마을은 안팎과 바깥팎으로 두개의 동네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강씨, 단양우씨, 밀양박씨 등이다. 마을에는 운흥사가 있으며, 천마산 전설이 구전된다.

### 1) 마을

- ◎ 못골 : 접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못이 있음
- ◎ 와룡(臥龍) : 하이면 지역으로 용이 누워있는 형국이라 이름 함
- ◎ 용문암(용문암골) : 와룡 동쪽에 있는 마을로 용문암이 있었음

### 2) 산

- ◎ 단재 : 대밭등 동쪽에 있는 산으로 산세가 가팔라서 오르내리기가 어려움
- ◎ 범바우면당 : 문턱바우 동쪽에 있는 산
- ◎ 천마산(天馬山) : 와룡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부엉이산으로도 부름

### 3) 들, 논

- ◎ 느록징이 : 와룡 동쪽에 있는 들로 느릅나무 정자가 있었음
- ◎ 상보 : 못골 앞 위쪽에 있는 들
- ◎ 섬들 : 한정지앞 남쪽에 있는 들로 지형이 섬처럼 생겼음
- ◎ 중들 : 못골 앞 북쪽에 있는 들

### 4) 골

- ◎ 가매적골(감적골) : 대룡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대룡골 : 용문암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방텃고랑 : 진등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버무젓골 : 뿔당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범의 아구지(입) 모양 임

- ◎ 뿔당골 : 용그점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새양골(서양곡) : 감적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용그점골 : 와룡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용기를 만들던 점이 있었음
- ◎ 절골 : 새양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개앵매잇재 : 운흥사 북서쪽에 있는 고개
- ◎ 모래실재 : 와룡 남쪽에서 사곡리 모래실로 가는 고개
- ◎ 오뱅잇재 : 와룡 동남쪽에서 하일면 오방리로 가는 고개
- ◎ 운바웃재 : 와룡 동남쪽에서 석지리로 가는 고개로 운바위가 있음
- ◎ 천질바긋재 : 와룡리에 있는 고개로 천질바위가 있음
- ◎ 화상재 : 운흥사에서 봉현리 백씨골로 가는 고개

#### 6) 기타

- ◎ 귀바우 : 문턱바우 서쪽에 있는 귀모양의 바위
- ◎ 대밭등 : 범바우 먼당 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대나무가 많았음
- ◎ 따순바우 : 귀바우 서쪽에 있는 바위로 양지쪽에 있어서 늘 따스함
- ◎ 무초니등 : 은관동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문턱바우 : 방텃고랑 서쪽에 있는 문턱모양의 바위
- ◎ 범바우 : 범바우 먼당에 있는 바위로 범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임
- ◎ 보십등 : 모초니등 동쪽에 있는 보십 모양의 등성이
- ◎ 붉은바우 : 콧솔밭 동쪽에 있는 붉은 빛의 바위
- ◎ 용문암터 : 용문암골에 있는 절터
- ◎ 운바우(인바우, 인암) : 운바웃재에 있는 도장모양의 바위
- ◎ 운흥사 : 와룡 동북쪽 향로봉 밑에 있는 절
- ◎ 은관등 : 댕재 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전에 은을 파냈다고 함
- ◎ 한박등 : 천마산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천질바구 : 천질바긋재에 있는 바위로 천 길이 될 만큼 높이 솟아 있음
- ◎ 흥두갯등 : 붉은바우 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지형이 흥두개 형국임

## 7. 봉현리(鳳峴里)

봉현리는 1640년경 진양강씨가 가장 먼저 입촌하여 형성되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강씨, 김해김씨, 고성이씨, 성주배씨, 광산김씨, 경주김씨, 밀양박씨, 해주정씨, 단양장씨, 제주양씨, 거창유씨 등이다. 마을에는 봉현리지석묘가 있다.

### 1) 마을

- ◎ 덩몰 : 봉현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덧들 : 백씨골 동남쪽 들가에 있는 마을
- ◎ 마동곡(馬洞谷, 막동골) : 백씨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용마의 형국이라고 함
- ◎ 백씨골(봉곡) : 덩몰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벽수가 서 있었음
- ◎ 흙택골 : 생이듬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흙처럼 생겼음

### 2) 산

- ◎ 달뜨기 : 백씨골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달이 이 산에서 떠오름
- ◎ 생이듬 : 백씨골 북쪽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가 바위더미로 되어있는데 생이(상여)모양 임

### 3) 들, 논

- ◎ 구렁들 : 봉현 남서쪽 구렁에 있는 들
- ◎ 넓적배미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
- ◎ 덩몰들 : 덩몰 앞에 있는 들
- ◎ 마음붓들(매미또랑) : 봉현 북쪽에 있는 들
- ◎ 말배미 : 장구배미 밑에 있는 논으로 지형이 말(斗)처럼 생겼음
- ◎ 사짓배미 : 넓적배미 밑에 있는 논
- ◎ 소래밧들 : 중붓들 남쪽에 있는 들
- ◎ 앞들 : 봉현 앞에 있는 들
- ◎ 장구배미 : 덧들에 있는 장구모양의 논
- ◎ 중붓들 : 큰들 남쪽에 있는 들
- ◎ 큰들 : 백씨골 남쪽에 있는 큰들

### 4) 골

- ◎ 감남골 : 막동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있었음



## 5) 고개

- ◎ 덕고개 : 봉현 마을에서 와룡리 못골로 가는 고개.
- ◎ 덧목(덧미기고개) : 봉현리 덕고개에서 와룡으로 넘어가는 고개. 와룡산이 범의 형상을 하였다하여 범남산이라 부르고 있음. 이곳에 덧을 놓아 범의 침범을 막았다하여 덧목이라고도 부름
- ◎ 뜸텃재 : 봉원리의 뜸텃재
- ◎ 빨당골재 : 봉현에서 와룡리 못골로 가는 고개로 불당이 있었음
- ◎ 화성재 : 화성등에 있는 고개

## 6) 기타

- ◎ 덩미기못 : 덩미기 밑에 있는 못
- ◎ 들들보 : 덧들에 있는 보
- ◎ 똥바우 : 봉현에 있는 바위로 나무꾼들이 똥을 눈다고 함
- ◎ 벽구밭모퉁이 : 남산 북쪽 봉현의 작은 산모퉁이로 농악(農樂)놀이가 성행하였다함
- ◎ 북구바우 : 봉현 남쪽에 있는 바위로 두드리면 북소리가 남
- ◎ 북구바우모퉁이 : 북구바우가 있는 모퉁이
- ◎ 부안등 : 진동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소래밋모퉁이 : 소래밋들에 있는 모퉁이
- ◎ 앞닥못 : 들땀새미 남쪽에 있는 샘
- ◎ 진등 : 백씨골 북쪽에 있는 긴 등성이
- ◎ 화성등 : 백씨골 동쪽에 있는 등성이

## 8. 봉원리(蜂院里)

봉원리는 본래 하이면의 지역으로 1914년에 내원(內院)과 외원(外院)을 병합하여 봉원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내원과 외원의 2개 마을이 있다.

내원마을은 마을 위에 내원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내원이라 하였다. 마을의 형성 연대는 구전으로만 전하는데 정씨가 가장 먼저 입촌하였다고 한다. 마을은 와룡산의 주산이 내려뺀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깊숙한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다. 계곡은 북쪽으로 사천시 사남면을 거쳐 사천만으로 흐르고 있으며, 지방도를 경계로 사천시 사남면과 접하여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풍천임씨, 김해김씨, 인동장씨, 동래정씨, 제주

고씨, 경주이씨, 삭녕최씨 등이다. 마을에는 내원사지부도군이 있다.

외원마을은 옛날에 울티(鬱峙)라고 부르다가 큰재(한티곡)라 개명하였다. 조선시대 말에는 봉암이라 하였다. 1914년에 내원마을과 병합하여 봉원리가 되었으며 1984년 분동되어 외원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50년 전에 인근 마을인 지금의 사천시 사남면 대신영(大山影)에서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마을은 국시봉을 주산으로 백마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좁은 지대로 동으로는 상리면 동산리와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사천시 사남면과 접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밀양박씨, 고성박씨, 김해김씨, 창원정씨, 합천이씨, 진양강씨, 함안이씨 등이다.

#### 1) 마을

- ◎ 내원(內院) : 봉원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벌바우(봉암): 외원 서쪽에 있는 마을
- ◎ 외원(한티골) : 벌바우 동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남산(南山) : 내원 서남쪽에 있는 높이 432m의 산
- ◎ 벌바우산(봉암산) : 내원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벌바우가 있음

#### 3) 들, 논

- ◎ 말배미 : 내원에 있는 논으로 지형이 옛날에 쓰던 말(斗)처럼 생겼음
- ◎ 사양들(상들) : 청룡등 북쪽에 있는 들로 허물어진 부도가 있음
- ◎ 옛마지기 : 일곱마지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영당암이 있었음
- ◎ 일곱마지기 : 외원 남쪽에 있는 논
- ◎ 진배미 : 말배미 위에 있는 긴 논
- ◎ 청룡들 : 외원 서쪽에 있는 들로 옛 절 내원사 왼쪽의 청룡이 되는 산 밑임

#### 4) 골

- ◎ 가는골 : 큰골 동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
- ◎ 구릿골(물고랑) : 벌바우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곧 말라 버리므로 거랭이(거재)처럼 물을 얻어 댔다고 함
- ◎ 굴레골 : 외원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선달 그믐날에 이곳에서 말굽소리와 말방울

- 소리가 들렸다고 하여 굴레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함
- ◎ 마골창(마근대미) : 화장골 남쪽에 있는 마지막 골짜기
  - ◎ 비룡암골(빌암) : 마근대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비룡암이 있었음
  - ◎ 살매젓골 : 통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매우 가팔라서 살매질(산위에서 나무를 묶어 썰매처럼 끌어 내리는 일)을 했다고 함
  - ◎ 용디미 : 남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굴이 있어 용이 숨어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함
  - ◎ 절골 : 내원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내원사가 있었음
  - ◎ 정장골 : 살매젓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콩밭골 : 가는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콩밭이 있었음
  - ◎ 패골 : 내원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화장골 : 영당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화지암이 있었음

#### 5) 고개

- ◎ 갱밧재 : 내원 동남쪽에 있는 와룡리의 운흥사 가는 고개
- ◎ 느랏재 : 내원 동남쪽에서 상리 동산리의 느랏골로 가는 고개
- ◎ 대티(大峙, 울티짓고개, 한티) : 외원 동쪽에서 상리면 동산리로 가는 큰 고개
- ◎ 딱밭골재 ; 내원에서 상리면 동산리의 모정으로 가는 고개
- ◎ 뜸텃재 : 내원에서 봉현리로 가는 고개로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명당이라 하여 끊은 곳이라 함
- ◎ 비룡티(飛龍峙) : 내원 서북쪽에서 사천군 사남면 계량리로 가는 고개

#### 6) 기타

- ◎ 국시바우 : 굴밧등 동쪽에 있는 바위
- ◎ 남산너드렁 : 남산 밑에 있는 너설
- ◎ 남산모티이 : 남산 밑에 있는 모롱이
- ◎ 내원사터 : 내원 동쪽 500미터 거리에 있는 옛절 내원사의 터
- ◎ 딱밭골큰너드렁 : 딱밭골에 있는 큰 너덜
- ◎ 문부춧골 : 부춧등 위쪽에 있는 등성으로 문둥이가 살았음
- ◎ 물통골 : 외원마을에 있는 약수터로 이 물을 마시고 몸을 씻으면 환자의 병이 낫는다고 함
- ◎ 벌바우모티이 : 벌바우 쪽에 있는 모롱이

- ◎ 음달너드령 : 내원 북쪽 응달에 있는 너덜
- ◎ 주산등 : 내원 동쪽에 있는 등성이로 옛 절 내원사의 주산 줄기가 됨
- ◎ 진등 : 구릿골 동쪽에 있는 긴 등성이
- ◎ 화장너드령 : 화장골에 있는 너설
- ◎ 화장절터 : 화장골에 있는 옛 절 화지암의 터

### 제 13절 하일면(下一面 Hail-myeon)

군의 남서부에 위치한 면이다. 동쪽은 삼산면, 서쪽은 하이면, 북쪽은 상리면에 접한다. 면의 남동쪽과 남쪽은 각각 자란만과 한려수도에 면하고 있다. 남쪽 바다에 자란도, 육섬, 만아섬, 안장섬 등이 있고, 그 너머 통영시 사랑면(蛇梁面)이 있다. 북쪽의 수태산(575m), 서쪽의 백암산(403m) 그리고 가운데 좌이산(416m)등 산지가 많으며, 산지에서 시작된 오방천, 수양천 등 작은 하천들이 바다로 흘러든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어례향(魚禮鄉)과 보령향(保寧鄉)에 속하였다. 『여지도서』에는 “하리일운면(下里一運面)은 관아에서 37리 이다.” 라고 수록하였고, 『호구총수』에는 하일운면(下一運面), 『광여도』, 『조선지도』 등에는 하일면으로 기록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하일면으로 기록하였고, 1914년 이후 같은 지명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면 소재지인 학림리를 비롯한 7개 법정리를 관할한다. 면에는 좌이산(左耳山) 봉수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수군(水軍)의 군사 활동과 관련된 유적과 지명이 많이 남아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송천리에 유적이 남아있는 좌이산 봉수와 함께 번계(樊溪)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원래 현 서쪽 33리에 있었지만 현 남쪽 47리에 있는 당포(唐浦)로 번계 만호(萬戶)의 병선(兵船)을 옮겼다고 하였다.” 라고 수록하였다. 그 밖에 소을비포(所乙非浦) 성지가 동화리에 남아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소을비포는 현 서쪽 47리 지점에 있다. 석성이며 둘레 825척, 높이 14척이다. 권관을 차임하여 방수한다.” 고 기록하고 있고, 『여지도서』에는 임진왜란 이후의 변동을 기록하여 “선조 37년(1604) 거제의 수영(水營) 옛터로 옮겼다가, 선조 39년(1606)에 이곳에 소모진(召募鎭)을 다시 설치하고 그대로 구소을비포(舊所乙非浦)라고 이름 했다.” 라고 한다. 소을비포, 솔비포, 구소을비포, 구소비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이와 관련된 『1872년지방지도』(구소비진지도)가 남아있다. 두 개의 만이 있고 앞에 안마도(鞍馬島, 현재 안장섬)가 해문(海門)을 막고 있어 수군의 기지로서 매우 유리한 지형이며, 성은 많이 훼손되어 성문들이 없어진 상태로 그려져 있다. 성안에는 동헌, 객사 등의 건물과 별장이 기거했던 내아(內衙)가 그려져 있다. 성 밖에 선소(船所)가

있으며 그 앞바다에 거북선으로 추정되는 함선을 비롯하여 다양한 배들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지도서』(통영)에는 구소비포진에 귀선(龜船)이 한 척 있다고 기록하였다.

## 1. 학림리(鶴林里)

학림리는 고려 때 고성현으로 개칭될 당시 하일운면의 고연(古延)·학동(鶴洞)·도동(道洞)지역이었으며, 1914년 하일면으로 개칭되면서 고연·학동·임포·도동을 병합하여 학동과 임포의 이름을 따서 학림리라 하였다. 행정리로 임포(林浦)·도동(道洞)·학동(鶴洞)·금단(琴丹)의 4개 마을이 있다.

임포마을은 학림리의 남쪽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로 수백 년 전부터 풍치림이 조성되어 있어 마을 명을 수풀 임(林)자와 개 포(浦)자를 따서 임포라 하였다. 자연마을로 임포와 평촌의 2개 마을이 있다. 마을은 약 300년 전에는 황무지였으나 자란만의 중심에 위치하여 농·수산물의 집산지로 오래전부터 주민이 거주하였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녕김씨, 분성배씨, 과평윤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달성서씨, 연일정씨, 의령남씨, 경주최씨, 창원정씨, 능주구씨 등이다.

도동마을은 옛날 하일운면 당시 도동으로 존치하였다가 1915년에 하일면이 설치되면서 학림리에 속하였다. 행정리로 임포와 한마을이 되어 도림이었다가 1987년 임포가 분동되면서 도동으로 변경하였다. 지명은 옛날 성지산 깊은 골짜기 바위틈에 웅달샘이 있었는데 이 샘에서 도승(道僧)이 등잔불을 켜놓고 도를 닦았다 하여 도곡(道谷) 또는 독골이라 한 것에서 유래한다.

마을은 고려 현종 때 하일운면 당시 도동으로 존치한 것으로 보아 주민이 거주하게 된 것은 훨씬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마을 앞은 좌이산, 마을 뒤에는 수태산이 솟아 있고 그 맥을 이은 성지산에서 양맥으로 갈라져 병풍처럼 둘러싸인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분성배씨, 밀양박씨, 의령남씨, 김해김씨, 김녕김씨, 진양정씨, 전주이씨, 전주최씨, 인동장씨, 경주최씨 등이다.

학동마을은 구전에 의하면 전주최씨 선조의 꿈에 하늘에서 학(鶴)이 내려와 이곳에 알을 품고 있었는데 이튿날 과연 그곳을 찾아가보니 산수가 수려하고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을 하고 있어 세장지지(世庄之地)로 판단되어 명지라 믿고 학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1670년경으로 잡고 있다. 마을 뒤로는 수태산의 장맥이 이어져 있으며 마을 앞은 필봉을 바라보고 있는 소위 좌청룡우백호 지세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김해김씨, 청송심씨, 진양강씨, 화산천씨, 의성김씨, 밀양박씨, 전주이

씨 등이다.

마을에는 서비정(西扉亭)과 순의비(殉義碑), 우당최갑환선생행적비(雨堂崔甲煥先生行蹟碑), 육영재, 굴암(窟巖), 최씨고가, 학림재(鶴林齋) 등이 있다.

금단마을은 마을 뒤가 풍수상 금은고설이라 금단이라 불렀다. 마을의 생긴 연대는 임진란 전후로 추정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전주최씨, 동래정씨, 진양강씨, 인동장씨, 의령남씨, 안동김씨, 창원황씨, 합천이씨, 분성배씨, 칠원제씨, 전주이씨, 광산김씨, 밀양박씨, 함안이씨, 과평윤씨, 평산신씨, 함안조씨, 청송심씨, 죽전탁씨, 의성김씨, 의령여씨 등이 있다. 마을에는 학림리지석묘, 석교가 있으며,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에서 매년 정월 초하루에 동신제를 지낸다.

### 1) 마을

- ◎ 금단(검단) : 고연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고연(古延) : 금단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도곡(道谷, 독골, 도동) : 학동 동쪽에 있는 마을
- ◎ 염밭(염전) : 고연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임포(林浦) : 학동 남쪽에 있는 마을
- ◎ 학동(鶴洞) : 학림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2) 들, 논

- ◎ 가싱들 : 학동 북쪽에 있는 들로 지형이 사람의 가슴처럼 생겼다고 함
- ◎ 금단잇들 : 금단 앞에 있는 들
- ◎ 독골구렁들 : 독골에 있는 들로 구렁진 곳이라 함
- ◎ 들서밭들 : 가싱들 남쪽에 있는 들로 들서바구가 있음
- ◎ 딛뻘덕 : 학동 뒤쪽에 있는 들로 버덩이 됨
- ◎ 땅거리 : 금단 남쪽에 있는 들
- ◎ 마당배미 : 들서밭들에 있는 논으로 타작마당이 있었음
- ◎ 마태장이 : 땅거리 남쪽에 있는 들
- ◎ 살대밭골 : 학동 서쪽에 있는 들로 살대(화살대)가 났다고 함
- ◎ 시기배미 : 학동 서남쪽에 있는 논
- ◎ 장구배미 : 금단잇들에 있는 논으로 장구처럼 생겼음

## 3) 골

- ◎ 가장골 : 진상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매장을 하였다고 함
- ◎ 도롯골 : 지미장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띠밭골 : 득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배나뭇골 : 득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있었다고 함
- ◎ 서젯골 : 학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옥영재가 있었다고 함
- ◎ 안수대 : 득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용식골 : 평촌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임연정골(임연정곡) : 학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임연정(臨淵亭)이 있었음
- ◎ 작은사막골 : 구등바우 북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 작은용식골 : 용식골의 작은 골짜기
- ◎ 지미장골 : 감나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진상골 : 솔깃등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피방골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 ◎ 큰사막골 : 구등바우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 큰용식골 : 용식골의 큰 골짜기
- ◎ 피방골 : 금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4) 고개

- ◎ 가르매기 : 임포에서 오방리로 가는 고개
- ◎ 감나무골재 : 득골에서 수양리 잔곡으로 가는 고개
- ◎ 득골고개 : 학동에서 득골로 가는 고개
- ◎ 득골재 : 득골에서 용태리 중촌으로 가는 고개
- ◎ 오뱅이고개 : 금단 남쪽에서 오방리로 가는 고개
- ◎ 용골재 : 학동에서 득골로 가는 고개
- ◎ 작은성깃골고개 : 학동에서 수양리로 가는 작은 고개
- ◎ 진등고개 : 임연정골에서 수양리로 가는 고개
- ◎ 큰성깃골고개 : 학동에서 수양리로 가는 고개
- ◎ 학동재(학동티) : 학동 서북쪽에 있는 고개

## 5) 기타

- ◎ 가매바구 : 금단 북쪽에 있는 바위로 가마처럼 생겼음
- ◎ 갈매기골 : 평촌 동북쪽에 있는 바위

- ◎ 구등바구(굴등바구) : 구등바우골에 있는 바위로 굴이 있다고 함
- ◎ 들서바구 : 들서밭들에 있는 바위
- ◎ 들서밭보 : 들서밭들에 있는 보
- ◎ 백암산(白岩山) 흰뒤미 : 백암산 장등에 있는 굴(窟)
- ◎ 성지밭걸 : 평촌 앞에 있는 바위
- ◎ 송치바구 : 가매바구 동쪽에 있는 바위로 송아지처럼 생겼다고 함
- ◎ 신선독서바구 : 금단 뒤쪽에 있는 바위로 신선이 책을 읽었다고 함
- ◎ 염밭거래 : 염밭 앞에 있는 개로 염전이 있었다고 함
- ◎ 임연정터 : 임연정골에 있는 터
- ◎ 제비바구 : 굴등바우 위쪽에 있는 바위로 제비모양이라고 함
- ◎ 탕건바우 : 금단 동북쪽에 있는 바위로 탕건처럼 생겼음
- ◎ 한샘 : 백암산 굴 밑에 있는 샘으로 정월보름에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냄

## 2. 수양리(洙陽里)

수양리는 1개의 법정리로 형성된 마을로 1914년 상화대(上禾大)와 산탈(山脫)리를 병합하여 수태산 남쪽에 위치하므로 수양리라 하였다. 자연마을로 산만·효대·간곡·점촌·사곡마을 등이 있다. 마을은 수태산 남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산을 경계로 북쪽은 상리면, 동쪽은 삼산면에 접하여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합천이씨, 전주최씨, 함안이씨, 김해김씨, 진양강씨, 능주구씨, 밀양박씨, 전주이씨, 영양천씨, 현풍곽씨, 해주오씨 등이다. 마을에는 수양리지석묘가 있으며 솔대백(率臺栢) 일화가 구전된다.

### 1) 마을

- ◎ 간곡(間谷) : 절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사곡(寺谷, 절골) : 상화대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산만(山晩, 살만) : 수양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상화대(점땀, 점촌) : 절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솔과 농기구를 만들던 집이 있었다고 함
- ◎ 솔대배기 : 절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양굼터 : 남안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큰골 : 살만 동북쪽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
- ◎ 남안골 : 절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성짓골 : 점촌 동쪽에 있는 마을



## 2) 산

◎ 질등재 : 살만 뒤쪽에 있는 산으로 등성이 위로 길이 나 있음

## 3) 들, 논

◎ 큰골 : 큰골 마을 앞에 있는 들

◎ 호댓들 : 슬대배기에 있는 들

## 4) 골

◎ 건논골 : 절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새비당골 : 점촌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암짓골 : 절골과 건논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흙택골 : 절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남안골재 : 남안골에 있는 고개

◎ 능골재 : 큰골에서 삼산면 장치리 능골로 가는 고개

◎ 동산잇재(수태재) : 절골 북쪽에서 상리면 동산리로 가는 고개

◎ 문숫재 : 절골 북동쪽에서 상리면 무선리의 문수암으로 가는 고개

◎ 장배깃재 : 큰골에서 삼산면 장치리의 장백으로 가는 고개

◎ 절골고개 : 절골 북쪽에서 상리면 무선리로 가는 고개

## 6) 기타

◎ 국시등 : 점촌 서쪽에 있는 등성이

◎ 수룡천(水龍川) : 양곶터 동쪽에 있는 내

◎ 절골못 : 절골에 있는 못

◎ 큰너드렁 : 초막골에 있는 큰 너설

## 3. 용태리(龍台里)

용태리는 1018년에 고성이 고성현으로 개칭될 당시 하일운면의 가룡·삼태·하화대 지역으로, 1914년 하일면의 가룡과 삼태를 병합하여 가룡의 용(龍)자와 삼태의 태(台)자를 따서 용태리라 하였다. 행정리로 용태·가룡의 2개 마을이 있다.

용태마을은 용태리의 중심마을로 1986년 가룡을 분동하면서 용태라 하였다. 자연마을로 삼태·중촌·하중촌마을이 있다. 마을의 형성은 고려 현종 때 하일운면의 가룡과 삼태로 존치한 것으로 보아 주민이 거주하게 된 것은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마을 남쪽에 임하고 있으며 마을 동쪽의 산성산은 임진왜란 때 축조한 것으로 전하는 산성의 성지가 있으며 삼산면 장치리와 경계를 이룬다. 마을에는 수양천이 가룡마을과 경계를 지어 흐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최씨, 김해김씨, 김녕김씨, 고성이씨, 밀양박씨, 파평윤씨, 전주이씨, 합천이씨 등이다.

가룡마을은 고려 때 고성현으로 개칭될 당시 하일운면(현 하일면)의 가룡으로 존치한 마을로 한자로 駕龍, 伽龍, 加龍 등으로 썼으나, 지금은 가룡(加龍)으로 통일되었다. 1986년 용태리에서 분동되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구전되기로는 진주지역에서 피난하여 상리면 모종골로 온 주민이 씨족(氏族)싸움에 밀리어 이곳에서 산능선을 타고 남으로 내려와 정착하면서부터 라고 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함안조씨, 능주구씨, 경주이씨, 분성배씨, 성주배씨, 경주김씨, 평산신씨, 선산이씨, 전주이씨, 남원양씨 등이다. 마을에는 임란 때의 사책지(射柵地)가 있다.

### 1) 마을

- ◎ 가룡개(가룡포) : 중촌 남서쪽에 있는 마을
- ◎ 돌끝 : 밀개 동쪽에 있는 마을로 바닷가로 쭉 내밀어 있어서 산을 돌아서 간다고 함
- ◎ 삼태골(삼태동) : 중촌 동쪽에 있는 마을
- ◎ 중촌(아랫수대, 하화대, 하수대) : 용태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수양리의 상화대 아래쪽이 됨
- ◎ 하중촌(下中村) : 중촌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한질가(한질골) : 중촌 북쪽 큰길가에 있는 마을

### 2) 산

- ◎ 똥매 : 삼태동 남쪽에 있는 산으로 들 가운데 외따로 있음
- ◎ 해이탕곰탕이 : 쟁이바구 남쪽에 있는 산으로 바닷가에 있는데, 산 밑에 해이탕(구덩이를 파고 바닷물을 길어다 넣은 뒤에 불에 달군 돌을 넣어서 물을 덥혀서 그 물에 목욕을 하는 탕)이 있었음

### 3) 들, 논

- ◎ 구릉들 : 중촌 동쪽에 있는 들

- ◎ 대밭등들 : 대밭등 밑에 있는 들
- ◎ 삼태골 보안들 : 삼태골 서쪽에 있는 들로 삼태골 보안쪽이 됨

4) 골

- ◎ 까막골 : 삼청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딱밭골 : 중촌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닳나무가 많았음
- ◎ 불목골 : 가룡개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산짓골 : 중촌 뒤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재를 지냈다고 함
- ◎ 삼청골 : 삼태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싱복골 : 삼태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안골 : 가룡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채봉골 : 삼태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한짓골 : 중촌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한 집이 살았다고 함

5) 고개

- ◎ 가룡갯재 : 하중촌에서 가룡개로 가는 고개
- ◎ 구들밭재 : 돌골 동쪽에서 삼산면 장치리 아릿장백으로 가는 고개로 구들바우가 있음
- ◎ 독구재 : 용태리에서 학림리의 독골로 가는 고개
- ◎ 밀재 : 삼태동에서 삼산면 정치리로 가는 고개
- ◎ 작은가룡갯재 : 가룡개에서 학림리 도곡으로 가는 고개로 가룡갯재보다 작음

6) 기타

- ◎ 가룡개 : 가룡포에 있는 개
- ◎ 구들바우 : 구들밭재에 있는 바위로 양지쪽에 있어서 방구들처럼 따뜻하다고 함
- ◎ 논개 : 가룡개 동북쪽에 있는 개로 논이 있음
- ◎ 대밭등 : 중촌 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대나무 밭이 있음
- ◎ 밀개 : 삼태동 동남쪽에 있는 개
- ◎ 불목개 : 가룡개 서쪽에 있는 개
- ◎ 쟁이바구 ; 삼태동 남쪽 뚝매에 있는 바위로 쟁이(키) 모양리라고 함

#### 4. 송천리(松川里)

송천리는 1914년 회룡·목개·평촌·고울개·모래치를 병합하여 송천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송천1구·송천2구·자란의 3개 마을이 있다.

송천1구는 송천리가 분동되어 송천1, 2구로 나뉘었다. 송천리는 마을 앞에 솔섬(松島)이 있고 마을에 큰 내(川)가 흐르고 있어 송내라 하였으며 한자화 되면서 송천이 되었다. 마을은 약 360년 전에 전주최씨의 문성공 자손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 뒤에 분성배씨가 옆 마을에 입촌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마을 뒤 좌이산의 능맥이 좌·우로 폭넓게 쌓인 준령사이에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앞바다에는 유인도인 자란도와 무인도인 솔섬·늑섬·만호섬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분성배씨, 전주최씨, 인동장씨, 김녕김씨, 죽산박씨, 안동권씨, 동래정씨 등이다. 마을에는 좌이산봉수지, 송천리 석관묘가 있다.

자란도의 지명유래는 두 가지가 전해오고 있다. 붉은 난초가 섬에 많이 자생하였다 하여 자란(紫蘭)이라 하며, 섬의 형세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자란(自卵)으로도 부른다는 것이다. 지금은 자란도(紫蘭島)로 통일되었다. 자란도에 사람이 살게 된 시기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섬에는 읍포와 사포 두 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읍포마을은 옛날 고을원이 있었다고 하여 읍포라 하였으며, 사포는 모래사장이 있었다하여 사포라 하였다고 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합천이씨, 전주이씨, 평산신씨, 파평윤씨 등이다.

송천2구는 1984년 지포와 평촌마을을 병합하여 송천2구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은 내지포와 외지포로 연못과 같은 포구로 형성되었다. 200년 전 태풍과 해일로 사석(沙石)과 진흙으로 매립되어 가옥이 들어설 수 있는 대지(垜地)가 조성되었는데 이때부터 주민이 정착했다. 마을 남쪽에는 산성산이, 북쪽에는 정박산이 있고, 마을 뒤로 좌이산이 병풍처럼 솟아 있다. 마을 앞은 자란만에 임하며 만이섬과 멀리 삼산면의 와도가 있다. 현재 고성이씨, 경주김씨, 김녕김씨, 밀양박씨, 분성배씨, 청송심씨, 파평윤씨, 경주이씨, 창녕조씨, 광산탁씨, 김해허씨 등이다.

##### 1) 마을

- ◎ 고울개(향포) : 자란도에 있는 마을
- ◎ 도룡곡(道龍谷, 회룡) : 송내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모래치(사티) : 고울개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목개(향포) : 도룡곡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밭섬 : 목개 남쪽에 있는 마을
- ◎ 송내(송천리) : 솔섬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 짐
- ◎ 평촌(坪村) : 밭섬 서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메뚜기이망 : 평촌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지형이 메뚜기 이망(이마)모양이라고 함
- ◎ 좌이산(左耳山) : 평촌 서북쪽에 있는 산

## 3) 섬

- ◎ 녹섬(늑도) : 목개 남쪽에 있는 섬
- ◎ 마래섬 : 평촌 동북쪽에 있는 섬으로 메뚜기의 이마 모양이라고 함
- ◎ 솔섬 : 자란고 서북쪽에 있는 섬
- ◎ 육도(陸島, 육섬) : 죽서 남쪽에 있는 섬
- ◎ 자란도(紫蘭島, 自卵島) : 솔섬 동남쪽에 있는 섬으로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함
- ◎ 장진서(長津嶼) : 솔섬 동쪽에 있는 섬
- ◎ 죽서(竹嶼) : 장진 서남쪽에 있는 섬

## 4) 골

- ◎ 갈밭골 : 평촌남쪽에 있는 골짜길 갈대가 많다고 함
- ◎ 맹낭골 : 평촌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사랑골 : 회룡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서짓골 : 송내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재가 있었음
- ◎ 솟골 : 사랑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솟을 구웠다고 함
- ◎ 여시밭골 : 서짓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여시바우가 있음
- ◎ 응낙골 : 송내 남쪽에 있음
- ◎ 정지낭골 : 평촌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정자나무가 있었음

## 5) 고개

- ◎ 당산재 : 내촌 서쪽에 있는 고개로 당산제를 지냄
- ◎ 명도고개 : 평촌에서 동화리의 큰골로 가는 고개

◎ 불칼재 : 평촌 서남쪽에 있음

6) 기타

◎ 수문여 : 목개 남쪽에 있는 여로 바다 밑에 깊숙이 있다고 함

◎ 약재미 : 평촌 마을 앞 언덕 바닷가에 있는 샘으로 나환자가 이 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다고 함

◎ 여시바우 : 여시밭골에 있는 바위로 밑에 여시굴이 있다고 함

◎ 장군여 : 솔섬 동쪽에 있는 여로 옛날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주둔하였다고 함

◎ 짐치독걸 : 평촌 남쪽에 있는 바위로 김칫독(항아리) 모양이라고 함

◎ 힌다리(호월) : 송내 서남쪽에 있는 너설로 흰빛이라 함

5. 오방리(梧芳里)

오방리는 하나의 법정리로 형성된 마을이다. 구전으로는 머귀방을 오방(梧芳)이라 하였다고 하며, 혹자는 오방사(梧芳寺)가 있었다 하여 이를 마을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자연 취락으로 본동과 됴미·가리미·장전걸 등이 있다. 마을의 형성 연대는 기록이 없어 자세하지는 않다. 다만 앞산 독메기슭에서 석일(石鑑)과 석촉(石鑢) 등이 출토되었고 마을 주변 논·밭에서 선사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석묘와 기와 파편 등을 고려할 때 선사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전주이씨, 고성박씨, 함안이씨, 청송심씨, 밀양박씨, 성산이씨, 안동김씨, 경주김씨, 김해김씨, 전주최씨, 경주최씨, 진양강씨, 김녕김씨, 동래정씨, 분성배씨 등이다. 마을에는 오방리지석묘와 고분이 있다.

1) 마을

◎ 가르미 : 댜미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가르미기 밭이 됴

◎ 댜미(댜미기) : 댜매 북쪽에 있는 마을로 바위댜미 밭이 됴

◎ 머귀댜미(오방리) : 하일면 지역으로 더귀나무가 댜았으므로 머귀댜미 또는 오방, 오댜이라고 함

◎ 북도래 : 어댜이 남쪽에 있는 마을

2) 산

◎ 해미댜이 : 가르미기 서북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마당배미 : 댄미 앞에 있는 논으로 타작마당이 있었음
- ◎ 자지방이 : 국시밭골 북쪽에 있는 들로 송천리의 좌이산 밑이 됨. 괴방골의 지형이 괴(고양이)의 형국으로 되었는데 이곳은 고양이가 잡아먹을 쥐가 많은 형국이라 함
- ◎ 장구배미 : 진상골에 있는 논
- ◎ 집앞들 : 오방 앞에 있는 들
- ◎ 큰들 : 똥매 동쪽에 있는 큰 들

## 4) 골

- ◎ 가르미깃골(가르막골) : 가르미기 밑에 있는 골짜기
- ◎ 괴방곡(槐坊谷, 괴방골) : 옥대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괴(고양이)의 형국이라고 함
- ◎ 국시밭골 : 오방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굴골 : 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굴이 있음
- ◎ 대밭골(죽전골) : 옥대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로부터 대나무가 많았다고 함
- ◎ 도독골 : 가르미기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등넘골 : 오방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등성이 너머가 됨
- ◎ 서르태골 : 서르태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옥대골(옥대곡) : 서르태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진상골 : 오방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등넘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가르미기 : 댄미 동쪽에서 송천리 송내로 가는 고개
- ◎ 대밭골재 : 대밭골에서 중곡 서북쪽으로 가는 고개
- ◎ 반룡티(서르태, 서리재, 서리개, 상티) : 오방 북서쪽에서 하이면 와룡리로 가는 고개
- ◎ 아룡재(용문암재) : 댄미 서북쪽에서 하이면 와룡리의 용문암으로 가는 고개
- ◎ 월아티 : 오방 남동쪽에서 하이면 월흥리의 월아로 가는 고개
- ◎ 중곡(중티) : 오방 동북쪽에서 학림리로 가는 고개

## 6) 기타

- ◎ 가르미기새미 : 가르미기 밑에 있는 샘

- ◎ 국시바우 : 국시밭골에 있는 바위
- ◎ 독산교(獨山橋) : 오뱅이 동쪽에 있는 다리
- ◎ 똥맷등 : 똥매 앞 들가운 데 있는 등성이
- ◎ 쌍당이바우 : 오방 남쪽에 있는 바위로 송천리의 좌이산 중허리에 나란히 서 있음
- ◎ 오방교(梧芳橋) : 오방천에 놓인 다리
- ◎ 장선걸새미 : 똥매 앞에 있는 샘으로 장승이 있었다고 함
- ◎ 진등뻘덕 : 진등 위쪽에 있는 버덩
- ◎ 큰새미 : 오방 북쪽에 있는 샘
- ◎ 탕건바우 : 오방 남동쪽에 있는 바위로 탕건처럼 생겼다고 함

## 6. 춘암리(春岩里)

춘암리는 1914년 장춘(長春)·신기(新基)·입암(立岩)을 병합하여 장춘과 입암의 이름을 따서 춘암리라 하였다. 일설(一說)에는 이 지역이 사계절 기후가 온화한 봄과 같다하여 봄 춘(春)자와, 선바위가 있다 하여 바위 암(岩)자를 따서 춘암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행정리로 춘암, 용암포, 맥전포의 3개 마을이 있다.

춘암마을은 춘암리를 분동하면서 당초에는 춘암과 신기를 합하여 춘암1구로, 맥전포와 입암을 합하여 춘암2구로 분동하였다가 1986년 맥전포를 분동하면서 춘암1구를 춘암으로 춘암2구를 입암으로 그리고 맥전포를 분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자연마을로 춘암동과 신기동마을이 있다. 마을의 형성 연대는 김해김씨가 임란을 전후 한 1660년경에, 뒤이어 1750년경에는 김녕김씨가 입촌하였다. 마을은 북쪽으로 좌이산의 양 줄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오방리에서 발원된 하천이 좌이산 서쪽을 돌아 춘암마을 동쪽을 흘러 자란만으로 흐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김녕김씨, 해주최씨, 진양강씨, 인동장씨, 수원백씨, 여양진씨 등이다. 마을에는 김해김씨와 김녕김씨 문중의 입촌 선대를 제향하는 재실이 있다.

용암포마을은 춘암리에서 분동된 행정리로 당초 맥전포와 입암을 병합하여 춘암2구로 하였다가 1986년 맥전포를 행정리로 분동하면서 입암으로 하였다가 1996년에 다시 용암포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초 마을 이름을 입암(立岩)으로 한 것은 마을 앞 바닷가에 있는 바위가 병풍처럼 서 있는 바위라고 하여 선바위 혹은 입암(立岩)이라 했기 때문이다.

마을이 형성된 년대는 구전으로는 김해김씨 삼형제가 입주하여 터를 잡았고 다음으로



진양강씨가 입촌하였으며, 이어 은진송씨, 함안조씨, 밀양박씨, 분성배씨 등 씨족들이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마을은 한려수도의 해역을 끼고 있는 어촌마을로 북쪽은 좌이산의 우뚝 솟은 필봉을 바라보고, 마을 앞은 안장섬을 건너 통영시 사랑면(島)을 바라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진양강씨, 밀양박씨, 함안조씨, 분성배씨, 은진송씨, 평산신씨, 천안전씨 등이다. 마을에는 은진송씨 문중의 재실과 함안조씨 문중의 재실, 김해김씨 문중의 재실이 있다.

맥전포마을은 춘암리의 행정마을로 북쪽 외룡산 향로봉에서 뻗어 내려온 줄기가 이곳 바닷가에서 주산을 이루면서 동쪽으로 하이면 입암을 경계로 풍수지리상 청룡을 이루고, 서쪽으로 하이면 입암을 경계로 백호를 이루고 있다. 또 마을 앞바다에 방파제가 길게 설치되어 주작을 이룬 형상이다. 마을 앞의 농가섬은 옛날 선암 사람들이 손바닥위에 놓인 구슬 같다고 하여 농가섬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창녕조씨, 진양정씨, 밀양박씨, 김해김씨, 나주임씨, 수원백씨, 김해허씨, 분성배씨, 김녕김씨, 고성박씨 등이다. 마을에는 은진송씨 문중의 재실과 함안조씨 문중의 재실, 김해김씨 문중의 재실이 있다.

### 1) 마을

- ◎ 맥전포(麥田浦, 보르밭개) : 선바우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선바우(입암) : 춘암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신기(新基) : 선바우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장춘(長春) : 신기 서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다복산 : 춘암마을에 있는 산. 이 산에 묘를 쓰면 자손이 잘 된다고 하여 이렇게 부름
- ◎ 아랫야닥 : 신기 남동쪽에 있는 산
- ◎ 용와산(龍臥山) : 용와들 앞에 있는 산

### 3) 들, 논

- ◎ 갯들 : 신기 남쪽에 있는 들
- ◎ 납닥배미 : 정춘 서쪽에 있는 논으로 지형이 낮다고 함
- ◎ 널구리들 : 신기 서쪽에 있는 들로 너구리가 살았다고 함
- ◎ 불목들 : 북돌골 동쪽에 있는 들

- ◎ 새들 : 장춘 서남쪽에 있는 들로 새로 만든 들
- ◎ 솔밭밀들 : 신기 남서쪽에 있는 들로 솔밭 밀이 됨
- ◎ 시기배미 : 납담배미 밑에 있는 논으로 땅이 매우 나빠 이 논외 수확을 보면 다른 논 외 풍흉을 알 수 있다고 함
- ◎ 용왓들(용와평) : 장춘 남쪽에 있는 들로 용와산 밑이 됨
- ◎ 장구배미 : 장춘 남쪽에 있는 논으로 장구처럼 생겼음
- ◎ 재갈들 : 새들 남쪽에 있는 들로 자갈이 많다고 함
- ◎ 큰들 : 장춘 서쪽에 있는 큰 들

#### 4) 골

- ◎ 강승골(강생골, 갱생골) : 움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나녀 : 선바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대골(죽골) : 강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득정곡(得頂谷, 득정골) : 월흥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미꼬랑골 : 득정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북독골 : 장춘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오방리와 경계가 됨
- ◎ 선바우(입암골, 입암곡) : 마안개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어드방골 : 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깊숙하여 대낮에도 어둡다고 함
- ◎ 유진터 : 맥전포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왜적과 싸웠다고 함
- ◎ 청목골 : 유진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희룡장이 : 선바우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 5) 고개

- ◎ 대골재 : 대골에 있는 고개
- ◎ 새터재 : 장춘에서 신기로 가는 고개
- ◎ 월흥재 : 춘암리에서 하이면 월흥리로 가는 고개
- ◎ 진안재 : 장춘에서 동화리 큰골로 가는 고개로 동화리에 있던 옛 진영의 인쪽이 된다고 함
- ◎ 타래고개(재) : 춘암리에서 하이면 월흥리로 넘어가는 고개

#### 6) 기타

- ◎ 갯들보 : 갯들에 물을 대는 보

- ◎ 광여 : 입암골 서남쪽에 있는 여
- ◎ 구구렁비렁 : 농바구 서쪽에 있는 너설로 지형이 굽었다고 함
- ◎ 널구리보 : 널구리들에 물을 대는 보
- ◎ 망마이집 : 선비렁 서쪽에 있는 너설로 명매기 집이 있었다고 함
- ◎ 선비렁 : 구구렁비렁 위쪽에 있는 너설
- ◎ 송장개 : 선바우 남쪽에 있는 개
- ◎ 안도(鞍島, 안장섬, 장구섬, 질매섬) : 선바우 동남쪽에 있는 섬. 장구나 길마처럼 생겼음
- ◎ 질매섬(일명 : 장구섬) : 춘암마을 앞에 있는 작은 섬. 섬의 형상이 장구처럼 생겼다고 함

## 7. 동화리(東禾里)

동화리는 하나의 법정리로 형성된 마을이다. 1924년 하일면의 동화리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동화리를 솔복개(松浦)라고도 함은 임진왜란 때 수군통제사의 통제구역으로 산림이 우거져 아름다리 노송이 바닷가를 뒤덮고 있어 솔복개, 송포동이라고 한 데서 기인한다. 그 후 분동으로 동명을 송학동(현·동문·대구막·간이골)과 청학동(큰골)으로 불렀으며 합방 이후에는 구진 또는 동화라고도 하였는데 구진이라는 동명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마을은 1240년경에 밀양박씨가 1630년경에는 남원양씨와 동래정씨가 입촌하면서 형성되었다. 마을은 동쪽으로는 자란만에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좌이산을 뒤로하고, 남쪽은 통영시 사랑면(島)을 마주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분성배씨, 남원양씨, 동래정씨, 파평윤씨, 은진송씨, 의령남씨, 영양천씨, 밀양박씨 등이다. 마을에는 범계(梵溪), 소을비포성지가 남아 있다.

### 1) 마을

- ◎ 구소을비포(舊所乙非浦, 솔복개, 구진태) : 동문 북쪽에 있는 마을
- ◎ 간력(間力)골 : 큰골 남쪽에 있는 마을
- ◎ 대곡(大谷, 큰골, 북섬, 토기섬) : 만아섬 서남쪽에 있는 섬으로 지형이 북처럼 생겼다고 하며, 혹자는 토기처럼 생겼다고도 함
- ◎ 동문(東門) : 동화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진영성(鎭營城)의 동문이 있었음
- ◎ 옷땀 : 골땀 위쪽에 있는 마을

2) 산

- ◎ 기꽃면딩(기꽃은면딩) : 대구만 남쪽에 있는 산. 왜적이 침입하여 산 위에 기를 꽂았다고 함
- ◎ 대밭골 : 진앞골 남쪽에 있는 산
- ◎ 망치산 : 동문 남쪽에 있는 산으로 왜적의 망을 보았다고 함
- ◎ 매화산(梅花山) : 간력골 동쪽에 있는 산
- ◎ 미영밭산 : 솔북개 북쪽에 있는 산으로 무명밭이 있었다고 함
- ◎ 안골면당 : 안골 뒤쪽에 있는 산
- ◎ 장등산 : 시릿골 남쪽에 있는 산으로 등성이 위쪽이 됨
- ◎ 진앞골 : 동문 남쪽에 있는 산으로 옛 진영성의 옆이 됨

3) 들, 논

- ◎ 시릿골들 : 시릿골에 있는 들

4) 골

- ◎ 명덕골 : 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물미기 : 시릿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밑에서 샘물이 남
- ◎ 산짓골 : 간력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재를 지냈다고 함
- ◎ 송장골 : 간력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송장을 버렸다고 함
- ◎ 시릿골 : 동문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시루처럼 생겼다고 함
- ◎ 안골 : 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5) 고개

- ◎ 대구만재 : 동화에서 대구만으로 가는 고개
- ◎ 새터곡 : 간력골에서 춘암리의 새터로 가는 고개

6) 기타

- ◎ 가매등 : 동문 동남쪽에 있는 등성이
- ◎ 가매섬(거북섬) : 동문 남쪽에 있는 섬으로 옛날 거북이가 육지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선원이 정지시켜 섬으로 변화였다고 하여 거북섬이라 한다고 전함. 또 옛날 소금 가마를 걸어놓고 소금을 제조한 곳이라 하여 가마섬이라고도 부름

- ◎ 구소을비포창터(舊所乙非浦倉터) : 솔북개에 있는 창고 터
- ◎ 동헌(東軒)터 : 솔북개에 있는 동헌 터
- ◎ 만아섬(晩雅)섬 : 골땀 동남쪽에 있는 섬
- ◎ 명밭개 : 미영밭굄 밑에 있는 개
- ◎ 선창거리 : 동문 서쪽에 있는 방과제
- ◎ 솔등 : 간력골 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솔이 많았다고 함
- ◎ 어스름개 : 동문 서쪽에 있는 개

## 제 14절 회화면(會華面 Hoehwa-myeon)

군의 동북부에 있는 면이다. 동쪽과 북쪽은 창원시 진전면, 서쪽은 구만면에 접한다. 남쪽은 당항만에 면해 있다. 금봉산(309m), 방화산(175m), 한밭안산(128m) 등 구릉성 산지가 면의 대부분을 이루고, 산지 사이로 배둔천·금봉산천·어신천 등 소하천들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당항만으로 이어진다. 경지는 이들 하천 연안에 분포한다. 임진왜란 때 두 차례의 해전에서 승리하였던 당항포 일대에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다. 현재 6개 법정리를 관할한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녹명향(鹿鳴鄉)에 속하였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고성에는 향이 둘이니 곡산과 녹명이다. 지금은 없어지고 직촌(直村)이 되었다.” 고 수록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녹명향은 현 북쪽 30리 지점에 있다.” 고 한다. 『호구총수』와 『여지도서』에는 회현면(會賢面)을 지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경상도읍지』에 여전히 회화면으로 기록하였으나, 『조선지리지』와 『구한국행정구역일람』에 회현면과 화양면(華陽面)을 구분하고 있는데, 회현면은 녹명(鹿鳴)·자소(資所) 등 10개 동리, 화양면은 배둔(背屯)과 당항(當項) 2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신구대조』에 따르면 1914년 앞의 두 면과 구만면 덕암(德岩) 일부를 합쳐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면 이름을 회화면으로 바꾸었다. 『광여도』에는 지명 회현면 옆에 배둔역(背屯驛)과 통창(統倉)을 표시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배둔역은 현 북쪽 27리 지점에 있다.” 고 하였다. 통창은 통제영에 받치던 세미(稅米)를 보관하던 곳으로 관내 여러 곳에 설치된 외창(外倉)을 통칭하는 것이다.

### 1. 배둔리(背屯里)

배둔리는 본래 화양면 지역으로 지형이 배가 멈춘 형국과 같다하여 이렇게 불렸다. 또한 각지의 보부상(裸負商)들이 모여들어 정착한 마을이라 하여 배둔이로 불렀다고도 한다. 배둔리는 1948년 배둔 1·2구의 행정동으로 분동되었다가, 1974년에는 1·2구를 동서남북

순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붙여 행정동명을 관인(寬仁), 안의(安義), 가례(嘉禮), 양지(良智)등의 4개 행정 동으로 분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인마을은 배둔리의 동쪽에 위치하여 옛날부터 각지의 행상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1974년에 4개의 행정동으로 분동되면서 관인이라 하였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고성현으로 개칭될 당시 화양면의 배둔으로 존치한 바 있으며, 맨 먼저 입촌한 성씨는 칠원제씨이고 다음으로 창원구씨, 밀양박씨 등 제씨가 입촌하였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밀양박씨, 전주이씨, 창원구씨, 칠원제씨, 김해김씨, 인동장씨, 김녕김씨 등이다.

가례마을은 배둔의 중심지에 위치한 마을로 배둔리의 남쪽에 있어 예(禮)자를 붙여 가례동이라 하였다. 주민이 입촌한 기록으로는 1590년경에 창원구씨, 김해김씨, 밀양박씨, 칠원제씨, 창원황씨 등 제성씨가 입촌하였다고 한다. 마을은 배둔의 남쪽에 위치하여 일부 바다에 접하고 있으며 마을 남쪽에는 강점기 때에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들판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밀양박씨, 진양강씨, 김녕김씨, 창원구씨, 전주이씨, 창원황씨, 진양정씨, 칠원제씨, 인동장씨, 함안이씨, 전주최씨, 진양하씨 등이다.

양지마을은 배둔리의 북쪽에 있다 하여 인·의·예·지의 순서에 의거 양지마을로 이름하였다. 마을은 배둔의 북쪽에 위치하여 방화산 줄기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삼덕들판을 끼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창원구씨, 밀양박씨, 김해김씨, 고성이씨, 성산이씨, 진양강씨, 함안조씨, 경주김씨, 인동권씨 등이다. 마을에는 방화산 계곡에서 옛날부터 음력 정월 보름에 산신제(동신제)를 지냈으며 1992년부터 배둔리 4개동민이 합의하여 방화산 산신각을 건립하여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배둔리 성터가 있다.

안의마을은 1974년 행정동으로 분동되면서 배둔의 서쪽에 위치하였다 하여 의(義)자를 붙여 안의마을이라 하였다. 마을은 배둔의 서쪽에 위치하여 마암면과 경계를 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전주이씨, 전주최씨, 밀양박씨, 달성배씨, 창원구씨, 창녕조씨, 진양강씨, 창원황씨, 수원백씨, 경주정씨 등이다.

### 1) 마을

◎ 군진(軍津) : 배둔 서남쪽에 있는 마을

◎ 배둔(背屯, 땅매) : 지형이 배가 멈춘 형국으로 배둔이라 함. 또 도부꾼 행상들이 모여 형성되었다 하였다고도 함

◎ 새터 : 배둔 서북쪽에 있는 마을

2) 산

- ◎ 땅매산(똥매) : 배둔 남동쪽에 있는 산으로 당집(서낭당)이 있다 함
- ◎ 매산바구 : 매산바구가 있는 산

3) 들, 논

- ◎ 가마골들 : 가마골에 있는 들
- ◎ 공신들 : 배둔 남쪽에 있는 들
- ◎ 나드랏들 : 군진 동쪽에 있는 들
- ◎ 내기(內基, 안터) : 땅매 동쪽에 있는 들
- ◎ 돌들 : 군진 북쪽에 있는 들
- ◎ 마구들 : 가례마을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임진왜란 때에는 바다로 일제 때 일본인이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들판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마구 거두어 갔다고 하여 이렇게 부름
- ◎ 섬들 : 공신들 동쪽에 있는 들
- ◎ 용당들 : 섬들 동쪽에 있는 들로 용못이 있었다 함
- ◎ 장구배미 : 배둔 서쪽에 있는 들
- ◎ 진때배미 : 장구배미 남쪽에 있는 긴 논

4) 골

- ◎ 가마골 : 방화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마처럼 생겼다고 함
- ◎ 개장골 : 수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남챙이집골 : 방화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남챙이란 사람의 집이 있었다고 함
- ◎ 도둑골 : 액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산짓골 : 방화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제를 지냈다고 함
- ◎ 앳골 : 양반무덤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양반무덤골 : 장수박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양반 정씨의 무덤이 있다고 함
- ◎ 암생이집골 : 배둔 북쪽 방화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핏골 : 배둔 동쪽에 있는 골짜기

5) 기타

- ◎ 가마골보 : 가마골에 물을 대는 보
- ◎ 공신보 : 공신들에 물을 대는 보

- ◎ 나드릿보 : 나드릿들에 물을 대는 보
- ◎ 돌보 : 돌들에 물을 대는 보
- ◎ 매산바구 : 핏골 동쪽에 있는 바위
- ◎ 배둔교(背屯橋) : 배둔 서남쪽에 있는 다리로 1952년에 놓음
- ◎ 배둔잠수교(背屯潛水橋) : 배둔 남쪽에 있는 다리
- ◎ 불막등 : 어둔골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수등 : 어둔골에 있는 등성이
- ◎ 새판굴 : 군진 북쪽에 있는 굴
- ◎ 용당보 : 용당들에 물을 대는 보
- ◎ 자소잠수교 : 배둔 남쪽에 있는 다리
- ◎ 잡안개 : 배둔리 남쪽에 있는 해안지. 임진왜란 때 왜병의 도망병을 잡은 곳이라 하여 붙여 짐
- ◎ 진등 : 배둔 서남쪽에 있는 긴 등성이

## 2. 당항리(堂項里)

당항리는 본래 화양면 지역으로 마을 지형이 닭의 목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닭목이라 하였다가 당목이라 하였다. 1914년 회화면의 당항리(법정리)로 하였다. 마을의 형성된 연대는 1663년경에 경주정씨가 입촌하고, 다음으로 창원구씨가 1693년경에, 제주고씨가 1723년경에 입촌하면서 형성되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경주정씨, 창원구씨, 김해김씨, 제주고씨, 전주이씨, 밀양박씨, 달성배씨, 경주이씨, 칠원제씨, 충주지씨 등이다. 마을에는 이충무공전승지와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있다.

### 1) 마을

- ◎ 닭목(당항) : 닭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 닭목이 변하여 당목이 되었다고 함
- ◎ 새터(신기) : 당항 동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독점 : 수바구 서쪽에 있는 산으로 독을 굽던 곳이 있다 함
- ◎ 동네갓 : 당항 동쪽에 있는 산
- ◎ 수바구(우암) : 당항 동북쪽에 있는 산



◎ 쥐날끝(장진) : 당항 동쪽에 있는 산으로 지형이 쥐의 모양이라고 함

◎ 주잠터 : 독점 북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핏골 : 당항 북쪽에 있는 들

◎ 학골 : 당항 동북쪽에 있는 들

### 4) 골

◎ 개강골 : 당항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논골 : 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서깃골 : 큰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재가 있었다고 함

◎ 용숫골 : 당항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이개밭골 : 증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선산 이씨의 묘가 있다고 함

◎ 증산골 : 당항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청승이(청송) : 당항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큰골 : 이개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큰밭골 : 당항 북쪽에 있는 골짜기

◎ 핏골 : 당항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으로 임진왜란 때 당항포 해전에서 이충무공의 전략에 의하여 일망타진된 해병들이 흘린 피가 골짜기를 흘러 피바다를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짐

### 5) 고개

◎ 수바구고개 : 수바구 밑에 있는 고개

### 6) 기타

◎ 강나루(당목나루, 나랏고재) : 당항 남쪽에 있는 나루

◎ 독점개 : 독점 밑에 있는 개

◎ 떼무덤 : 배둔리 경계지점에 있는 공동묘지로 임란 때 왜병들이 떼죽음을 당하여 묻혔다고 함

◎ 바가치날끝(백학날) : 당항 남쪽에 있는 등성이

◎ 범선등 : 배남고지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새터개 : 새터 앞에 있는 개
- ◎ 역끝 : 당항 남쪽에 있는 바위
- ◎ 용수골새미 : 용수골에 있는 샘으로 가물어도 물이 줄지 않으며 물맛이 좋았다고 함.  
용이 등천했다하여 기우제를 지냈다고도 함
- ◎ 조감선창 : 당항 동쪽에 있는 나무로 매우 깊어 조금 때에도 배를 댈 수 있다고 함

### 3. 봉동리(鳳東里)

봉동리는 본래 회현면 지역으로 1914년 자소(資所)와 동촌(東村)을 병합하여 이곳의 금봉산(金鳳山)과 동촌의 이름을 따서 봉동리로 하였다. 행정리로 자소(資所)와 금봉촌(金鳳村), 동촌(東村)의 3개 마을이 있다.

자소마을은 본래 회현면의 자소리로 존치하였다가, 1914년 회화면 봉동리에 속하였으며 봉동리를 행정동으로 분동하면서 자소라 하였다. 마을은 북쪽의 금봉산 줄기가 남으로 뺀 어 내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곶실, 한밭, 칭양골, 송개, 아랫골, 염분이 등 자연 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경주정씨, 창원구씨, 김해김씨, 제주고씨, 전주이씨, 달성서씨, 밀양박씨, 경주이씨, 칠원제씨, 충주지씨 등이다. 마을에는 금봉산고분군, 봉동리선사유적지, 응곡서당과 금봉재(金鳳齋), 봉산재(鳳山齋)가 있다.

금봉촌은 1992년 자소마을에서 행정리로 분동되면서 마을 뒷산인 금봉산을 따서 금봉촌이라 하였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1680년경부터로 경주이씨가 맨 먼저 입촌하였고 같은 시기인 1682년경에 김해김씨가, 1700년경에는 성산김씨가 입촌하면서 형성되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경주이씨, 김해김씨, 성산김씨, 전주최씨, 함안이씨, 인동장씨 등이다.

동촌마을은 1914년 봉동리의 동촌으로 존치하였으며, 1984년 봉동리의 동촌(행정리)이 되었다. 마을의 형성 시기는 1583년경부터로 밀양박씨가 맨 먼저 사부리에 입촌하였고, 그 뒤 남양방씨가 송개에 입촌하여 그곳을 박사부리, 방송개로 불렀으며 그 뒤 약 300년 전에 고성이씨와 경주이씨가 입촌하여 형성되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고성이씨, 밀양박씨, 경주이씨, 김해김씨 등이다.

#### 1) 마을

- ◎ 곶실(응곡) : 함밭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금봉산골(금봉산동) : 봉동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대밭땀 : 금봉산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
- ◎ 대전촌(한밭) : 응곡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동촌(불당골) : 한밭 동쪽에 있는 마을
- ◎ 무근땀 : 금봉산골 북편에 있는 마을
- ◎ 새땀 : 금봉산골 동쪽에 있는 마을
- ◎ 송개(성포) : 동촌 남쪽에 있는 마을
- ◎ 아깨골(아포) : 대전촌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아랫골(연자동) : 창양동 남쪽에 있는 마을
- ◎ 연분이(염부리) : 송개 남서쪽에 있는 마을
- ◎ 자소리 : 연자동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창양골(창양동) : 연자동 북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한밭안산 : 한밭 동쪽 앞에 있는 산

## 3) 들, 논

- ◎ 덧들 : 금봉산골 뒤에 있는 들
- ◎ 서마지기 : 금봉산골 남쪽에 있는 논
- ◎ 수통배미 : 한들 북쪽에 있는 논
- ◎ 열마지기 : 한들 남쪽에 있는 들
- ◎ 용의골들 : 밭등 동쪽에 있는 들
- ◎ 한들 : 금봉산 남쪽에 있는 들

## 4) 골

- ◎ 강창골 : 금봉산 동서쪽에 있는 골짜기
- ◎ 덕식골 : 강창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덩봉골 : 금봉산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덩복새(뚝부기)가 많다고 함
- ◎ 무짓골 : 곰실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무제(기우제)를 지냈다고 함
- ◎ 석전골 : 금봉산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수통골 : 금봉산골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 ◎ 술집골 : 금봉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앵골 : 절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임생골 : 금봉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절골 : 금봉산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 조흥골 : 금봉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 큰골 : 금봉산골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5) 고개

- ◎ 독징곡 : 금봉산골 북쪽에 있는 고개
- ◎ 아랫골재 : 아랫골에 있는 고개

6) 기타

- ◎ 곰실못 : 곰실에 있는 못
- ◎ 금봉산교 : 금봉산동 남쪽에 있는 다리
- ◎ 노장군미 : 금봉산골 서북쪽에 있는 묘로 노장군의 무덤이라 함
- ◎ 상투바구 : 금봉산골 북쪽에 있는 바위
- ◎ 소풀섬과 부추골 : 동촌마을 앞에 있는 조금만한 섬으로 이곳에 소풀(부추)이 많이 자생하여 그 종자를 캐 부추골에 옮겨 심어 부추가 많이 생산되었다 하여 부추골이라 함
- ◎ 약새미(안산새미) : 한밭 안산에 있는 샘
- ◎ 안산물탕 : 덕시골 산기슭에 있는 샘으로 옛날 나병환자가 이 샘물을 마시고 나병을 고쳤다고 함
- ◎ 임생골너드렁 : 임생골에 있는 너설
- ◎ 자소저수지(자소포강) : 자소리 동북쪽에 있는 저수지
- ◎ 절골너드렁 : 절골에 있는 너설
- ◎ 쫄새바구 : 금봉산골 남쪽에 있는 바위
- ◎ 흙바구 : 금봉산골 서북쪽에 있는 바위

4. 어신리(語新里)

어신리는 본래 회현면 지역으로 1914년 어선(漁船), 석천(石川), 산북(山北)을 병합하여 어신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석전(石田), 산북(山北), 어선(語善)의 3개 마을이 있다.

석전마을은 임란 전까지 석천사(石川寺)란 큰 절이 있어 석천이라 부르다가 일제 때 마을에 돌과 밭이 많다하여 석전(石田)으로 개칭하였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임란 후에 김

해김씨가 입촌하여 집성촌으로 형성되었다.

산북마을은 구전되기로 옛날에 산이 움직여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한 아낙이 "산이 걸어 간다."고 외쳤더니 산이 그 자리에 멈추었는데 마치 소가 누워 있는 형태로 변하여 와우산(臥牛山)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 뒤로 마을이 산 뒤에 있다 하여 산뒤(山後)라 부르다가, 조선시대 때 산북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은 병자호란 때 청송심씨가 입촌하였고 뒤이어 김녕김씨가 덕농포, 지금의 덕림에 입촌하면서 형성되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청송심씨, 김녕김씨, 김해김씨, 안악이씨, 성산이씨, 함안이씨, 전주이씨, 달성서씨, 김해허씨, 영암김씨, 광산김씨, 수원백씨 등이 있다. 마을에는 영모재(永慕齋), 덕산재(德山齋)가 있다.

어선마을은 지형이 배 모양이어서 어선(漁船)이라 하였으나 1914년 어선(語善)으로 변경하였다. 자연 취락으로 옛날에는 윗땀, 아랫땀, 셋땀으로 불리 왔으나 지금은 원촌, 상촌, 중촌으로 부르고 있다. 마을은 창원시 진전면과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당항만을 경계로 동해면과 면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파평윤씨, 경주이씨, 밀양박씨, 경주최씨, 함안이씨, 경주정씨, 칠원제씨, 김녕김씨 등이다. 원촌마을 개무실 바다 쪽 넓은 반석 위에는 공룡발자국이 있다.

## 1) 마을

- ◎ 덕농개(덕촌) : 산부중땀 동쪽에 있는 마을
- ◎ 돌밭(신복리, 석전) : 산북중땀 서남쪽에 있는 마을
- ◎ 산북 : 어신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산북아래땀(산북하촌) : 산북중땀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산북안땀 : 산북 북쪽, 안쪽에 있는 마을
- ◎ 산북중땀 : 산북안땀 남동쪽에 있는 마을
- ◎ 수청거리(잉거리, 임길, 응길) : 신복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어선새땀 : 산북아래땀 남쪽에 있는 마을
- ◎ 어선아래땀 : 어선중땀 아래쪽에 있는 마을
- ◎ 어선중땀 : 어선새땀 아래쪽에 있는 마을

## 2) 들, 논

- ◎ 한들 : 석전 동남쪽에 있는 들

3) 골

◎ 송골 : 산북아래땀 북쪽에 있는 골짜기

4) 고개

◎ 동촌곡 : 선전에서 봉도리 동촌으로 가는 고개

◎ 산북곡 : 산북리에 있는 고개

◎ 석전곡(석전재) : 석전 서쪽에 있는 고개

◎ 우비티(울비티, 우색티, 울비태) : 덕농개 동북쪽에 있는 고개로 호암산(도산천) 밑 이 됨

◎ 탐골고개 : 산북안땀에서 진전면 오서리 탐동으로 가는 고개

5) 기타

◎ 가막구리개 : 개무실개 서쪽에 있는 개로 가마솔 모양이라 함

◎ 개무실개 : 어선 아래땀 서쪽에 있는 개

◎ 마당바우 : 석전 북쪽에 있는 바위

◎ 범바구 : 석전 서북쪽에 있는 바위로 범모양을 함

◎ 송곳바구 : 마당바우와 범바구 사이에 있는 바위

◎ 수청거리 : 창원과 고성간 국도(구도)가 개설되기 이전에 조선시대 때 서울에서 통영 통제사로 부임하는 사또가 하룻밤을 지냈는데 이 지방의 명기가 수청을 들었다고 함

5. 삼덕리(三德里)

삼덕리는 본래 회현면 지역으로 1914년 신천(新川), 월계(月溪), 남진(藍津)을 병합하여 삼덕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리로 월계, 남진, 신천, 치명(雉鳴)의 4개 마을이 있다.

월계마을은 임란 후에 밀성박씨와 진양정씨가 살면서 남계(藍溪)라 칭하다가, 1680년경에 남진으로 분동하고, 동명을 월계동(月溪洞)이라 하였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1544년 경으로 가장 먼저 밀양박씨가 밀양에서 입촌하면서 부터이다. 마을은 서쪽은 냉천산과 안령산 능선을 경계로 구만면과 접해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밀양박씨 집성촌이다.

남진마을은 진영정씨의 남포공 곽(廓), 섬, 규(奎) 삼형제가 임란 때 왜적을 막아 지킨 곳이다. 지명은 마을 앞을 흐르는 시내인 남계와 나루터라는 의미에서 남진이라 하였다.

현재 진양정씨, 함안이씨, 청주한씨, 김해허씨 등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은 북쪽의 적석산과 동북쪽의 탑곡산을 경계로 창원시 진전면과 맞닿아 있으며 방말띠고개의 고성터널을 통하여 창원 방향의 갑문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정씨, 함안이씨, 청주한씨, 김해허씨, 밀양박씨, 경주이씨 등이다. 마을에는 삼충각(三忠閣)이 있으며 남진약수탕에 얽힌 전설이 구전되고 있다. 또 삼덕리 정종덕은 정씨동생화회문기(鄭氏同生和會文記)를 보존하고 있다.

신천마을은 약 400여 년 전인 1590년경에 성주도씨가 함양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내려오다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금봉산을 뒤로하고 앞을 흐르는 하천사이에 새로운 마을이 생겼다 하여 마을 명을 신천이라 하였다. 마을은 동쪽의 금봉산 줄기가 남북으로 뻗어 마을 뒤로 에워싸고 있고 마을 앞을 배둔천이 흐르고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성주도씨, 전주이씨, 경주정씨 등이며, 마을에는 봉덕재(鳳德齋)와 도씨 문중의 효행비와 송덕비(頌德碑)가 있다.

치명마을은 약 400여 년 전 임란 시에 피난민이 모여들었다 하여 둔지(屯地)라 불렀다. 치명이란 마을명은 마을 뒷산 형국이 평이 나는 모양과 같다 하여 붙여졌다. 마을이 형성된 연대는 약 200여 년 전으로 재령이씨가 함양에서 이주하여 정착한 후부터이며 뒤이어 정씨, 박씨, 배씨, 조씨, 이씨 등이 입촌하여 형성되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진양정씨, 재령이씨, 달성배씨, 밀양박씨, 전주최씨, 경주이씨, 김해김씨, 김해허씨 등이다.

### 1) 마을

- ◎ 남진(쪽나리) : 옥수암 동남쪽에 있는 마을
- ◎ 새내(신천) : 월계 남동쪽에 있는 마을
- ◎ 옥산골(옥수암) : 남진 서북쪽에 있는 마을
- ◎ 월계 : 삼덕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 ◎ 치명 : 신천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서젯갯 : 신천 북쪽에 있는 산

### 3) 들, 논

- ◎ 구릉들 : 동쪽에 있는 들

4) 골

- ◎ 난대실 : 월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 구장골(개마당골) : 남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다방골(다부랑갯골, 다부곡) : 월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버드실 : 월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옥수암골 : 옥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우거리 : 신천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한텃골 : 개마당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행소넛골 : 옥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5) 고개

- ◎ 구록재 : 옥산골 동북쪽에 있는 고개
- ◎ 노리목재 : 남진 동남쪽에 있는 고개
- ◎ 장명잇재(쟁맹잇재) : 큰골에 있는 고개

6) 기타

- ◎ 나발등 : 신천 동쪽에 있는 등성이
- ◎ 농바우 : 월계 북쪽에 있는 바위
- ◎ 담안샘(井) : 월계마을 입구에 있는 샘
- ◎ 말삼등 : 행소넛골 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철마가 있었다고 함
- ◎ 매방등 : 큰골 서쪽에 있는 등성이
- ◎ 반월대 : 월계 남쪽에 있는 대로 반월처럼 생겼다고 함
- ◎ 뱅풍바우 : 신천 북쪽에 있는 바위
- ◎ 버드실못 : 버드실에 있는 못
- ◎ 불목등 : 신천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불췌등 : 치명 북쪽에 있는 등성이
- ◎ 산제터 : 냉천산중의 여평(麗平)바위에 있는 데 매년 정월 초하루에 산제를 지냈다.  
현재는 이곳에서 매년 정월보름날 일출시에 동제를 지냄
- ◎ 삼덕교 : 삼덕천 북쪽에 있는 다리
- ◎ 삼덕천 : 옥수암 남쪽에 있는 내
- ◎ 새릿등(새알등) : 신천 동남쪽에 있는 등성이



- ◎ 아니잇등(안녕잇등, 안령잇등) : 큰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
- ◎ 약물터 : 금봉산 중허리 북쪽에 있는 약물터로 문동병에 좋다고 함
- ◎ 옥산교 : 옥산골에 있는 다리
- ◎ 진담부리: 진등 북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긴 담불이 있다 함
- ◎ 진등 : 월계 북쪽에 있는 긴 등성이
- ◎ 큰갯등 : 삼덕리에 있는 큰 등성이
- ◎ 큰솔밭 : 말삼등 동쪽에 있는 버덩
- ◎ 텅건바우 : 깃대봉에 있는 바위

## 6. 녹명리(鹿鳴里)

녹명리는 본래 회현면 지역으로 지형이 사슴이 우는 형상과 같다 하여 이를 동명으로 삼았다. 1914년 회화면의 녹명리(법정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은 면 소재지인 배둔의 서북쪽 약 2km 지점에 위치하여 있다. 현재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 청주정씨, 함안이씨, 현풍곽씨, 청주한씨, 창원구씨 등이다. 마을 입구에 약 300년 전에 심었다는 금 포구나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뒤 산기슭에 는 아들나무가 지금도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김해김씨 문중의 녹산재(鹿山齋)와 청주한씨(韓氏) 문중의 수남재(隨南齋)가 있으며 마을 뒤 골짜기 백록산에 있는 벼락바위 전설이 구전된다.

### 1) 마을

- ◎ 녹명(鹿鳴) : 녹명리의 으뜸가는 마을로 지형이 사슴이 우는 형국이라 함
- ◎ 상바골(승박) : 녹명 동남쪽에 있는 마을

### 2) 산

- ◎ 널빤지 : 널빤지가 있는 산
- ◎ 배락재 : 큰골 서쪽에 있는 산으로 배락바우가 있음

### 3) 들, 논

- ◎ 갯밭들 : 덧들 북쪽에 있는 들
- ◎ 돌들 : 상바골 남쪽에 있는 들로 돌이 많다고 함
- ◎ 덧들 : 덧들에 있는 들
- ◎ 상안들 : 수운배미 밑에 있는 들

- ◎ 서답들 : 녹명쪽에 있는 들
- ◎ 수운배미 : 청룡봇들 밑에 있는 논
- ◎ 청룡봇들 : 녹명 북쪽에 있는 들
- ◎ 포구남지이 : 녹명 서북쪽에 있는 들로 포구나무가 있었다고 함

4) 골

- ◎ 가장골 : 상바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 감남골 : 녹명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 당항골 : 큰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 도덕골 : 녹명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도둑이 숨어 살았다고 함
- ◎ 덧골 : 녹명 뒤에 있는 골짜기
- ◎ 큰감남골 : 감남골의 큰 골짜기
- ◎ 홍골 : 상바골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5) 고개

- ◎ 딘지곡 : 녹명 뒤쪽에 있는 고개
- ◎ 서남곡 : 녹명리에서 구만면 광덕리 덕암으로 가는 고개로 서나무가 있다고 함

6) 기타

- ◎ 갓밭보 : 갓밭들에 있는 보
- ◎ 구릉바구 : 구릉바구산에 있는 바위
- ◎ 널빤지 : 배락재 남쪽에 있는 버덩
- ◎ 녹맹이숲 : 녹명 남쪽 어귀에 있는 숲
- ◎ 돌보 : 돌들에 있는 보
- ◎ 덧들보 : 덧들에 물을 대는 보
- ◎ 배락바우 : 배락재에 있는 바위로 큰 바위가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음
- ◎ 서답보쏘 : 서답들에 물을 대는 소
- ◎ 포구남지이보 : 포구남지이에 물을 대는 보

## 편집후기

○ 고성군지는 1995년 발간된 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늘날의 20년의 변화는 과거 200년 동안의 그것과 같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다방면에 걸친 눈부신 발전과 변모의 축약인 것이다. 이 20년간의 고성의 달라진 모습과 변하지 않고 면면히 이어온 고성의 얼과 고성적인 것을 어떻게 군지에 녹이고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의 군지를 기초자료로 하되 거기에 오류가 있거나 불비한 부분은 문헌이나 사료를 근거로 수정을 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대폭 보완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고성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위원회에 집필을 의뢰를 하였다. 그러함에도 부족하거나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니, 먼 훗날 고성군지를 다시 발간할 경우 살펴보길 바라며 질정을 바라마지 않는다.

○ 2013년 늦은 봄이었을 것이다. 도충홍 고성문화원 원장께서 새로운 고성군지를 발간해야하니 동참해달라는 전화가 왔었다. 구상했던 역사소설 「조선의 잔다르크 월이」의 집필과 출판을 끝내고 훌가분한 상태였으나 막상 고성군지발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힘에 넘치기도 하여 고사를 했으나 결국 참여를 하게 되었다. 마침, 전직 이학렬 군수께서 예산의 물꼬를 터 주셨고 후임 하학열 군수에 이어 최평호 군수께서도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 지면을 빌려 세분의 군수께 고마움을 전한다. 더불어 최을석 고성군의회회장을 비롯한 고성군의회의원들께도 감사함을 전한다. 또한 언제나 묵묵히 격려와 용기를 주신 도충홍문화원장과 편찬위원, 집필위원들께도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린다.

○ 고성군지를 편집하는 내내 「사기」를 쓴 ‘사마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지집필위원 모두가 다 ‘사마천’ 일 수는 없다. 집필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만 갖추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 편찬위원들이 천거한 인물 중에는 ‘사마천’을 흉내라도 낼 줄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다.



# 固城郡誌

2015년 12월 20일 인쇄  
2015년 12월 31일 발행

- 편찬자 : 고성군지 편찬위원회
- 발행인 : 고성군수 최평호
- 편집인 : 고성문화원장 도충홍
- 연락처 : 고성문화원 055) 672-3895  
고성군 문화체육과 055) 670-2202
- 인쇄처 : 합동인쇄  
경남 진주시 남강로633번길 8  
055) 745-5390